서른 개의 관이 있는 섬

L’Île aux trente cercueils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19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6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Île aux trente cercueils » (1919)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Île aux trente cercueils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6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전쟁은 사회에 너무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화제가 되었던 '에르제몽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

1902년 6월의 어느 날, 브르타뉴의 고대 기념비 연구로 명성이 높았던 앙투안 드 에르제몽 씨는 딸 베로니크와 함께 부아 드 부아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네 명의 괴한이 그들을 습격했고, 지팡이로 얼굴을 강타해 에르제몽 씨는 그대로 쓰러졌다.

짧은 몸싸움 끝에, 에르제몽 씨의 간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딸 베로니크는 괴한들에게 끌려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름다운 베로니크'라고 불렀다. 괴한들은 그녀를 자동차에 던져 넣고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앞에서 세인트-클루 방향으로 급히 달아났다.

간단한 납치 사건이었다. 다음 날이면 누구나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알렉시스 보르스키 백작은 젊은 폴란드 귀족이었다. 평판은 좋지 않았지만 풍채가 좋았고, 왕족의 피를 이었다고 자칭했다. 그는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을 사랑했고, 베로니크도 그를 사랑했다.

베로니크의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보르스키는 여러 차례 모욕까지 당했다. 그는 베로니크의 동의 없이 그들을 위한 음모를 꾸몄다.

앙투안 드 에르제몽은 공개적으로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폭력적이고 말이 없었으며, 기묘한 성격과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딸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었다. 공개된 편지들이 이를 입증했다.

그는 결혼에 동의했다. 두 달 뒤, 니스에서 결혼식이 올렸다.

하지만 이듬해,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다.

원한을 지키겠다는 그의 약속대로, 드헤르몽 백작은 다시 한 번 아이를 납치했다. 바로 자신의 딸과 보르스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는 빌프랑슈에서 자신이 새로 산 작은 요트에게 탑승했다.

바람이 거셌다. 요트는 이탈리아 해안 근처에서 가라앉았다.

배를 탄 네 명의 선원들은 작은 배에 구조되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드헤르몽 백작과 아이는 파도 한가운데서 사라졌다.

베로니크는 그들의 죽음을 입증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그녀는 카르멜회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일들은 십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가장 끔찍하고도 기이한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이다. 비록 처음에는 일부 세부 사항들이 마치 전설처럼 허구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의 삶을 너무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전쟁 한복판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곧 지금부터 이야기할 일들조차도 거대한 전쟁의 드라마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기적 같은 색채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원래의 모습을 돌려주고, 결국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현실감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오직 진실의 선명하고도 찬란한 빛만이 필요할 뿐이다.

제2장

마월 어느 날 아침, 브르타뉴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풍광 좋은 마을 포에에는 한 여인이 마차로 찾아왔다. 그녀는 회색의 넉넉한 옷을 입고 얼굴을 두른 두꺼운 베일을 썼지만, 그 속에서도 빼어난 미모와 완벽한 우아함이 드러났다.

여인은 마을의 주요 여관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정오 무렵, 주인에게 짐을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마을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묻고는 마을을 가로질러 시골로 향했다.

거의 곧장 두 개의 길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하나는 퀴뫼를 향해, 다른 하나는 퀴뫼르를 향해 이어졌다. 그녀는 퀴뫼르 쪽 길을 선택했다.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자, 오른쪽으로 작은 길 입구에 표지판이 보였다. 그곳에는 '로크리프, 3킬로미터'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 곳이지.'

그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은 아무 데도 없었다. 혹시 주어진 지시를 잘못 이해한 걸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브르타뉴의 시골 풍경, 나무가 늘어선 초원과 구릉지의 물결 너머 지평선 끝까지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성채가 하나 서 있었다. 봄의 푸른 싹이 돋아나는 초목 사이로 드러난 회색 벽면에는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다.

정오가 되자 천사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그리고 다시 큰 침묵과 평화가 찾아왔다.

그제야 그녀는 낮은 제방의 짧은 풀밭에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여러 장이 접힌 종이를 펼쳤다.

첫 페이지 윗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듀트레유 사. 상담 사무소. 기밀 정보 제공. 철저한 비밀 보장.'

그 아래 주소가 적혔다.

'베로니크 부인 각하, 의류점, 베장송.'

그녀가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1917년 5월, 귀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 기쁨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4년 전, 귀하의 삶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서 제가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저는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귀하가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아버지, 앙투안 드 에르제몽 씨와 귀하가 아끼는 아들 프랑수아의 죽음에 관한 모든 확실한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더없이 빛나는 승리를 안겨준, 그 후로도 수많은 빛나는 성공들을 가져다준 첫 번째 승리였죠.”

“저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요청으로,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품은 증오와, 아, 그 단어를 쓰자면 사랑까지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카르멜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은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서의 은둔 생활이 당신의 본성에 맞지 않음을 깨닫게 해 준 이후, 당신을 비센스라는 작은 도시의 모자 공장에 일자리를 얻게 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유년 시절과 결혼 초기를 보낸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당신은 재능이 있었고, 생계를 위해 일하며 생각하지 않기 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해야 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남편, 알렉시스 보르스키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류에 따르면 그는 폴란드 출신이고, 본인은 왕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보르스키 씨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카르팡트라 근처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탈출해 스위스로 건너갔고, 다시 프랑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고, 결국 독일인임이 입증되었죠."

"두 번째로 그는 다시 탈출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방탱 숲속으로 사라졌고, 결국 누구에게 찔려 죽었는지 모른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마담. 그 남자가 당신을 끔찍하게 배신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얼마나 경멸했는지, 그리고 신문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대부분을 알고 계셨지만, 그 진위 여부를 끝내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알렉시스 보르스키는 퐁텐블로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마담, 이 죽음의 기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군요.

마담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Vorski 씨에 관한 그 놀라운 예언을 기억하시죠. Vorski 씨는 본래 총명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지만,

잘못된 사고방식과 미신적인 성향이 그를 망쳤습니다. 그는 환각과 공포에 시달리며, 점술과 신비주의에 정통한 여러 사람들에게서 '왕의 아들인 Vorski여, 너는 친구의 손에 죽고, 네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이 그의 삶 전체를 짓눌렀죠.

이 마지막 구절을 쓰면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니!' 십자가형이라니, 그건 좀 구식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담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Vorski 씨가 운명의 신비로운 명령에 따라 칼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는……"

베로니크는 잠시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뒤트레이유 씨의 위선적인 문장들과 친근한 농담이 그녀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알렉시스 보르스키의 비극적인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끔찍한 남자를 떠올릴 때마다 오한이 일었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 다른 임무입니다. 여느 것보다도 당신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삼 주 전, 당신의 단조로운 삶에 가끔씩 찾아오는 드문 변화 중 하나였다. 당신은 직원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고,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다.

그때 당신을 놀라게 한,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상영된 주요 영화는 「브르타뉴의 전설」이라는 제목이었다. 이 영화는 순례 행렬 중 한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 배경은 길가, 버려진 작은 오두막 앞이었다. 물론 그 오두막은 줄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단지 우연히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무언가였다. 타르칠한 오래된 문 판자에 손으로 쓴 세 글자가 있었다. 'V. d'H.'였다.

그 세 글자는 당신이 과거 친필 편지에 쓰던 처녀 시절 서명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리고 당신은 지난 14년 동안 그 서명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바로 '베로니크 드 에르몽'이었다. 오해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소문자 'd'와 아포스트로피로 분리된 두 개의 대문자.

게다가 'H'의 가로선까지 세 글자 아래로 길게 빼서, 마치 당시 사용하던 내 고유한 서명 방식처럼 파리로 삼았다.

"부인, 그 놀라운 우연이 당신에게 준 충격이 바로 당신이 제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였죠.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그 도움이 반드시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도 당신은 미리 알고 계셨죠.

부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습관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파리에서 저녁 급행열차를 타십시오. 내일 아침 킴페를레에 도착할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자동차를 타고 파웨까지 가십시오. 시간이 있다면, 점심 식사 전후로 아주 흥미로운 생트바르브 예배당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예배당은 가장 기이한 풍경 속에 우뚝 솟아 있으며, 영화 <브르타뉴의 전설>의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킴페르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십시오. 첫 번째 언덕을 오르는 끝부분, 로크리프를 연결하는 시골길 바로 직전쯤에 나무로 둘러싸인 반원형 공간 안에 그 낙서가 적힌 버려진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은 외관상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이 없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판조차 없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판자 하나만 벤치처럼 놓여 있을 뿐이죠.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린 창틀인데,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오두막이 영화 촬영의 시야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우연의 일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영화 <브르타뉴의 전설>은 작년 9월에 촬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낙서는 적어도 여덟 달 전부터 존재해 온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담. 제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어떤 치열한 노력과, 또 어떤 기발한 수단을 썼는지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군요.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해냈으니, 제 개입 대가로 오백 프랑만 받으시더라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베로니크는 편지를 접었다. 그 편지가 남긴 감정을 몇 분간 되새겼다. 이 감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비참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감정이 그랬듯.

그중 한 가지 감정은 특히 강렬했다. 도피처를 찾아 수도원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던 그 시절과 다를 바 없이 강렬했다. 바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보르스키를 사랑했던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죽음도, 아들 죽음도 모두 그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녀는 믿었다.

물론 그녀는 그 남자의 사랑을 거부했다. 결혼한 것도 억지로, 절망에 빠져서였다. 보르스키의 복수로부터 드헤르몽 백작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 남자를 사랑했다. 처음에는 그의 시선을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했다. 이제 와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약점이었지만, 그 순간의 일로 그녀는 지금까지도 깊은 후회를 안고 산다. 시간이 그 후회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다.

"됐어. 이제 꿈같은 생각은 그만해야지. 울으러 온 게 아니니까."

베수송의 은신처에서 그녀를 데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은 열망이 그녀를 다시 깨웠다. 그녀는 일어서서 결연한 태도로 행동에 나섰다.

드퇴이유 씨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로크리프 가는 지방도로 바로 직전, 나무들로 둘러싸인 반원형 광장.”

그녀는 이미 그 장소를 지나쳐 버렸다. 그녀는 재빨리 발길을 돌려 되돌아갔다. 그러자 오른쪽에, 그녀가 오두막을 가렸던 나무 무리가 시야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로소 오두막이 보였다.

그것은 목동이나 도로 관리인이 잠시 쉬어가는 곳쯤 되는 초라한 오두막이었다. 비바람에 재빠르게 썩어가고 있었다.

베로니크는 다가가서 확인했다. 비와 햇볕에 글자가 닳아 내린 탓인지, 필름에 찍힌 것보다 현지의 글씨는 훨씬 흐릿했다. 하지만 세 글자는 분명히 보였다. 서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뒤트레이유 씨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하나 더 발견했다. 아래쪽에 화살표 그림과 숫자 ‘9’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록 그녀의 서명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녀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서명이었다.

그런데 그 서명이 어째서 버려진 오두막에 있을까? 게다가 그녀는 처음 발을 들이는 브르타뉴에서 말이다.

베로니크는 이제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그녀가 사랑하고 알았던 모든 이들이 죽으면서 그녀의 과거 전체가, 말하자면 무너져 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의 서명에 대한 기억이 그녀 자신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들之外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더구나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곳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베로니크는 오두막을 한 바퀴 돌았다. 오두막 안에는 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 나무들에도 마찬가지였다. 뒤트레이유 씨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문은 나무로 만든 간단한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빗장은 나사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빗장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문을 당기려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의지의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던 사실과 사건들로 가득 찬 세계로 들어가는 작은 제스처를 취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래, 뭐가 나를 막고 있는 거야?"

그녀는 문을 세게 당겼다.

끔찍한 비명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다. 오두막 안에는 한 남자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시체를 본 정확한 순간, 그녀는 그

시체가 가진 특이한 특징을 깨달았다. 죽은 남자의 한쪽 손이 빠져 있었다.

그는 노인이었다. 회색 수염이 부채처럼 펼쳐졌고, 하얀 긴 머리카락은 목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입술은 새까맣게 변했고, 부어오른 피부의 빛깔은 그녀에게 그가 아마도 독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상처 자국은 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목 바로 위에서 깔끔하게 잘린 팔의 상처만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상처는 이미 며칠 된 것으로 보였다. 그의 옷차림은 브르타뉴의 농부 같았다. 깨끗하되 매우 낡았다.

시체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벤치에 기대었고, 다리는 오그라든 채였다.

베로니크는 이런 사실들을 거의 의식 불명 상태에 가까운 채로 확인했다. 나중에 기억으로 되살아날 내용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그 자리에 서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시체…… 시체가……"

그녀는 문득 자신이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가 이미 죽은 것은 아닐지도. 하지만 이마를 만져본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피부의 감촉에 그녀는 오한을 느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접촉이 그녀를 멍하니 서 있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주변 농촌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포에로 돌아가 관할 당국에 알리기로 했다.

그전에 그녀는 시체를 확인해, 신분을 파악할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옷과 속옷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수색을 위해 시체를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시체의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졌고, 그 무게에 torso(몸통)가 다리 위로 떨어졌다. 그 결과, 벤치 아래쪽이 드러났다.

벤치 아래에서 그녀는 종이를 말아 놓은 것을 발견했다. 매우 얇은 드로잉 종이로 만든 것이었다. 종이는 구겨지고, 찢어지고, 거의 비틀린 상태였다.

그녀는 종이를 주워 펼쳤다. 하지만 그 동작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세상에, 주님! … 세상에, 주님! …"

그녀는 남은 기운을 짜내어 필요한 침착함을 억지로 끌어내려 했다. 볼 수 있는 눈과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바라보려 했다.

그녀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몇 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몇 초 동안, 점점 더 짙어지는 안개처럼 그녀의 눈을 감싸는 듯한 혼란 속에서, 그녀는 붉은색 그림을 식별해 낼 수 있었다. 그것은 네 그루

의 나무 줄기에 네 명의 여성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 그림 앞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중앙에 배치된 그녀의 몸은 옷자락 아래 굳어 있었고, 얼굴은 끔찍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여성, 바로 그녀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녀 자신,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이었다.

또한, 머리 위에는 고대의 관습에 따라 고문 기둥 끝부분에 한 줄의 글이 선명하게 적힌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베로니크가 소녀 시절 사용하던 인감과 이니셜, 'V. d'H'였다.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

그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경련이 일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몸을 돌렸고, 오두막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가 풀밭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베로니크는 건강이 매우 좋은 여자였다.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았으며, 균형 잡힌 몸매를 자랑했다. 그토록 견고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조화는 어떤 시련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지금처럼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과, 기차 여행으로 이틀 밤을 새운 피로가 겹치지 않았다면 그녀의 신경과 의지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상태는 길어도 두세 분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정신은 다시 선명해지고 용감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 한 장을 집어 들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눈이 제대로 보고 뇌가 제대로 이해하는 상태였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소해 보이는, 혹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었다. 왼쪽에는 약 열다섯 줄 가량의 좁은 열이 있었다. 글자는 아니었다. 형태가 잡히지 않은 글자와 늘 같은 획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분명히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몇몇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다.

베로니크는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네 명의 여자."

조금 더 내려가면 "관 서십 개……"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전체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죽음을 주거나 생명을 주는 신의 돌."

이 전체 열은 두 줄로 된 틀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나는 검은 잉크로, 다른 하나는 빨간 잉크로 그은 아주 정교한 선들이었다. 그리고 위

쪽에는 빨간색으로 가지에 감긴 두 개의 낫이, 아래쪽에는 관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 부분은 훨씬 더 중요했다. 그 공간은 붉은 색 연필로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그림은 옆에 붙은 설명 열과 함께, 전체 페이지를 마치 책의 한 장, 혹은 고전 삽화집의 페이지처럼 보이게 했다. 그 삽화집의 주제들은 원시적인 방식대로, 규칙에 대한 완전한 무지 속에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그린 네 명의 여성들이었다.

그중 세 명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갔다.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몸에는 브르타뉴 전통 의상이 입혀져 있었다. 머리에는 정성껏 차려 입힌 브르타뉴식 머리장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양식은 지역 고유의 것이었다. 특히 두 날개가 벌어진 큰 검은 리본이 인상적이었다. 알자스 여인들의 머리장식과 비슷한 형태였다.

그리고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베로니크가 terror에 질려 시선을 떼지 못했던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큰 십자가였다. 가지치기된 나무 기둥이 서 있었고, 그 양옆으로 여성의 두 팔이 늘어져 있었다.

손과 발은 못으로 박힌 게 아니었다. 대신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는데, 끈은 어깨까지, 그리고 두 다리가 모인 위쪽까지 감겨 있었다. 브르타뉴식 의복 대신, 시체는 땅에 거의 닿을 듯한 수의 같은 옷을 입

고 있었다. 그 옷은 고문으로 야위어 가는 가느다란 몸매를 더욱 길고 초췌하게 보이게 했다.

얼굴 표정은 보는 이의 심장을 찢을 듯했다. 체념한 고통과 비통한 우아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확실히 베로니크의 얼굴이었다. 특히 그녀가 스무 살 무렵의 모습과 일치했다. 베로니크는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며 그 모습을 기억했다. 거울을 보며 희망 없는 눈과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던 그 시간이었다.

머리 주변에는 그녀의 두꺼운 머리카락 물결이 있었다. 그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흘러내리며 비슷한 곡선을 그리며 구불거렸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V. d. H.'

베로니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과거를 더듬으며, 어둠 속에서도 현재의 사실과 젊은 시절의 기억을 연결해 보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서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읽은 글자든, 본 그림이든, 그 무엇도 그녀에게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종이를 여러 번 다시 살펴봤다. 그러곤 천천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종이를 작은 조각들로 찢었다. 바람이 조각들을 날려 보냈다.

마지막 조각까지 날아간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시신을 밀쳐내고 문을 닫은 뒤, 마을로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 필요한 건, 이 사건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시간 뒤, 그녀와 함께 마을 시장, 농경지 순찰대원, 그리고 그녀의 제보에 끌려온 군중들이 다시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다.

시신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기묘했다. 베로니크는 자신의 생각이 엉켜 있을 때, 남들이 던지는 질문들에 답하는 것조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증언이 진실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심지어 그녀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다.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여관 주인이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면 파리로 돌아가는 기차역에 닿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스카에르와 로스포르데른이라는 두 마을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마차를 한 대 불렀다. 마차는 중간쯤에서 그녀를 따라잡아 짐을 실어 줄 예정이었다. 그녀는 떠났다. 우아한 자태와 진중한 아름다움이 그녀를 모든 악의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그녀는 거의 무작정 떠났다. 길은 길었다. 리에(-league)가 몇 번이고 이어지는 먼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의 결별, 그리고 평온과 잊힘으로의 회귀를 간절히 바랐다. 그 열망은 그녀를 거침없이 내달리게 했다. 뒤따르는 마차 덕분에 피로해질 일도 없건만, 그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큰 걸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그녀는 언덕을 올랐다. 골짜기를 내려갔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많은 수수께끼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 속에 떠오른 것은 과거였다. 그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공포였다. 보르스키에게 납치당한 날부터, 아버지와 아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베장송에서 꾸려 놓은 소박한 삶만을 생각하려 했다. 그곳에는 슬픔도, 꿈도, 추억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집안일과 습관들 속에 파묻혀, 잊어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버려진 오두막, 잘린 사체, 그리고 신비로운 글귀를 적어 놓은 끔찍한 그림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길 바랐다.

하지만 스카에르 마을 한복판에 다다르기 직전, 뒤에서 말 방울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로스포르덴으로 가는 갈림길에 반쯤 무너진 집의 벽조각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벽조각 위에는 흰 분필로 화살표와 숫자 '10' 위에, 불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V. d’H.’

제3장

베로니크의 마음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위험이 닥쳐올 것 같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험한 길로 끝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변화의 이유는 어둠 속에 작은 빛이 스치듯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화살표가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숫자 '10'이 고정된 지점에서 시작해 다른 고정된 지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찍힌 일련번호 중 열 번째라는 사실 말이다.

누군가가 정해 둔 신호였을까. 다른 이의 발길을 이끄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을까. 어찌 되었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실이 베로니크를 자신의 관심사가 된 문제의 해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그녀의 소녀 시절의 서명이 비극적인 상황들의 얽힘 한가운데서 다시 나타난 것일까.

포아에 있던 마차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고 마부에게 아주 천천히 로스포르덴으로 가라고 명했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갈림길에 이르러 두 번이나 그녀의 서명과 함께 숫자 11과 12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베로니크는 로스포르덴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이튿날 아침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했다.

그가 무덤 벽에 적어 둔 '12'라는 숫자를 발견한 순간, 그는 곧장 콩카르노로 향하는 도로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까스로 그 길목에 다다랐지만, 다른 숫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발길을 돌려 되돌아왔고, 쓸데없는 탐색에 하루 종일을 허비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희미하게 지워진 '13'이라는 숫자가 푸아스낭 쪽으로 향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신호를 좇아 시골길을 더듬어 갔고,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다.

결국, 푸아레를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대서양을 바라보는 베그메일의 넓은 모래사장에 도착했다.

베로니크는 이틀 밤을 그 마을에서 보냈지만,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는 단 한 번의 대답도 얻지 못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다. 그녀는 반쯤 물에 잠긴 바위 무리 사이를 거닐다가, 나무와 덤불로 덮인 낮은 절벽 위까지 올랐다. 그리고 두 그루의 벌거벗은 참나무 사이에서 낯선 것을 발견했다.

흙과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피난처였다. 아마 세관 직원들이 쓰던 곳일 것이다.

입구에는 작은 돌기둥이 서 있었다. 그 돌기둥 위에는 '17'이라는 번호와 함께 한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

화살표는 없었다. 아래에는 그저 점 하나만 찍혀 있을 뿐.

피난처 안에는 깨진 병 세 개와 빈 통조림 캔이 널브러져 있었다.

'여기가 목적지였군.' 베로니크는 생각했다. '여기서 무언가를 먹었을 거야. 아마 미리 준비해 둔 식량이었겠지.'

그때 그녀는 자신 근처, 작은 만 입구에 있는 바위들 사이에 동굴처럼 둥글게 파인 곳에 작은 보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 보트는 엔진이 보이는 석유 동력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있던 곳에서는 처음에 한 노인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팔에 provisions 주머니 여섯 개쯤을 안고 있었다. 파스타와 마른 채소들이다. 그는 그것을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여행은 잘 했나, 오노린 부인?"

"매우 좋았어요."

"그럼 어디에 계셨다구?"

"파리였죠, 대감. 여덟 날이나 자리를 비웠으니까. 주인님을 위한 장보기라구…"

"돌아오니 기쁘시겠구먼?"

"음, 물론이지."

"보십시오, 오노린 대감. 배가 제자리에 그대로 있죠. 매일매일 찾아와서 배 상태를 점검했거든요. 오늘 아침, 천막을 걷어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잘 돌고 있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장이에요. 오노린 대감,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 탓이죠. 우리 섬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장에 나갔고, 나머지는 낚시터로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격주마다 다니던 여객선도 끊겼으니, 제가 생필품 장을 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연료는요?"

"비축해 둔 게 충분합니다. 그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만 작별해야겠군요. 오노린 대감, 짐 싣는 데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당신도 급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만 헤어지세. 다음에 또 만나, 오노린 아가씨. 짐은 미리 준비해 두겠네."

그 노인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걸어갔다.

"그래도 주의하게. 그 섬 주위를 에워싼 암초의 뾰족한 돌들 말일세. 정말 그 섬은 소문이 나쁘지! 서른 개의 관이 있는 섬이라고 불릴 만하네. 잘 가, 오노린 아가씨."

그는 바위 굴곡 너머로 사라졌다.

베로니크은 몸을 떨었다. 서른 개의 관! 그녀가 끔찍한 그림 여백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다.

그녀는 몸을 숙였다. 여인은 이미 보트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간 뒤였다. 그녀가 가져온 다른 식료품을 내려놓자, 뒤를 돌아보았다.

베로니크는 그녀를 정면에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브르타뉴식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벨벳 날개 두 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 베로니크가 더듬거렸다. '그 스케치에 나온 머리 장식, 십자가 모양으로 서 있는 세 여인의 머리 장식!'

브르타뉴 여자는 대략 사십 살쯤 되어 보였다. 햇볕과 추위에 그을린 단단한 얼굴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무졌지만, 지혜롭고 다정하게 빛나는 두 개의 큰 검은 눈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무거운 금사슬이 그녀의 가슴에 늘어져 있었다. 벨벳 재질의 저고리는 그녀의 몸을 꽉 조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가방을 들고 보트를 싣고 있었다. 보트는 큰 바위에 묶여 있었는데, 그녀는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다.

일을 마친 그녀는 어둑한 구름이 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다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밧줄을 풀고 나서도 노래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더 커져서 베로니크도 가사를 들을 수 있었다.

느린 선율의 자장가였다. 아이를 위한 노래였다. 그녀는 하얗고 아름다운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이를 흔들며 노래했다.

"울지 마라. 울면 성모님도 우신다. 아이가 노래하고 웃어야 성모님이 웃으신다. 손을 모으고 기도해라. 착한 성모 마리아께."

그는 말을 마르지 못했다. 베로니크가 바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하얗게 질린 채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세요?"

베로니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노래를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 어디서 익히셨어요? … 이 노래는 제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예요. … 고향, 사보아 지방의 노래였죠. …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 그 노래를 다시는 듣지 못했어요. … 그래서 … 저는 … 제가 알고 싶어요 …"

그녀는 말을 멈췄다. 브르타뉴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베로니크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도 곧 질문을 던질 것처럼 보였다.

베로니크가 다시 물었다.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

"저기서 온 사람입니다." 마침내 '오노린 부인'이라 불리던 여자가 대답했다.

"저기서요?"

"네, 제 섬에서 온 사람입니다."

베로니크는 왠지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서른 개의 관이 있는 섬?"

"그건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야. 실제 이름은 사렉 섬이지."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말을 걸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적이 아님을 직감했다.

베로니크는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보세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브르타뉴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시했고, 베로니크는 계속 말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혼란스럽군요… 그래서 아시나요, 제가 이 해변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마도 당신만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음, 이런 일입니다. 우연이요—아주 사소한 우연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그 작은 우연에서 비롯되었죠—제가 브르타뉴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길가 한복판에 버려진 낡은 오두카리의 문에, 제 과거의 서명 이니셜을 보게 되었죠. 그 서명은 제가 열다섯, 열여섯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더 나아가자, 저는 그 글자를 또 여러 번 발견했어요. 그때마다 뒤에는 다른 순서 번호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베

그메이 해변에 도착했고, 이 해변의 한 구석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이 곳은 분명 누군가가 계획하고 실행한 여정의 종착점이었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서명, 거기 있나?" 호노린이 재촉하듯 물었다. "어디에?"

"우리 위에 있는 돌판에. 피난처 입구 쪽이야."

"나에는 안 보여. 무슨 글자지?"

"V. d'H."

브르타뉴 여자가 몸을 움찔했다. 마른 얼굴에 깊은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베로니크… 베로니크 드 에르몽."

"아! 젊은 여자가 외쳤다. '당신은 내 이름을 알고 있군요! 알고 계신다니!'"

호노린이 그녀의 두 손을 꼭 쥐었다. 거친 얼굴이 미소로 밝아졌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거듭 말했다.

"베로니크 씨… 베로니크 부인, 정말 당신인가, 베로니크? … 세상에, 정말일까? 성모 마리아, 감사합니다!"

베로니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소.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구려.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겠소?"

오랜 침묵이 흘렀다. 오노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함께 찾아볼 수는 있죠. 그 브르타뉴의 마을 이름이 뭐였죠?"

"르포에."

"르포에…… 알아요. 그리고 그 버려진 오두막은 어디에 있었죠?"

"그곳에서 두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당신이 문을 열었나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 오두막 안에는……"

"말해 봐요. 무슨 일이 있었죠?"

"먼저 한 노인의 시체가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죠. 긴 백발에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죽은 사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분명 살해당한 것이었어요. 독을 먹인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오노리느는 간절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살인 사건은 그녀에게 아무런 단서도 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간단히 물었다.

"누구였나요? 조사는 했나요?"

"저가 돌아왔을 때, 파웨뜨 사람들이랑 함께였는데, 시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라졌다니? 누가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군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 그 초가집을 찾았을 때, 한 장의 그림을 발견했어요. 제가 찢어버린 그림이었지만, 그 기억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악몽처럼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해요. 지울 수가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건 낡은 그림의 사본을 베껴 적은 종이 한 뭉치였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오, 정말 끔찍한 것이었죠. 네 명의 여자가 십자가 모양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바로 저였어요. 이름까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당신과 똑같은 머리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오노린은 놀랄 만큼 거세게 그의 손을 쥐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브르타뉴 여자가 외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명의 여자가 십자가 모양으로?"

"네, 그리고 서른 개의 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섬과 관련된 일이었죠."

브르타뉴 여자는 그의 입에 손을 얹었다.

"입을 닫으시오! 입을 닫으시오! 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 일은… 보세요, 지옥 같은 일들이 있는 법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이 일은 나중에 봅시다. 아마 내년에나… 나중에… 나중에…"

그녀는 태풍이 나무를 휘젓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길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허리를 굽힌 채, 그토록 깊은 명상에 잠겨 있어 베로니크는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섰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정말 무서운 일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의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젊은 여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저기로 가야 합니다."

"저기요, 당신의 섬으로요?" 베로니크는 숨기지 않는 혐오감을 드러내며 되물었다.

오노린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아 쥐었다. 그리고 베로니크에게 비밀스럽고 표현되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차 보이는, 조금은 장중한 어조를 계속 이어나갔다.

"당신의 이름은 베로니크 데르제몽이 맞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앙투안 데르제몽."

"당신은 볼스키라는 가짜 폴란드인과 결혼했지요."

"네, 알렉시 볼스키요."

"당신은 아버지와 결별한 뒤, 그리고 납치 스캔들 이후에 그와 결혼했습니까?"

"그에게서 아이를 낳았죠."

"네, 아들이요, 프랑수아."

"그 아이는 사실상 당신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갔으니까요?"

"그리고 당신과 아버지는 모두 난파 사고로 실종되었습니까?"

"네, 그들은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시오?"

베로니크는 이 질문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조사한 것과 법정이 조사한 것은 모두 똑같은 확실한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명의 선원들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베로니크는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 증언은 돈으로 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본을 써서 시킨 것일 수도 있고요."

"누가요?"

"당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이때 베로니크는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잠시만요. 그 네 선원의 이름을 아시오?"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네요."

"브르타뉴 이름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무슨…"

"브르타뉴에 가본 적이 없어도, 아버지는 책을 쓰기 위해 그곳을 자주 찾았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

현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셨을 겁니다. 네 명의 선원이 아버지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거나, 돈을 받고 고용된 이들 말이죠. 이들은 이 사건을 위해 특별히 불러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선원 네 명이 모두 수영을 잘했으니, 먼저 아버지와 아들을 이탈리아의 작은 항구에 내려놓은 뒤, 그 yacht를 해안선 근처에서 가라앉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베로니크의 목소리에 격앙이 서렸다. "그들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두 명은 몇 년 전에 자연사했습니다. 셋째는 마귀노크라는 노인인데, 사렉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는 방금 전에 당신도 봤을 거예요. 이 일로 번 돈으로 베그메이에 식료품점을 샀거든요."

"아,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로니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데려오게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베로니크는 가장 궁금했던, 그러니까 자각의 어둠속에서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한 그 질문을 그에게 던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 혹은 희미하게나마 눈치챈 그 진실을 마주할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어조로 더듬거렸다.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아버지는 제 죽음과, 그리고 내 불쌍한 아이의 죽음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는 복수를 맹세하셨죠."

"보르스키에 대한 복수였겠지만, 제게? 자신의 딸에게요? 그리고 그런 식의 복수를?"

"당신은 남편을 사랑했어요. 한 번 그의 손아귀에 잡힌 뒤, 도망가지 않고 결혼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 모욕은 공개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폭력적이고 앙심을 품는 성격이라니요. 그분은 본래 조금…… 조금 불안정한 기질이 있다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이후에는요?"

"이후라니요! 세월이 지나면서 죄책감이 찾아왔고, 아이가 자신에게 보이는 애정이 더해지자…… 그는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샤르트르의 카르멜 수도원 여행부터 시작해서요. 하지만 이미 당신은 오래전에 떠난 뒤였고, 어디로? 어디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건 어때요?"

"그는 아주 신중하게, 아니 불가피하게 은밀하게 일을 처리했죠. 스캔들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답장을 했고, 우리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르스키였어요. 당신을 찾고 있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던 그 보르스키 말입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며 공개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죠."

베로니크는 입을 다물었다. 기운이 빠진 그녀는 돌 위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마치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뵈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매일 만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베로니크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아들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

예요. 아들이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힘을 모아 고개를 들었다. 오로린이 미소 지었다.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희망이 너무 커져서 견딜 수 없어요. 제발요.”

오로린이 팔을 뻗어 베로니크의 목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만약 내 사랑스러운 프랑수아를 잃었더라면, 내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가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젊은 여자가 절박하게 외쳤다.

“당연하지! 건강이 그 어떤 사람보다 좋아. 튼튼한 녀석이야. 다리에 힘이 장난이 아니라고. 내가 직접 키운 아이라서 자랑스럽지. 당신의 프랑수아를 말이야.”

베로니크가 너무 무거운 감정에 짓눌려 오로린에게 기대었다. 기쁨도, 고통도 반반 섞인 그 무게감 속에서 오로린은 이렇게 말했다.

“울어요, 좋은 아가씨. 그거 당신에게 좋을 거예요. 과거의 눈물보다 훨씬 나은 눈물이죠, 어떻습니까? 울어서 지나간 모든 비참함을 날려 버리세요. 나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요. 여관에suitcase라도 있죠? 내가 알아서 가져올 테니, 그럼 우리가 떠나요.”

반 시간쯤 뒤, 브르타뉴 여자가 돌아왔을 때, 베로니크는 서서 손짓하며 재촉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베로니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세상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잃을 시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오로린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거친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베로니크가 다가와 물었다.

"자, 떠날까요? 늦어지는 건 아니죠? 방해는 없나요? 뭐, 뭔가… 당신도 전에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그럼 서둘러야겠군."

호노린의 도움을 받아 베로니크는 여행 가방과 식량 주머니를 배에 실었다. 그러다 갑자기 베로니크 앞에 서서 물었다.

"그림에 십자가를 진 여인은 바로 당신이었지, 확실해?"

"물론이죠. 머리 아래에 있는 제 이니셜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상하군." 브르타뉴 여자가 중얼거렸다. "정말 불안해지네."

"왜요? 누군가 저를 알고 장난친 거겠죠. 과거의 일을 끄집어낸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아니요, 과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래가 무서운 거죠."

"미래?"

"예언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네, 네. Vorski에게 당신에 대해 한 그 예언 말이에요."

"아, 그거 아세요?"

"알고 있어요. 그 그림과 당신이 모르는, 훨씬 더 끔찍한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비참하거든요."

베로니크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뭐요? 그래서 제가 데려가는 것을 망설이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맞는 거죠?"

"웃지 마세요. 지옥의 불꽃을 직접 목격하고서야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브르타뉴 여자는 눈을 감고 십자성을 그으며 그 말을 내뱉었다. 그러곤 다시 입을 열었다.

"분명히… 당신은 저를 조롱하고 있군요. 당신은 저를 미신을 믿고 귀신이나 불꽃귀신 같은 것을 믿는 이 땅의 여자로 생각하고 있겠죠. 저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이번 일만

큼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할 만큼의 진실이 숨어 있어요. 내 신뢰를 얻으면 마귀노와 대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귀노?"

"네 선원 중 한 명이었네. 그이는 너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그이도 너를 키워냈지. 마귀노는 모든 학자보다, 너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마귀노는 운명을 시험해 보려 했어. 그리고 알 권리가 없는 곳, 그 너머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

"그가 무엇을 했다는 거야?"

"그는 어둠의 가장 깊은 곳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보려 했어. 자네가 듣는 대로, 자신의 손으로요. 그 자신이 내게 시인했거든."

"그래서?"

"그 손은 불꽃에 타버렸지. 끔찍한 상처였어. 그이가 내게 보여줬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암의 상처처럼……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나?"

"그렇게 심했다는 거야?"

"그가 왼손으로 도끼를 들어 오른손을 스스로 베어냈을 정도였지."

베로니크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파웨의 시체를 떠올리며 더듬거렸다.

"오른손? 마귀noc의 오른손을 잘랐다고요?"

"도끼로요. 열흘 전, 제가 떠나기 이틀 전이었죠. 제가 직접 치료를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베로니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버려진 오두막에서 발견하고 사라진 노인의 오른손도 최근 잘려 나갔거든요."

오로린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대조적으로, 당황한 듯한 표정과 어수선한 심정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확실해요? 네, 네,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그네크로군요. 긴 흰 머리를 기른 노인이죠? 그리고 턱수염이 아래로 갈수록 넓게 퍼지는…"

아, 끔찍하기 짝이 없군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한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해했다. 다시금 십자 성호를 그으며 천천히,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죽어야 할 첫 번째 자식이에요… 그가 미리 알려주었죠… 그리고 노파 마그네크의 눈은 과거의 책이든 미래의 책이든, 그 안을 훑어볼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선명하게 보았죠.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당신, 오노린 자매요. 하인이 사라진 지 며칠 뒤면, 그의 주인 차례가 될 거요…'"

"그 주인이 누구였나요?" 베로니크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오로린은 몸을 일으키며 거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건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두 번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제가 제때에 도착할 테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베로니크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제발요, 오로린이가 간청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 혼자 하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아버님과 아들을 모셔오겠어요."

"하지만 왜요?"

"저쪽은 너무 위험해요. 아버님께도, 특히 당신께도요. 네 개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저곳에서 그 십자가들이 세워질 거예요. 오, 절대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 섬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은요?"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몇 시간 안에요."

베로니크는 갑자기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몇 시간 후라니! 미친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나? 나는 사십 년째 아들을 잃고 지냈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는 내가 그 아이를 안아보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한 시간도 기다릴 수 없어. 천 번 죽는다 해도 그 순간을 미루는 것보다는 낫지."

아노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베로니크의 결심이 이미 굳어졌음을, 어찌 해봐야 소용없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십자성을 그으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두 사람은 좁은 통로를 막고 쌓인 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아노린이 엔진에 불을 붙이고 핸들을 잡자, 물면 바로 위에 드러난 바위들과 암초 사이를 능숙하게 헤쳐 나갔다.

제4장

베로니크는 선미 쪽 상자에 앉아 호노린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불안했고,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주저하는 빛이 감돌았다. 폭풍의 마지막 구름을 뚫고 들어오려 애쓰는 햇살빛처럼 흔들리는 미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확실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행복은 이 놀라운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처럼 보였다. 그 얼굴에는 고귀함이 서려 있었고, 어떤 여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검소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극심한 불행에 시달렸거나, 사랑으로 보호받아 온 여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무거운 진지함의 습관을 들이고, 모든 여성스러운 과시심을 멈추곤 한다.

검은 머리는 관자놀이 쪽으로 살짝 회색이 돌았지만, 목덜미 아래로 아주 낮게 묶어 올렸다. 남쪽 여자 특유의 빛바랜 피부에, 유난히 맑은 파란색 눈을 가졌다. 눈동자 전체가 겨울 하늘처럼 옅은 파란빛으로 물

들어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는 넓었으며, 몸매는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적이면서도 약간 남성의 느낌을 풍겼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가볍고 경쾌하게 변했다. 베로니크는 오직 이 이야기뿐을 하고 싶어 했다.

브르타뉴 여자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문제를 꺼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되물었다.

"두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아. 누가 이 흔적을 남겼지? 그 흔적을 따라가니 파웨에서부터 내가 항상 내려앉는 그 정확한 곳까지 이어졌거든. 누군가가 파웨에서 사레크 섬까지 따라왔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마귀노크 신사는 어떻게 섬을 떠났지? 자의로 나간 건지, 아니면 시신을 옮겨간 건지. 만약 시신이라면, 도대체 어떤 수단을 썼다는 거지?"

"정말 그런 걸 따져볼 가치가 있을까요?" 베로니크는 반문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제 외에는 보트를 타고 열다섯 날마다 식량을 사러 베그메이르나 폰타브베로 가는 사람이 없고, 어부들의 배 두 척만이 항상 더 북쪽, 오디엔까지 가서 생선을 팝니다. 그럼 마귀노크가 어떻게 건너왔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가 자살한 게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시신이 사라졌단 말입니까?"

하지만 베로니크는 반박했다.

"부탁합니다…… 지금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프랑수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사렉에 도착했다는 말씀이셨죠?"

호노린은 젊은 여인의 간청에 굴복했다.

그는 가엾은 마귀노크의 품에 안겨 도착했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를 빼앗은 지 며칠 뒤의 일이었죠.

마귀노크는 드에르제몽 씨에게 미리 교육을 받은 터라, 외국 여인이 아이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는 마귀노크의 딸에게 젖을 먹였는데, 그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해외 여행 중이었습니다. 파리에 사는 집안에서 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들판과 절벽을 누비는 건강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렉에 정착하신 당신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노크의 딸이 죽자 아이는 우리 집에서 자랐습니다.

—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요?

— 프랑수아라는 이름으로요. 그냥 프랑수아라고만 불렀습니다. 드에르제몽 씨는 앙투안 씨라고 불렸죠. 아이는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어떤가요?" 베로니크는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아, 그건 축복이죠!" 오로린이 대답했다. "아버지 기질은 전혀 없고, 할아버지 기질도 없습니다. 드에르제몽 씨 본인이 시인하더군요. 온순하고, 다정하고, 남을 돕는 아이죠. 한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점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드에르제몽 씨는 당신을 다시 찾으신 거죠. 손자가 자신이 쫓아낸 딸을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조제핀의 초상화 그대로'라고 하셨죠. 베로니크도 그 아이처럼 온순하고 다정하며, 사랑스럽고 애정 어린 아이였다고요."

"그때부터 드에르제몽 씨는 저와 함께, 그리고 저에게 속속들이 털어놓으며, 당신을 다시 찾으셨어요."

베로니크는 기쁨에 빛나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과 닮았다니! 아들은 착하고 웃음이 많았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아시나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걸 아시나요?"

"물론 알죠. 처음에는 드헤르몽 백부인이 비밀을 간직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모두요?"

"아니요. 그는 아버지가 죽었고, 드헤르몽 백부인과 프랑수아 두 사람이 실종된 난파 사고 이후, 어머니가 출가했거나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가 얼마나 소식을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도 역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분 어머니를 정말 잘 아시더랍니다. 항상 그분이, 어머니께서 들으셨던 그 노래를 부르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라고요."

"나의 프랑수아… 나의 작은 프랑수아…"

"아, 네, 그 아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브르타뉴 여자가 말을 이었다. "호노린 아줌마도 계시지만, 당신이야말로 진짜 '어머니'죠. 그래서 그 아이는 빨리 커서 학업을 마치고 싶다고 해요. 당신을 찾아뵙기 위해서요."

"학업? 그가 일을 한다는 말이야?"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두 해 전부터는 제가 파리에서 데려온 착실한 청년, 스테파누 마루와도 함께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장교로,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내과 수술 후 전역했어요. 프랑수아는 그 청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죠."

보트는 잔잔한 바다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노젓는 소리에 은빛 거품이 사방으로 퍼졌다. 저 멀리 구름이 걷히며 해질 무렵의 하늘은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더 들려주세요, 더!" 베로니크는 듣는 내내 지칠 줄 몰랐다. "그런데 제 아들은 어떻게 옷을 입나요?"

"짧은 바지를 입고 종아리를 드러내며, 금 단추가 달린 두꺼운 모직 셔츠를 입지요. 그리고 스테판이라는 큰 친구처럼 베레모를 쓰는데, 붉은색 자신의 것이라 잘 어울린답니다."

"마루 씨 말고 다른 친구도 있나요?"

"예전에는 섬의 모든 소년들이 친구였죠. 하지만 배를 탄 아이들 세네 명을 제외하고는, 아버지들이 전쟁에 나가자 어머니들을 따라 섬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콘카르노나 로리앙 같은 해안가에서 일하며, 노인들이 사렉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섬에는 이제 서른 명 정도만 남았죠."

"그럼 아이는 누구와 놀고, 누구와 산책할까요?"

"아, 그건 걱정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친구가 있거든요."

"누구 말인가요?"

"마귀노크가 아이에게 주었던 작은 개요."

"개요?"

—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웃긴 건, 형편없고 우스꽝스러운, 바비와 폭스테리어의 중간쯤 되는 개였지만 정말로 재미있고 코믹했다는 거야. 아, 툴바바뱅이라는 사람은 정말 특이한 타입이죠.

— 툴바바뱅?

프랑수아는 그를 그렇게 부른다. 그 이름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그는 늘 행복해 보인다. 삶이 즐겁다는 듯이. 게다가 독립적이기도 하다.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사라져 버리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나 나타난다. 슬플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말이다.

프랑수아는 그를 '잘돼가'라고 부른다. 잘돼가는 눈물은 꾸짖음과 다툼을 가장 싫어한다. 누군가 울거나 울기라도 하면, 그는 바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당신 정면으로 앉는다. 우아한 체하며 한쪽 눈은 감고 다른 한쪽은 반쯤 뜬다. 스스로도 그렇게 웃는 척을 하니, 당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다.

"자, 옛 친구. 넌 옳아. 잘돼가. 걱정할 것 없지, 그렇지?"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잘돼가는 꼬리를 흔들며 작은 발걸음으로 사라진다.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베로니크는 웃다가도 울었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고, 기쁨을 삼켜버릴 듯한 절망이 몰려왔다.

그녀는 지난 열네 해 동안 아이는 없으면서도 어머니의 슬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살아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듯 슬퍼하며 보낸 세월 말이다.

태어난 아이에게 쏟는 모든 정성, 아이를 감싸는 그 부드러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설렘.

어머니의 마음을 하루하루 새롭게 채워주는 모든 것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으리라.

"우리는 절반쯤 왔어요." 오로린이 말했다.

배들은 글레낭 섬 앞바다를 지나고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페르마르 곶이 보였다. 배들은 이 곶의 해안선을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평행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해안선은 어둑한 선을 그렸지만, 때로는 지평선과 섞여 잘 구별되지 않았다.

베로니크는 슬픈 과거를 떠올렸다. 거의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 이기적이고 불쾌한 아버지 곁에서 보낸 긴 유년기. 그리고 결혼. 아, 특히 결혼이었다!

그녀는 17세 때 Vorski를 처음 만났던 일을 회상했다. 그 이상한 남자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향을 미쳤다. 그 나이라면 누구나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영향을 받는 법이다.

그리고는 납치당한 그 끔찍한 날이 떠올랐다. 그 뒤를 이은 날들은 더더욱 악몽 같았다. 그는 수주 동안 그녀를 감금하며, 자신의 악한 권력으로 그녀를 위협하고 억누르며 지냈다.

그가 강제로 받아낸 결혼 약속도 생각났다. 그 계약은 소녀의 모든 본능과 의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스캔들이 일어난 뒤였으니, 아버지가 동의하는 마당에 자신도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생각은 결혼 첫 해의 기억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과거의 악몽이 유령처럼 그녀를 괴롭히는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그녀는 마음속 깊이 그 치욕스러운 시절을 되살려 내지 않았다.

그 시절의 좌절, 상처, 배신, 그리고 남편의 수치스러운 삶을 떠올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냉소적인 자부심으로 점차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냈다. 술에 취하고, 게임에서 속임수를 부리며, 친구들로부터 돈을 훔쳤다. 그는 사기꾼이자 협박꾼이었고, 아내에게는 잔인하고 균형 잡히지 못한 악의 영혼 같은 존재로 비쳤다. 그 느낌은 여전했고,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꿈을 더 꾸지 마십시오, 베로니크 여사." 오노린이가 말했다.

"꿈이나 기억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건 양심의 가책입니다."

"당신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니요, 베로니크 여사님. 당신의 삶은 그야말로 순교와도 같았잖아요."

"그 순교는 일종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베로니크 여사님. 이제 당신은 아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행복해지는 일만 생각하세요."

"행복하다니,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곧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자, 사렉이 오는군요."

오로닌은 벤치 아래에 있던 상자에서 큰 조개껍데기를 꺼냈다. 그것은 옛날 선원들이 나팔대신 사용하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조개 입구에 밀착시키고 볼을 부풀려 힘차게 불었다. 그러자 우렁찬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베로니크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오로닌이 말했다.

"프랑수아! 프랑수아라고 불러라."

"제게 돌아올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절벽 꼭대기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방파제까지 달려오죠."

"그럼 제가 그를 만나러 갈까요?" 베로니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물었다.

"당신이 만나러 가요. 초상화로 알아맞길 두려워하니, 베일을 두 겹으로 두르세요. 저는 당신을 낯선 방문객처럼 대할 거예요. Sarek을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요."

섬은 또렷이 보였지만, 절벽 기슭은 수많은 암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아, 그렇죠. 암초가 부족한 적이 없어요. 정어리 떼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죠."

호노린이가 외쳤다. 그녀는 이미 엔진을 끄고, 짧은 노 두 개로 물을 저으며 배를 조종하고 있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바다가 잔잔했는데, 여기는 절대 그러지 않죠."

사실 그랬다. 수천, 수만 개의 작은 파도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며, 바위들을 향해 끝없는, 그리고 가혹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보트는 마치 급류의 소용돌이 위를 항해하는 듯했다.

거품이 끓어오르는 사이에서 푸르거나 푸른빛을 띤 바다 한 조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하얀 거품뿐이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암초들을 향해 끝없이 분투하는 힘의 소용돌이에 의해 치열하게 부서지는 거품들.

"주변은 모두 이런 식이에요." 오로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사레크 섬은 거의 배를 타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아, 우리 같은 곳에서는 독일군이 잠수함 기지를 만들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조심 차원에서, 라로슈르예네의 장교들이 이 년 전에도 왔었어요. 서쪽 쪽의 동굴 몇 군데가 문제라, 밀물 때는 들어갈 수 없어서 썰물 때만 접근 가능한 곳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확인하러 온 거죠."

"하지만 시간 낭비였어요. 우리 같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주변은 바위 가루처럼 온통 바위투성이예요.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아래쪽으로는 배를 갉아먹을 듯 날카롭게 달려들거든요."

"물론 가장 위험한 바위들이지만, 아마도 다른 바위들을 더 경계해야 할지도 몰라요. 눈에 띄는 큰 바위들이죠. 이름도 있고, 범죄와 난파의 역사가 적혀 있는 바위들이에요. 아, 그런 바위들은…"

그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녀는 망설이는 손으로, 마치 자신이 하려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는 듯이, 몇몇 암초를 가리켰다. 그 암초들은 다양한 형태로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솟아올라 있었다. 웅크린 짐승들, 성채의 망대들, 거대한 바늘들, 스핑크스의 머리들, 투박한 피라미드들. 모두 붉은 기운이 도는 검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었고, 마치 피에 절인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아, 저것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섬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악을 일삼고 죽임을 즐기는 맹수들처럼 말이에요. 저것들…… 저것들…… 아니, 그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좋죠. 그것들은 서른 마리 맹수예요. 맞아요, 서른 마리, 베로니크. 서른 마리나 있어요."

그녀는 십자 성호를 그었고,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총 서른 개입니다. 아버지는 이 섬을 '서른 개의 관이 있는 섬'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민중의 직관이 이 사건에서 '암초(écueils)'와 '관(cercueils)'이라는 두 단어를 혼동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하지만 정말로 관이 있는 건 맞아요, 베로니크 님. 만약 그 관들을 열어본다면, 당연히 뼈와 해골이 들어 있을 테니까요. 드헤르몽 경도 직접 말씀하시죠. 사레크(Sarek)는 '관'을 뜻하는 단어의 학문적 표현인 '석관(sarcophage)'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노린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마치 다른 생각을 하려는 듯, 암초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베로니크 님. 저 큰 암초가 길을 막고 있죠? 그 너머로 구름이 조금 걷히면 작은 항구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부두 위에는 프랑수아의 붉은 베레가 보일 테니까요."

베로니크는 오노린의 설명을 딴청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인 로베르의 모습을 더 빨리 보기 위해 보트 밖으로 몸을 더 내밀었다.

그러나 브르타뉴 여인은 억누를 수 없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렉 섬은 아버지가 이 곳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섬에는 별볼일 없는 돌무지 무덤들이 줄지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모두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무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서른 개입니다. 바로 그 서른 개의 암초처럼요.

이 서른 개의 돌무지는 섬 주위에 분포해 있습니다. 절벽 위에 위치해 있고, 바로 그 서른 개의 암초와 마주보고 있죠. 각각의 돌무지는 자신과 마주한 암초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에르-로크, 돌-케르리투 등등.

어떻습니까?"

그녀는 그 이름을 말할 때, 바로 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일에 대해 말할 때 쓰던 그 목소리였다. 마치 그 일들 자체가 그녀의 입에서 생명력을 얻어, 두려움과 신성함을 지닌 존재처럼 되어버린 듯, 누군가에게 들을까 봐 걱정이라도 하듯 말이다.

"베로니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여기에는 묘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역시 말없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섬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 다시 이야기해 드리죠. 그때는 작은 프랑수아도 당신 품에 안겨 있을 테고,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테니까요."

베로니크는 입을 다물었다. 브르타뉴 여자가 가리킨 곳을 주시하며.

그녀는 동료에게 등을 돌린 채, 손으로 보트의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초조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좁은 틈새 너머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보게 될 터였다. 프랑수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단 한 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바위에 도착했다. 오로린의 노 하나가 바위 벽에 살짝 부딪혔다.

그들은 바위 벽을 따라 이동해 끝자락에 다다랐다.

"아!" 베로니크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없어요."

"프랑수아가 없다니! 있을 수 없어!" 오로린이 비명을 질렀다.

그때 그녀도 앞쪽, 이백에서 사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 바닷가 위에 놓인 거대한 돌들을 보았다. 그곳에는 세 명의 여자와 어린 소녀, 그리고 늙은 선원들이 보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붉은 베레모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오로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으로 제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요."

"아마도 아픈 게 아닐까요?" 베로니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프랑수아는 결코 아파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당황하기 시작한 베로니크가 물었다.

"그 아이에겐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에겐요. 마귀노크가 저에게 절대 그를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위협받는 건 바로 그분이에요."

"하지만 프랑수아가 있고, 마루 선생님이 함께 있어요. 제발, 답해 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노린 어깨를 으쓱였다.

"헛소리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이상한 거요. 미안해요. 어쨌든 저 안에는 여전히 브르타뉴 여자가 살아있어요. 몇 년을 제외하면 저는 평생 이런 전설과 이야기들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사레크 섬은 길게 뻗은 고지대로, 제법 울퉁불퉁한 지형을 하고 있다.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중간 높이의 절벽들이 섬을 받치고 있다. 그 절벽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조각난 듯 거칠다.

섬 주변은 불규칙하고 다양한 레이스 장신구 같은 해안선을 이루고 있다. 비와 바람, 햇빛과 눈, 서리와 안개,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물기, 땅에서 스며나오는 모든 물기가 끊임없이 그 형태를 다듬어 간다.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은 동쪽 해안 한 곳뿐이었다. 그곳은 지형이 움푹 패인 곳 아래, 전쟁 이후 대부분 버려진 어부들의 오두막들이 모여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작은 방파제에 가려진 그곳에는 굴곡진 바위가 열려 있었고, 바다결은 극도로 잔잔했다. 배 두 척이 묶여 있었다.

배를 댈 무렵, 오노린은 마지막 시도를 해보았다.

"베로니크 님, 보셨죠. 이제 다 왔어요. 그럼 내려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세요. 이 곳에서 두 시간만 지나면 아버님과 아들을 모셔 올 테고, 우리는 베그메일이나 폰트르아베에서 저녁을 먹어요. 알겠어요?"

베로니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답 없이 그녀는 방파제 위로 뛰어올랐다.

"자, 아이들아." 오노린이 그녀를 따라가며 더 이상 참권하지 않고 물었다. "프랑수아 소년은 오지 않았어?"

"정오 무렵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말했다. "다만 그는 내일 오실 줄만 알고 계셨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봐야죠."

남자들이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자,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을 수도원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가방들도요… 아니, 만약 제가 오후 5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이를 보내서 가방들을 가져오게 하세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한 선원이 말했다.

"좋아요, 코레주. 아, 마귀노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마귀노크는 떠났어요. 제가 그를 폰트르아베까지 태워주었죠."

"언제였죠, 코레주?"

"음, 당신께서 떠난 다음 날이었어요, 오노린느 마담."

"그곳에서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그가 자기 잘린 손 때문에… 순례를 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야 모르겠네요."

"순례라니? 아마도 포에의 성 바르바라 예배당일 거야."

"맞아요. 바로 그 예배당이에요. 그가 말한 이름이 바로 거기에요."

아니오르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제 마귀노크의 죽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베로니크는 베일을 다시 내려쓰고 그녀를 따랐다. 두 사람은 돌투성이이고 계단이 섞인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은 참나무 숲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섬의 북쪽 끝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어쨌든 말이지만," 아니오르느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 드 에르제몽 씨가 떠나길 원할지는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의 모든 이야기를 그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하죠. 비록 그 자신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의아해하긴 하지만요."

"그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베로니크가 물었다.

"도보로 사십 분쯤 걸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른 섬이나 다름없죠. 첫 번째 섬에 붙어 있는 곳이고, 과거에 베네딕트 수도회가 수도원을 세웠던 곳이에요."

"하지만 프랑수아와 마루 씨 말고는 아무도 없나요?"

"전쟁 전에는 사내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마귀노와 제가 거의 모든 일을 해냈죠. 요리사 마르그 르 고프와 함께요."

"그 요리사분은 당신이 부재중에도 그곳에 남아 있었나요?"

"물론이죠."

그들은 드디어 평지에 도착했다. 해안선을 따라 난 길은 가파른 경사지대를 오르내렸다. 여기저기 오래된 참나무들이 서 있었고, 아직 잎이 드문드문한 가지 사이로 여주구덩이 공들이 눈에 띄었다. 멀리서 바라본 대양은 회녹색을 띠었고, 흰색의 띠처럼 섬을 둘러싸고 있었다.

베로니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계획은 뭔가요, 오노린?"

"혼자 들어가서 당신의 아버지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는 정문에서 당신을 태워 올게요. 프랑수아에게는 엄마의 친구인 척 보이게요. 그는 차츰 눈치챌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반겨주실까요?"

"베로니크 부인, 아버지는 반드시 따뜻하게 맞아주실 겁니다!" 브르타뉴 여자가 외쳤다.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다만…… 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랑수아가 달려오지 않도록요. 섬 여기저기서, 글레낭 섬 근처에서까지 우리 카누가 보였을 테니까요."

그녀는 다시 드헤르몽 백작이 '허튼소리'라 부르던 생각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은 침묵을 지키며 길을 계속 걸었다. 베로니크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었다.

그때 갑자기 오노린이 십자 성호를 그었다.

"나를 따라 하세요, 베로니크 여사." 그녀가 말했다. "수녀들이 이곳을 성스럽게 만들었지만, 옛날의 나쁜 기운과 불길한 것들은 아직 남아 있어요. 특히 그 숲, 바로 큰 도 oak가 있는 숲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옛날이라 함은 아마도 드루이드 시대와 인간 제사의 시대를 의미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돌무더기 위에 서 있는, 서로 떨어진 참나무들이 마치 고대 신들처럼 우뚝 솟아 있는 숲속으로 들어섰다. 각 나무는 제단처럼, 신비로운 숭배처럼, 그리고 두려운 권위처럼 보였다.

베로니크는 브르타뉴 여인처럼 십자성을 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슬퍼요. 이 황량한 평원에는 꽃 한 송이도 없어요."

"고생만 하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단다. 섬 끝, 도르멘오 페즈 오른쪽에 있는 마귀노크의 꽃들을 보게 될 거야. 그곳은 칼바르플뢰리, 즉 '꽃이 만발한 십자가'라고 불리지."

"그 꽃들이 아름답단 말인가?"

"정말 경이롭다고. 하지만 땅을 캐는 데는 각기 다른 장소가 필요하단다. 그는 직접 흙을 채취하고, 준비하고, 다져. 그리고 자신이 그 힘을 알고 있는 특별한 잎사귀들과 섞어서 말이지."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마귀노크의 꽃들을 보게 될 거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꽃들을."

길은 언덕 너머로 급격히 내려갔다. 거대한 절벽이 섬을 둘로 갈랐고, 반대편에는 조금 낮고 크기도 훨씬 작은 또 다른 땅이 펼쳐져 있었다.

"저쪽이 수녀원입니다." 브르타뉴 여자가 말했다.

그 섬을 둘러싼 절벽은 더 가파르고 험준했다. 아래쪽은 왕관의 고리처럼 파여 있었다.

그 절벽은 본섬과 연결되어 있었다. 길이는 오십 미터쯤 되었지만, 두께는 성탑의 벽만큼이나 얇았다. 꼭대기는 가늘고 뾰족해서 도끼날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그 능선 위로는 길이 없었다. 중간에 넓은 균열이 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끝에 목교의 받침대를 놓았는데, 처음에는 바위에 직접 기대었고, 중간 균열은 힘차게 건너뛰는 형식이었다.

그들은 하나둘 그 위를 지나갔다. 다리가 매우 좁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튼튼하지도 못했다. 발걸음과 바람결에 다리가 흔들렸다.

"저기요, 저 작은 섬 끝자락을 보세요. 수녀원 건물 한쪽이 보입니다." 오노린이 말했다.

그곳을 향해 난 길은 작은 전나무들이 가지런히 심린 초원을 지나갔다. 다른 길은 오른쪽으로 꺾여, 빽빽한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베로니크는 낮은 정면을 드러낸 수도원 건물을 시선에서 놓지 않았다. 건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몇 분 뒤, 브르타뉴 여자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그녀는 오른쪽 수풀 쪽을 향해 몸을 돌리며 외쳤다.

"스텝느 씨!"

"누구를 부르세요? 마루 씨요?" 베로니크가 물었다.

"네, 프랑수아의 선생님이지요. 다리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사이를 봐서요. 스텝느 씨! 그런데 왜 대답이 없나요? 실루엣 같은 게 보이셨어요?"

"확실히 그 사람이에요. 하얀 베레모를 쓰고 있죠. 어차피 우리 뒤에 다리가 보이거든요. 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왜 기다려야 하죠? 만약 뭔가, 어떤 위험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수도원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서두릅시다."

그들은 예감이 몰려와 걸음을 재촉했다. 이유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현실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두려움이 극도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섬은 다시 좁아졌다. 낮은 담장이 그들을 막아섰다. 그 담장은 수도원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때, 저택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아를린이 외쳤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 들었어? 여자의 비명 같아! 주방장이야! 마르이 르 고프가…"

그녀는 대문 쪽으로 돌진했다. 열쇠를 쥐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어설퍼서 자물쇠와 열쇠가 엉켜 열리지 않았다.

"틈으로 들어가! 명령했다. 저기 오른쪽으로!"

두 사람은 뛰어나가 담장을 넘었다. 그리고는 폐허가 가득한 넓은 잔디밭을 가로질렀다.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좁은 길은 여기저기 덩굴과 이끼에 가려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오노린이 외쳤다.

"도착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마! 너무 무서워…… 아, 불쌍한 마리 르 고프여……"

그녀는 베로니크의 팔을 꼭 잡았다.

"둘러서자. 정면은 반대편에 있어. 여기는 문이 항상 잠겨 있고 창문 창문판도 닫혀 있거든."

베로니크는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무릎을 꿇고 쓰러진 그녀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브르타뉴 여자는 이미 그녀를 떠나 왼쪽 날개를 돌아 지나가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베로니크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곧장 달렸다. 계단을 올라가 닫힌 문에 부딪혔고,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기가 점점 더 격렬해졌다.

호노린처럼 집 둘레를 도는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결국 그 방법을 택하려던 찰나였다. 그때 다시금 집 안과 위쪽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베로니크는 그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챘다. 그녀는 몇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때, 1층 창문 중 하나가 갑자기 열렸다. 드헤르몽 부인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듯했다.

"도와줘! 도와줘! 저 괴물이야… 도와줘!"

"아빠! 아빠!" 베로니크가 절망적으로 불렀다. "나야!"

그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딸인 자신을 보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발코니를 넘으려 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총성이 터졌다. 창문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며 날아갔다.

"살인자! 살인자다!" 그가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며 비명처럼 외쳤다.

베로니크는 당황한 나머지 할 줄을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어떻게 아버지를 구해야 할까.

벽은 너무 높았고, 매달릴 만한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문득 시선이 20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집 바로 아래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의지와 에너지의 기적이라도 일으킨 듯, 베로니크는 사다리를 들어올렸다. 사다리는 꽤 무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열어 창문 아래에 세웠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정신이 혼란스럽고 고조되어 있을 때, 온몸이 공포의 전율로 떨릴 때조차도,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일정한 논리로 연결된다. 베로니크는 왜 오노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그녀의 개입은 왜 늦어지는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프랑소와도 생각했다. 프랑소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스테파누 마루를 따라 뜻밖의 도주길에 올랐을까, 아니면 구원자를 찾아 나섰을까. 그리고 드헤르몽 부인이 '괴물'이자 '살인자'라고 부르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사다리는 창문까지 닿지 않았다. 베로니크는 곧장 발코니를 넘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갈지 깨달았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위층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비명 섞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격렬한 몸싸움이었다. 베로니크는 사다리를 올랐다.

그녀가 겨우 잡을 수 있던 것은 발코니의 가장 아래 난간대뿐이었다. 하지만 좁은 받침대가 그나마 도움이 되었다. 무릎을 디디고 몸을 일으켜 고개를 내밀자, 방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전모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드헤르몽 씨는 다시 창가까지 물러서 있었다.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창문이 그를 거의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은 흐릿하게 떠 있었고, 팔은 불확실한 제스처로 뻗어 있었다. 곧이어 일어날 끔찍한 일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더듬거렸다.

"살인자… 살인자… 정말 너니? 아, 저주를 받아라! 프랑수아! 프랑수아!"

그는 아마도 손자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프랑수아 역시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쳤을지도, 죽었을지도 모른다.

베로니크는 다시 힘을 얻어, 발을 처마 끝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라고 그녀는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끊겨 버렸다. 그녀가 보았다. 정말로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 바로 앞, 다섯 발짝 떨어진 곳. 방 반대편 벽을 등지고 누군가가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총구는 드헤르몽 부인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조준하고 있었다.

그 존재는…… 오, 끔찍하다! 베로니크는 호노린이 말했던 붉은 베레모를 보고 있었다. 금단추가 달린 플란넬 셔츠도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격렬한 감정에 몸부림치는 젊은 얼굴에서 보르스키의 표정을 재확인했다. 증오와 야만적인 본능이 그를 들뜨게 할 때 나타나는, 그 특유의 표정이었다.

아이녀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이 도달하려던 목표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비명처럼, 그 치명적인 행동을 미루는 데서 어떤 야생적인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베로니크도 입을 다물었다. 말이나 비명은 위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막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기어올라, 매달리고, 창문을 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총성이 터졌다. 드헤르몽 부인은 고통의 신음을 터뜨리며 쓰러졌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가 팔을 뻗고 노인이 쓰러지던 바로 그 순간, 깊은 곳의 한 문이 열렸다. 오로린이 나타났고, 그 끔찍한 광경이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프랑수아! 비명처럼 외쳤다. '너야! 너라고!'

아이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브르타뉴 여자는 그에게 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싸움도 없었다. 아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손에 쥔 총을 갑자기 들어 올리고 발사했다.

오노린은 무릎을 꿇더니 문 앞에 몸을 던져 쓰러졌다.

프랑수아는 그녀의 몸을 뛰어넘어 도망쳤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아니, 거짓말이야… 세상에, 정말일까? …프랑수아…"

바깥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맞다. 아이가 웃었다. 베로니크는 그 끔찍하고 지옥 같은 웃음을 들었다. 보르스키의 웃음과 똑같았다.

그 웃음은 그녀를 극심한 고통으로 태웠다. 과거 보르스키 앞에서도 느꼈던, 그 불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살인자를 쫓지 않았다.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 곁에서 약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베로니크… 베로니크…"

데르제몽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이미 죽음이 가득한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피투성이가 된 조끼와 셔츠를 벗겨 내려다 보니, 그는 숨이 막힐 듯 아파했다. 그녀는 상처를 봐주려 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물리쳤다.

그가 더 이상 치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몸을 더 기울였다.

"베로니크…… 미안해…… 베로니크……"

그것은 의식이 흐려지는 그의 첫 마디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할 말이 더 있었다. 그의 입술은 무의미한 음절들을 내뱉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절박하게 그 소리를 들으려 애썼다.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정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베로니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다해 입술에 귀를 대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조심해…… 조심해…… 바위 신이……"

그가 갑자기 반쯤 몸을 일으켰다.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꺼져가는 불꽃의 마지막 빛에 불타오르는 듯했다. 베로니크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 존재가 가진 모든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간파한 것만 같았다.

그는 쉰 목소리로, 두려움에 떨면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남지 마. 남으면 네 목숨이 위태로워. 이 섬에서 도망쳐. 어서 가. 어서 가."

그의 머리가 다시 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비명처럼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베로니크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아, 십자가…… 사렉의 네 십자가…… 내 딸아, 내 딸아…… 십자가의 형벌이……"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순간, 거대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너무도 무거워, 젊은 여자는 매초마다 그 무게가 커져만 가는 짐처럼 느껴졌다.

"이 섬에서 도망쳐요! …"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반복했다.

"가버리세요."

베로니크 여사,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명하신 말씀입니다.

호노린은 그녀 곁에 서서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는 피로 물든 수건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해요!" 베로니크가 외쳤다. "기다리세요… 보여주세요."

"나중으로… 나중에 저를 돌봐 주세요…" 브르타뉴 여자가 더듬거렸다. "아! 그 괴물! 제가 제때에 도착했더라면! 하지만 아래 문은 막혀 있었어요…"

베로니크가 간청했다.

"치료 받으세요… 알겠어요…

"지금 당장… 먼저… 계단 끝에 있는 요리사 마리 르고프를 봐요. 그녀도 다쳤어요.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베로니크는 아들 도망친 뒷문으로 뛰어나갔다. 넓은 현관 층계가 나왔다. 첫 몇 계단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마리 르고프가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 의식을 잃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의 세 번째 희생자였다.

노인 마귀노크의 예언대로, 드헤르몽 씨는 두 번째 희생자가 맞았다.

제5장

베로니크은 오노리느의 상처를 돌봤다. 상처는 깊지 않았고, 브르타뉴 여인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마리 르 고프의 시신을 책으로 가득 찬 넓은 방으로 옮겼다. 그곳은 책상과 의자가 놓인 서재처럼 꾸며져 있었고,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곳이었다. 베로니크는 드헤르몽 씨의 눈을 감겨 주고, 시체에 이불을 덮어준 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입에서 기도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도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연이은 불행의 타격에 정신이 멍해진 듯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한 시간가량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편 오노리느는 고열에 시달리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억지로 밀어냈다. 예전부터 보르스키의 얼굴을 외면해 왔던 것처럼, 아들의 얼굴도 이제야 비로소 거부했다.

하지만 두 얼굴은 하나 되어 그녀를 에워쌌다. 눈을 감은 채로 그녀 앞에 춤을 추듯 맴돌았다. 우리 눈꺼풀이 굳게 닫힌 어둠 속에서 빛이 스치고, 되돌아오며, 수없이 번지고 서로 겹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결국 보인 것은 단 하나의 얼굴이었다. 잔인하고, 냉소적이며, 기괴하게 찌푸리고, 무시무시한 얼굴.

그녀는 울며 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열네 해 전에 죽었다. 그리고 방금 부활한 그 남자는, 그녀의 모성애가 언제든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남자는, 순식간에 낯선 이가 되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보르스키의 아들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온화한 한 지역을 그 뿌리째 뒤흔드는 대재앙처럼,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옥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다. 광기와 공포가 뒤섞인 환상, 그리고 가장 끔찍한 운명이 던진 냉소적인 농담이었다.

수많은 해의 이별과 애도 끝에, 드디어 두 아들을 품에 안고 평화롭고 친밀한 일상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아들은 살인자였다. 아들은 죽음을 뿌렸다. 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총을 겨누었고, 모든 악의와 비뚤어진 기쁨을 다해 아버지를 쏘아 죽였다.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무엇이든,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째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아마도 공범이었고, 아마도 주동자였을 지도 모를 수학 교사 스테파누 마루는 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쳤을까?

그녀는 그런 의문점을 풀려 하지 않았다. 오직 그 끔찍한 광경, 학살, 그리고 죽음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이 자신에게 유일한 피신처이자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하고 물었다.

"베로니크 님."

브르타뉴 여인이 속삭였다.

"무슨 일이오?"

젊은 여인이 경악에서 깨어나 물었다.

"들리지 않아요?"

"뭐요?"

"아래층에서 종소리가 나요. 아마도 당신의 짐이 들어오는 것 같소."

그녀는 재빨리 일어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만약 내가 이 아이를 고발한다면……"

"말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말하게 해주세요."

"정말 많이 지치셨네요, 불쌍한 오로린."

"아니요, 괜찮아졌어요."

베로니크는 계단을 내려가, 검은색과 흰색 타일로 깔린 넓은 현관문에서 빗장을 풀었다.

그는 정말 선원 중 한 명이었다.

"부엌에서 두드렸는데, 마리 르 고프가 없군요. 그리고 오로린 부인도요?"

"오로린은 1층에 있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선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창백하고 진지한 이 젊은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그는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오로린은 1층에서 열린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 너구나, 코레주? …잘 들어봐. …그리고 말썽 피우지 말자, 그렇지?"

"무슨 일이신가요, 오로린 부인? 다치셨나요? 무슨 일이죠?"

그녀는 문설주를 발견하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의에 싸인 두 시체를 가리키며.

"앙투안 씨와 마리 르 고프. 둘 다 살해당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말더듬듯 중얼거렸다.

"살해당했다고요? 정말일까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난 뒤였으니까."

"그렇다면… 작은 프랑수아는요? 스테판 씨는요?"

"실종됐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죽였겠죠."

"하지만… 마게노크는요?"

"마게노크?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코레주?"

"부르죠… 부를 수밖에요. 마게노크가 살아있다면, 이 모든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마게노크는 늘 자신이 첫 번째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게노크는 자신이 확신하는 말만 합니다. 마게노크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죠."

아노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선언했다.

"마게노크는 죽었습니다."

이제 코레주는 모든 침착함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베로니크가 여러 차례 기록한, 오노린에게서 보았던 그 광기 어린 공포가 드러났다. 그는 성호를 그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럼…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는 건가, 오노린 영혼아?… 마귀노크가 예고했지… 얼마 전에도 내 배 안에서 그에게 들었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 모두 떠나라.'"

그리고 선원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계단 쪽으로 도망쳤다.

"거기 서 있어, 코레주." 오노린이 명령했다.

"떠나야 해. 마귀노크가 그렇게 말했어. 모두 떠나라고."

"거기 서 있어." 오노린이 다시 말했다.

선원이 주저하며 멈춰 서자, 그녀는 계속했다.

"그래, 동의했어. 당장 떠나야 해. 내일 해 질 무렵 출발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안토니와 마리 르 고프를 처리해야 해. 자,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장례 준비를 위해 아르시냐트 자매들을 보내줘. 자매들은 좀 독한 여자들이지만, 일은 잘하거든. 셋 중 두 명만 오게 해. 일당은 평소의 두 배로 주지."

"그리고 나서요, 오노린 아가씨?"

"구덩이 파는 일들은 다른 노인들과 함께 네가 맡아. 새벽부터 시신을 성지, 즉 예배당 부지의 묘지에 묻을 거야."

"그리고 나서요, 오노린 아가씨?"

"그다음엔 네가 자유로워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짐을 싸서 도망쳐도 돼."

"하지만 오노린 아가씨, 당신은요?"

"나는 보트를 가지고 있어. 이제 충분히 수다 떨었지. 우리 의견이 일치했지?"

"알았어. 그냥 밤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아니, 전혀 없어. 가라, 코레주. 서둘러. 그리고 마귀노크가 죽었다는 말은 다른 누구한테도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게 될 테니까."

"약속할게, 오노린 자매님."

선원은 재촉하며 자리를 떴다.

한 시간 뒤, 아르기냐트 자매 중 두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뼈만 남은 마른 몸매의 노부인들이었고, 마녀처럼 보였다. 검은 벨벳 날개가 달린 그들의 갓은 지저분하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오노린은 왼쪽 날개의 끝자락에 위치한, 같은 층의 방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영결식이 시작되었다.

베로니크는 이 밤을 먼저 아버지 곁에서 보냈다. 이어 호노린의 침상 옆을 지켰다. 호노린의 상태가 더 나빠진 듯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잠들었다. 하지만 브르타뉴 여인이 깨웠다. 여인은 열이 오르면서도 의식이 완전히 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건넸다.

"프랑수아는 숨어야 해요. 스테판 씨도요. 마귀노크가 알려준, 섬 안의 안전한 은신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발견되지 않을 거고,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알게 못 할 거예요."

"정말 확신하시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내일, 모든 사람이 사레크를 떠난 뒤, 우리 둘만 남게 되면, 저는 소라로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여기로 올 거예요."

베로니크는 반발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아버지와 똑같이, 저도 그를 저주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는 제 눈앞에서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마리 르고프도 죽였고, 당신까지 죽이려 했잖아요! 아니, 아니, 이건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그 괴물에 대한 깊은 혐오예요!"

브르타뉴 여인은 평소 하던 대로 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아직 그를 단죄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알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봤어요. 보르스키의 눈을요."

"알지 못했어요. 그는 미쳤거든요."

"미쳤다고요? 그럴 리가요."

"네, 베로니크 님. 저는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그처럼 착한 아이는 드물죠.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한순간의 광기였을 뿐이에요. 스테파뉴 님처럼요. 지금 그들은 절망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믿지 못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알았다면요. 아,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크게 뜨린 채였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아침까지 별일 없이 시간이 흘렀다. 다섯 시쯤 되었을 때, 베로니크는 관을 못질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녀가 있는 방의 문이 열렸다. 아르니냐트 자매가 바람처럼 들어왔다. 둘 다 매우 당황해하며.

그들은 코레주로부터 진실을 알게 되었다. 코레주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 결과 제멋대로 말을 내뱉고 있었다.

"마귀노가 죽었어요!" 그들이 외쳤다. "마귀노가 죽었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떠날 거예요. 빨리, 우리 돈을 주세요!"

일이 해결되자, 두 여자는 발길 재게 도망쳤다.

한 시간 뒤, 그들의 소식을 들은 다른 여성들이 몰려와 일하고 있던 자신의 남편이나 연인을 끌어당겼다. 모두 같은 말을 외쳤다.

"서둘러야 해! 모든 준비를 해 둬야 해……. 그러지 않으면 늦어버려. 두 척의 배가 모두를 태울 수 있거든."

오노린은 온갖 권위를 동원해 일을 처리했고, 베로니크는 돈을 나누어 주었다. 장례는 급히 치러졌다.

그곳 근처에는 오래된 예배당이 있었다. 드헤르몽 씨가 손수 보수를 해둔 곳이었다. 매달 폰트르아베의 사제가 와서 미사를 드리곤 했다. 옆에는 사렉 추기경들의 옛 묘지가 있었다. 두 시체는 그곳에 묻혔다. 평소 성당지기 노릇을 하던 노인이, 축복의 말을 더듬거리며 외웠다.

그들 모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목소리도, 동작도 불규칙했다. 떠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들은 베로니크

를 돌보지 않았다. 베로니크는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며 울고 있었을 뿐이었다.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모든 일이 끝났다. 남자와 여자들이 섬을 가로질러 내달렸다. 베로니크는 꿈속에서처럼, 논리도 인과관계도 없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악몽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호노리네 곁으로 돌아갔다. 호노리네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주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브르타뉴 여자가 말했다. "오늘이나 내일, 프랑수와와 함께 떠날 거예요."

베로니크가 반발하자, 그녀는 똑같이 반복했다.

"프랑수와와 함께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고 스테파니옹과 함께요. 가능한 한 빨리요. 저도 떠날 거예요… 프랑수와를 데리고, 당신도 데리고요… 섬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이 땅의 주군이에요… 사렉은 그에게 맡겨야 해요. 우리 모두 떠날 거예요."

베로니크은 그녀를 더 이상 속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밤 아홉 시쯤, 또다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렸다.

마을에서 내려온 코레주였다. 그는 문간에 서서 소리쳤다.

"호노린, 보트가 도둑맞았어요! 보트가 사라졌다고요!"

"말도 안 돼!" 브르타뉴 여자가 반박했다.

숨을 헐떡이던 선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뭔가 이상한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 일만은 잊어버렸죠. 그 뒤로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걸 봤어요. 밧줄이 잘려 있었거든요. 밤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쳤죠. 숨도 들이마시지 않는 사이였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생각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프랑수와 스테파노 마루가 도망친 것이다.

호노린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 그렇겠지. 그는 조종법을 알고 있으니까."

베로니크는 아이가 떠났고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포에 질렸던 오로린은 다시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오로린 양. 보트도 준비됐어요. 짐을 싸세요. 열한 시까지에는 마을에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베로니크가 나섰다.

"오로린은 지금 갈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아졌어요." 브르타뉴 여자가 말했다.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코레주, 그다음 날 다시 오세요."

그녀는 문 쪽으로 선원을 밀어냈다. 선원은 애초에 멀리 도망치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군. 그다음 날에 다시 오지. 어차피 다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가끔씩은 다시 와야지. 잘 지내라, 호노린."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코레주! 코레주!"

호노린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아니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코레주. 저를 기다려 주세요. 제 배에 태워 주실 거죠."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선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다.

"무서워요. 혼자 남고 싶지 않아요."

베로니크가 그녀를 붙잡았다.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호노린.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두 여자 사이에서 진지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호노린은 힘껏 침대 위로 밀려났고, 어쩔 수 없이 신음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섬은 저주받았어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건 신을 시험하는 짓이죠… 마귀노크의 죽음은 경고예요… 무서워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말을 내뱉었지만, 여전히 반쯤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초자연적인 신앙심이 강한 브르타뉴 여자의 본심이 드러나는 비논리적인 말들 사이로, 또렷하고 이성적인 단어들을 섞어 낼 수 있었다.

그녀는 베로니크의 어깨를 양손으로 꽉 쥐고 말했다.

"제가 말하고 있어요… 이 섬은 저주받았어요… 어느 날 마귀노크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사렉은 지옥의 문 중 하나야.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언젠가 그 문이 열리면 모든 재앙이 폭풍처럼 닥칠 거야.'"

베로니크의 간청에 그녀는 조금 진정했다. 그리고 점점 약해져 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녀는 이 섬을 좋아했어요. 우리 모두처럼요. 그런데 그녀는 늘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섬을 이야기했죠. '문은 두 개야, 오노린. 그리고 그 문은 둘 다 천국으로 통하지.'"

"그래, 이 섬은 살기 좋은 곳이었어. 우리 모두 이 섬을 사랑했지. 마귀노크는 여기서 꽃을 키웠어. 오, 그 꽃들은 정말 거대했어. 키가 세 배는 더 컸고, 훨씬 아름다웠지."

무거운 시간이 몇 분이나 흘렀다. 방은 집 끝자락에 자리 잡았는데, 돌출된 구조로 되어 있어 창문이 섬의 좌우를 내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바다를 호위하듯 우뚝 선 바위들이 보였다.

베로니크는 앉은 채로, 더 강해진 바람에 일렁이는 하얀 파도만 응시하고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고, 브르타뉴의 해안선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쪽을 바라보면, 검은 암초들이 뚫고 나간 거품의 띠 너머로, 황량한 대서양의 평원이 시야에 들어왔다.

졸음에 빠진 브르타뉴 여인은 중얼거렸다.

"문은 돌이라고 하지. 아주 먼 곳, 이방 나라에서 온 돌이라고. 바로 '신(神)의 돌'이지. 또 그것은 귀중한 돌이라고도 해. 금과 은이 섞인 돌이라고. 신의 돌… 생사를 가르는 돌이라고."

"마귀노크가 그걸 봤어. 문이 열리자 그의 팔을 넣었지. 그런데 그의 손… 손이 재가 되어 떨어졌다고."

베로니크는 숨이 막혔다.

그녀도 점점 공포에 사로잡혀 갔다. 나쁜 물기가 스며들듯, 깊게 파고드는 듯했다.

최근 며칠간 그녀가 절망에 떨며 지켜본 끔찍한 일들은, 더 무서운 일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그녀는 그것을 허리케인처럼 기다리고 있

었다. 모든 징후가 그것을 예고했고,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며 지축을 흔드는 듯했다.

그녀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해 거세게 몰아치는 치명적인 공격은, 이미 운명적인 힘에 의해 부채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들이 보이지 않나요?" 오로린이 물었다.

베로니크가 말했다.

"여기서는 볼 수 없어요."

"보여요. 분명히 그 길로 갈 거예요. 배는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곶 쪽으로 더 넓은 수로가 있거든요."

잠시 후, 베로니크는 곶 끝에서 배의 앞부분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배는 물속으로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짐이 너무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상자들과 꾸러미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네 명의 남자가 힘차게 노를 저었다.

"꼬레주호의 배예요." 호노린이 반쯤 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저기 다른 배도 보이네요."

두 번째 배도 무거운 짐을 실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노를 저은 사람은 세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에 불과했다.

두 배는 모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 700미터에서 800미터쯤 될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선체에서,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비참함으로 가득 찬 배들에서, 목소리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주님! 주님! 그들이 지옥에서 나오는군요!"

"호리나, 당신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소? 그들을 위협할 건 아무것도 없잖소."

"있어요. 그들이 섬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섬을 떠났소."

"섬 주변은 모두 섬이나 다름없소. 그곳에서 관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다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닌데."

"바다 말고도 다른 게 있어요. 적수는 바다가 아니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몰라요… 몰라요…"

두 개의 보트가 북쪽 끝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브르타뉴 여자가 두 개의 암초 이름에서 따온 두 개의 통로를 가리켰다. 하나는 '악마의 바위', 다른 하나는 '사렉의 이빨'이었다.

곧바로 코레주악이 '악마의 통로'를 선택했음이 눈에 띄었다.

"저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브르타뉴 여자가 말했다. "저기 도착했어요… 아직 백 미터만 더 가면 구원받는 거죠."

그녀는 거의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사탄의 모든 꾀가 물거품이 될 거야. 베로니크 여사, 우리 둘은 물론 사레크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베로니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숨이 막히는 증상은 여전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계선을 마음속으로 그렸고, 그 선은 아직 코레주에게 닿지 않았다.

오노린은 열병으로 몸이 떨렸다.

"두려워…… 무서워……"

"아니야." 베로니크가 몸을 바짝 긴장하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야. 도대체 어디서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아!" 브르타뉴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일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두 여자는 이마를 창문에 바짝 대고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무언가 마치 사레크 이빨에서 솟구친 듯 나타났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어제 자신들이 탔던 모터보트를 알아봤다. 코레주이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던 바로 그 배였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오노리느는 놀란 목소리로 입술을 움직였다. "프랑수아와 스테파느 씨!"

베로니크는 그 아이를 알아봤다. 아이는 보트 앞에 서서 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노를 저으며 답했고, 여자들은 팔을 휘저으며 반응했다.

베로니크가 말렸음에도 오노리느는 창문 양쪽 문을 활짝 열었다. 두 사람은 모터 소음 사이로 목소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단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도대체 무슨 뜻이죠?" 브르타뉴 여자가 다시 물었다. "프랑수아와 스테판 씨…… 왜 해안가까지 닿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베로니크는 설명했다. "도착했을 때 눈에 띄고 질문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어요. 특히 프랑수아는 자주 저와 함께 다녔죠. 게다가 신분증은 보트에 그대로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호노린, 만약 그들이 숨어 있었다면, 왜 지금 모습을 드러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코레주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척의 보트는 거의 멈춰 섰다. 두 번째 보트는 첫 번째 보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모든 승객들은 응급정을 향해 돌아섰다. 응급정은 빠르게 그들을 향해 다가왔고, 두 번째 보트와 나란히 닿을 무렵 속도를 줄였다. 이로 인해 응급정은 두 보트가 그은 선과 평행하고, 그로부터 15~20미터 떨어진 선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브르타뉴 여자가 중얼거렸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응급정은 매우 느린 속도로 두 보트 사이의 간격을 좁혀 갔다.

그리고 갑자기 두 여성은 프랑수아를 보았다. 그는 몸을 굽혔다 곧 일어서더니, 무언가를 던지려는 듯 오른쪽 팔을 뒤로 빼들었다.

동시에 스테파누 마루크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

예상치 못했고,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아!" 베로니크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가렸지만, 곧 고개를 들고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작은 공간 너머로 두 가지 물체가 날아들었다. 한 가지는 프랑수아에게서, 다른 한 가지는 스테파누 마루크에게서 던져진 것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보트에서 불꽃이 치솟았고, 이어 두 무리의 연기가 소용돌이쳤다.

폭음이 울려 퍼졌다. 순간, 그 검은 안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때 바람이 커튼을 옆으로 밀어 올렸다. 베로니크와 브르타뉴 여자는 두 척의 보트가 빠르게 가라앉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떤 존재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 광경은 짧았다. 그리고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그들은 부표 하나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시체들이 보였다. 아마 폭발에 맞아 죽은 것 같았다. 그리고 두 남자가 싸우고 있었다. 아마 미쳐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보트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약간의 물결 일렁임. 수면 위에 떠 있는 검은 점들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오노린과 베로니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어난 일은 그들의 불안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끔찍했다.

마침내 오노린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베로니크는 그 억양을 잊지 못할 터였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 불쌍한 사렉 사람들!… 그들은 내 친구였어. 어릴 적 친구들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바다는 죽은 자를 사렉으로 돌려주지 않아… 바다 죽은 자를 감춰두지… 미리 준비된 관들이 있어… 수천, 수만 개의 숨겨진 관들이…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프랑수아처럼… 불쌍한 내 프랑수아!"

베로니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는 굳게 쥐고 있는 손으로 발코니 난간을 꼭 붙잡은 채, 마치 자신도 함께 떨어질 깊은 구덩이를 내려다보듯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들리는 비명처럼, 고통에 찬 그들의 비명을 듣는 그들을 구해야만 하는가? 지체 없이 구해야만 하는가?

사람은 가끔 미친 듯이 충동을 부리기도 하지만, 어떤 광경을 보면 그 충동도 가라앉게 마련이다.

보트는 처음부터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바로 뒤로 물러나 있었다. 붉은 베레모와 흰 베레모를 쓴 프랑수아와 스테파노는 여전히 앞과 뒤의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다.

두 여성은 거리가 있어 선명하게 보지 못했다.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조금 긴 막대기처럼 보였다.

"구명용 장대를…" 베로니크의 속삭임이 들렸다.

"총이라도 좋겠군." 오로린이 대답했다.

검은 점들이 물결 위를 떠다녔다. 아홉 개였다. 살아남은 아홉 명의 머리였다. 때로는 팔을 휘저으며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들의 비명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몇몇은 보트에서 급히 물러났지만, 네 명은 다가왔다. 그중 두 명은 곧 우리 곁에 닿을 듯했다.

순간, 프랑수와 스테파뉴가 같은 동작을 취했다. 사수가 총을 어깨에 메는 동작이었다.

두 개의 빛이 번뜩였고, 이어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수영하던 두 명의 머리가 사라졌다.

"악마들아…" 베로니크는 절뚝거리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온몸이 떨려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 곁에서 오로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프랑슈!… 프랑슈!…"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바람에 막혀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브르타뉴 여자는 계속 외쳤다.

"프랑수아!… 스테파누!"

그리고는 방 안을 뛰어다니다가 복도로 나가 무언가를 찾았다. 그러다 다시 창가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들어요…."

드디어 그녀는 신호용으로 쓰던 조개껍질을 찾아냈다. 하지만 입에 대고 불어보아도 나오는 소리는 흐릿하고 둔탁하기만 했다.

"아! 저주받을!… "

그녀는 조개를 던지며 헛간거렸다. "힘이 다 떨어졌어요… 프랑수아!… 프랑수아!…"

그녀의 모습은 섬뜩할 지경이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고, 열병으로 땀범벅인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베로니크는 그녀를 애원하듯 말했다.

"오노린, 제발요."

"하지만 저들을 보세요! 저들을 봐요!"

그곳에서 보트는 앞으로 나아갔다. 두 사수들이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총구는 이미 범죄를 위해 준비된 상태였다.

생존자들은 도망쳤지만, 두 명은 뒤처졌다.

그 두 명이 조준되었다. 그들의 머리가 사라졌다.

"보세요, 보세요!" 브르타뉴 여자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사냥이에요! 사냥감처럼 쏘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불쌍한 사렉 사람들!"

총성이 또 울렸다. 검은 점이 하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베로니크는 절망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발코니 난간을 흔들었다. 마치 자신을 가둔 새장의 철창을 부수려는 듯했다.

"보르스키! … 보르스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기억에 시달리며 신음했다. "그건 보르스키의 아들이야…"

갑자기 그녀의 목이 조여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 식별할 수 없는 브르타뉴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너의 아들이야, 네 아들…… 저주받아라…… 너는 괴물의 어머니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호노린은 발을 동동 구르며 폭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은 그녀를 경련이 나게 할 정도로 격렬했다.

"십자가! 그래, 십자가…… 너는 십자가에 오를 거야…… 손에 못을 박아라…… 무슨 형벌이랴…… 손에 못을 박아라!"

그녀는 미쳐버린 것이었다.

베로니크는 몸을 빼내 호노린을 제자리에 묶으려 했지만, 호노린은 악의에 찬 분노로 그녀를 밀쳐냈다. 균형을 잃은 베로니크를 제쳐둔 채, 호노린은 재빨리 발코니로 올라갔다.

그녀는 창문 위에 서서 팔을 뻗으며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집안 이쪽은 지형이 달라 층고가 낮았다.

브르타뉴 여인은 길로 뛰어내려 가로질렀다. 가장자리를 따라 심어진 수풀을 넘고, 절벽을 이루며 바다를 내려다보던 바위 정상 쪽으로 달렸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키워온 아이의 이름을 세 번 불렀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내밀어 심연으로 몸을 던졌다.

먼 곳에서 '인간 사냥'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나둘, 머리가 수면 속으로 가라앉았다. 학살이 끝난 것이다.

프랑수와 스테파누스가 탄 보트는 브르타뉴 해안, 베그메이와 콩카르노 해변 쪽으로 도망쳤다.

베로니크는 서른 개의 관이 있는 섬에서 홀로 남았다.

'구해 내겠습니다. 아버님은 두 번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저는 제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우리도 함께 갑니다." 베로니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발요, Honorine은 간청했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에게 맡기세요.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아버님과 아들을 모셔오겠습니다."

"왜요?"

"거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있어요. 아버님께도, 특히 당신께도 말이죠. 네 개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그 십자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섬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럼 제 아들은요?"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요."

베로니크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몇 시간 뒤라니! 미친 소리가 다 뭐예요! 어떻게요? 저는 열네 해째 아들을 잃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아이를 안아보기 전에 기다리라고요? 단 한 시간도요! 저는 그 순간을 미루기보다는 천 번 죽는 게 낫습니다."

호노린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베로니크의 결심이 이미 굳어졌으며, 그걸 막아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십자성을 긋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두 사람은 좁은 다릿길 한가운데에 놓인 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호노린이 엔진에 불을 붙이고 핸들을 잡았다. 물면 바로 위를 노려보는 암초와 바위들을 피해, 그녀는 손재주 좋게 배를 몰아냈다.

제6장

베로니크는 서른 개의 관이 있는 섬에서 홀로 남아 있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름 사이로 내려갈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에 기대어 주저앉은 채, 팔을 창틀에 괴고 고개를 파묻은 채 그대로였다.

어둠 속 그녀의 마음속으로 현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보고 싶지 않아 애썼지만, 때때로 그 장면들은 또렷해져서 끔찍했던 순간들을 다시 겪는 듯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설명을 찾지도 않았고, 비극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려 하지도 않았다. 프랑수아와 스테파네 마루의 광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런 행위에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살인자가 모두 미쳐 있다고 믿었기에, 그녀들은 어떤 계획이나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그녀가 눈앞에서 폭발하듯 드러난 오노린의 광기는, 모든 사건이 사렉 주민 전체를 괴롭힌 정신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했다. 그녀 자신도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뇌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생각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자신 주변을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이 들었지만, 꿈속은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너무 불행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게다가 그녀는 희미한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멍한 정신 속에서 그 소리는 적대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적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앞쪽 세 발짝 거리에 이상한 동물이 앉아 있었다. 뒷다리에 몸을 기대고 있는 그 동물은 갈색 털로 뒤덮여 있었고, 앞다리는 팔처럼 교차되어 있었다.

그것은 개였다. 그녀는 곧 프랑수아의 개를 떠올렸다. 오노린은 그 개가 헌신적이고 유쾌한 녀석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 이름까지 기억해 냈다.

'모두 잘 돼'

그 이름을 반쯤 낮게 내뱉자, 그녀는 분노에 떨었다. 그리고 그 아이러니한 별명으로 치장한 그 짐승을 쫓아내려다 말았다.

'모두 잘돼!'

그녀는 끔찍한 폭풍의 모든 희생자들을 떠올렸다. 사렉의 모든 죽은 자들,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사렉, 자살한 오노리느, 그리고 미쳐버린 프랑수아.

'모두 잘돼!'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노리느가 묘사했던 그대로,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한쪽 눈을 감은 채였다. 입꼬리는 귀 뒤로 당겨져 있었고, 팔은 꼬아 쥔 채였다. 그리고 정말로, 그 얼굴에서는 미소라는 것이 우러나오고 있었다.

베로니크는 문득 기억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해 '퉁바비앙'이 취하는 방식이었다. 퉁바비앙은 눈물을 견딜 수 없었다. 누군가 울면, 그 사람이 미소 지으며 자신을 쓰다듬을 때까지 그는 멋을 부리며 우쭐댔다.

베로니크는 미소 짓지 않았다. 대신 개를 품에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니, 내 사랑스러운 녀석. 모든 게 잘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다 엉망이지. 어쨌든 살아야 해, 그렇지? 다른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게 되지 말고 말이야…"

삶의 요구는 그녀에게 행동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몇 가지 식량을 찾아내 그중 상당량을 개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랐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1층에 있는 방 문을 열었다. 평상시라면 비어 있을 방이었다.

그녀는 온몸에 깊은 피로가 몰려왔다. 그동안 해온 노력과 격렬한 감정들이 그 피로를 부른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잠들었다.

통통이 그녀의 침대 곁에서 지켰다.

다음 날 그녀는 늦게까지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의 삶이 베장송에서 보냈던 평온하고 차분했던 과거의 삶과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겪었던 몇 날의 공포는 멀리 떨어진 과거의 사건처럼 느껴졌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안심할 수 있었다.

거대한 폭풍 속에 사라진 사람들은 그녀에게 있어, 잠시 마주쳤지만 다시는 보지 않을 낯선 이와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슬픔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닿지 않았다.

그것은 예상치 못했고 끝이 없는 쉼이었다. 위로가 되는 고독이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기에, 그녀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증기선이 도착해 정박해 있었음에도 말이다.

아마도 전날 밤, 해안에서는 폭발의 빛과 굉음을 목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베로니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기선에서 작은 배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곧 배가 마을에 닿아 수색을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 가지 이유로 불안했다. 첫째,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들이 연루될까 봐 두려웠다. 둘째, 그녀 자신이 발견되어 조사받고, 이름과 신세, 과거사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다시 지옥 같은 과거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기다리기로 했다. 우연히 섬 앞을 지나가는 어부의 배를 만나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하지만 아무도 수도원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증기선은 멀리 떠났고, 젊은 여성의 고독을 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사흘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다. 운명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되찾았다. 큰 위안을 주었던 토와바뱅도 사라졌다.

프리우레의 영지는 작은 섬의 끝자락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은 15세기에 버려져 점차 폐허가 되고 파괴된 베네딕트파 수도원의 터였다.

18세기, 부유한 브르타뉴 선주들이 옛 수도원 건물과 예배당의 석재들을 활용해 지은 이 집은 특별한 볼거리가 없었다. 건축 양식도, 가구들도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베로니크는 더 이상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닫힌 문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기억이 그녀를 발걸음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튿날, 맑고 화창한 봄 햇살 아래 그녀는 정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정원은 섬 끝까지 이어졌고, 집 앞의 잔디밭처럼 여기에도 무너진 석조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위로는 담쟁이넝쿨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산책로가 가파른 곶을 향해 뻗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곶 정상에는 거대한 참나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가 곶 끝으로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바다를 향해 반달 모양으로 열린 광장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그 광장 한가운데에는 돌멘이 길게 누워 있었다. 타원형이면서 다소 짧은 돌판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두 개의 바위 기둥을 받치고 있는 구조였다. 이곳은 장엄하면서도 위엄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멀리 끝없이 펼쳐진 바다 풍경은 보는 이의 숨을 막히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호리닌이 말한 선녀의 돌멘이군.'

그녀는 생각했다. '칼바르플뢰리와 마귀노크의 꽃 근처를 지나온 것 같은데,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

그녀는 거석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안쪽을 향한 두 발 부분에는 해독할 수 없는 새겨진 문자들이 몇 개 보였다.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마치 비문용 판석처럼 평평하게 다져져 있던 바깥쪽 두 면에는, 그녀를 다시 한 번 오싹한 공포에 떨게 할 것들이 적혀 있었다.

오른쪽에는 네 개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형편없이 어설프고 원시적인 그 그림 위로는 네 명의 여성 형상이 고통스럽게 비틀거리는 듯했다.

왼쪽에는 일련의 글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바위 깊숙이 파내지 못해 비바람에 거의 지워졌거나, 어쩌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긁어낸 자국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몇몇 단어들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귀녹의 시체 옆에서 발견된 그림에서 베로니크가 읽었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다.

« 네 명의 여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도다… 서른 개의 관이 있도다… 생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주기도 하는 '피에르디외'의 바위. »

베로니크는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떼었다.

그녀 앞에 여전히 신비는 놓여 있었다. 섬 곳곳에 그랬듯, 그 신비는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가 사렉 섬을 떠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신비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길은 숲속 한가운데서 시작해 오른쪽 끝의 마지막 참나무 곁을 지나갔다. 그 나무는 아마 번개에 맞아 완전히 사라진 듯했고, 남은 것은 줄기와 몇 개의 마른 가지뿐이었다.

그녀는 더 나아가 돌계단을 몇 단계 내려갔다. 작은 초원을 가로질러, 네 줄로 늘어선 단층석비 사이를 지나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섞인 비명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나온 소리였다.

"마귀녹의 꽃들이군요."

그녀가 따라가던 중앙 통로의 마지막 두 개의 멘히르가 서 있었다. 마치 열린 문 기둥처럼,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하게 했다.

길이 오십 미터도 채 되지 않는 직사각형 광장이었다. 몇 계단을 내려가면 닿는 곳이었다.

광장 양쪽으로는 사원의 기둥처럼 같은 높이의 멘히르 두 줄이 늘어섰다. 간격도 완벽하게 같았다.

이 사원의 중앙과 양옆은 넓은 화강암 판석으로 깔려 있었다. 돌들은 제각기 모양이 다르고 깨져 있었다. 틈새로 자란 잔디가 마치 스테인드글라스를 둘러싼 납선처럼 돌조각들을 그렸다.

한가운데는 크지 않은 네모난 공간이 있었다. 그 네모 안에는 오래된 돌로 만든 그리스도상이 중앙에 우뚝 서 있었고, 그 주위로 꽃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 꽃들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꽃들이었다. 환상적이고, 꿈결 같으며, 기적 같은 꽃들. 평범한 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했다.

베로니크는 그 꽃들을 모두 알아봤다. 하지만 그 위대함과 화려함 앞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종류는 다양했지만, 각 종류는 몇 송이씩만 있었다. 마치 모든 색깔과 향기, 아름다움을 한데 모으려고 정성스럽게 만든 꽃다발 같았다.

더욱 기이한 점은, 평소엔 한꺼번에 피지 않고 달마다 차례로 피어오르던 이 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보통 이 꽃들은 피어난 지 보름에서 삼 주면 시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날, 모든 꽃이 동시에 만개했다. 붉고, 눈부시며, 화려하게. 힘찬 줄기에 기대어 당당하게 꽃봉오리를 터뜨렸다.

버지니아에서 온 ephemeral(ephémère)부터, 데이지, 나리, 앵초, 피처럼 붉은 팬지, 주교의 로브보다 더 선명한 보랏빛 아이리스까지. 여기에는 할미꽃도, 플록스도, 후샤도, 독활도, 몬브레티아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오! 그 젊은 부인이 어떤 혼란에 휩싸였는지 모른다! 눈부시게 빛나는 꽃바구니 너머로, 예수님의 받침대 주위를 두른 좁은 화단에 더 높이 자라난 베로니크들이 있었다. 푸르고, 하얗고, 보랏빛 꽃송이들이 마치 구세주의 몸까지 닿으려 몸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기절할 뻔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받침대에는 작은 팻말이 달려 있었다. 거기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의 꽃'

베로니크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우리 땅의 꽃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꽃들이 피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기묘한 현상이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거나, 마귀노크만이 아는 마법 주문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려 하지는 않았다.

아니다.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매우 단순한 이유일 테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 모든 것을 명쾌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런데 신성한 의식의 중심, 그가 자신의 존재만으로 기적을 불러일으킨 듯한 그 한복판에서, 꽃들이 자신의 색깔과 향기를 바치는 듯이 피어 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베로니크는 무릎을 꿇었다.

다음 날과 그다음 날, 그녀는 다시 칼베르플뤼리에 돌아왔다. 이번엔 그녀를 둘러싼 신비로운 기운이 가장 매력적으로 드러났고, 그녀의 아들은 꽃들, 특히 베로니크 꽃들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볼 때 증오나 절망 따위 없이도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섯째 날, 그녀가 식량이 바닥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 중반쯤, 그녀는 마을로 내려갔다.

아래쪽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집들이 여전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인들이 떠날 때,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이 조여 들어, 그녀는 그 문을 넘어서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창턱에는 제라늄이 화분에 심겨 있었다. 방금 비어 있는 방들 안에서는 놋쇠 진자가 달린 큰 시계가 여전히 시간을 재고 있었다. 그녀는 발을 돌렸다.

하지만 부두 근처의 어떤 창고 아래에서, 그녀는 오노리느가 보트로 가져온 가방과 상자들을 발견했다.

'좋아,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몇 주치 음식이 충분해. 그리고 그때까지…'

그녀는 바구니에 초콜릿과 구운 빵, 통조림 몇 개와 쌀, 성냥을 챙겼다. 그리고 수녀원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섬 반대편까지 산책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다시 올 때 바구니를 가져가면 되니까.

그림자 지는 길이 언덕을 따라 평원으로 이어졌다. 풍경은 달라진 게 없었다. 평야도, 농사나 목축을 하지 않는 황야도, 오래된 참나무 숲도 모두 똑같았다.

섬은 점점 좁아졌다. 바다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없었다. 양옆으로 바다가 펼쳐졌고, 멀리 브르타뉴 해안선도 또렷이 보였다.

그리고 절벽과 절벽 사이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도 있었다. 그것은 한 재산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 재산은 보기에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긴 오두막과 지붕이 여러 번 수선된 부속 건물들이 즐비했다. 마당은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녹슨 철폐기와 장작더미로 가득 차 있었다.

베로니크는 이미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섰다. 혼란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녀는 비명 같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귀를 기울이자, 거대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이어지는 소음들. 고통과 부름의 비명, 여인들의 울부짖음.

사레크에 도망치지 못한 주민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인가?

그녀는 기쁨을 느꼈다. 슬픔도 섞여 있었지만. 사레크에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두려움도 들었다. 이 사건이 그녀를 다시 죽음과 공포의 고리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베로니크로 봐도 그 소리는 집이 아니라 마당 오른쪽에 있는 부속 건물에서 나는 것 같았다. 마당은 낮은 울타리 하나로 막혀 있었다. 베로니크는 울타리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 마찰음이 나며 문이 열렸다.

부속 건물 안에서는 비명이 더 커졌다. 분명히 누군가가 들은 듯했다. 베로니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부속 건물의 지붕은 일부가 뜯겨 나갔지만, 벽은 두껍고 튼튼했다. 철제 보강재가 덧대어진 낡고 아치형의 문들이 그 단단함을 자랑했다. 그중 한 문 안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부르는 소리도 더 절박해졌다.

"도와줘!… 도와줘!"

하지만 곧 다툼이 벌어졌다. 그리고 더 낮고 거친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제발 좀 조용히 해, 클레랑스. 혹시 저들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제르트루드. 저들이 아니야! 소리가 안 들려! 빨리 문 좀 열어, 열쇠가 분명 여기에 있어…"

베로니크는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다가, 자물쇠에 꽂힌 거대한 열쇠를 발견했다. 그녀는 열쇠를 돌려보기만 했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곧바로 아르시냐트 자매를 알아봤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야위고 추녀 같은 얼굴을 한 두 여자. 그들은 설거지통과 그릇들로 가득 찬 세탁방에 있었다. 베로니크는 방 구석, 짚 위에 누워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또 다른 여자를 보았다. 아마도 세 번째 자매일 것이다.

그때, 두 자매 중 한 명이 기진맥진해 쓰러졌다. 다른 한 자매는 열병에 걸린 듯 눈이 빛나며 베로니크의 팔을 잡더니,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들을 봤죠? 지금도 저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망간 뒤로, 사렉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죠."

"우리가 여기 갇혀 지낸 지 사흘째입니다. 기억나세요? 출발하던 아침이었어요. 배를 타고 떠날 준비로 짐을 싸고 있었죠. 우리 세 명은 빨래터로 갔어요. 널어둔 빨래를 거두러요."

"그들이 나타났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들은 늘 조용하거든요. 갑자기 문이 닫혔어요. 자물쇠 하나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우리는 갇혔죠."

"우리는 사과와 빵, 그리고 특히 생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괴롭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죽일지, 우리 차례가 올지 걱정뿐이었죠. 오, 여보시여,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떨었는지 모릅니다."

"언니는 미쳐버렸어요. 들어보세요. 헛소리를 하고 있죠. 클레망스도 지쳐버렸고요. 그리고 나, 게르트루드."

그녀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다. 베로니크의 팔을 비틀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레주? 그는 돌아왔지, 그렇지? 그리고 다시 떠났고? 왜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우리가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어째서?… 어째서?"

베로니크는 대답하기 망설였다. 하지만 왜 굳이 진실을 숨겨야 하겠는가.

그녀가 말했다.

"두 개의 배가 가라앉았어요."

"뭐?"

"두 배 모두 사렉 앞바다에서 가라앉았어요.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죠… 프리우레 맞은편, 악마의 해협을 빠져나올 때였어요."

베로니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프랑수와 그의 스승의 이름과 역할을 설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클레망스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도 문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일어섰다.

게르트루드가 속삭였다.

"오노린은?"

"오노린이가 죽었어."

"죽었다니!"

두 자매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말끝을 맺었다. 그러고는 곧장 침묵에 잠겼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게르트루드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복잡한 계산을 할 때처럼.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가 점점 더 짙게 깔려 갔다.

게르트루드가 입을 열었다. 공포가 목을 조르는 듯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녀는 베로니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 이제… 다 맞췄어요…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우리 자매를 빼고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스무 명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스무 명, 여기에 먼저 죽은 마귀노크를 더하고, 그 다음 죽은 앙투안 씨를 더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지만 결국 죽은 작은 프랑수와 스테파뉴 씨도 더해야 해요. 그리고 죽은 오로린과 마리 르 고프도요. 그러니 계산해 보세요. 스무여섯이 됩니다. 스무여섯… 다 맞췄죠? 맞죠? 서른에서 스무여섯을 빼면… 아시죠? 관 서십 개는 채워야 하니까요. 서른에서 스무여섯을 빼면… 네 개가 남습니다. 맞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혀가 꼬이고 말았다. 그러나 입에서는 끔찍한 음절들이 흘러나왔고, 베로니크는 그녀가 더듬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뭐라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 남은 건 네 명뿐이에요. 우리 네 명. 그리고 우리가 가두어 둔 아르니야트 자매 셋과 당신. 그러니까 네

개의 십자가. 아시죠? 네 명의 여자가 십자가 형태로 서 있는 거요. 숫자가 맞아요. 우리 네 명뿐이에요. 이 섬에는 더 이상 우리 네 여자 외엔 아무도 없어요."

베로니크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피부를 적셨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서요? 이 섬에 우리 네 명밖에 없다면, 뭘 두려워하세요?"

"그들이요! 그들이요!"

베로니크는 성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다들 떠났잖아요!"

제르트루드가 놀라 말했다.

"小声으로 말해요. 들리면 어쩌려고요?"

"누가요?"

"그들이요. 예전의 그들."

"예전의 그들?"

"네,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이요.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죽이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건 모두 끝났어요. 드루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이쿠, 드루이드 따위 이제 없잖아요."

"小声으로 말씀하세요!小声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나쁜 영혼들이…"

"영혼이요? 그럼요?" 베로니크는 이런 미신에 오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죠, 영혼이요. 하지만 살과 뼈를 가진 영혼들이에요. 문을 닫고 우리를 가두는 손도 가지고 있고… 배를 가라앉히는 자들이죠. 바로 그들, 앙투안 씨와 마리 르 고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요. 스물여섯 명을 죽인 자들이라고요."

베로니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구 앙투안 드 에르제몽, 마리 르 고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두 척의 배를 가라앉혔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세 분을 언제 감금하셨나요?"

"열한 시에 코레주와 마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열한 시 반쯤이었죠."

베로니크는 생각에 잠겼다. 프랑수와 스테파느가 열한 시 반쯤 그 장소에 도착한 뒤, 한 시간쯤 뒤에는 바위 뒤에서 두 척의 배를 향해 뛰

어내렸을 터였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모든 행동을 끝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섬 어딘가에 그들의 동조자가 남아 있었을까?

베로니크가 입을 열었다.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해요. 당신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쉬고, 음식도 드셔야 해요."

두 번째 자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언니와 똑같이 낮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숨어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맞설 준비를 해야 해요."

"어떻게요?" 베로니크는 물었다. 비록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혹시 모를 적으로부터 몸을 피할 요새가 필요했다.

"어떻게든요. 그런 이야기가 섬에서는 많이 돌았어요. 특히 올해는 더 그랬죠. 마귀노크는 첫 공격이 시작되면 모두 프리에레로 피난 가기로 결정했어요."

"프리에레요? 왜요?"

"거기서는 방어할 수 있거든요. 절벽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사방이 막혀 있어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는요?"

"마귀노크와 오로린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다리 왼쪽으로 스무 발짝쯤 가면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죠. 그곳에 기름 저장고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리에 기름통을 세 개나 네 개쯤 굴러놓고 성냥개비 하나만 던지면 끝이죠. 우리는 우리 집에 있게 되고, 외부와의 연락은 끊겨요. 공격도 불가능해지죠."

"그럼 왜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고, 수녀원으로 오지 않았소?"

"배를 타고 도망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어."

"그럼 지금 떠난다는 뜻이오?"

"당장 떠나야 해. 아직 낮이니까 밤보다 낫소."

"하지만 누나, 누나를 어떻게 해요? 누나를 침대에 모시고 있는데."

"수레가 하나 있어. 우리가 모셔 가겠소. 수녀원까지 마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

베로니크는 아르시냐트 자매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싫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공포에 밀려 결국 동의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갑시다. 제가 수녀원으로 안내해 드릴 테고, 그 뒤에는 식량 사러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오,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자매 중 한 명이 반박했다. "다리가 끊기면 돌멘 언덕에 불을 피워 해안에서 증기선을 보내게 될 테니까. 오늘 안개가 자욱하지만, 내일은…"

베로니크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사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매倆가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그들은 떠났다. 수레에 웅크린 채 광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작은 말들을 읊조렸다. 마치 베로니크도 웃게 하려는 듯이 말이다.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들은 준비 중이야…

"그만해, 미친 노인." 게르트루드가 명령했다. "우리에 불운을 가져올 거야."

"응, 응, 재밌을 거야… 정말 웃기겠지… 난 목에 금십자를 걸고 있고, 손에는 가위로 잘라 낸 십자 모양의 것도 들고 있어… 봐, 여기저기에 십자가가 다 있잖아… 우리는 분명 십자架上에 있는 거야… 잘 자고 있을 거야."

"멈춰, 미친 노인네!" 게르트루드가 다시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에게 팍 소리를 쳤다.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네가 맞을 거야, 내가 봐도 그들이 숨어 있는 게 보이거든."

처음에는 꽤 험했던 길이 서서히 서쪽 절벽들이 이루는 고지로 올라섰다. 절벽은 더 높았지만, 덜 험준하고 골짜기가 적었다. 숲은 드물었고, 참나무들은 모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굽어 있었다.

"우리는 검은 황야에 가까워지고 있어, 클레망스 아르니냥이 말했다. '그들이 거기 아래에 살고 있어.' 베로니크는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였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게르트루드가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마녀라고 부르지만,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마귀노크도 그쪽 사정에 정통한 사람인데, 약재나 행운을 부르는 돌, 성 요한의 풀 같은 것에 대해선 항상 우리에게 조언을 구했죠."

"쑥과 버베나는 해가 지는 때에 딴다고." 광기가 섞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전통에 대해서도요." 게르트루드가 다시 말했다. "수백 년 동안 이 섬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압니다. 예전에는 이곳 아래에 거리들이 있는 한 도시가 있었다고들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곳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베로니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희 자매도 봤어요. 두 번이나요. 6월 보름달이 지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는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나무 숲 너머의 큰 참나무로 올라가 성스러운 mistletoe(박하)를 따고 있었죠. 금 도끼로요. 달빛 아래 금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봤다고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남아있어서 보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맞아요. 보물이요. 그 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요. 만지면 죽게 하지만, 위에 누우면 살게 한다는 거죠. 다 진실이에요. 마귀노크가 말했어요. 진실이라고요. 예전 사람들이 그 돌을 지키고 있어요. 신의 돌을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를 모두 바쳐야 해요. 모두요. 서른 개의 관을 위해 서른 명의 죽음이 필요하죠."

"십자가에 매달린 네 여자, 노래하듯 중얼거렸다."

"그것도 이제 곧 일어날 일이야… 보름달이 지고 나흘이 지났다. 대나무 숲에서 상수리나무를 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해. mistletoe(나무이끼)를 따러 가는 길이지. 저기 봐, 저 대나무 숲이 보이는가? 다리를 건너기 전 숲 속에 있어.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높게 솟아 있지."

"저 뒤에 숨어 있는 거야." 바퀴가 달린 수레를 뒤집어쓴 여자가 말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够了, 너는 움직이지 마… 자, 그렇지? 저 상수리나무 보이는가?… 저기, 마지막 습지 너머로? 나무가 더… 더…"

그녀는 수레를 떨어뜨리며 말끝을 흐렸다.

클레망스가 물었다.

"그래, 뭐야? 무슨 일이야?"

"뭔가 봤어…." 게르트루드는 더듬거렸다. "흰색이 움직이는 게…."

"뭔가 본 거야? 어떻게 봤다는 거지? 낮에 나타나겠어? 눈이 착각한 거야."

두 사람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길을 재촉했다. 곧 '큰 참나무'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이 지나가는 황야는 기운이 없고 거칠었다. 무덤처럼 누워 있는 바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일렬로 늘어져 있었다.

"저희네 묘지예요."

게르트루드가 속삭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여러 번 게르트루드는 쉬어야 했다. 클레망스는 수레를 밀어낼 힘이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다리가 떨려 비틀거리며, 불안한 눈으로 앞만 응시했다.

지형이 한 번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갔다. 길은 베로니크와 오노린 첫날 걸었던 코스와 합류했고, 그들은 다리가 놓이기 직전의 숲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아르시냐 자매의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베로니크는 그란슈네에 다다랐음을 알았다. 실제로 그 나무가 보였다.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거대했고, 흙과 뿌리로 만든 받침 위에 우뚝 서 있었다. 다른 나무들과는 거리가 더 멀었다.

베로니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대한 줄기 뒤로 여러 남자가 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지금 그들 중 한 명도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매들은 애써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저주받은 나무는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무를 지나쳐 갔다. 베로니크는 숨을 좀 더 편히 쉴 수 있었다. 모든 위험이 지나간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아르시냐 자매를 조롱할 참이었다. 그때 클레랑스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을 돌더니 비명 섞인 신음을 내며 쓰러졌다.

그때, 누군가에게 등을 맞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돌도끼였다.

"아! 천둥돌! 천둥돌이야!" 게르트루드가 비명처럼 외쳤다.

그녀는 잠시 동안 고개를 들었다.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민간 신앙에 따르면, 도끼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천둥의 기운이 담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바퀴벌레에서 내려온 광기는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앞으로 고꾸라졌다. 또 다른 것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광기는 고통에 몸을 비틀었다. 게르트루드와 베로니크는 광기의 어깨에 꽂혀 아직 떨리고 있는 화살을 보았다.

게르트루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베로니크는 망설였다. 클레망스와 광기는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다. 광기는 비웃듯 웃었다.

"참나무 뒤로! 숨어 있어… 내가 봐."

클레망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도와줘요! 저를 도와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또 다른 화살이 휘익 날아와 먼 곳으로 사라졌다. 베로니크도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나무들까지 달아나, 다리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그대로 내려달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공포에 질려서가 아니라, 무기를 찾아 자신을 방어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총기 진열장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리볼버와 소총이 가득했고, 모두 '장전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도 프랑수아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었겠지. 그녀는 그중 한 무기를 손에 쥐고 적과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을 쫓아오는 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오직 목적지, 오직 쓸모 있는 그 한 곳으로만 달렸다.

더 가볍고 더 민첩해진 그녀는 겔트루드를 따라잡았다.

겔트루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다리를… 불태워야 해요… 석유가 있어요…"

베로니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리가 끊어진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오히려 그 장애물은 그녀가 총을 들고 적을 공격하려는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하지만 다리에 가까워졌을 때, 제르트루드가 소용돌이치듯 몸을 돌리며 거의 절벽으로 떨어졌다. 화살이 그녀의 허리를 관통했던 것이다.

"나를 도와줘! 나를 버리지 마!"

"내가 곧 돌아갈게." 베로니크는 화살을 보지 못했기에 제르트루드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고 생각했다. "두 자루의 총을 가져갈 테니, 거기서 나를 기다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무장을 마친 두 사람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 다른 자매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에 힘을 내어 그녀는 다리를 건너고, 영지의 담장을 넘었으며, 잔디밭을 가로질러 아버지의 저택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더 이상 갈 수 없어 멈춰 섰다. 두 자루의 총을 움켜쥔 후에도, 심장이 너무 격렬하게 뛰어서 걸음걸이를 더디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르트루드를 만나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가르트루드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서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브르타뉴 여인이 다른 자매들처럼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베로니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리에 이르는 다리가 보일 무렵, 귀를 울리는 쉰 숨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급경사 아래로 이어진 그랑슈네 숲 입구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보았다.

그녀가 본 광경은 그녀를 다리 입구에서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반대편에서, 제르트루드가 땅바닥에 엎드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뿌리에 매달리고, 굳은 손가락으로 흙과 풀을 파고들며, 느리고도 멈추지 않는 동작으로 경사면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베로니크는 비참한 여자가 팔과 허리 사이에 밧줄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밧줄은 그녀를 묶인 먹이처럼 들어 올리고 있었고, 위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 밧줄을 당기고 있었다.

베로니크는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누구를 적으로 삼아야 할까. 누구와 싸워야 할까. 언덕 위를 성벽처럼 둘러싼 나무 줄기와 바위들 뒤에 숨어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바위들 사이, 나무 줄기들 사이로 질베르트가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 내지 않았다. 지쳐 쓰러졌거나, 기절했을 것이다. 그녀는 모습을 감췄다.

베로니크는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노력이, 모든 시도가 허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미 패배가 정해진 싸움에 뛰어들어서는 아르기냐트 자매들을 구할 수 없었고, 그녀는 스스로 승자의 손에 새롭고 마지막 희생양으로 바치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서웠다.

모든 일이 그녀의 이해를 초월한, 그러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실들의 냉혹한 논리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사슬의 고리처럼 말이다.

그녀는 이 존재들을, 이 유령들을,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했다. 아르니냥 자매나 오노린처럼, 그리고 이 끔찍한 재앙의 모든 희생자들처럼 말이다.

그녀는 그랑셴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낮췄다. 가시덤불이 제공해주는 은신처를 활용하며 반쯤 굽은 채로, 왼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르니냥 자매들이 말해준 작은 오두막이었다. 뾰족한 지붕과 색유리 창문이 있는, 작은 키오스크 같은 건물이었다.

그 키오스크의 절반은 등유 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리를 지휘했다. 그 다리를 밟는 사람은 반드시 그녀의 눈에 띄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숲에서는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밤이 찾아왔다. 짙은 안개가 낀 밤이었다. 달빛이 안개를 은빛으로 물들였고, 비로소 베로니크는 반대편을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한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조금 안심했다. 그리고 두 개의 기름통을 들고 첫 번째 왕복을 시작했다. 그녀는 기름통의 내용을물 다리의 외부 보 위에 붓기 시작했다.

열 번이나 그녀는 반복했다. 귀를 기울이고, 어깨에 총을 멘 채, 언제든지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며 말이다. 그녀는 기름을 대충 뿌렸다. 더러워진 곳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가능한 한 나무가 가장 썩어 있는 곳을 골랐다.

그녀는 성냥갑을 하나 쥐고 있었다. 그 집 안에서 그녀가 찾아낸 유일한 성냥통이었다.

그녀는 성냥 한 개를 꺼내 잠시 망설였다. 곧장 밝은 빛이 퍼져 나올까 봐 두려웠다.

'만약 이 불빛이 해안선에서 보일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 짙은 안개 속에서는…'

그녀는 문득 성냥을 문질렀다. 그리고 곧장 준비해 두었던 종이를 불태웠다. 종이는 이미 가솔린으로 적셔져 있었다.

거대한 화염이 치솟아 그녀의 손가락을 태웠다. 그녀는 곧장 그 종이를 오목하게 패인 곳에 고여 있던 가솔린 더미에 던졌다. 그리고 키오스크 쪽으로 달아났다.

화염은 순식간에 타올랐다. 그녀가 뿌린 곳에 불길이 번졌고, 이내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두 섬의 절벽, 그들을 잇는 화강암 다릿돌, 주변을 감싼 거목들, 언덕, 그리고 '대도토리 숲'과 구덩이 밑바닥의 바다까지. 모든 것이 불빛에 비쳐 빛났다.

'저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 거야… 내가 숨어 있는 정자를 보고 있는 거야…'

베로니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도토리'를 응시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숲에는 그림자 하나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속삭임 같은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높은 곳에 숨어 있던 자들은 결코 그들의 숨은 곳을 벗어나지 않았다.

몇 분 뒤, 다리의 절반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타올랐다. 언제든 바닥으로 목재 조각이 떨어질 것 같았고, 그것은 어둠 속 깊은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비추었다.

베로니크는 그때마다 안도감을 느꼈다. 극도로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씩 풀려갔다.

그녀는 점점 더 확고해지는 안전감을 느꼈다. 그녀와 적들 사이로 깊은 절벽이 더 넓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자 안에 머물기로 했다. 그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이제 더 이상 적들과 연락할 길이 끊겼음을 확인하려 했다.

안개가 짙어졌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자정이 넘어쯤 되었을까, 그녀는 언덕 위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정확히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는 나무를 베어 내는 장부들의 소리였다. 도끼가 가지에 내려앉았고, 그 후 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베로니크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 물론 그 생각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 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총을 꽉 쥐었다.

한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신음 소리와 심지어悶えた 비명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다시 거대한 침묵이 찾아왔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불안해하는 모든 것, 떨리는 모든 것, 그리고 공간 속에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들어왔다.

피로와 배고픔이 찾아온 마비 같은 고통이 베로니크의 머릿속을 비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 안개가 곧 걷힐 테고, 그때면 휘발유 통으로 큰 불을 지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개가 걷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불을 피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 섬 끝, 돌멘이 서 있는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내 성냥통을 선실에 두고 온 건 아닐까?'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성냥통은 없었다.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일로 그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현재 그녀는 적의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기쁨은 모든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아침이 다가올수록 짙은 안개와 차가운 공기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끝없이 긴 시간들이었다.

그때 하늘에 희미한 빛이 퍼져 나갔다. 사물들이 어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제 모습을 갖추었다. 베로니크는 다리가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섬 사이에는 50미터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오직 절벽의 날카롭고 가파른 능선만이 그 아래에서 두 섬을 이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반대쪽 언덕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언덕 꼭대기에서,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랑셴 숲에 속하는 언덕 정상에 서 있던 나무들 중, 가장 앞쪽에 자리 잡은 세 그루의 나무가 아래쪽 가지를 모두 잘려나갔다. 그리고 그 드러난 세 그루의 나무 줄기에는, 세 자매 아르니야가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나무에 팔을 벌린 채 뒤로 묶이고, 치마 조각에 묶인 다리를 붙잡은 채, 창백한 얼굴은 모자 날개에 가려진 채, 목 아래로 밧줄이 감겨 서 있었다.

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었다.

"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두 번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를 놓아 주세요."

"우리는 함께 갑니다." 베로니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요, 호노린이가 애원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아버님과 아들을 모셔오겠어요.'

'그런데 왜?'

'저쪽에는 위험이 너무 커요. 아버님께는 더더욱, 그리고 당신께는 특히나요. 네 개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저쪽에서 그것들이 세워질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그 섬은 저주받았거든요.'

'그럼 내 아들은요?'

'오늘 보실 수 있어요. 몇 시간 안에.'"

베로니크는 갑작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몇 시간 안에? 미친 소리야! 어떻게 된 일인지, 열다섯 년째 아들을 잃고 산 내가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안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냐고! 절대 안 돼. 한 시간도. 천 번 죽는 게 낫지, 그 순간을 미룰 수는 없어.’”

오로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베로니크의 결심이 이미 굳어졌음을, 거스려 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은 듯했다. 오로린은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 번째로 십자성을 긋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두 사람은 좁은 다릿길 한가운데, 쌓여 있는 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오로린이 엔진에 불을 붙이고 핸들을 잡자, 물면 위로 드러난 바위들과 암초 사이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배를 몰아갔다.

제7장

베로니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끔찍한 광경은 외면한 채,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목격될지라도 개의치 않았다. 기계적이고 경직된 걸음으로 그녀는 프리우레로 돌아갔다.

오직 한 가지 목표, 그리고 한 가지 희망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사렉 섬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녀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세 시체가, 세 명의 목이 잘린 여성이나 총에 맞거나 목이 졸린 여성들이라 해도, 그녀는 지금처럼 온몸이 반발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이었다. 너무도 끔찍했다. 여기에는 경멸을 초월한 추악함이 담겨 있었고,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으며, 악의 한계를 넘어선 저주받은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생각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희생자로서 말이다. 운명은 그녀를 마치 사형수를 교수대로 밀어내듯, 그 결말을 향해 이끌고 있는 듯했다. 어떻게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

게 세 자매 아르니야의 처형지로 그랑슈네 언덕이 선택된 것을 경고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위안을 얻으려 문장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곧 설명될 거야. 이 끔찍한 신비 뒤에 숨겨진 건 아주 단순한 원인들이야. 겉보기엔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와 같은 인간이 범죄적 동기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저지른 행동들이지.

물론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전쟁 때문이야. 전쟁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도, 평범한 삶의 법칙을 벗어난 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였다. 그의 두뇌가 따라가기에도 벅찬 추론의 시도들이었다.

사실 그녀는 신경질적인 경련에 너무 심하게 흔들려 있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죽어가는 사렉의 모든 이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들처럼 기운이 빠졌고, 같은 공포에 몸이 떨렸으며, 같은 악몽에 포위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본능들과, 살아남은 잔재들, 그리고 언제든 표면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던 미신들에 의해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을 쫓아다니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사레크의 서른 관에 영혼을 채우는 임무를 띤 이는 누구인가?

불운한 섬의 주민들을 모두 멸망시킨 자는 누구였나?

동굴에 숨어 살며, 정해진 시각에 성스러운 박하와 성 요한의 약초를 채취하고, 도끼와 화살을 사용하며, 여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

어떤 기괴한 목적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음모를 위해?

어둠의 영혼들, 악령들, 죽은 종교의 사제들, 제물로 바치는 자들, 그리고 피를 좋아하는 신들과 인간, 여성, 아이들……

"더 이상은 안 돼! 미쳐버릴 것 같아!"

그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애쓰는 듯했다.

어디든 먹을 것을 찾아 수색하던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 깊숙한 곳 찬장 구석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벽에 핀 그 종이는 버려진 오

두막에서 시체 옆에서 찾은 두루마리 종이와 똑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찬장 선반 위에는 그림 엽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붉은 분필로 그려진 여러 초안이 들어 있었다. 각각의 그림 위쪽에는 'V. d'H.'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앙투안 드 에르몽의 서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 마귀노크의 종이 위에 그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초안에서, 고문받는 여인의 얼굴을 딸과 점점 더 닮게 만들려 애썼던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만해!" 베로니크가 반복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깊이 생각하기 싫어."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녀는 조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배를 채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섬 끝에서 불을 피울 수도 있는 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안개는 이미 걷혔고, 만약 신호를 보냈다면 분명히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녀는 두 개의 부싯돌을 서로 부딪혀 보았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사흘 내내 폐허 사이에서 주워 온 들딸기와 물로 버텼다.

열이 나고 기력이 다해 갔다. 울음이 터져 나올 때마다, 거의 매번 '퉁퉁이'가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너무도 컸다. 그 비참한 짐승이 그 터무니없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는 쫓아냈다.

퉁퉁이는 놀란 듯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뒷다리를 구부리고 앉더니, 다시 자기 과시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쫓아다니며 화를 냈다. 마치 그가 프랑수아의 개라는 죄를 지은 것처럼.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그녀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율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 큰 참나무 마을의 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그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을까? 그녀는 공포에 떨며 팔을 몸통에 꼭 감았다. 이런 괴물들에게 잡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도 잊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젊음에 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비록 어둠 속에서도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큰 희망이 그녀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서랍에서 꽤 강력한 돋보기를 찾아냈다. 맑은 햇살을 이용해 빛을 한 점에 모았다. 빛이 닿은 종이는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불꽃으로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촛불이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덕분에 그녀는 저녁까지 그 소중한 불씨를 간직할 수 있었다.

밤 열한 시쯤, 그녀는 등불을 들고 키오스크로 향했다. 그곳에 불을 지펴 신호를 보내려던 것이었다. 날은 맑았고, 신호는 해안에서 분명히 목격될 터였다.

그는 불빛을 들고 있는 자신이 들킬까 봐 걱정했다. 무엇보다도 달빛이 칼바리에 가득 쏟아져 내려, 아르시냐 자매들의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날까 봐 더더욱 두려웠다.

그는 프리우레를 나온 뒤, 왼쪽으로 더 벗어난 수풀이 우거진 길로 향했다.

그는 초조한 걸음으로 걸었다. 나뭇잎을 밟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고, 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살폈다.

그가 거의 드러난 땅에 다다랐을 때, 키오스크 근처였다. 그는 너무 지쳐서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심장이 뛰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처형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식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무언가가 움직인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숲 한가운데서였다. 나무 무더기를 가로지르는 길목 끝자락에서였다.

그 실루엣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밝은 빛 속에 선명하게 보였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베로니크는 그것이 옷을 입은 인간의 실루엣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높은, 외로운 나무 가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르시냐트 자매들의 말이 떠올랐다.

'달의 여섯째 날이 다가온다. 그들은 대나무에 올라가 신성한 mistletoe(부들)을 뜯어갈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책에서 읽었던 묘사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드루이드의 의식 중 하나를 목격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너무도 힘이 빠져서, 자신이 정말로 깨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묘한 광경이 실재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무 아래에는 하얀 실루엣 네 개가 더 모여들었다. 그들은 떨어질 준비를 마친 나뭇가지를 받들 듯 팔을 들어 올렸다.

그때 높은 곳에서 번개가 치듯 빛이 번쩍였다. 대제사장의 황금 낫이 겨우꽃 무더기를 잘라낸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참나무에서 내려오자, 다섯 개의 하얀 실루엣은 숲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그들은 숲을 돌아 언덕 꼭대기로 향했다.

베로니크는 그들을 놓치지 못해 헝클어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세 시체를 보았다.

멀리서 보니, 검은 모자 날개는 까마귀처럼 보였다.

희생자들 맞은편에서 그림자들은 멈춰 섰다.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을 행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무리에서 벗어나 손에 박쥐가지 무리를 든 채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아직 첫 아치가 이어지던 다리의 쪽으로 향했다.

베로니크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눈앞의 사물들이 춤추는 것 같아 시야가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사제의 가슴 위, 하얀 긴 수염 아래에서 흔들리는 낫의 반짝이는 빛에 고정되었다. 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다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다리가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하지 못했다. 베로니크는 주저앉았다. 눈은 여전히 그 끔찍한 광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구렁이 끝자락에서 사제는 잠시 멈춰 섰다. 그러곤 가지치기용 낫을 든 팔을 뻗었다. 신성한 식물이 마치 자연의 법칙을 바꾸는 부적으로 그녀를 앞세우듯, 그는 심연 위로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는 공중을 걸었다. 초승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모습 그대로.

베로니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환각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의식의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약해진 뇌리에 환각이 싹트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미리 예상하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를 괴롭혔다. 랜턴 속에 갇힌 그녀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반응할 수도, 수녀원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며칠 동안 해가 다시 뜨지 않는다면, 불을 다시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끝장이라고.

그는 싸움에 지쳐 항복했다. 이 불공평한 싸움에서 자신이 이미 패배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체포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굶주림과 극한의 피로로 죽는 것 말이다.

고통은 반드시 한때 완화된다는 법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잔인한 삶에서 서서히 소멸해 간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갈망하던 상태였다.

"그래,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사렉을 떠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떠나야 한다는 거야."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눈을 떴다. 촛불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등불 뒤에서, 툴바비앙이 앉아 앞발을 공중에서 두들기고 있었다.

베로니크는 그 개 목에 끈으로 묶인 비스킷 꾸러미를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베로니크는 프라이에리의 방에서 푹 쉬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얘기 좀 해 줘, 불쌍한 툴바비앙. 네가 직접 사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겠지?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야? 너는 이쪽을 배회하다가 내 울음을 듣고 온 거겠지? 그런데 누가 네 목에 비스킷 꾸러미를 묶어 준 거야? 사레크에 우리 편이 있는 걸까? 우리를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지? 어서 말해, 툴바비앙."

그녀는 착한 개를 꼭 안아 주며 또 말했다.

"그 비스킷은 누구한테 주려고 했어? 주인인 프랑수아에게? 아니면 오노린에게? 아니지. 그럼? 스테파뉴 씨에게?"

개가 꼬리를 흔들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베로니크는 그 뒤를 따라 스테파뉴 마루의 방으로 갔다. '모두 잘돼'는 침대 밑으로 슬그머니 숨어들었다.

방 안에는 비스킷 상자가 세 개 더 있었고, 초콜릿 두 묶음, 통조림 두 개가 있었다. 모든 포장지에는 고리가 달린 끈이 묶여 있었다. '모두 잘돼'는 그 고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로니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네가 저기에 숨겨둔 거야? 그런데 누가 그걸 네게 줬다는 거지? 정말로 이 섬에 우리 편이 있는 건가? 우리와 스테파네 마루를 모두 아는 사람이 말이야. 그 친구를 만나게 해 줄 수 있어? 다른 쪽 섬과는 통행이 끊겨 있고, 네가 그곳에 갈 수 없었으니 그 친구는 분명 이쪽 섬에 살고 있을 거야."

베로니크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져다준 식량과 함께, 침대 밑에서 작은 천가방을 발견한 것이었다. 스테판 마루가 왜 이 가방을 숨겨두었을까? 베로니크는 가방을 열어보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안에는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의 성격은 어땠는지, 어쩌면 그의 과거나 드헤르몽 가, 그리고 프랑수아와의 관계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 내가 열어봐도 돼. 아니, 오히려 열어봐야 해."

주저하지 않고, 베로니크는 큰 가위를 들고 약한 자물쇠를 부수었다.

가방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한 권의 장부만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장부의 덮개를 벗겨내자, 베로니크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초상화가 실려 있었다. 소녀 시절의 사진, 그리고 손글씨로 된 서명이添え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헌사가 적혀 있었다.

「내 친구 스테파|에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그녀가 속삭였다. "이 사진은 분명히 기억나. 열여섯 살 때 찍은 거였지.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이 사진을 줬을까? 내가 그와 이미 알고 지냈다는 말인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었던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그것은 전언처럼 쓰인 서문이었다.

"베로니크, 저는 당신의 눈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교육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 증오해야 마땅한 아이지만, 당신의 아들이라 사랑하게 된 그 아이를 말입니다. 제 삶이 오랫동안 저를 지배해 온 그 숨겨진 감정과 완벽하게 일치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프랑수아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 안에 아버지의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지워버릴 것입니다. 대신 당신에게서 물려받은 고귀함과 품격이라는 모든 장점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온몸과 영혼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저는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저에게 줄 보상이니까요."

베로니크의 마음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인생은 조금 더 고요한 빛으로 비춰졌다. 그녀가 다른 비밀들만큼이나 파헤칠 수 없는 새로운 신비였지만, 마게노크의 꽃들에 대한 신비처럼 적어도 달콤하고 위안이 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아들의 교육 과정을 매일매일 지켜보았다.

학생의 성장과 스승의 지도 방법을 생생히 목격했다. 학생은 우아했고, 지혜로웠으며, 성실했다. 의욕도 넘쳤고, 다정하며 감수성이 풍부했다. 동시에 본능적이면서도 사색적이었다.

스승은 자애로웠고 인내심이 강했다. 그의 글줄마다 깊은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매일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열정은 점점 커졌다. 그 열정은 점점 더 거리낌 없이 표출되었다.

"프랑수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 그렇지? 프랑수아, 너 안에는 네 어머니가 다시 살아 숨 쉰다.

너의 맑은 눈에는 어머니의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다. 너의 영혼은 어머니와 똑같이 진중하면서도 순박하다. 너는 악을 모른다. 오히려

선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네 아름다운 본성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지 않으니까."

일기장에는 아이의 의무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애정과, 곧 다시 만나리라는 끈질긴 희망이 담긴 의무들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나리, 프랑수아." 스테파느는 덧붙여 적었다. "그때야 너도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빛이란 무엇인지, 삶이 주는 매력이란 무엇인지, 바라보고 감탄하는 기쁨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될 테니까."

그 뒤에는 베로니크에 대한 일화가 이어졌다.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소한 디테일들, 혹은 그녀 혼자만 알고 있다고 믿었던 비밀 같은 것들이었다.

"테일리에르 공원에서 하루는, 그녀가 열여섯 살 때의 일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원을 만들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는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며 웃었다.

'프랑수아, 너는 그녀의 오른손을 열어보렴. 손바닥 한가운데에 긴 하얀 흉터가 있을 거야. 어릴 적에 그녀는 철제 울타리의 뾰족한 끝에 손을 찔렸거든.'"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는 아이를 위해 쓴 글이 아니었다. 아이에게 읽힌 적도 분명 없었다. 사랑은 더 이상 감탄의 문장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거리낌 없이 드러났다. 타오르고, 고조되고, 고통스러웠으며, 희망에 전율하면서도 언제나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랑이었다.

베로니크는 일기를 닫았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네, 맞아. 인정해. '모두 잘 돼'라고 말했지. 속삭이듯 말했다. 옆에서 개가 이미 잘난 체하며 꼬리를 치들고 있었다. "맞아, 내 눈물이 흐르고 있어. 여자가 조금도 못 되지만, 당신에게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해. 나는 온몸이 떨리고 있어. 맞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해… 내게 숨어 있던 사랑을 모르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친구일 거야. 그의 이름조차 내 기억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지…"

그녀는 개를 품에 끌어안았다.

"두 개의 착한 마음이지, 그렇지, 퉁퉁이? 주인이든 제자든, 내가 목격한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 둘 다 무죄야. 만약 그들이 우리这边的 적들과 공모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른 채로 저지른 짓일 거야. 나는 마약이나 주문, 혹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식물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있어, 그렇지, 내 좋은 친구? 칼바리에플뤼리에서 베로니카를 가꾸며 '엄마의 꽃'이라고 적던 아이는 무죄야, 그렇지? 그리고 오노린은 '발작'이라는 말로 옳았을까? 그리고 그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그렇지? 스테파느와 그가 다시 올 거야…?"

평온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흘렀다. 베로니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현재가 더 이상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녀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툴바비앙에게 말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곁에 가두어 둔 사내였다.

"자, 이제 좋은 친구여, 나를 데려다다오. 어디로? 스테파노 마루에게 식량을 보내던 그 알 수 없는 친구에게로 가자. 가자고."

툴바비앙은 베로니크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잔디밭이 있는 쪽으로, 곧장 돌멘이 있는 곳으로 내달렸다. 중간쯤에서 그는 멈춰 섰다. 베로니크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자,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폐허 더미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나왔다. 다시 한번 멈춰 섰다.

"여기가 맞나?" 베로니크가 물었다.

개는 몸을 낮췄다. 두 개의 거대한 바위 블록이 서로 기대어 서 있고, 그 둘이 덩굴로 뒤덮인 채 하나의 옷을 입은 듯했다. 바위 아래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토끼 굴 입구처럼 작은 통로가 열려 있었다.

모든 것이 잘되리(Tout-Va-Bien)는 그 틈으로 기어들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베로니크를 찾아 다시 돌아왔다. 베로니크는 수녀원으로 돌아가서 톱을 가져와야 했다. 가시덤불을 베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반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계단 돌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앞장선 것은 모험가였다. 계단은 바위 속을 파고든 긴 터널로 이어졌다. 오른쪽 벽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나 있어 희미한 빛을 들여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구멍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으로는 바다가 내려다보였다.

그녀는 십 분쯤 더 걸었다. 그리고 또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터널이 좁아졌다. 천장을 향해 뚫린 구멍들이 양옆으로 나타났다. 아마 아래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베로니크는 그제야 깨달았다. '통통'이 섬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다.

터널은 사렉과 수도원 영지를 잇는 가느다란 절벽 띠를 따라 이어졌다. 양쪽으로는 파도가 바위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랐다. 그랑슈느 언덕 아래로 들어갔다.

정상에 이르러 갈림길이 나왔다. '통통'은 오른쪽 터널을 선택했다. 그 길은 여전히 대양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왼쪽으로 또 다른 두 길이 나타났다. 둘 다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 섬은 보이지 않는 길들로 뒤덮여 있는 듯했다. 베로니크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이미 아르니야 자매들이 적들의 영역이라고 지목했던 곳, 즉 검은 숲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통통 튀듯 앞서 가던 퉁퉁이가 가끔 뒤를 돌아보며 그녀를 재촉했다.

베로니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그래, 내 친구. 내가 가고 있어. 난 무서워하지 않아. 난 너를 데려다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저기 숨어 있는 친구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런데 왜 그 친구는 숨어 있는 곳을 나오지 않는 걸까? 왜 너는 그 친구의 안내자가 되지 않은 걸까?"

통로는 어디나 똑같았다. 작은 파편들을 깎아 만든 듯했고, 둥근 천장과 잘 마른 화강암 바닥이 있었다. 환기구들이 공기를 충분히 순환시키고 있었다. 벽에는 아무 흔적도, 자국도 없었다. 때때로 검은 부싯돌 끝이 살짝 드러나곤 했다.

"여기가 맞아요?" 베로니크는 멈춰 선 툴바바랭에게 물었다.

터널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한 방으로 넓어졌고, 창문이 좁아져 빛이 덜 들어왔다.

툴바바랭은 망설이는 듯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서서히 벽에 발을 딛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베로니크는 그 부분의 벽이 균일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오히려 시멘트로 붙인 고르지 않은 돌들이 쌓여 있었다. 그 공사는 분명히 다른 시대, 아마도 더 최근의 것이었다. 지하 통로를 막아 버린 진짜 벽이 새로 쌓인 것이었고, 그 너머로는 통로가 계속 이어져 있을 터였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여기가 맞죠?"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벽에 다가가자, 잠시 후 몸을 떨었다. 목소리가 커졌다. 음성이 또렷해졌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이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지. '울지 마. 울면 성모님도 우신다…'"

베로니크는 속삭였다.

"노래라니… 그 노래라니…"

베그메일에서 오노린이가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다. 지금 누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섬에 갇힌 아이인가, 아니면 프랑수아의 친구인가.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아이들이 노래하고 웃어야 성모님께서 미소 짓지. 손을 모으고 기도해라 착한 성모 마리아께…"

마지막 구절이 끝나자, 몇 분 동안이나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모뜨바비엔은 점점 더 집중하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알려진 어떤 사건이 바로 지금 일어나려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그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돌을 옮기는 듯한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모뜨바비엔이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마치 소리 내지 못해 속으로 짖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침묵을 깨면 안 된다는 위험을 잘 아는 동물처럼 말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머리 위 돌 중 하나가 안쪽으로 당겨지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꽤 넓은 구멍이 드러났다.

모뜨바비엔이 그 구멍 안으로 툭 튀어 들어갔다. 몸을 쭉 펴고 뒷발로 몸을 밀어내며, 꼬불꼬불하게 몸을 비틀고 기어 들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 퉁바뱅(만사형통) 씨가 오셨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퉁바뱅 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젯밤 주인님을 찾아뵙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오노린과 산책이라도 하셨고요? 아, 네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불쌍한 친구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일단 보자고."

베로니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떨리며 벽에 무릎을 꿇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아들의 것이었을까? 프랑수아가 돌아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믿고 싶었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벽이 너무 두꺼웠고, 벽을 뚫은 구멍은 굽이쳐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한 마디 한 마디, 억양 하나하나가 또렷이 그녀의 귀에 들어오고 있었다.

"자, 다시 말해. 왜 오노린은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거야? 왜 그녀를 데려오지 않는 거야? 너는 나를 잘 찾아냈잖아.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가 없으니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의견을 바꾸지 않겠지, 늙은 친구? 다 괜찮은 거지, 그렇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야?"

베로니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이, 그녀가 프랑수아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아들이 방금 일어난 일들을 모두 잊은 듯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잊어버린 걸까? 그의 기억은 광기에 사로잡혔던 동안 저지른 행동들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못한 걸까?

"맞아, 광기의 발작이었어." 베로니크는 확고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는 미쳤었어. 오노린이 잘못 본 게 아니야… 그는 미쳤었지… 그리고 이제 이성으로 돌아왔어. 아, 프랑수아… 프랑수아…"

그녀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떨리는 영혼을 다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수도, 혹은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어둠이 그녀를 더 짙고 무겁게 덮치려 했는가, 아니면 십오 년간 씨름해 온 이 끝없는 밤 속에서 아침 해가 뜨려 했는가.

"그래, 우리 의견이 맞잖아. 다 잘되고 있어. 하지만 말이지, 난 네가 진짜 증거로 그걸 증명해줬으면 좋겠어. 한쪽으론 할아버지와 오노리네 소식도 없구, 내가 그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편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다른 한쪽으론 스테파느 소식도 없는데, 그게 가장 걱정돼. 그는 어디 있나? 누구한테 감금된 거지? 굶어 죽진 않았나? 자, 퉁퉁이, 대답해 봐. 그제날 그 비스킷을 어디다 가져갔다고?"

"하지만 대체, 왜 그래? 너 왠지 걱정스러운 표정이네. 저쪽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야? 가려고 해? 안 가? 그럼 대체 뭐야?"

아이는 말을 멈췄다. 잠시 후,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말했다.

"너 누군가와 함께 왔구나. … 벽 뒤에 누군가 있어?"

개는 낮게 짖었다. 그러자 긴 침묵이 흘렀고, 프랑수아도 귀를 기울여야 했다.

베로니크의 감정이 너무 격렬해서,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프랑수아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그가 속삭였다.

"호리느, 너 아니니?"

또 한 번의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말했다.

"그래, 너야. 확신해. 네 숨소리가 들려… 왜 대답을 안 해?"

베로니크는 몸을 일으켰다. 스테파니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즉 프랑수아와 마찬가지로 적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빛이 스쳐 지나갔다. 머릿속에는 어지러운 추측들이 맴돌았다. 무엇보다 그 목소리의 부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는 더듬거렸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아, 대답하는구나. 알았지. 호리느, 너 아니니?"

"아니요, 프랑수아."

"그럼 대체?"

"오노리네의 친구예요."

"제가 당신을 모른다고요?"

"아뇨. 하지만 저는 당신의 친구랍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의심한 걸까?

"오노리네는 왜 너를 따라오지 않았어?"

베로니크는 이 질문에 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추측들이 맞다면, 아이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오노리네는 여행에서 돌아왔다가 곧 떠났어요."

"내 뒤를 쫓아서?"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녀가 재촉하듯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사렉에서 납치당했고, 선생님이 함께 끌려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함께 떠나셨고, 그 뒤를 이어 섬의 모든 주민들이 떠났죠."

"아! 또 그 관과 십자가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종이 재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공포가 그들을 쫓아냈죠."

"당신은요, 마담?"

"나요? 저는 오노리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사렉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파리와 함께 왔죠.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미신들은 저를 무서워하게 만들지 못해요."

아이는 말을 멈췄다. 이 대답들은 터무니없고 불충분해 보였다. 아이는 의심이 더 깊어졌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담. 이틀째 이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사람도 보지 못했고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전날 아침부터, 문 한가운데 작은 구멍이 열리더니, 한 여성의 손이 나타나 제 물 공급을 채워줍니다. 여성의 손이라니요… 그러니까… 맞죠?

'그 여성이 바로 나일까?' 하고 궁금해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여성의 손을 알아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손은 마르고 야위었고, 팔은 누렇게 그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베로니크가 말했다. '이 팔이면 퉁바벤이 지나간 그 구멍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실제로 굽힌 팔은 그 구멍을 쉽게 지나갔다.

"아, 아니에요." 프랑수아는 재빨리 입을 열었다. "제가 본 손은 이 손이 아니에요."

그는 속삭이듯 덧붙였다.

"이 손, 정말 아름답군요."

순간 베로니크는 그가 재빨리 자신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외쳤다.

"세상에, 정말 가능할 수가! 정말 가능할 수가!"

그는 손을 뒤집어 손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손가락을 벌렸다. 그러곤 중얼거렸다.

"흉터가… 있네요. 하얗게… 그대로 있군요."

그때 베로니크는 큰 당혹감에 휩싸였다. 스테파누 마루가 기록한 장부, 그리고 그가 적어 놓아 프랑수아가 반드시 읽었을 세부 사항들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흉터였다. 이는 과거에 입었던 꽤 심각한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입술이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부드럽게, 이어 열정적인 열의와 눈물로 가득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그리고 아이의 애절한 중얼거림이 들렸다.

“오, 엄마…… 사랑스러운 엄마, 나의 사랑스러운 엄마.”

제8장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아들은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을 나누는 것처럼 가까웠다.

그들은 동시에 말을 걸었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했다. 기쁨에 취한 그들은 각자의 삶이 다른 한쪽의 삶으로 넘쳐흐르고, 그곳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들의 결합을 끊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아들을 잇는 정과 신뢰의 끈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아, 그래, 내 친구 퉁바뱅. 너 정말 잘했어. 우리가 정말로 울고 있는 거야. 넌 먼저 지치겠지. 하지만 이런 눈물은 결코 질리지 않아, 아니지, 엄마?"

베로니크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짓눌렀던 끔찍한 환상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살해당한 아들, 혹은 살인과 학살을 저지른 아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상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미친 짓이라는 변명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모든 일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그 진실을 아는 것이 급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오직 아들 한 명으로 가득 찼다.

그가 바로 거기 있었다. 벽 너머로 그의 눈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그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었다. 그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상상이 꿈꾸었던, 부드럽고 다정하며 매력적이고 순수한 아이 그 자체였다.

"내 아들, 내 아들." 그녀는 끝없이 그 말을 되뇌었다. 그 기적 같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랄 것만 같았다.

"내 아들이니, 정말 당신인 거요!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わ요. 죽었다고, 그리고 천 번 죽었다고, 그 이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은 살아 있어요! 여기 계시고, 제가 당신을 만질 수 있다니! 세상에,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들을 하나 뒀다니, 제 아들이 살아 있다니."

그는 또한 같은 열정으로 답했다.

"엄마… 엄마. 저는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저에게는 당신이 죽지 않으셨지만, 어릴 적 어머니 없이 지내는 건 너무 슬펐어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저 당신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그들은 막연한 대화를 나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였던 수백 가지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 이야기들을 내려놓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려 했다. 그들의 삶 속 비밀과 영혼의 친밀함을 파고들려 했다.

프랑수아가 먼저 대화에 약간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다.

"엄마,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모든 것을 말하려고 애쓰는 건 불가능해요. 며칠, 아니 몇 주 동안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필수적인 것만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베로니크는 이미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뭐라고요? 저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 그런데 넘어야 할 장벽이 많거든. 그중에서도 우리를 가르고 있는 이 벽만 해도 그렇고."

"게다가 나는 감시를 받고 있어. 언제든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너를 멀리 보내야 할지도 몰라. 지금 내가 '모두 잘 돼'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

"누가 감시를?"

"우리가 평원의 늪지대, 검은 늪지대 아래에 있는 이 동굴 입구를 발견했을 때, 스테파느와 내게 덤벼든 자들이야."

"그들을 직접 봤어?"

"아니, 어둠 속에서였어."

"그 정체불명의 존재들은 누구지? 적들이 누구라고?"

"모르겠어."

"어딘가 의심이 가는데……"

"드루이드라니?" 그가 웃으며 물었다. "전설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이란 말인가? 음, 그렇지 않다. 영혼 같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살던, 살과 뼈를 가진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그들은 저 안에 사는 건가?"

"아마도."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잡아냈다는 건가?"

"아니, 정반대였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았지. 우리는 석조 계단을 내려가, 아마도 여덟십 개의 동굴, 혹은 감옥 같은 방이 늘어선 아주 긴 복도를 따라 걸었어. 나무 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그 방들은 바다로 통했을 거야.

돌아올 때, 그림자 속의 계단을 눈치챈 순간, 우리는 옆에서 습격당했어. 꼼짝 못하게 묶이고, 눈은 가리고, 입은 막혔지. 순식 일이었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

나는 그들이 나를 긴 복도 끝으로 다시 옮겨 갔다고 직감했어. 묶인 줄과 눈가리개를 벗겨냈을 때, 나는 복도 끝자락의 감옥 하나에 갇혀 있었어. 아마도 마지막 방이었겠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열흘째 갇혀 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요,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구석에는 먹을거리가 쌓여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누울 짚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온하게 기다렸어요."

"엄마가 웃지 않을 거야?"

"무엇을 웃어야 한단 말이야, 내 사랑?"

"제가 말해 줄 이야기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글쎄요,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렉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할아버지가 올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이요."

"누구죠, 내 사랑?"

아이에게 잠시 망설임이 흘렀다.

"아니, 정말로 엄마가 저를 놀릴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비록 잠시 동안은 온 줄 알았지만요. 네, 아세요? 저는 그 벽에서 돌 두 개를 떼어 내고, 감시자들이 당연히 모르는 그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긁는 소리였어요……"

"그건 툿바비앵이었나?"

"툿바비앵 씨가 반대쪽 길로 나타나셨지. 어떻게 맞았는지 짐작 가겠지? 그런데 놀란 건,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야. 오노린도, 할아버지도 없었다. 나는 연필도, 종이도 없었으니 그들에게 편지를 쓸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툿바비앵 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을 텐데."

"불가능해요," 베로니크가 말했다. "당신이 사라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마 납치된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떠나셨고."

"그게 문제죠. 왜 그런 추정을 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최근 발견된 문서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지하 통로의 가능한 진입로를 알려주신 분도 할아버지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베로니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에 가득 찼다.

만약 아들이 납치되어 감금되었다면, 그는 마르 드 에르제몽과 마리르 고프, 오로린, 코레주우, 그리고 그 동료들을 살해한 끔찍한 괴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어렴풋이 눈치챘던 진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핵심 부분만큼은 분명히 보였다. 프랑수아는 무죄였다.

누군가가 그의 옷을 입어 그를 가장했고, 스테파노의 모습을 빌려 그 역할을 대신한 자도 있었다.

나머지 일들, 즉 불가능해 보이는 점들과 모순들, 증거들과 확신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베로니크는 그런 것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아들의 무죄만이 중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을 흐릴 만한 일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보지 못했어요. 오노린이가 제 방문을 준비하게 하려 했지만,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그럼 당신은 혼자 섬에 남았군요, 안쓰러운 엄마.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셨나요?"

"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혼자였지만, 퉁바비앵이 함께 있었죠?"

"네. 처음 며칠은 그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야 그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을 여기로 이끈 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마귀노크 정원 근처 돌 두 개 사이에 숨겨진 입구가 있는 지하 통로예요."

"뭐라고요? 두 섬이 서로 이어져 있다니요?"

"네. 절벽 아래, 다릿돌 밑으로 통하죠."

"정말 기막힌 일이군. 스테파니도, 나도, 더구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이었어. 오직 이 훌륭한 '모두 잘돼'만이 주인을 찾아냈지."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러곤 나직이 중얼거렸다.

"들어봐."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아직 그건 아니야. 하지만 서둘러야 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어머니. 구멍을 뚫으면서 확인했더니, 주변 돌 세 개나 네 개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구멍을 충분히 넓힐 수 있겠더군요. 하지만 그 돌들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가서…"

"맞아요, 엄마. 수페리유로 돌아가세요. 집 지하 왼쪽에 마게노크가 정원 도구들을 모아두던 작은 작업장이 있어요. 거기에 손잡이가 아주 짧은 작은 곡괭이가 있을 거예요. 저녁 무렵에 그걸 가져다줘요. 오늘 밤은 제가 작업을 할 테고, 내일 아침에 엄마 꼭 껴안게요."

"오, 네 말이 진짜로 맞기를 바라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는 스테파느만 구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요? 그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나요?"

"대략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지하에는 두 층의 통로가 겹쳐져 있고, 각 층의 마지막 방은 감옥으로 쓰이고 있대요. 저는 그중 한 방을 쓰고 있고요. 스테파느는 저 아래쪽 방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걱정되는데?"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대로 그 두 감방은 예전에 고문실이었어. 할아버지는 '죽음의 방'이라고 부르셨지."

"뭐라고? 무서워 죽겠네!"

"왜 무서워하세요, 어머니? 제가 고문을 당할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다만, 스테파네의 운명을 모르니 혹시 모르겠어서 툴바비앙을 통해 먹을 것을 보내줬어요. 툴바비앙은 분명 구멍을 찾아냈을 거예요."

"아니, 툴바비앙은 이해를 못 했어."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

"툴바비앙은 당신이 스테파네 마루의 방으로 사람을 보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음식을 모두 침대 밑에 쌓아둔 거예요."

"아!" 아이는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스테파네는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곧이어 덧붙였다.

"엄마, 스테파누스와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서둘러야 해요."

"무엇을 걱정하는 거니?"

"빠르게 행동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또 닥친다면요?"

프랑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올 그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보잖아, 내 사랑. 너 스스로도 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잖아."

"아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를 다시 찾은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잃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현실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소설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소설에서는 항상 일이 잘 풀려요. 툴바비엔에게 물어보세요. 아니죠, 우리 친구, 우리가 승리하고 다시 만나 행복하게 될 거라고요? 툴바비엔, 당신의 생각도 그렇죠? 그럼 가세요, 우리 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세요. 저는 이 구멍을 다시 메워둘 게요. 제 감방을 수색할 때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특히, 구멍이 막혔을 때 들어가지 마세요, 알죠? 툴바비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니까요. 가세요, 어머니. 돌아올 때 소음 없도록 주의하세요."

출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베로니크는 그 기구를 찾아냈다. 사십 분 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간수들의 감시를 피해 간수용 감옥 구석에 숨겨 넣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 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니 여기 오래 머물지 마세요. 아마 오늘 밤 내내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순찰 때문에 중간에 멈춰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곱 시에 여기서 만나요. 아, 스테파네 얘길 했네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소리가 제 추측을 확인시켜 줬어요. 스테파네가 제 바로 아래 층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제 방을 비추는 구

멍은 너무 좁아서 제가 지나갈 수 없거든요. 지금 계신 곳에는 충분히 넓은 창문이 있나요?"

"아니, 돌을 치우면 길을 넓힐 수 있잖아요."

"좋아. 마귀노크의 공방에 대나무 사다리가 있을 거야. 끝에 철갈고리가 달린 거지. 내일 아침에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식량과 담요도 몇 개 챙겨서, 지하실 입구 수풀 속에 숨겨두렴."

"왜요, 엄마?"

"알게 될 거야. 내 계획이 있어. 안녕, 엄마. 잘 쉬고 힘내. 오늘 하루는 힘들 거야."

베로니크는 아들의 조언을 따랐다. 다음 날, 희망에 차서 그녀는 다시 '셀룰'로 가는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투바비앙'이 독립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요, 엄마." 프랑수아는 너무 낮게 속삭여, 어머니는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저를 아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요. 복도를 누군가 거닐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일은 거의 다 끝났어요. 돌들이 이제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두 시간만 있으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사다리는 가져왔나요?"

"창문 아래 돌들을 치워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스테파느가 걱정돼요. 절대 소음을 내지 마세요."

베로니크는 물러나 갔다.

창문은 지면에서 겨우 1미터 정도 높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베로니크가 예상한 대로, 돌들은 무게와 배열 때문에만 붙어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뚫린 구멍은 매우 넓었고, 그녀는 가져온 사다리를 밖으로 내보내 철제 발톱으로 하단 테두리에 단단히 고정하기가 쉬웠다.

해발 30미터에서 40미터쯤 높은 곳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였다.

백설처럼 하얗게 일렁이는 바다. 사레크의 천 개가 넘는 암초들이 그 바다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벽 끝자락까지 볼 수 없었다. 창문 바로 아래로 돌출된 화강암 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대가 마치 천장을 드리운 듯 위로 솟아올라, 사다리가 수직으로 늘어지지 않고 그 지대 위에 걸터앉은 채로 매달려 있었다.

'이게 프랑수아에게 도움이 되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 것이 너무 커 보였다.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

프랑수아도 실수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테파느의 감옥이 그곳에 없을 수도 있었고, 비록 있더라도 비슷한 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될까. 아이를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그녀는 지금 헌신적인 마음이 간절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당장 수행하듯,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사다리의 갈고리가 충분히 열리지 않아 가장자리를 단단히 잡지 못하는 것도, 깊은 심연이 그녀를 향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감을 주는 것도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행동했다.

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그녀는 벽을 넘었다. 몸을 돌려 손잡이에 기대고, 깊은 절벽 아래를 더듬어 보니 사다리 한 칸이 보였다.

전신이 떨렸다. 가슴속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며 박동했다. 종을 치는 망치처럼 거칠게, 빠르게.

그럼에도 그녀는 미친 듯한 용기를 내어 사다리 양쪽 받침대를 잡았다.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다리가 20개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씩 세며 내려갔다.

마흔아홉 번째, 아니, 스무 번째 칸에 다다랐다. 그녀는 왼쪽을 돌아보며 숨 막힐 듯한 기쁨으로 속삭였다.

"오, 프랑수아… 내 사랑…"

그녀는 불과 1미터 앞에서 절벽을 파고든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마치 바위 속으로 뚫린 구멍처럼 보였다.

그녀는 다시 이름을 불렀다.

"스텝파느… 스텝파느…"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다. 만약 스텝파느 마루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들을 수 없었을 정도였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였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올라갈 힘도, 매달려 있을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바위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을 손에 쥐고 균형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사다리가 흔들려 떨어질 뻔한 위험을 무릅썼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화강암 틈새로 삐죽 나온 부싯돌을 손에 쥐고, 동굴 안쪽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는 야수 같은 기운을 모아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균형을 되찾는 힘찬 동작으로, 그녀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즉시 누군가를 발견했다. 짚 위에 누워 있고, 밧줄로 묶인 채였다.

동굴은 작고 얕았다. 특히 위쪽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바다 쪽으로는 막혀 있었다. 멀리서 보면 절벽의 단순한 틈새로 보일 정도였다. 가장자리에는 동굴을 가르는 턱도 없었다. 빛이 장애물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베로니크는 다가갔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비록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모든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지는 어두운 과거 속에서였다. 그 얼굴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금발은 뒤로 넘겨져 있었다. 넓고 창백한 이마와 다소 여성적인 인상이었다. 그 얼굴은 베로니크에게 전쟁 전에 죽은 수도원 친구의 매혹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손재주가 좋았다. 두 손목을 꽉 조이고 있던 끈을 순식간에 풀었다.

남자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채 팔을 뻗었다. 이미 끝난 익숙한 작업에 몸을 맡기는 듯한 태도였다. 깊은 잠을 깨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는 아마도 가끔씩 풀려나 식사를 하곤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묶였을 테다.

그때 그가 중얼거렸다.

"이미? 그런데 배고프지도 않은데… 게다가 해가 뜬 걸 보니…"

그 말에 자신도 깜짝 놀랐다.

눈을 반쯤 뜨더니, 그는 곧 반쯤 몸을 일으켰다.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낮에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현실이 당장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꿈과 환각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베로니크… 베로니크…"

스테파인의 시선 아래 약간 당황한 그녀는 매듭을 풀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손과 묶여 있는 다리 주변에서 젊은 여성의 손을 분명히 느낄 때, 그는 이 놀라운 사건, 즉 그녀의 존재를 깨달았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당신!… 정말 가능할까요? 오! 말 좀 해주세요… 단 한 마디만… 정말 당신이 맞나요?"

그는 거의 자신에게 되뇌듯 말했다.

"그녀야… 맞아, 그녀야… 여기 있네…"

그리고 곧바로 불안한 어조로 덧붙였다.

"당신? … 밤중에, 다른 밤들에도… 오던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나요? 다른 여자였죠? 적이었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서요.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요." 그녀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 감격스럽군요!" 그가 말했다.

그는 눈이 부실 정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보는 듯했다. 상황은 너무 기묘해서 그는 자신의 시선이 가진 열정을 억누르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말했다.

"네, 저기요… 프랑수아가 알려준 거예요."

"그건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보니, 그가 자유로울 거라는 건 확신했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시간 뒤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려 그 침묵을 깼다.

"그는 자유로워질 거야. 당신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해서는 안 돼. 그는 아직 모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그를 일종의 황홀경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가 말이 없고 미소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도 미소 지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답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곧장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를 알고 있었죠? 나로서도 예전에… 네, 당신을 보면 죽은 친구 중 한 명이 생각나요."

"마들렌 페랑?"

"네, 마들렌 페랑."

"나도 아마 그 친구의 형제, 즉 수줍음이 많던 소년에게도 당신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소년은 자주 면회실에 왔고,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곤 했지."

"네, 맞아요. 기억나요. 우리 몇 번이나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당신은 얼굴이 빨개지곤 했어요. 네, 맞아요. 당신은 스테파노라고 불렸죠. 그런데 마루라는 이름은요?"

"마들린과 저는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착각했군요."

그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스테파노. 우리가 오랜 친구이고, 이제 다시 인사를 나누었으니, 지난날의 기억들은 모두 나중에로 미루자. 지금은 떠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 너는 일어설 힘이 남아 있니?"

"힘은 있습니다. 고통도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제가 들어왔던 길로 나가면 됩니다. 감옥 방들이 있는 위층 복도와 연결된 사다리가 있거든요."

그는 벌떡 일어났다.

"용기가 있었느냐? … 무모했느냐? …" 그가 말했다. 마침내 그녀가 무슨 짓을 감행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프랑수아 너무 초조해했거든요. 당신 둘이 옛 고문실, 아니 죽음의 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래요."

그 말은 그를 꿈에서 깨어났듯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는 순간, 이런 상황에서 말을 건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는 듯했다.

"가라! 프랑수아가 옳아… 아, 네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알면 좋겠어. 제발… 제발…"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임박한 위기에 휩싸여 혼란에 빠진 듯했다. 그녀는 그를 달래려 했지만, 그는 간곡히 애원했다.

"한 순간만 더 머뭇거려도, 당신은 결국 파멸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머물지 마십시오. 저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형벌을요. 우리脚下의 바닥을 보십시오. 이 마치 판자처럼 보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아, 아무 소용이 없군요. 제발, 가십시오.

— 당신과 함께요." 그녀가 말했다.

"네, 당신과 함께요. 하지만 먼저 당신이 구제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버티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둘이 모두 구원받으려면, 스테파느, 무엇보다도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올 때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려면, 모든 동작을 신중하게 측정하고 감정을 억누를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네." 그가 말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된 듯했다.

"그럼 따라오세요."

그녀는 구렁 가장자리까지 다가가 몸을 숙였다.

"제 손을 잡아 주세요. 균형을 잃을까 봐요."

그녀가 돌아서서 절벽에 몸을 붙이고, 자유로운 손으로 벽면을 더듬었다.

사다리가 느껴지지 않자, 그녀는 몸을 뒤로 젖혔다.

사다리가 움직인 것이었다. 베로니크가 아마도 너무 급하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오른쪽 기둥의 철갈고리가 미끄러진 듯했다. 나머지 한 쪽 갈고리만 매달린 사다리는 진자처럼 흔들렸고, 아래쪽 디딤발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밀려난 상태였다.

제9장

베로니크 혼자였다면, 비록 용감한 성품이었지만 운명의 집요한 추격 앞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의기소침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스테파네를 마주한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더 약하고, 아마도 감금 생활로 인해 완전히 지쳐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억누를 힘을 냈고, 그 상황을 아주 사소한 사고인 양 보고했다.

"사다리가 기울었어… 더 이상 닿을 수가 없어."

스테파네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끝장이에요."

"왜요? 우리가 왜 끝장인가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도망칠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프랑수아는요?"

"프랑수아?"

"물론이지. 1시간이면 프랑수아는 무사히 탈출할 거야. 그리고 사다리와 내가 간 길을 본 그는 우리를 불러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금방 들릴 거야.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린다니!" 그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1시간을 기다린다고? 그 1시간 동안 누군가가 찾아올 것은 분명해. 감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조용히 있을 뿐이야."

그가 창살이 뚫린 문을 가리켰다.

"그 창살 말이에요. 그들이 열 때마다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 닫자."

"그들이 들어올 거야."

"그럼 닫지 말고, 스테파느, 우리 모두를 믿자고."

"저는 당신 때문에 무서워요."

"나도 당신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최악의 경우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죠."

그녀가 아버지 서랍장에서 가져온 리볼버를 꺼내 보여 주며 덧붙였다. 그 총은 그녀가 떠나지 않는 한 손에 쥐고 있었다.

"아!" 그가 말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다른 수단을 쓸 테니까."

"어떤 수단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한눈에 훑어보았다. 베로니크는 잠시 동안 그 기이한 바닥 구조를 살펴봤다.

주변 벽을 따라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거친 화강암 그 자체였다. 표면은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그 화강암 안쪽에는 큰 사각형이 새겨져 있었다. 네 면 모두에서 깊은 틈이 보였는데, 그 틈이 사각형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사각형을 이루는 목재들은 닳고 패였으며, 주름처럼 파이고 균열이 진 채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목재들은 여전히 질기고 강력했다.

네 번째 면은 거의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절벽과의 거리는 고작 스무 센티미터에 불과했다.

"구덩이 뚜껑?" 그녀가 오한을 느끼며 말했다.

"아니, 아니. 너무 무거울 거야." 그가 단정했다.

"그럼 대체?"

"모르겠어. 아마도 예전에 쓰이던 것의 흔적일 뿐일 거야.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그런데?"

"그런데?"

"이번 밤, 아니 아침쯤이었죠. 아래쪽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났어요. 시험해 보는 것처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소렸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멈췄을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사용할 수 없죠."

"그들은 누구란 말이야?"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들으세요, 스테파느.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몰라요. 언제라도 프랑수아가 자유가 되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예요. 잠시 숨 돌릴 틈을 이용해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차분하게 설명해요. 당장 위험한 건 없어요. 이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베로니크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안전감을 억지로 드러냈다. 프랑수아가 탈출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창가에 다가가 매달린 사다리의 고리를 볼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오히려 터널을 따라 priuré(수도원)까지 달려갈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필요한 설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다스렸다. 화강암이 만든 자연석 의자에 앉은 그녀는 곧장 스테파노에게, 자신을 증인이자 주요 인물로 내세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사건들은 그녀가 시체로 발견된 마게노크의 구석진 오두막을 찾아갔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스텝파느는 중간에 말 한 마디 끼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짓은 격렬한 반발을, 얼굴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드에르몽 씨와 오노리느의 죽음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 말했소, 스텝파느." 베로니크는 아르시냐트 자매들의 고문과 지하실 발견, 그리고 프랑수와와의 만남에서 겪은 모든 공포를 다 털어놓은 뒤 말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소. 프랑수와에게 숨겼던 것들까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이라니요?" 그가 물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당신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몇 년, 아니 몇 세기 동안 펼쳐져 온 거대한 비극의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는 결말의 순간, 즉 수세기에 걸쳐 준비된 놀라운 참사가 일어나는 시점에만 이 사건에 개입된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어쩌면 우리는 그저 일관성 없는 불길한 사건들과 부조리한 우연들 사이에서 흔들릴 뿐일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확률의 장난일 뿐이다.

실제로 나는 당신보다 더 아는 것이 없다. 같은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다. 같은 고통과 상실이 나를 짓누른다. 이 모든 것은 광기일 뿐이다. 질서 없는 경련, 뜻밖의 반동, 야만적인 범죄, 그리고 야만시대의 광기 말이다.

베로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야만적인 시대였죠. 그게 가장 당황스럽고, 또 무서운 일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예전에 이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영향이 이렇게나 이해할 수 없이 우리까지 이어졌다는 걸요. 이 모든 전설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건가요? 솔직히 말해, 오노리느의 광기와 아르시냐 자매들의 절박함 말고는 그걸 알 길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귀는 항상 곤두세워 있었다. 스테파노는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베로니크는 프랑수아의 신호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기대에 절벽 쪽을 바라보았다.

"전설은 너무 복잡해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어둠 속의 전통들. 거기서 미신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려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죠. 수군수군 떠도는 말들 뒤섞인 그 더미에서, 겨우 두 가지 흐름만 건져 올릴 수 있어요. 서른 개의 관에 관한 예언과 관련된 것들, 그

리고 보물,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기적의 돌의 존재와 관련된 것들이요."

"그럼 그 예언이라는 건," 베로니크가 말했다. "마귀노크의 그림에서 읽고, 돌멘 드 페스에서 다시 찾았던 그 짧은 문장들을 말하는 거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예언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렉의 역사와 삶 전체를 지배해 온 것이죠.

예로부터 사람들은 언젠가 열두 달 사이에 섬을 둘러싼 주요 암초 서른 개, 이른바 '서른 개의 관'이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잔혹한 죽음을 당했고, 그중 네 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자 간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확고불변의 전통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이 예언은 '요정의 돌멘'에 새겨진 구절로 구체화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왔고, 평범하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해 갑자기 공포가 폭발한 것일까요?'"

"그건 마그네크의 영향이 큽니다. 마그네크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꽤나 신비로운 존재였죠. 마법사와 지팡이 치료사를 오갔고, 의사이자 사기꾼이기도 했습니다. 별의 흐름을 읽고 약초의 효능을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먼 과거의 일이나 먼 미래의 일이라도 궁금하면 자발적으로 그에게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마그네크가 얼마 전부터 1917년이 '운명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왜요?"

"직관일 수도 있고, 예감일 수도 있으며, 점술이나 무의식의 작용일 수도 있겠지. 설명은 당신이 마음대로 고르면 돼."

마그엔녹은 가장 원시적인 마법 행위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새가 날아간 방향'이나 '닭의 내장' 같은 말만 튀어나왔다.

그럼에도 그의 예언에는 더 단단한 근거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사렉의 노인들로부터 들은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 세기 초만 해도 '요정의 돌멘'에 새겨진 글의 마지막 줄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여인들'과 운을 맞추는 한 구절을 읽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14년에 3을 더하면 17이 된다. 최근 들어 이 주장은 마게노와 그의 친구들에게 더욱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총합인 17이 두 숫자의 합으로 나뉘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1914년에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마게노의 입지는 점점 커졌다. 자신의 예언에 확신을 갖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죽고,

이어 드헤르몽 백작이 죽는 것이 곧 재앙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까지 발표했다.

1917년이 찾아오자, 사렉에서는 진정한 공포가 일었다. 사건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베로니크가 말했다. "이 모든 게 말이 안 돼."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마그냉은 돌멘에 새겨진 예언의 조각들을 모아 완전한 예언과 대조해 본 날, 그 모든 것이 유독 불안하게 느껴지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해냈다는 거야?"

"네. 그는 수도원 폐허 아래에서 구석진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돌들이 마치 보호막처럼 둥글게 둘러쳐진 곳이었죠. 거기서 낡고 썩어빠진 미사경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페이지는 대부분 망가졌지만, 다행히 몇 페이지는 온전했죠. 특히 그중 한 장은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본 그 페이지, 아니면 버려진 오두막에서 본 사본의 원본이죠."

"그 사본은 내 아버지가 그린 건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셨죠. 아버지의 서재 책장 속에 들어 있던 모든 그림들처럼요. 드헤르몽 씨는 드로잉과 수채화를 즐기셨어요. 그분

은 이 페이지를 베껴 그렸지만, 그림 곁에 적힌 시 속 예언은 돌멘에 새겨진 글자만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여인과 저 사이의 유사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본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그네크가 드헤르몽 씨에게 보여준 뒤, 그분은 자신의 방에서 그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죠. 하지만 드헤르몽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의 그림에서 그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며요."

"아마도 그도 옛날 보르스키에게 내렸던 예언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베로니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한 친구의 손에 죽고, 부인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리라.'"

"그런 기묘한 일치가 그를 놀라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제처녀 시절 이름 이니셜을 맨 앞에 적어 넣었죠. V. d'H?"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추어 덧붙였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 글귀 그대로 진행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을 멈췄다.

그들이 그 단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수세기 동안 미셸의 페이지와 돌멘의 바위에 새겨져 온 그 단어들을 말이다.

사레크의 서른 개의 관이 아직 스물일곱 명의 희생자만 거두었다면, 마지막 세 명은 이미 준비가 되어 화답하듯 희생제를 완성하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세 명 모두, 제사장들의 손아귀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 대나무 근처에 아직 세 개의 십자가만 서 있다면, 네 번째 죄인을 위한 네 번째 십자가도 곧 나타날 것이었다.

"프랑수아가 좀 오래 걸리네." 베로니크가 잠시 후 입을 열었다.

그녀는 구덩이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사다리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오를 수 있는 상태였다.

스테파니이 입을 열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내 문앞에 올 거야. 아직 오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지."

하지만 서로의 초조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베로니크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럼 보물은요? 피에르디외는?"

"그 수수께끼도 별로 더 명확하지 않아요." 스테파뉴가 말했다. "그것도 비문의 마지막 구절 하나에 달려 있을 뿐이죠."

"이 '피에르디외'가 대체 뭐지?"

전설에 따르면 기적의 돌이라고 한다. 드헤르몽 씨의 말로는, 이 믿음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사렉에서는 예로부터 이 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어 왔다. 중세 시대에는 약하고 기형적인 아이들을 데려와, 이 돌 위에 밤낮으로 며칠씩 눕혔다. 그러곤 건강하고 튼튼하게 일어서게 했다고 한다.

불임 여성들도 이 돌을 유용한 치료제로 여겼다. 노인들, 부상자들, 그리고 모든 병약한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순례지가 바뀌면서 돌의 위치도 옮겨졌고, 어떤 이들은 아예 사라졌다고도 한다.

18세기에는 '요정의 돌멘'이 숭배의 대상이었고, 여기서 구루병 아이들을 치료하곤 했다.

"하지만 베로니크, 그 돌이 생명도 주지만 죽음도 안기는, 해로운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지만 그 돌을 지키고 숭배해야 할 사람들이 모르게 건드리었을 때에만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신비로워지는 건, 불꽃을 내뿜고 착용자를 태우며 지옥의 형벌을 안기는, 마치 환상적인 보석 같은 또 다른 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호노린의 말대로라면, 마귀노크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요." 베로니크가 지적했다.

"네, 맞습니다." 스테파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재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설적인 과거, 두 가지 전설, 예언, 그리고 '신의 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노크의 사건은 현재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 시기도 과거만큼이나 어둡고 음울합니다."

"마귀노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아마도 그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가 혼자 외롭게 지내며 우울해하고 일도 하지 않은 지 이미 엿새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비명을 지르며 드르그르르르

ㄹㄹㄹ

ㄹㄹㄹ

ㄹㄹㄹ

ㄹㄹㄹ

ㄹㄹㄹ

우리는 그를 치료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첫 번째 희생자야… 불길이 곧 내 심장까지 타올라… 그리고 나 다음엔 다른 이들이…"

그날 밤, 그는 도끼로 자신의 손을 잘라냈다. 일주일 뒤, 사레크 섬에 공포를 안겨 준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을까?"

"파웨트 예배당으로 순례를 떠났다. 당신이 그를 시체로 발견한 곳 근처로."

"당신은 그가 누구에게 죽었다고 보나?"

"분명히 도로 옆에 새겨진 신호로 서로 교신했던 이들 중 한 명이다. 벽장 속에 숨어 사는 자들 중 한 명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음모를 계속해 온 것이다."

"당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François와 당신을 속인 자들이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앞서 훔쳐둔 옷을 입어 François와 저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나요?"

"프리에레에 더 쉽게 침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 수색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감금해 둔 동안, 당신은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나요?"

"한 여성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주고, 제 손의 묶음을 풀며 다리의 사슬을 조금씩 느슨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녀가 당신과 말을 나눴나요?"

"단 한 번, 첫날 밤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제가 외치거나 도망치려 시도하면, François가 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더군요."

"하지만 공격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프랑수아와 제가 아는 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예고할 만한 징후는 전혀 없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드헤르몽 씨는 자신이 추적해 온 일련의 사건에 대해 중요한 두 통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통은 브르타뉴의 노장 귀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당파와 깊은 연고가 있는 인물로, 문서와 함께 흥미로운 자료를 동봉해

왔습니다. 바로 그의 증조부 문헌 속에서 발견한 '사렉의 지하 감옥 평면도'였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전설에 나오는 드루이드의 거처였을 것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상데르누아르 쪽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두 층 모두 끝에 처형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수와 저는 곧바로 그곳을 조사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당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무것도요."

"하지만 프랑수아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올 거라고 말했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아, 그것은 프랑수아의 장난스러운 생각일 뿐이야. 바로 그날 아침 드헤르몽 씨가 받은 두 번째 편지와 연결되는 사소한 아이디어였지."

"어떤 도움이란 말인가?"

스텝한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누군가 문틈으로 자신을 엿보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문에 달린 작은 창문(지다)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복도 반대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 만약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야 해! 저들이 곧장 올 거야. 언제라도."

"정말 도움이 가능한 것인가?"

"아, 별일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좀 이상하긴 해. 사렉 섬 근처에 잠수함 기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군 장교나 경찰 간부들이 몇 번이나 섬을 조사하러 왔다는 거 알지?

마지막으로 파리를 직접 내려온 특별 대표가 있었어.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패트리스 벨발 대위였지. 그는 드헤르몽 씨와 만나서 사렉 섬의 전설과, 비록 우리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여전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털어놓았어. (마귀노크가 떠난 다음 날이었지.)"

벨발 대위는 그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파리에 있는 친구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친구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출신의 신사, 루이스 페레냐 후작이었다.

그는 묘하게도 남다른 인물로, 어떤 복잡한 수수께끼도 풀어내고 가장 대담한 계획도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벨발 대위가 떠난 지 며칠 후, 드헤르몽 씨는 도 루이스 페레냐로부터 내가 이미 말씀드린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 편지의 앞부분만 우리에게 읽어주셨다.

"각하, 마귀노크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보가 울리면 즉시 파트리스 벨발에게 전보를 치시기 바랍니다.

제 관찰로는 각하께서 이미 절벽 끝자락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각하가 그 절벽 아래 깊은 구렁텅이까지 떨어졌더라도, 제가 제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이미 잃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말입니다."

"피에르디에의 수수께끼는 별것 없다. 정말 놀라운 건, 베르발에게 충분히 제공된 단서들만으로도 그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풀 수 없는 미스터리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그 수수께끼가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서?" 베로니크는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말씀드린 대로, 드 에르제몽 씨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앞에 두고, 놀란 기색으로 중얼거리며 편지를 읽었죠.

'이게 가능하다고? … 하지만 맞다, 맞다, 바로 그거야.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밤, 노르망디에서 돌아온 너희에게 알려주마. 다만 알아두어라. 이 남자는 정말로 특이한 인물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아

무런 설명 없이, 그냥 '신석의 비밀'과 그 정확한 위치를 내게 알려주었다. 그 논리가 너무도 명확해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밤은 어땠나요?"

"그 밤, 프랑수와 나는 납치되었고, 드 에르제몽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베로니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그 중요한 편지를 훔치려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신석' 도난 사건이 우리가 겪은 모든 음모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동기가 될 테니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드헤르몽 백작은 루이스 페레나 신부의 권유로, 우리 앞에서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루이스 페레나 신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셈이군요."

"하지만 프랑수아……"

"프랑수아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라졌고, 저 역시 사라졌다는 사실을 드헤르몽 백작이 확인하면 반드시 루이스 페레나 신부에게 알렸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신부는 곧장 올 겁니다. 게다가 프랑수아는 기다릴 다른 이유도 하나 있죠."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프랑수아는 아직 어린아이죠. 모험 소설을 많이 읽어서 상상력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베를발 선장이 친구 페레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환상적이었고, 그를 묘사하는 방식이 너무 기이해서, 프랑수아는 루이스 페레나가 바로 아르센 뤼팽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필요한 순간에 기적 같은 구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베로니크는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다.

"사실 아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때로 무시할 수 없는 직관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무엇보다 그 믿음은 그에게 용기와 낙천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나이에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만약 그 희망이 없었다면."

두려움이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구원이 어디에서 오든 상관은 없다. 다만 제때에 와 주길, 그리고 내 아들이 그 무서운 자들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적의 거대한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섬의 주인이었다. 지하의 집들을 지배했고, 황야와 숲을 장악했다. 둘러싼 바다의 지배자였으며, 돌멘과 관들을 거느린 자였다.

그는 괴상한 과거의 시대를 현재의 끔찍한 순간들과 연결했다. 옛날의 의식대로 역사를 이어가며, 수없이 예고된 저주를 내리쳤다.

"하지만 왜요? 대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과 과거의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같은 잔혹한 수법이 다시 쓰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베로니크는 절망적인 어조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바뀐 말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너머로 한 가지 강박관념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아, 프랑수아만 옆에 있었다면! 우리 셋이 함께 싸웠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 뜻밖의 장애물이 생긴 걸까……?"

이번에는 스테파니가 그녀를 위로했다.

"장애물? 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장애물은 없어……. 다만 일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네, 맞아요. 일이 길고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기개와 자신감은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나면, 그 어떤 힘으로도 둘을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죠. '우리를 박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갈라놓지는 못할 거야. 마지막까지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말이 맞죠, 스테파느? 제가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찾은 게 맞죠? 아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테파느는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것이 놀라워 그녀를 바라보았다. 베로니크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스테파느가 물었다.

"소리가 들려요."

그녀처럼 스테파느도 귀를 기울였다.

"네… 맞아요. 분명히…"

"아마 프랑수아일 거예요. 아마 저 위쪽에서…"

그는 일어나려던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 복도에서 발소리야……"

"그래? …그래?" 베로니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다.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상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발걸음이 숨기지 않고 다가오는, 정정당당한 사람의 발소리였기 때문이다.

스테파느느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선 안 돼. 자리에 돌아가겠어. 네가 내 묶임을 제멋대로 매듭지어 줘."

그들은 잠시 주저했다. 마치 위험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기대라도 품은 듯했다. 그러다 문득, 베로니크가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었던 정신을 깨고 결심했다.

"빨리…… 자네들이 왔어. 누워!"

그는 복종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그를 둘러싼 끈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처음 발견했던 그대로였다. 하지만 매듭은 짓지 않았다.

"바위 쪽을 향하세요. 손을 숨기세요. 손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낼 테니까."

"당신은요?"

"걱정 마."

그녀는 몸을 낮춰 문 앞에 엎드렸다. 문 안쪽에는 철제 창살이 달린 작은 창이 있었다. 창살이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그때 밖에서 적군이 멈춰 섰다. 두꺼운 문 너머로도 베로니크는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위,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순간이었다.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왜 아직 안 가?' 베로니크는 생각했다. '내 존재를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있는 걸까? 내 옷차림이든?'

그녀는 스테파느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태도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묶인 줄도 평소와 달랐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 두 번에 걸쳐 가볍게 휘파람이 불렸다.

그러자 복도 깊은 곳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발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첫 번째 발소리처럼 문 뒤에서 멈췄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서로 의논하는 소리였다.

베로니크는 작은 동작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권총을 꺼내 손가락을 방아쇠에 올렸다. 문이 열리면 곧장 일어나서 망설임 없이 연사할 생각이었다.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프랑수아는 끝장날 것이었다.

제10장

계산은 맞았다.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고, 적이 곧장 발견될 조건이라면 말이다.

베로니크는 문을 살폈다. 그러자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문 아래쪽에, 이치에 맞지 않게도, 굵고 튼튼한 빗장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 빗장을 써야 할까?

그녀는 이 방책의 장단점을 따져볼 시간이 없었다.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거의 동시에, 열쇠가 자물쇠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다.

베로니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또렷이 상상했다.

습격자가 들이닥치면, 당황한 그녀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저격에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적은 문을 다시 닫고, 주저하지 않고 프랑수아의 감방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 생각에 그녀는 당황했다.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다. 한 손으로 아래 빗장을 밀쳤다. 다른 손으로는 반쯤 몸을 일으켜, 철제 창문을 창살 쪽으로 내리쳤다. 잠금 장치가 작동했다. 이제 안에서도 들어갈 수 없었고, 밖에서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이 행동은 적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다. 스테파느가 그녀 곁으로 뛰어와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세상에, 뭘 하셨어요? 그들은 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라는 것도요."

"그렇죠." 그녀가 변명하듯 말했다. "그들이 이 문을 부술 테니까, 우리가 도망칠 충분한 시간이 생길 거예요."

"도망칠 시간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가는 거죠."

"어떻게요?"

"프랑수아에게 신호를 보내요… 프랑수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복도 깊은 곳에서 빠르게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스테파노의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적군은 스테파노를 내버려두고 위층의 수용소로 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두 친구 사이에는 어떤 암묵적인 동맹이

있다고, 즉 스테파노의 수용소에 아이가 들어와 문을 막아놓았다고 적군이 추측하지 않았을까?

베로니크는 두려워하던 방향으로 일을 급박하게 몰고 갔다. 위층에서는 프랑수아들이 도망치려던 찰나에 발각될 것이었다.

그녀는 경악했다.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냥 그를 기다렸으면 됐었는데……. 우리 둘이 함께했으면 그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스파니엘을 빨리 구출해 주려는 이유가, 그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 이 일에 뛰어들게 만든 것은 부끄러운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끔찍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즉시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요. 와야 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운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테파니가 말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왜요? 프랑수아를 방에서 나간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당신 스스로 그렇게 추측했잖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굳어 하얗게 질렸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그녀 자신도 모르게 다가올 재앙을 직감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데 그 재앙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다.

증거들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죽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은 사렉 마을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군요. 공포도 똑같아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당연했어요. 당신도 이 모든 것의 끔찍함을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녀는 문 쪽으로 돌진했다. 빗장을 당기고 문을 열려 했지만, 철제판으로 보강된 두꺼운 문짝 앞에서는 무슨 소용이랴.

스테파니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뭔가……"

"네, 맞아요. 저 위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머리 위, 프랑수아의 감방에서."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거친 절벽 속을 울리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들 아래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침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예요." 스테파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작업이요. 아! 알겠어요!"

"뭐라고? 대체 무슨 뜻이야?"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이어지다 멈췄다. 그 뒤로는 묵직하고 끊이지 않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삐걱거림과 갑작스러운 쩌걱거림이 섞인 소리였다. 마치 바다 근처에서 배를 끌어올릴 때 쓰는 윈치(كابestan) 같은 기계가 가동될 때의 소리와도 같았다.

베로니크는 다가올 일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스테파느의 눈빛에서 단서를 찾고자 애썼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비틀거렸다. 한 손으로 벽을 짚어야만 했다. 동굴 전체, 아니 절벽 전체가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오!"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 공포가 내 온몸을 떨게 하는 걸까?"

그녀는 급히 스테파느의 두 손을 꽉 쥐며 물었다.

"대답해 줘. 내가 알고 싶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눈물겨울 뿐이었다. 오직 거대한 사랑과 끝없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생각에는 오직 그녀뿐이었다.

게다가, 그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평범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상력이 악의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 기묘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징후들을 감지하기 시작한 베로니크조차, 아직 그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함정 같았다. 하지만 역으로 작동하는 함정이었다. 동굴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목재 더미가, 절벽 쪽을 경첩 삼아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서서히 들려 올랐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마치 거대한 뚜껑이 열려가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 틈새가 이미 동굴 가장자리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경사로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기울기는 아직 매우 완만했다. 그 위에서는 누구나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순간, 베로니크는 적들이 자신을 바닥과 천장의 거친 돌 사이에 끼어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 끔찍한 기계가 들어올려지는 것이 다리를 걷어 올리는 초입교량처럼, 자신들을 깊은 구덩이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기계는 냉정하게도 그 임무를 완수할 것이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어떻게 매달려 보든,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든, 언젠가는 그 다리가 완전히 세워져 절벽의 일부가 될 순간이 올 것이다.

"참으로 끔찍해…… 정말 끔찍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두 사람의 손은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았다. 스테파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가 신음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바닥 주변에는 공간이 있어. 동굴이 둥글잖아. 우리가…"

"공간이 너무 좁아. 이 네모난 구조물의 세 면 중 하나와 동굴 벽 사이에 몸을 넣으려다간, 압사당할 거야. 모든 게 계산되어 있어. 나는 오랫동안 그 점을 생각해 봤지."

"그럼 어떻게 해?"

"기다려야 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야?"

"프랑수아를."

"오, 프랑수아." 그녀는 통곡하며 말했다. "그도 아마 형벌을 받을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를 찾아다니다가 함정에 빠질지도 몰라. 어쨌든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거야. 죽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를 보지 못할 거야."

그녀는 젊은이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스텝파뉴, 우리 중 한 명이 죽음을 피한다면——그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어……"

"당신이 맡으셔야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적군이 당신에게 내 형벌을 강요하다니, 의아하군요. 하지만 그가 당신이 여기 계신 줄 모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의아합니다." 베로니크는 대답했다. "저는 또 다른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스테파뉴, 아들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알겠죠?"

"아들을 위해 제가 해온 일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바닥이 여전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불규칙한 진동과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동반됐다. 경사가 더 심해졌다. 잠시만 더 지나면, 조용한 대화는커녕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판이었다.

스테파뉴가 대답했다.

"제가 살아남는다면, 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억을 걸고誓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알고 사랑했던 베로니크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를 열정적으로 바라보던 그가 물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일기를 읽었어요. 당신의 사랑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사라진 여자에게 사랑을 바쳤고, 이제는 죽어가는 여자에게 그 사랑을 바치고 있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구원은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속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입에 대려 했다.

"입맞춰 주세요."

그녀가 이마를 내밀며 말했다.

그들 각각은 절벽 가장자리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 폭포의 네 번째 면을 따라 뻗은 좁은 화강암 선 위였다.

그들은 진지하게 입맞췄다.

"잘 붙잡고 있어." 베로니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녀는 최대한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 막히는 목소리로 외쳤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하지만 위쪽 구멍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다리는 여전히 한쪽 발톱으로 매달린 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걸려 있었다.

베로니크는 바다 위를 내려다보았다. 절벽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그곳은 덜 거칠었다. 거품으로 뒤덮인 암석들 사이, 고요하고 평온한 작은 호수가 보였다. 수심이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곳이라면 날카로운 암석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 죽음이 더 달콤할 것 같았다. 그녀는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끝내고, 너무 길게 이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스테파노에게 말했다.

"왜 끝장나는 걸 기다리겠어요? 이 고문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아니!"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베로니크를 잃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나는 더 이상 희망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 역시 희망 따위 없었지만, 베로니크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자신만이 그 마지막 시련의 무게를 짊어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승강기는 계속 올라갔다. 흔들림은 그치고, 바닥의 경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이미 문턱의 아래쪽, 문 중간쯤까지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작동하더니 거친 충격이 일어났다. 그리고 전체 문이 완전히 덮였다. 이제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들은 경사 방향으로 누워, 발로 화강암 띠를 딛고 버텼다.

그리고 다시 두 차례의 진동이 일었다. 매번 더 강하게, 기계의 윗부분이 밀려 올라갔다.

벽 꼭대기에 닿은 거대한 기계는 천장을 따라 천천히 기울어졌다. 동굴 입구 쪽으로 말이지.

분명히 보였다. 기계가 그 구멍에 딱 맞게 끼워져, 성문의 철통 같은 문처럼 동굴을 완전히 막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 죽음을 부르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바위는 이미 다듬어져 있었다. 우연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을 모은 채, 그들은 운명에 굴복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졌다.

수세기 동안 이 기계는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졌으며, 수리되고 다듬어졌다. 보이지 않는 고문자들이 그 기계를 움직이며, 수세기에 걸쳐 죄인들을, 범죄자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그리고 아르모리크, 갈리아, 프랑스의 사람들, 그리고 외국 출신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전쟁 포로, 신성모독자 수도사들, 박해받는 농민들, 슈앙스, 블루스, 혁명군 병사들까지, 하나하나 이 괴물은 그들을 심연으로 던져 넣었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다.

그들에게는 증오나 분노 속에서 찾아오는 쓴맛 섞인 안도조차 없었다. 도대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완고한 어둠 한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 치열한 밤속에서 적의 얼굴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어갔다. 그저 숫자 채우기에 불과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다. 터무니없는 예

언이 실현되고, 미친 듯한 의지가 관철되도록, 마치 야만신의 명령을 광신도 제사장이 선포하듯 말이다.

그들은 전례 없는 희생 제물의 희생자가 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종교의 신들에게 바쳐진 전제(전체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다.

그들 뒤에는 벽이 우뚝 서 있었다. 몇 분만 더 지나면 벽은 수직으로 세워질 것이다.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스텝파느는 여러 번 베로니크를 말렸다. 젊은 여자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공포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달려가고 싶었다.

"제발요, 뻐끔거리며 그녀가 말했다. 저를 놓아주세요. 너무 아파요."

아들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수아의 모습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 아이도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저주받은 신들의 제단 위에서 어머니처럼 고문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가 올 거예요, 스텝파느가 단언했다. 당신은 구원받을 거예요. 제가 원하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로 답했다.

"그는 우리처럼 감금되어 있어요. 횃불로 그를 태우고, 화살로 그를 찌르고, 살을 찢어요. 아! 내 불쌍한 아이야!"

"그가 올 거야, 내 친구… 그가 말했잖아. 한번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을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우리는 죽음 속에서 다시 만났어. 죽음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을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좋아!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

그녀의 고통은 너무도 컸다. 그녀는 힘을 모아 스테파느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내려 했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갈 몸짓을 취했다.

하지만 곧장 그녀는 성문 다리를 등 뒤에 기대며 비명을 질렀다. 스테파느도 같은 소리를 지르며 놀라 뒤로 물러섰다.

무언가가 그들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왼쪽에서 온 것이었다.

"사다리… 사다리잖아, 그렇지?" 스테파느가 속삭였다.

"그래, 프랑수아야." 베로니크는 기쁨과 희망으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가 구해냈어. 우리를 구하러 오는 거야."

그때, 지옥의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그들의 어깨 아래로 그 벽이 떨리며, 냉정하게 버티고 있었다. 뒤로는 동굴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심연의 일부가 되었고, 오직 좁은 턱만 간신히 잡고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베로니크는 다시 몸을 숙였다. 사다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두 개의 고리쇠로 단단히 고정되자 멈춰 섰다.

구멍 안쪽 위쪽에는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아이는 웃으며 팔을 휘저었다.

"엄마, 엄마…… 빨리……"

부르는 소리는 절박했고, 열정적이었다. 두 팔이 그들을 향해 쭉 뻗어 있었다. 베로니크가 신음했다.

"아, 그대야…… 그대야, 내 사랑……"

"빨리, 엄마, 내가 사다리를 잡고 있어…… 빨리…… 위험한 데 없어……"

"와, 내 사랑…… 지금 갈게……"

그녀는 가장 가까운 받침대를 잡았다. 이번에는 스테파느의 도움으로 마지막 계단에 올라서기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요, 스테파느? 당신도 따라오겠죠?"

"시간은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아니요, 저에게 약속하세요."

"맹세합니다. 서두르세요."

그녀는 네 단계를 더 올라서며 멈춰 섰다.

"당신도 올 거죠, 스테파느?"

이미 그는 절벽 쪽으로 몸을 돌렸고, 왼쪽 손으로 현관교와 바위 사이에 남은 좁은 틈새에 손을 넣었다. 오른손은 사다리에 닿았고, 그는 발을 아래쪽 받침대에 올릴 수 있었다. 그도 구원받은 것이었다.

베로니크는 그 공간을 얼마나 신나게 건너갔는가!

그 아래로 공허한 틈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녀에게 무슨 상관이랴. 아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으니까!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여기 있어요, 내 사랑."

그녀는 재빨리 머리와 어깨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이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창틀을 넘어섰다. 드디어 아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서로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 엄마!… 정말이야? 엄마!…"

하지만 그녀가 그를 꼭 껴안자마자, 몸을 살짝 뒤로 빼냈다. 왜 그랬을까? 본인은 알 수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이 그녀의 열정을 막아섰다.

"와, 와, 여기로 와."

그녀는 아이를 끌어 창문 밖의 밝은 곳으로 데려갔다. “내가 너를 제대로 봐야 해.”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를 두세 초 동안 훑어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놀란 기색을 드러내며 외쳤다.

“그래, 너였구나. 너였지? 네가 범인이야?”

끔찍했다. 아이의 눈앞에서 드헤르몽 씨와 오노린을 죽인 괴물의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너 내 얼굴을 알아보는구나?”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 톤을 듣고 베로니크은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프랑수아가 아니었다. 프랑수아의 옷을 입고 악역의 역할을 수행했던 다른 아이였다.

그가 다시 한번 비웃었다.

“아, 이제야 깨달으셨네요, 마담. 제 얼굴을 알아보셨죠?”

끔찍한 얼굴이 일그러졌다. 악의와 잔인함이 서렸고, 가장 천박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보르스키! … 보르스키! …” 베로니크는 말더듬듯 중얼거렸다. “당신 안에 보르스키가 서 있어. 그걸 알아봤어.”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왜 안 되겠어? … 네가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배신할 것 같니?"

"보르스키의 아들? … 그의 아들이라고?!" 베로니크가 되풀이했다.

"당연하지. 그 녀석도 두 아들을 둘 권리가 있었단 말이지. 착실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다음이 다정한 프랑수아."

"보르스키의 아들!" 베로니크가 또 한 번 말했다.

"말은 무섭게 잘하는 놈이야, 마담. 내 말 믿어. 아버지를 닮았지. 좋은 가르침을 받아 자랐다고. 내가 이미 보여줬잖아, 그렇지?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야. 끝이 아니지. 자,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줄까? 그 멍청한 가정교사를 좀 봐라. … 아니, 내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는 재빨리 창가로 달려갔다. 스테파느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돌멩이를 집어 들고, 도망치는 자를 쫓아내듯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처음에는 무언가 위협적인 기색이 느껴져 주저하던 베로니크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이의 팔을 잡으려 몸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얼굴이 사라졌다. 사다리의 발톱이 창틀을 벗어났다. 커다란 소리가 들린 뒤, 곧이어 아래에서 물에 빠지는 둔탁한音が 울려 퍼졌다.

베로니크는 즉시 창가로 달려갔다. 사다리는 작은 호수의 보이는 부분 위에 떠 있었다. 암초들이 만들어낸 틀 안에서 사다리는 고요히 멈춰 서 있었다. 스테파느가 어디로 떨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결 일렁임도, 잔물결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스테파느! 스테파느!"

대답은 없었다. 바람도 멈춘 공기의 고요함, 바다도 잠든 듯한 침묵만이 가득했다.

"아, 불쌍한 자, 대체 뭘 한 거야?" 베로니크의 입에서 그 말이 떨려나왔다.

"울지 마세요, 아가씨. 스테파뉴 씨가 아드님을 마치 나귀처럼 다루셨을 뿐이죠. 자, 웃어야 해요. 키스나 할까요? 아버지 댁 아가씨, 어때요? 대체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세요? 정말 저를 싫어하시나요?"

그가 팔을 뻗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재빨리 권총을 겨눴다.

"가라… 가라, 안 그러면 너를 광견병 걸린 개처럼 쏴 죽이겠다. 가라…"

아이의 얼굴은 더 야만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를 갈며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섰다.

"아, 이 예쁜 아가씨,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너를 껴안으려 했을 뿐인데… 마음은 따뜻한데… 총부리를 들이댄다고? 피로 갚아줄게… 붉고 아름다운 피가 흐르는 피로… 피… 피…"

그 단어는 입에 올리기만 해도 즐거운 듯했다. 그는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악의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수풀을 지나 수도원으로 이어지는 터널로 달아났다.

"네 아들의 피야, 베로니크 어머님…… 네 사랑스러운 프랑수아의 피라고!"

제11장

베로니크는 떨리는 마음으로, 망설임 섞인 채 마지막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스테파누스의 살인은 잠시 동안 그녀의 생각에서 프랑수아를 몰아냈지만, 이제 다시 불안이 엄습해 왔다.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녀는 프랑수아를 구별리에 데려가, 그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야 할까?

"자, 자,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녀가 중얼거렸다.

"잠시만요, 생각해보자. 몇 시간 전만 해도 프랑수아가 감옥 벽 너머로 내게 말을 건넸잖아. 그때는 분명 그였어. 어젯밤 내 손을 잡고 입맞춤으로 어루만졌던 사람, 바로 프랑수아였지. 어머니는 자식을 잘못 보지 못해. 나는 그 순간 사랑과 연민으로 몸이 떨렸으니까."

그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바로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아래층, 지하실에서 스테파느와 제가 갑자기 습격을 당했어요. 즉각 경보가 울렸죠. 괴물, 보르스키의 아들이 프랑수아를 감시하러 정확히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는 빈 감방을 발견했고, 뚫린 구멍을 보고는 기어올라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맞아요… 아니라면 그가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여기까지 온 그는 창문 쪽으로 달리는 생각을 했겠죠. 창문이 바다를 향해 있고, 프랑수아의 탈출에 쓰일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곧바로 사다리용 갈고리를 보았어요. 그러고는 몸을 굽여 저를 보았고, 저를 구해 주며 저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는 수도원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피할 수 없이 프랑수아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베로니크는 움직이지 않았다. 위기가 수녀원 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 감방 쪽에서 닥쳐올 것만 같았다.

프랑수아는 정말로 탈출에 성공했을까?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다른 이에게 발각되어 때려눕혀진 것은 아닐까.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낮췄다. 구멍이 넓혀졌음을 확인한 뒤, 자신도 그 사이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 길이는 아이 하나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다. 그녀의 어깨가 바위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옷을 찢어붙이고, 바위 돌기에 살을 찧으며 끝내 인내와 손더듬으로 그 좁은 틈새를 빠져나왔다.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문은 반대쪽 복도로 열려 있었고, 베로니크는 문이 열린 그 방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은 강렬했다.

그녀는 거의 보지 못한 흐릿한 실루엣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실체는 아니었지만, 확신은 서려 있었다. 복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베로니크의 뜻밖의 출현에 놀랐다는 것이다.

'저들이 동행한 여자군.'

베로니크는 생각했다. '스테파ンを 죽인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겠지. 그리고 아마 프랑수아도 데려갔을 거야. 아니, 프랑수아는 지금도 내 바로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여자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그러나 베로니크의 눈은 반쯤 어두운 방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짝 안쪽에 한 여성의 손이 부드럽게 당기고 있는 것이 또렷이 보였다. 문은 안쪽으로 열렸다.

'왜 한 번에 닫지 않는 걸까?' 베로니크는 생각했다. '분명히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우려는 건데.'

문짝 아래에서 돌멩이가 끼어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리자, 베로니크는 답을 알았다. 돌멩이가 장애물이 되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 장애물을 치우면 문은 저절로 닫힐 터였다.

베로니크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거대한 철제 손잡이를 잡은 뒤, 자신을 향해 힘껏 당겼다. 손은 사라졌지만, 반대쪽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문 바깥에도 손잡이가 있는 듯했다.

그때 피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여자가 도움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복도 어딘가, 그 여자와는 떨어진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아! 베로니크는 그 소리를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들었는가. 자신의 아들, 진짜 아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아직 감금되어 있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아들이었다. 이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이었다.

"여기 있단다, 내 아들아."

"빨리, 엄마. 저들이 저를 묶어 놨어요. 그리고 그 피리 소리는 저들의 신호예요.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구할게!"

그녀는 결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이 무한하다고 느껴졌고, 온몸이 고조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실제로 상대방은 약해지고 있었고,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었다.

문이 점점 더 넓게 열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격렬한 몸싸움은 끝이 났다. 베로니크는 그 사이를 지나쳐 들어왔다.

여자는 이미 복도로 도망쳐 나갔다. 아이를 밧줄로 끌어당겨, 다리에 감겨 있는 올가미에도 불구하고 걸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곧 포기했다.

베로니크가 총을 겨누고 그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아이를 놓아주고는 열린 감방에서 쏟아지는 빛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하얀 양모 옷을 입고 허리에 끈을 두르고 있었다. 팔은 반쯤 드러난 채였고, 얼굴은 아직 젊었지만 시들고 마른 주름투성이였다. 금발 머리에는 하얀 곱슬머리가 섞여 있었다.

두 눈에는 증오 어린 격분이 타올랐다.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미 실력을 겨루고, 다시 싸움을 시작할 적기를 기다리는 적들처럼.

베로니크는 승리한 듯, 거의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내 아이에 손가락 끝이라도 대면,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떠나라."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고, 구원자가 올 것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프랑수아를 내려다보았고, 다시 자신의 사냥감을 붙잡으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만지지 마요!" 베로니크는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만지면 저를 쏴버릴 거예요!"

여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협박하지 마. 네 아이를 죽이려 했다면 이미 끝났을 거야. 하지만 그의 시기는 아직 안 왔어.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는 건 내가 아니야."

베로니크는 억지로라도 속삭였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누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너도 알다시피, 방금 본 그 아이."

"그건 당신의 아들, 살인자요… 괴물이요!"

"그건 …의 아들이야…"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베로니크가 소리쳤다. 이 여자가 보르스키의 애인이었음을 깨달았고, 프랑수아 앞에서 무슨 비밀을 털어놓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름은 절대 입에 담지 마."

"필요할 때 반드시 말할 거야." 여자가 말했다. "베로니크,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이제 네 차례야. 그리고 그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가라!" 베로니크가 총을 겨눈 채 외쳤다.

"다시는 협박하지 마."

"가거나 쏴버릴 거야. 내 아들의 머리를 향해서. 맹세할게."

여자는 불안한 기색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곧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힘에 부친 그녀는 두 주먹을 앞으로 내밀며, 쉰 목소리로 끊어지게 말했다.

"내가 갚아 주마… 봐라, 베로니크… 십자가가… 알겠지… 십자가가 세워졌다… 네가 네 번째다… 어떤 복수란 말인가!"

그녀의 마른 손가락이 꼬부라진 주먹을 쥐고 흔들었다. 그녀는 또 말했다.

"아, 내가 얼마나 너를 증오하는지! 15년 동안의 증오! 하지만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 갚아 줄 거야… 내가 직접… 내가 저 위에 매달아 줄 거야… 십자가가 세워졌다… 봐라…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녀는 권총의 위협 아래, 꼿꼿이 서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엄마, 저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맞죠?"

프랑수아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심리전을 눈치채며 속삭였다.

베로니크는 정신이 든 듯 대답했다.

"아니,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어쩌면… "

"아, 제발요, 엄마. 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우리 갑시다."

그는 여인이 사라지기 전, 이미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꼭 껴안고, 마치 작은 아이 하나 무게도 나가지 않는 듯 가볍게 안고서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엄마…" 그가 중얼거렸다.

"응, 내 사랑. 네 엄마야.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너를 내게서 떼어놓지 못할 거야. 내가 맹세할게."

돌부리에 다친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거의 한 번에, 프랑수아들이 벽에 뚫어놓은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은 뒤, 비로소 그의 묶음을 풀어주었다.

"이제 여기선 위험하지 않아.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은 이 방 말고는 없거든. 그리고 내가 그 출구를 잘 지켜낼 테니까."

아,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단단히 안았는지!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장벽은 사라졌다. 입맞춤도, 포옹도 더 이상 막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눈앞의 눈동자까지 정면으로 마주했다.

"세상에, 프랑수아,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베로니크는 말했다.

그녀는 그와 살인아동의 모습에서 단서 하나도 찾지 못했다. 오노린이 그들을 어떻게 혼동할 수 있었는지 오히려 의아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고귀함, 솔직함, 그리고 온화함에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 제 어머니."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처럼 아름다운 어머니를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꿈속에서 요정처럼 나타나실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느가 종종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빨리 가요, 제 사랑. 저들의 추적을 피해야 해요. 당장 떠나요."

"맞아요." 그가 말했다. "특히 사렉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스테파뉴…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제 감방 아래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녀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당신에게 알려야 할 일이 많아요, 제 사랑. 더 이상 모르고 있을 수 없는, 아픈 진실들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우선 수녀원으로 피신해야 해요. 저 여자가 도움을 부르러 가고 우리를 쫓아올 거예요."

"하지만 저 여자가 제 감방으로 갑자기 들어왔을 때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벽을 파고 있는 걸 들킨 거죠. 누군가가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아이 말인가요? 당신 키만 한 소년?"

"그 아이는 잘 보지 못했어요. 부인과 아이가 함께 저에게 덤벼들더군요. 저를 묶어 복도로 끌고 간 뒤,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이가 다시 감방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이 터널과 수녀원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알고 있는 셈이죠."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출구는 막아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두 섬을 잇는 다리가 남아 있잖아요." 프랑수아가 반대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그 다리는 불태워버렸어요. 수녀원은 완전히 고립되었답니다."

그들은 빠르게 걸었다. 베로니크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프랑수아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그래…… 알겠어.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엄마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숨겼던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그 다리를 불태웠던 거지…… 준비해 둔 연료로, 그렇지? 그리고 위급할 때 마

그네크와 미리 약속한 대로? 엄마도 위협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고?"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렇게 증오 어린 말로 내뱉었던 것들……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테파네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방금 전, 감옥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속삭이던데…… 모든 게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가져왔던 사다리는 어디 갔지?"

"제발, 우리 아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그 여자가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우리가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뭐요? 뭔가 들리나요?"

"걸어가는 소리예요."

"확실해요?"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아!"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사제가 저택에서 돌아오는 거야… 살인자가."

그녀는 권총을 만져보며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프랑수아를 오른쪽 어둠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곳은 그녀가 오면서 눈치챈 터널 입구 일부가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아마도 막혀 있을 터널이었다.

"여기… 여기에… 숨어 있으면 잘 숨을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보지 못할 거예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더 깊숙이 들어가고, 움직이지 마요."

아이 속삭였다.

"손에 뭐가 있어요… 권총이요… 아, 엄마, 쏘려고 해요…?"

"쏘아야 해… 쏴야 해." 베로니크가 말했다. "저런 괴물이야… 그의 어머니처럼… 내가 쐈어야 했는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덧붙여 말했다.

"그 사람이 너의 할아버지를 죽였어."

"아, 엄마… 엄마…"

그녀는 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비명처럼 중얼거렸다.

"괜찮아… 쏘지 마… 엄마…"

"저기 있어… 내 사랑아… 조용히 해… 저기 봐… 저 사람을 봐…"

그 남자는 지나갔다. 그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었다. 귀를 곤두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듯했다.

베로니크에게 그는 아들과 키가 정확히 같아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을 때, 오노리느와 드헤르몽 씨가 실수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닮은꼴 요소가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수아에게서 훔쳐온 빨간 베레모를 쓴 덕분에, 그 닮은 점은 더 뚜렷하게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는 멀리 사라졌다.

"그 사람 알아?" 베로니크가 물었다.

"아니요, 엄마."

"정말 본 적 없다고?"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감옥에서 당신과 그 여자를 덮친 것도 맞나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유 없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정말로 증오에 찬 표정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녀가 말했다.

"이 악몽에서 언제 벗어나게 될까!"

"빨리, 어머니. 길이 막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등불 아래서 그녀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음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 쥐인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럼에도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곧 두 섬을 이어준 절벽을 지나 계단을 올랐고, 마귀노크 정원의 오른쪽으로 나가 밖으로 나왔다.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사합니다." 베로니크가 말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온 길로 적이 따라 올 수 없어야 해요. 그러니 그 길을 막아야죠."

"어떻게요?"

"기다려요. 수레를 구하러 수녀원으로 갈게요."

"아니야, 우리 같이 가요, 프랑수아."

"같이 갑시다, 엄마."

"그 사이에 적이 나타나면 어쩌죠? 안 돼요. 이 출구를 반드시 방어해야 해요."

"그럼 도와줘요, 엄마."

빠르게 살펴본 결과, 입구 위를 받치고 있던 두 돌 중 하나는 뿌리가 깊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먼저 그 돌을 흔들고, 결국 돌을 뽑아냈다. 돌이 계단 위에 가로로 쓰러졌고, 곧 흙과 자갈 더미로 덮여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어도, 지나가기에는 매우 힘들어졌다.

"더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안심하세요, 어머니. 이 아이디어는 훌륭하고 목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둘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둘 다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누우세요, 어머니. 여기요. 이 바위 아래에 이끼가 깔린 곳, 꼭 작은 방처럼 움푹 패여 있죠. 거기에 계시면 서늘함도 피할 수 있고 왕처럼 편하실 거예요."

"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베로니크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둘이서 마음을 열어야 할 때였다. 베로니크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이들과 알고 지내던 모든 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렸을 때의 슬픔이, 어머니를 다시 찾은 기쁨으로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저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를 품에 안아 눈물을 닦아주었다. 잃어버린 모든 사랑과 우정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스테파느의 죽음은 아이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정말 확실해요? 아무도 그가 익사했다고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스테파느는 수영을 아주 잘하거든요. 그럼……. 하지만 네, 어머니,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 여기 어두운 시간마다 나타나 모든 것이 아직 나쁘지 않다고 확신시켜 주는 친구가 있네요."

정말 그 '모두 잘 돼'가 trot trot 달리고 있었다.

주인을 본다고 해서 그가 놀란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잘 돼'를 지나치게 놀라게 만드는 일은 없었다. 그에게 모든 일은 자연스러운 질서대로 이어질 뿐이었다. 그 질서는 그의 습관이나 일상적인 일을 조금도 어지럽히지 않았다. 오직 눈물만이 그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로니크와 프랑수아는 울지 않았다.

"봐, 엄마. '모두 잘 돼'도 내 의견에 동의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지만, 옛 친구 '모두 잘 돼', 네 코가 참 좋구나. 만약 우리가 너 없이 섬을 떠났다면, 넌 어떻게 했겠니?"

베로니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섬을 떠나요?"

"당연하지. 가능한 한 빨리 말이야. 그게 내 계획인데, 어때?"

"그런데 어떻게 떠나죠?"

"배를 타고."

"이 근처에 배가 있나요?"

"내 배야."

"이곳 바로 근처, 사렉의 끝자락에요."

"그럼 내려갈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절벽이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정확히 절벽이 가장 가파른 곳, 바로 '포테른'이라는 곳입니다. 스테파느와 저는 이 이름 때문에 호기심을 느꼈죠. 포테른은 문이 달린 작은 문, 즉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세, 심지어 수도승들이 살던 시절에도 이 수녀원 섬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쪽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죠.

마침내 마귀노와 함께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 절벽 꼭대기 평지에 마치 균열처럼 보이는 모래가 쌓인 오목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거친 석재로 쌓은 진짜 벽들이 그 부분을 지탱하고 있었죠. 그 중간으로는 계단과 바다 쪽을 향한 창문이 있는 작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은 작은 만까지 이어지더군요. 바로 포테른의 출구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시 수리했고, 제 배는 절벽 발치에 매달려 있습니다."

베로니크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구원받았군요!"

"물론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데 적이 저쪽으로는 올 수 없나요?"

"어떻게요?"

"그는 모터보트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만약 적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곳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만과 이 하구는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으며, 게다가 천 개의 암초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죠."

"그럼 지금 바로 떠나는 건 왜 안 되나요?"

"밤이 문제죠, 엄마. 비록 내가 훌륭한 선원이고 사레크 섬을 벗어나는 모든 항로를 잘 안다고 해도, 암초에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낮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엄마. 그러면 우리 함께 떠나요. 새벽이 밝자마자 배를 타고, 절벽 기슭을 따라 굴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스

테파느를 데려올 거예요. 그가 반드시 어느 모래사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이 함께 도망칩니다. 그렇지, 퉁바반? 정오쯤이면 뽕라아베에 도착할 거예요. 바로 이 계획입니다."

베로니크는 기쁨과 감탄으로 가득 찼다. 어린아이가 이렇게나 냉정할 수 있다니, 그녀는 놀라움에 젖었다.

"완벽해요, 내 사랑. 당신 말이 맞아요. 분명히 운이 우리에게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은 별일 없이 흘러갔다. 다만 한 번쯤은 긴장할 만한 일이 있었다. 터널을 막고 있던 잔해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고, 틈새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출발할 때까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좋은 기분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래, 그래. 난 안심이야." 프랑수아가 말했다. "네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이건 영원할 거라고 느꼈어. 더구나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 있지 않아? 스테파니가 그 얘기를 해줬지, 안 그래? 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 걸 보니, 내가 본 적도 없는 구원자를 믿는 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모양이네."

그가 이어 말했다.

"그래, 엄마. 내가 칼을 들고 나를 노리는 사람을 보더라도, 너는 알겠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떤 손이 그 칼을 막아줄 거라고, 나는 확신할 거야."

"안타깝게도, 그 신의 손길은 내가 말해 준 모든 불행을 막지 못했어."

"하지만 어머니를 위협하는 것들은 물리칠 거예요."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그 모르는 친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는 올 거야. 위험이 크다는 걸 알리지도 않아도 알아차릴 거야. 그는 올 거야. 그래서 어머니,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않을게, 내 사랑. 너에게 약속할게."

"잘했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제 지휘관이니까. 얼마나 멋진 지휘관이냐, 엄마?"

"어제 밤부터 예상했어. 이 작업을 성공시키려면, 그리고 만약 오후에 배를 탈 수 있을 때 엄마가 춥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려면, 식량과 담요가 꼭 필요했거든. 잘됐어. 오늘 밤에 쓸 거야. 조심해서 여기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프리에르에서 자야 하니까. 엄마, 그 꾸러미 어디다 뒀어?"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입맛 좋게 식사를 했다. 그후 프랑수아는 어머니를 편히 앉게 하고 옷으로 감싸 안았다. 서로를 꼭 껴안고, 행복하며 두려움 없이 잠들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베로니크를 깨웠다. 하늘에는 분홍빛이 감도는 빛줄기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프랑수아는 아이다운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다.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에 싸여 있었고, 악몽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끝없이 바라보았다. 지칠 줄 모르는 시선이었다.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높이 올라섰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일어나요, 엄마." 그가 눈을 뜨고 그녀에게 키스를 하며 말했다. "지하 통로 쪽에서 아무도 못 봤어?"

"아니."

"그럼 우리 시간 충분해. 타자."

그들은 이불과 식량을 챙기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섬 끝자락에 있는 포타른 강하구로 향했다. 그 끝을 지나자 바위들이 어지럽게 쌓여 거대한 혼돈을 이루었다. 비록 바다는 잔잔했지만, 파도는 거친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딪혔다.

"배가 아직 여기 있기를 바랄게." 베로니크가 말했다.

"다소 몸을 기울여 봐요, 엄마. 저기 그 틈새에 매달린 거 보이시죠? 도르래를 작동시켜 물에 띄우기만 하면 돼요. 아, 모든 게 완벽하게 준

비됐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다만…”

그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무슨 일이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베로니크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작은 지연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로, 원정대장으로서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네요. 생각해보니 단 한 가지를 깜빡했거든요. 노가요. 노는 수녀원에 있어요.”

“세상에, 끔찍한 일이네요!” 베로니크가 외쳤다.

“왜요? 제가 수녀원으로 달려갈 테니까요. 10분 뒤면 돌아올 거예요.”

베로니크의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다.

“그 사이 터널에서 그들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자, 자, 어머니. 저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터널을 뚫고 나오려면 그들에게 최소 한 시간의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테니까요. 더 이상 쓸데없는 설명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돌진하듯 달아났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 그녀는 또다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생각했다. '나는 그를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어.'

그녀는 멀리서 그를 쫓아갔다가, 돌멘과 꽃이 만발한 십자가 사이 언덕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그녀는 터널 입구를 볼 수 있었고, 잔디밭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들 모습도 지켜보았다.

베로니크는 먼저 수도원 지하로 들어갔다. 하지만 노가 그곳에 없었나 보다. 그는 곧장 밖으로 나와 주 출입구를 열고는 사라졌다.

'한 분면 충분할 거야.' 베로니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노는 현관에 있겠지. 어쨌든 1층에 있을 테고. 길어도 두 분이면 되겠어.'

그녀는 시계를 세며 터널 입구를 주시했다.

하지만 삼 분이 지나고, 사 분이 지나도 주 출입구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베로니크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아들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리고 결코 아이의 뜻에 굴복해서는 안 되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터널과 그곳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修道院 쪽으로 발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악몽에 빠진 듯한 끔찍한 느낌을 받았다. 다리가 마비된 듯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 적은 다가와 공격을 퍼붓는 그 꿈처럼.

그리고 돌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그 의미를 즉시 파악할 수는 없었다.

오른쪽의 반원형을 둘러싼 참나무들 아래 땅에는 잘린 나뭇가지가 널려 있었다. 방금 잘린 듯, 아직 싱싱한 잎을 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놀람과 공포가 온몸을 얼려 버린 것이다.

나무들은 거의 모두 잎을 잃었지만, 유독 한 그루의 참나무만 유독하게도 나뭇잎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거대한 줄기에는 사오 미, 여섯 미터 높이까지 잎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 맨바닥 같은 나무 줄기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다. 화살 끝에는 작은 팻말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간결한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V. d. H.'

"네 번째 십자가……."

베로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 적힌 십자가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녀의 처녀 시절 이름 이니셜이 누군가에 의해 적혔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누구일까?

분명히 적대자 중에서도 가장 주된 적일 것이다.

방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을 괴롭히는 그 여자와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적대자의 얼굴을 뚜렷이 그려냈다.

순간적인 착각일 뿐, 믿기 힘든 추측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자신의 의식에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더 끔찍한 무언가가 그녀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곧 들판의 괴물들과 감옥의 괴물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의 동조자들이 이미 도착했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불타버린 다리 대신, 임시 다리를 만들어 건너왔을 것이다. 이제 수녀원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었다.

프랑수아는 다시 그들의 손에 갇힌 셈이었다!

그녀는 모든 기운을 되찾아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폐허가 흩어진 계단을 따라 수녀원 정면으로 달려갔다.

"프랑수아! … 프랑수아! … 프랑수아!"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접근을 알렸다. 그렇게 그녀는 수녀원에 도착했다.

한쪽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문을 밀고 현관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부름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그녀는 계단을 올랐다. 아무 문이나 막연히 열어보고는 아들의 방으로, 스테파느의 방으로, 오노리느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프랑수아! 프랑수아…… 너 내 말 듣지 못해? 혹시 그 애들이 너를 해치고 있는 걸까? 오, 프랑수아, 제발……"

그녀는 다시 복도 끝으로 돌아왔다.

그곳 정면에는 드헤르몽先生的 서재가 있었다.

그녀는 문에 몸을 던지듯 달려갔으나, 곧 뒤로 물러섰다. 지옥에서라도 튀어나온 광경에 얼어붙은 듯했다.

그가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잠시 생각했던, 그 여자와 아이의 아버지로 상상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세 번째 괴물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담아 말했다.

"보르스키! … 보르스키! …"

제12장

"보르스키! 보르스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베로니크는 공포와 수치심에 질릴 지경이었다.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괴물 보르스키가 죽지 않았다!

스파이를 동료에게 살해당해 퐁텐블로 묘지에 묻혔다는 이야기는 모두 허구였으며, 오해에 불과했다. 오직 한 가지 진실만 남았다. 보르스키는 살아 있었다.

베로니크의 머리를 스쳤던 수많은 환상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 광경을 능가할 수 없었다. 그 끔찍함은 도저히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보르스키는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두 다리에 단단히 붙어 섰고, 어깨 사이로 똑바로 솟아오른 머리를 가누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의 용기로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달랐다. 그녀는 어떤 적과도 맞서고 용감하게 대적할 힘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적만은 아니었다.

보르스키는 추악함 그 자체였다. 결코 만족하지 않는 악의, 끝없는 야만성, 그리고 범죄 속의 방법과 광기.

그리고 이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보르스키는 그녀의 어깨와 팔에 드러난 하얀 살결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냥감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베로니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닿을 수 있는 곳에는 어떤 가리개도 없었다. 그녀는 이 욕망의 모욕에 몸을 굳혔고, 그를 도발하는 듯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 보르스키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아들! 프랑수아는 어디 있소? 그 아이를 보고 싶소."

그가 대답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모두에게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부인.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 불리는 저로부터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그가 맹세하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보게 될 걸세. 맹세하노라."

"죽어서라도 말일세." 그녀가 낮고 먹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당신처럼 살아있는 모습으로 말일세."

다시 침묵이 흘렀다. 분명한 듯, 보르스키는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시작될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서막을 알릴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남자였다. 가슴은 굵고 다리는 약간 구부러졌으며, 목은 근육의 힘줄이 불거질 정도로 거대했다. 머리는 몸집에 비해 너무 작았고, 금발 머리는 이마에 빗겨 붙어 있었다.

젊을 적에는 그 모습이 거친 힘과 약간의 품위를 동시에 풍겨, 여성들을 매혹시키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전문 레슬러처럼 거만하고 평범한 태도로 변해 있었다.

그때의 매혹적인 매력은 사라지고, 거칠고 잔인한 표정만 남았다. 그는 그 거친 인상을 무표정한 미소로 감추려 애썼다.

그는 팔을 끼고 있던 자세를 풀고, 안락의자를 끌어당긴 뒤, 베로니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 드릴 말씀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마, 앉으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당황하지 않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 탁자 위에는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비스킷 한 개나 오래된 와인 한 잔, 샴페인 한 잔 정도는 지금의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야만 남은 자들이, 문명의 세밀함이라곤 모두 꿰고 있으며 궁정의 예의범절에 통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전형적인 게르만식 예의였다. 심지어 정복자의 권리로 더 거칠게 대할 수 있는 여성에게조차도 말이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과거에는 베로니크에게 남편의 정체를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침묵을 지켰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사의 품위를 지키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일어서 있겠습니다.

또한, 제 차림이 너무 허술해 보여도 용서해 주십시오. 수감자 수용소나 사레크의 동굴에서는 옷을 갈아입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낡고 기워진 바지와 찢어진 붉은 양모 조끼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흰 리넨 튜닉을 걸쳤고, 줄 하나로 반쯤 여미고 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차림새였다. 그는 연극적인 몸짓과 만족스러운 태연함으로, 이 이상한 복장의 이색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었다.

자신의 서두에 만족한 그는, 뒤로 손을 깍지 낀 채 여유로운 걸음을 시작했다. 조급해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색의 시간을 즐기는 남자의 태도였다. 그러다 그는 멈춰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인, 저희가 함께 보냈던 삶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몇 분을 허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베로니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저를 사랑했을 때……"

그녀가 반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베로니크……"

"아! 싫소. 당신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오.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다니!"

그는 미소 지으며, 너그러움을 담은 어조로 말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담. 어떤 수사를 쓰든 제 존경심은 변함없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마음이 없는 방탕아였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매력은 있었습니다. 저는 늘 과잉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에 필요한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자질은 당신의 영향으로 쉽게 얻었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에게는 저를 매료시키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에서도 보지 못한 매력과 순진함이요. 당신의 조금의 인내와 다정함만 있었다면 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첫 순간부터 우리는 깊은 불일치를 겪었습니다. 비참한 약혼식 이후, 당신은 아버지의 슬픔과 원한만 생각하셨죠. 결혼 첫날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강요된 약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증오와 혐오만 품으셨죠. 보스키 같은 남자는 이런 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여성들로부터 완벽한 정숙함을 입증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작은 부르주아 여성으로서 불쾌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스키는 본능과 열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본능과 열정이 싫었다면?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곤 끝을 이었다.

"다만,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 후, 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아들의 죽음으로 당신이 수도원으로 숨어든 후에도, 저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 빛나면서도 고통스러운 사랑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제 삶이 어땠는지 짐작 가시죠. 당신을 잊으려다 실패하는 방탕과 격렬한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희망이 솟구쳐 오르면, 누군가 알려준 단서를 쫓아 목숨을 걸고 달려나갔지만, 결국 다시 낙담과 고독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자신이나 저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감시하고 엿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노력의 유일한 목표이자,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인 당신에게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국경을 넘지 못한 저는 수용소에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멈춰 섰다. 그의 거친 얼굴이 한층 더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꾸짖었다.

"세상에, 내가 겪은 지옥이 무엇이랴! Vorski라니! 왕자의 자손이 카페 종들과 독일의 깡패들 사이에 섞여 있다니! 포로가 되어, 모든 이의 욕을 먹고 모든 이에게 증오를 받다니! 더러운 몸, 기생충에 뒤덮인 몸으로! 하느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넘어가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내가 한 일은 옳았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내 자리에 서서 칼에 찔렸고, 내 이름으로 프랑스 어딘가에 묻혔다

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와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단순히 삶에 대한 집요한 애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예기치 않은 새벽이 뜨고 있었고, 그 새벽은 이미 찬란한 빛으로 저를 눈부시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 비밀입니다. 나중에, 강요하신다면 이야기해 드리죠. 지금은…"

그토록 과장된 어조로, 마치 자신의 웅변에 스스로 감탄하며 박수치는 배우처럼 말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베로니크는 그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에게 그런 거짓된 선언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어디론가 정신이 떠난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주의를 끌기 위해 더 공격적인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마담."

"하지만 그 말은 정말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 그리고 아마도 그 부분에는 닿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담아, 저는 당신의 타협 정신이 아니라 이성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타협 따위 있을 수 없으니까요. 현실 감각을 좀 가져달라고요.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아들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다.

아들 생각에 온 정신이 빼앗겨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귀에 들어온 단어들은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프랑수아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인간애와 연민에 따라, 제가 방금 대강 그려낸 과거와 이 편지를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묶어주는 끈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름으로도, 법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는 말을 멈췄다. 잠시 베로니크를 지켜본 뒤, 갑자기 그녀의 어깨를 힘차게 쥐고 외쳤다.

"들어 봐, 이년아! 보르스키가 말하고 있어."

베로니크는 균형을 잃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다시 팔을 끼고, 눈에는 경멸이 가득 담긴 채, 자신에게 맞서는 상대와 정면으로 마주 섰다.

이제 Vorski는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 행동은 충동적이었고, 그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와 악의가 서려 있었다.

"과거는 항상 존재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담, 당신은 Vorski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을 그런 아내로 여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저는 당신의 사랑, 아니 우정조차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멸하고 먼 곳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저는… 저는 복종하는 여성을 원합니다. 헌신적이고 세심하며 충실한 동반자를 원합니다."

"노예," Véronique는 속삭였다.

"그래, 맞아!" 그가 외쳤다. "노예라고? 네가 바로 그 말을 했잖아. 나는 말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 행동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노예? 왜 안 되겠어? 노예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게 본분이지. 발과 손을 묶여 죽은 자처럼 굴복하는 거야.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 넌 내 것이 되고 싶니, 몸과 영혼까지? 영혼 따위야 나는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너도 잘 알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 네 남편? 하하하, 내가 네 남편이었나?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감정의 끓어오름과 기쁨의 소용돌이 속을 뒤져봐도, 우리 사이에 무자비한 적들의 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기억이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 네 얼굴을 바라보지만, 나는 낯선 여자를 보고 있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낯선 여자야. 하지만 운명이 바뀌었으니, 내가 다시 네게 발톱을 갈아줘었으니, 미래는 달라질 거야. 내일도, 다가올

밤도 달라질 거야, 베로니크. 내가 주인이야.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이겠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목소리를 더 높여 외쳤다.

"수락하시겠습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허황된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수락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십자성호를 긋고, 또렷하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저는 수락합니다. 동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과 기분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명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일 뿐, 대답하지 않았다. 보르스키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이마의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참았다.

«좋소. 솔직히 말해, 나는 이미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네. 하지만 당신의 거절이 당신에게 미칠 결과는 너무도 중대하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도라도 해보려 하오.

아마도 당신의 거절은 지금 도망 다니는 나, 즉 초라해 보이는 이 가난뱅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진실이 당신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소.

그 진실은 눈부시고 경이로워. 내가 앞서 말했듯, 어둠 속에 뜻밖의 새벽이 밝아왔소. 그리고 왕자의 아들인 보르스키는 이제 빛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

그는 자신을 제3人称으로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베로니크는 그 버릇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그의 참을 수 없는 자만심을 드러내는 표지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도 예전과 다름없는 빛을 발견했다. 흥분한 순간마다 나타나던 그 특별한 눈빛. 그것은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잠깐씩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징후였다.

실제로 그는 미친 사람과도 같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미친 기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지 않았던가?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베로니크가 귀를 기울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저는 이 곳에 저와 각별한 관계를 맺은 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님께 제 감시 작업을 이어가도록 했죠. 운명은 저희에게 모래밭 아래 파인 동굴들의 존재와 그 중 하나의 입구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숨겨진 곳이야말로 제가 마지막 탈출 후 피신한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버님이 사렉의 비밀을 파헤치고 찾아낸 것들에 대해, 가로챈 편지 몇 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감시가 얼마나 격렬해졌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저는 놀라운 우연의 일치와 제

삶의 일부 세부 사항들과 명백한 연관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곧 의심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어, 저 혼자만 해낼 수 있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 혼자만 참여할 권리가 있는 일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수세기 동안 Vorski는 지명되었습니다. Vorski는 운명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Vorski는 시간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Vorski는 필요한 자질과 필수적인 수단, 그리고 요구되는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행동에 들어갔으며, 운명의 명령에 냉혹하게 따랐습니다. 따라야 할 길에 대한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끝에는 등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Vorski는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뿐입니다. Vorski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손이 닿는 곳에는 부, 명예, 무한한 권력이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왕의 아들인 Vorski는 세계의 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왕위를 그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더 격정적으로, 마치 연극 배우라도 된 양 거창하고 과장된 어조로 외쳤다.

그는 베로니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왕이 되고, 황후가 되겠소? 보르스키가 다른 남성들을 압도하듯, 당신도 다른 여성들을 압도하는 자리에 오르는 거요. 금력과 권력으로 여왕이 되는 것, 미모로 여왕이 된 당신에게 그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

오? 보르스키의 노예가 되지만, 보르스키가 명령하는 모든 이들을 지배하는 여주가 되는 것, 그걸 원하시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다.

"잘 이해하시오. 이건 한 번의 결단이 아니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오, 거절한다면 그 대가가 따르죠. 제가 제안한 왕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가 잠시 멈추더니, 차가운 어조로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받을 것인가."

베로니크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다. 끔찍한 단어가 또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미지의 살인자가 누구인지.

"십자가." 그가 다시 말했다. 만족스러운 듯, 그러나 잔인한 미소를 띤 채로.

"당신이 선택하라. 한쪽에는 인생의 모든 기쁨과 영예가 있다. 다른 한쪽은 가장 야만적인 형벌을 통한 죽음. 선택하라. 이 이분법 사이에는 어느 틈도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

그리고 명심해라. 내게는 불필요한 잔혹함도, 허영심에서 우러난 권위 과시도 없다.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명령은 나보다 높은 곳에서, 바로 운명 자체로부터 내려온다.

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베로니크 데르제몽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이는 단호한 결정이다. 운명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보르스키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르스키처럼 모든 과감함과 술수를 지닌 자가 아니라면. 보르스키는 퐁텐블로 숲에서 진짜 자신을 가짜로 대체할 수 있었고, 이로써 어릴 적부터 친구의 칼에 죽도록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계략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 여자가 순종해야만 한다.

나는 약혼녀에게는 생명을, 적에게는 죽음을 준다. 당신은 누구인가? 내 약혼녀인가, 적인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나와 함께 하는 삶, 인생의 모든 기쁨과 영예와 함께… 아니면 죽음?"

"죽음." 베로니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가 위협하는 듯 손을 움직였다.

"죽음보다 더한 일이다. 고문이다. 도대체 무엇을 택하겠느냐?"

"고문."

그는 악의적으로 재차 쪼아붙였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만이 아니오! 생각해보시오. 당신 아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사라지면, 그 아이만 남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그 아이를 고아로 남겨두는 셈이죠. 그것보다 더 나쁜 건, 당신이 죽으면 그 아이를 제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모든 권리는 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택하겠느냐?"

"죽음."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그는 격분했다.

"당신에게는 죽음을 주지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죽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데려와 당신 앞에 세우고, 칼을 그 아이의 목에 대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소?"

베로니크는 눈을 감았다. 그토록 심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며, 보르스키는 딱 그 아픈 곳을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속삭였다.

"저는 죽고 싶어요."

보르스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예의와 정중함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욕설을 퍼부었다.

"아,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까지. 결코 양보하지 않겠지.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다니! 바로 그거야. 네 아들을 죽이는 거지. 내게 네

자신을 바치기 싫어서. 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야. 아, 그토록 깊은 증오라니! 아니,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그 증오를 믿지 않아. 증오에도 한계가 있거든. 너 같은 어머니라니! 아니, 아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사랑일까? 아니, 베로니크는 사랑하지 않아. 그럼 대체 왜? 내 자비를 바라는 건가? 내가 약점을 보인 걸로 생각하는 건가? 아, 너는 나를 정말 잘 모르네. 보르스키가 약해지다? 보르스키가 동정심을 느끼다? 그래도 너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나. 나는 끔찍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저앉았나? 사레크는 명세대로 황폐화되지 않았나? 배들은 가라앉지 않았고, 사람들은 물속에 잠기지 않았나? 아르니야트 자매들은 오래된 참나무 줄기에 못 박히지 않았나? 내가? 내가 주저앉다니? 들어라. 내가 어릴 적, 이 두 손으로 개와 새들을 질식사시켰고, 이 두 손으로 새끼 염소들을 살아 있는 채로 벗겨냈으며, 이 두 손으로 닭장 동물들의 깃털을 하나도 빠짐없이 뽑아냈단 말이다. 동정심? 내 어머니가 나를 뭐라 불렀는지 아나? '아틸라'라고. 그리고 신비한 숨결이 그녀를 사로잡아, 이 손바닥이나 타로 카드의 무늬를 통해 미래를 읽을 때면 이렇게 말했지. '아틸라 보르스키, 하나님의 재앙이라. 이 위대한 점쟁이가 설명하길, 너는 천명의 도구일 것이다. 너는 칼날의 날카로움이자, 단검의 끝이요, 총알이며, 밧줄의 매듭일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라! 하나님의 재앙이라! 너의 이름은 시간의 책에 뚜렷이 적혀 있다. 너의 탄생과 함께한 별들 사이에서 그 이름은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리고 너는 내 눈물이 맺힐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별말 다 하는구나! 형벌집행관이 울어본 적이 있나? 울고 두려워하는 건 약자들이다. 형벌을 받고,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되돌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지. 하지만 나? 나야! 네 조상들이 두려워한 건 하늘이 그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뿐이었다. 내가 뭘 두려워하겠나? 나는 하나님의 공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이들 중에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감하셨지, 게르만의 하나님, 독일의 옛 하나님께서. 그분은 아들들의 위대함을 앞세우실 때 선과 악 따위 따지지 않으신다. 악의 정령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악을 사랑하며, 악을 원한다. 그러니 너는 죽어야 해, 베로니크. 그리고 나는 네가 처형대의 기둥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웃을 거야."

그는 이미 웃고 있었다. 발걸음이 거칠게 땅을 울렸다. 그는 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비명처럼 떨리는 앙겔리크는 그의 눈빛에서 적血丝이 흐르는 광기의 흔적을 읽어냈다.

그는 몇 걸음 더 걷다가 그녀에게 다가섰다. 목소리는 억눌렸지만 위협이 깔려 있었다.

"무릎 꿇어, 앙겔리크. 내 사랑을 빌어라. 나만이 너를 구할 수 있어. 보르스키는 자비도 두려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의 사랑은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용해, 앙겔리크. 과거를 불러내. 예전의 그 아이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어쩌면 언젠가 내가 네 앞에 무릎 꿇는 날도 올 거야. 앙겔리크, 나를 밀어내지

마… 나 같은 남자를 밀어내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도발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 앙겔리크, 내가 너를 사랑하듯…”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벌거숭이 팔 위에 느껴지는, 저주받은 그 손들의 감촉이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그녀보다 더 강했다. 놓지 않았다. 숨이 가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돼… 미친 짓이에요… 제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십자가는 끔찍해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보르스키가 당신을 구해줄 거예요. 보르스키가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선물할 거예요.”

“아!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미움을 받아들일게요… 당신의 미움이 좋아요. 당신의 경멸 어린 입술도 좋아요. 그 입술이 스스로 내미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 사이의 치열한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베로니크의 팔은 점점 조여오는 그르스키의 포효에 맞서 허공을 긁을 뿐이었다. 그녀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패배가 정해진 듯했다.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 바로 앞, 그르스키의 눈은 피로 가득 찬 듯 보였다. 그녀는 그 괴물의 숨결을 그대로 마셨다.

그때,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의 입에 온 힘을 다해 이빨을 박았다. 그 순간의 어지러움을 틈타, 마지막 힘을 짜내 몸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한 번에 뒤로 물러나 권총을 꺼내 곧장 두 발을 쐈다.

총알 두 발은 그르스키의 귀 옆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의 뒤 벽에서 파편이 튀어 올랐다. 그녀는 너무 급하게, 무작위로 쐈던 것이다.

"아, 이년아!" 그가 비명처럼 외쳤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나는 죽었어."

그는 이미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그녀의 몸을 꺾고, 뒤로 넘어뜨려 소파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밧줄을 꺼내, 단단하고도 거칠게 그녀를 묶었다.

잠시 동안 쉼과 침묵이 흘렀다. 보르스키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고는, 큰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이제 좀 나아졌네." 그는 발로 피해자를 짓누르며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각자 제자리에 있는 거야. 아름다운 여인, 너는 사냥감처럼 묶여 있고, 나는 서서 네 맘대로 네게 짓밟고 있는 거지. 어때? 이제 웃지 않지? 사건의 중대함을 조금은 깨달은 모양이군. 걱정 마라, 여보게. 보르스키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이 아니야. 아니, 그런

짓은 불장난이나 다름없어. 만약 네에 대한 욕망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죽일 거야. 내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거든. 너를 잊을 수 있겠나? 잊음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야. 네 죽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네. 다 된 거나 다름없어. 어쨌든 약속된 거잖아. 너는 죽기를 원하잖아?"

"네," 그녀가 같은 단호함으로 말했다.

"그리고 네 아들도 죽기를 원하느냐?"

"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웃었다.

"좋아. 우리 의견이 일치했군. 이제 쓸데없는 수다를 떨 시간도 지났다. 남은 건 진짜 말, 즉 중요한 말뿐이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다 장난에 불과했다는 걸 너도 인정하지? 사렉에서 목격한 이 모험의 첫 부분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돼. 네가 마음과 몸으로 이 일에 휘말렸으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야, 예쁜이. 네 아름다운 눈물은 이미 흘렸지만, 이제 피눈물을 요구받는 거야. 불쌍한 사랑스러운 너여.

어떻게 해? 또 말하지만, 보르스키는 잔인하지 않아. 그냥 명령에 따를 뿐이야. 하지만 운명 너는 끝없이 쫓아다녀. 네 눈물? 별것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천 배는 더 울어야 해. 네 죽음? 헛소리야. 정말 죽

기 전까지 천 번쯤 죽어야 해. 네 가엾은 심장은 그 어느 어머니이자 여성의 마음보다 더 피를 토해야 해.

베로니크, 준비됐니? 이제 진짜 잔인한 말을 들을 거야. 그다음엔 더 잔인한 말이 이어질지도 몰라. 아, 운명은 너를 제대로 괴롭히는군, 내 예쁜이여…"

그는 두 번째 잔의 와인도 똑같이 들이키듯 비웠다.

그리고는 그녀 곁에 앉아 몸을 굽혀,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들으시오, 내 사랑. 당신에게 고백할 일이 하나 있소.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소. 그러니 화내지 마시오. 아내에게 더 큰 비극이 있고, 남편에게 더 큰 죄가 있는 법이오. 그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얻었소. 그 아들은 당신이 기억할지도 모르겠소. 감옥 지하에서 몇 마디 친절한 말을 나눈 적이 있잖소.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오. 그 훌륭한 레이놀드는 말하자면 천박한 꾀쟁이요. 나는 그에게 내 최고의 본능과 주요한 자질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을 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끼오. 그는 나 자신이지만, 이미 나를 능가하고 있어 때로는 무서울 정도요. 천만다행이랄까, 정말 악마 같소! 그 나이는 열다섯 살 조금 넘었소. 그 나이의 나는 그와 비교하면 천사였소. 그런데 이 녀석이 내 다른 아들, 우리 사랑하는 프랑수아와 맞서야 할 상황이 생겼소. 운명의 장난이오. 운명이 또 한 번 명령하고, 나는 그 예리하고 섬세한 해석자일 뿐이오. 물론 길고 일상적인 싸움이 아니오. 오히려 짧고 격렬하며 결정적인 것이오. 예를 들어 결투라든가. 바로 그거요, 결투. 당신은 이해했소? 진지한 결투요. 긁힌 자국으로 끝

나는 몸싸움이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우리가 말하는 결투, 즉 죽음을 동반한 결투요. 두 상대 중 한 명이 현장에 남고,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하오. 결국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가 있어야 하오."

베로니크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가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 남자의 광기가 어떤 것인지, 그제야 생생하게 깨달았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일 두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그는 웃고 있었다.

그 광기는 너무도 기막혀서, 베로니크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고통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소, 베로니크." 그는 각 음절을 경쾌하게 발음하며 말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말이오. 네, 운명은 내가 꺼리는 정교한 수단을 생각해냈소. 하지만 충실한 하인으로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오. 운명은 당신이 이 결투를 지켜봐야 한다고 정했소."

"당연하지요. 프랑수아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겉보기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베푸는 은총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싶소. 내 중개를 통해, 내가 스스로 이 기대치 못한 특권을 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겠소? 오히려 불공평한 은총이라고 해야 할까?"

"마침내 말이지요. 레이놀드가 프랑수아보다 더 튼튼하고 경험이 많다면, 논리적으로 프랑수아가 패배할 것이 분명하잖소.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싸운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 용기와 힘이 얼마나 더 더해지겠소?"

"그는 승리를 거두는 데 자부심을 가질 팔라딘이 될 것이오. 어머니를 구하는 승리를 쟁취할 아들이 될 것이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죠! 정말로 이 이점은 너무 크소. 이 결투가 당신에게 심장 박동을 하나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면, 베로니크, 당신에게 감사할 일이 있겠소."

"아니면… 아니면 내가 이 지옥 같은 계획의 끝까지 밀고 나가려 할 때 말이지… 아, 그때는 안 되겠구려, 내 불쌍한 아이."

그는 다시 그녀를 붙잡아 세웠다. 얼굴을 맞대고선, 갑자기 치민 분노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래, 너는 굴복하지 않겠나?"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가 비명처럼 외쳤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나?"

"절대요! 절대요!" 그녀가 점점 더 큰 힘으로 되뇌었다.

"너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미워하느냐?"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미워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거짓말이야! 네 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제 당신에 대한 증오만큼은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베로니크의 모든 반역과 증오가 폭발했다. 그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의 정면으로 내리쳤다.

"너를 증오해! 너를 증오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고, 그의 최후를 지켜보는 게 차라리 낫다. 너의 모습과 존재가 주는 공포보다 낫다. 너를 증오해!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지! 너는 더러운 살인자야…… 미친 상놈이자 야만인, 범죄 광신자…… 너를 증오해……"

그는 힘을 모아 그녀를 들어 올렸다. 창가로 옮기며 헛간 바닥에 던졌다. 그는 비명 섞인 말로 말했다.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처벌이 시작된다. 나를 조롱하다니, 이 여우새끼야? 그래, 네가 뭘 당하는지 보여줄까?"

그녀를 두 무릎으로 꿇게 만든 뒤, 벽 아래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목과 팔 아래로 끈을 돌려 발코니 난간에 고정한 뒤, 마지막으로 손수건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자, 이제 봐라! 커튼이 올라간다! 작은 프랑수아의 연기가 시작된다! 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 보르스키의 입맞춤보다 지옥을 더 좋아하는군. 그래, 내 사랑, 지옥을 맛볼 준비를 해라. 내가 직접 고안한 작은 오락거리 하나를 알려주마. 평범하지 않으니 안심해라.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빌어도, 사정을 말해도 소용없다. 이미 늦었다. 결투, 그리고 훈장. 그것이 바로 내 계획의 핵심이다. 베로니크, 기도나 해라. 하늘을 부르라.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 재미라도 될까 봐.

알다시피, 네 아이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극적인 반전을 전문으로 하는, 모험의 돈키호테 같은 자를. 그가 오라오라. 보르스키는 그가 마땅히 받을 대접을 해줄 것이다. 오라오라. 더 좋을 수 없다. 우리가 한바탕 웃을 수 있을 테니까.

심지어 신들까지 나서서 네 편을 들어주려 해도 상관없다. 더 이상 그들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이제 사렉이나 보물, 혹은 대비밀, 그리고 신석의 모든 술수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나다! 네가 보르스키를 경멸했지. 그래서 보르스키는 복수한다. 복수하는 것이다! 이 순간은 경이롭다. 다른 이들이 선을 행하듯, 온 힘을 다해 악을 저지르는 쾌감이라니! 악을 행하다! 죽이고, 고문하고, 파괴하고, 없애고, 황폐화하다! …아, 야만적인 기쁨! 보르스키가 된다는 것!”

그는 방 안을 거닐며 발을 구르고, 바닥을 두드리며 가구를 밀어냈다. 초점이 흐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곧장 파괴의 행위에 착수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목 졸라 죽이거나, 굶주린 손가락을 부려보고 싶었다. 미친 듯이 맴도는 상상의 명령을 수행하고 싶었다.

그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멍청하게도, 어리석게도 거울에 총알을 쏘았다. 그림을 뚫고, 창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그는 여전히 손짓을 하며, 가볍게 뛰듯, 음울하고도 끔찍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떠났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보르스키가 복수한다! 보르스키가 복수할 것이다!"

제13장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가 흘렀다. 베로니크는 혼자였다.

밧줄이 살에 파고들었고, 발코니 난간의 철창이 이마를 짓눌렀다. 입마개는 숨을 막게 했다.

무릎을 접어 몸 밑으로 당긴 자세라 온몸의 무게가 무릎에 실렸다. 참을 수 없는 자세, 끊이지 않는 고문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뚜렷이 깨닫지는 못했다. 육체의 고통은 의식 바깥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그런 정신적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의 극한 상황도 잠들어 있던 감수성을 깨우지 못했다.

그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씩 그녀는 "내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이미 허무의 안식을 맛보고 있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항구의 고요함을 미리 맛보는 것처럼.

해방될 결말이 올 때까지, 현재 순간 사이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그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특히 아들의 운명은 그녀에게 짧은 생각들만 건네줄 뿐이었다. 그것들은 곧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그의 심중을 가늠할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 기적이 보르스키에게서 일어날까?

자비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 괴물은, 비록 쓸데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망설임이라도 보일까?

아비는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 설령 죽인다 해도, 그것은 매우 절박한 이유에서여야 한다. 그런데 보르스키에게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는 낯선 아이를, 가짜 적개심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아이를 죽일 이유가 없었다.

그 기적에 대한 희망이 그녀의 혼을 달래 주었다.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소리가, 예정된 사건의 준비가 아니라 보르스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할 개입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대화 소리, 발소리, 모두 다 그랬다.

자신의 사랑하는 프랑수아가 그랬던가. 그 누구도 그들을 떨어뜨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잃어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내 프랑수아, 내 프랑수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죽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당신은 그렇게 약속했잖아."

밖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위협적인 구름 몇 점이 그 하늘을 점박이처럼 수놓고 있었다. 큰 참나무들 위를 지나, 그녀가 아버지를 처음 뵈었던 바로 그 창 너머로 시선이 닿았다. 그녀가 호노린과 함께 걸었던 잔디밭 한복판이 최근 파헤쳐져 모래로 덮여 있었다. 마치 투우장처럼.

아들이 여기서 결투를 벌이려는 것인가?

그녀는 문득 그런 직감을 얻었다. 그리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오, 미안해요, 프랑수아. 미안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에요. 속죄죠. 아들이 어머니의 죄를 대신 갚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때 1층에서 문이 열리더니, 현관 계단 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목소리들 가운데 그녀는 보르스키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좋아요, 그럼 정해졌군요. 우리는 각자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당신 두 분은 왼쪽으로, 저는 오른쪽으로요. 아이 하나는 당신들이 데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데리고요. 그리고 토너먼트 장소에서 만나요. 당신들은 첫 번째 대결의 증인이고, 저는 두 번째 대결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든 규칙이 지켜지는 셈입니다."

베로니크는 눈을 감았다. 아마 구타를 당해 온몸이 아플 아들 때문에, 노예처럼 싸움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가지 발소리가 둥근 길을 따라 이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끔찍한 보르스키는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두 무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앞으로 나아갔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보르스키가 명령했다. "두 대결자가 자리를 잡으라. 거기서 멈춰라. 모두. 좋아. 그리고 말은 하지 마라. 알겠지? 말을 하는 자는 내가 가차 없이 쏘아 떨어뜨릴 것이다. 준비됐나? 가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다. 보르스키의 뜻대로, 이 대결은 어머니 앞, 그리고 그 아들 앞에서 벌어졌다. 그녀가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는 즉시 두 아이가 서로를 붙잡고 밀어내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을 당장 이해하지는 못했다. 적어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분명히 보았지만, 어느 아이가 프랑수아이고 어느 아이가 레놀드인지 알 수 없었다.

"아, 이건 끔찍해…… 아니, 내가 착각했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착각하지 않았다. 두 아이는 똑같은 차림이었다. 벨벳 반바지에 흰색 플란넬 셔츠, 가죽 벨트까지 모두 일치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얼굴에 구멍이 뚫린 붉은 실크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눈 부분만 드러내는 가면처럼.

프랑수아는 누구일까? 레이놀드는 누구일까?

그때 그녀는 보르스키의 뜻밖의 위협이 떠올랐다. 그가 말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행'이 바로 이것이었다. '자작극'이라는 말로 암시했던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아들은 어머니 눈앞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정작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베르코프가 직접 말했듯, 지옥 같은 정교함이었다. 베로니크의 고통에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은 없었다.

그녀가 바랐던 기적은 사실 그녀 자신과 아들에 대한 사랑 속에 있었다. 아들이 자신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아들을 적의 폭력과 계책으로부터 지켜냈다. 칼날의 방향을 틀어 죽음을 아들의 머리에서 멀리 돌려보냈고, 타지 않는 에너지와 공격적인 의지, 지치지 않는 힘, 그리고 유리한 순간을 읽어내는 지혜를 그에게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어둠에 가려졌다. 어느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누구에게 맞서야 할까?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를 도와줄 단서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몸놀림이 유연해 보였다. 프랑수아일까?

다른 한 명은 다부지고 튼튼해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느껴졌다. 레이놀드일까?

그녀는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얼굴의 일부라도, fleeting한 표정 하나라도 보았더라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떻게 그 풀 수 없는 가면을 벗겨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녀에게 있어 그 광경은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잘했다!"

보르스키가 한 선수가 공격하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며 외쳤다.

그는 아마추어가 경기를 지켜보듯, 중립을 가장하는 취미인의 태도로 싸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최강자가 이기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장본인이었다.

정면에는 두 공범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거친 외모에 똑같은 뾰족한 머리와, 안경 너머로 드러난 굵은 코를 가진 남자들이다. 한 명은 극

도로 마른 체구였고, 다른 한 명도 마르긴 마르지만 배만은 가득 찬 부대기처럼 빵빵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로 보여지는 이 광경에 무관심해 보였고, 어쩌면 적대감까지 느끼고 있었을지 모른다.

"완벽해! 찬성한다." 보르스키가 말했다. "좋은 반격이었군! 아, 너희는 정말 사나운 녀석들이야. 누가 더 낫다고 장려상을 줘야 할지 난 정말 고민이군."

그는 두 맞수 사이를 빙빙 돌며 그들을 부추겼다. 그의 목소리는 쉰 기운이 돌았다. 베로니크는 과거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 쉰 목소리가 알코올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쌍한 그녀는 여전히 손이 묶인 채 그에게 다가서려 애썼다. 입이 막힌 채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자비여! 자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오!"

고문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몸 전체가 그 진동으로 떨렸다. 곧 기절할 뻔한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져 그녀를 깨웠다.

두 아이 중 하나가 거친 몸싸움 끝에 뒤로 물러서더니, 피가 맺힌 오른손목을 빠르게 감고 있었다. 베로니크는 아들의 손에 푸른 줄무늬가 있는 작은 손수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손수건은 아이가 평소 쓰던 것이었다.

그녀의 확신은 즉각적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이, 특히 더 마르고 유연한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우아함이 더했고, 품격이 있었으며, 동작이 더 조화로웠다.

"프랑수아요, 속삭였다. "네,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지, 내 사랑?… 알겠어… 다른 놈은 평범하고 둔해. 당신 맞아요, 내 사랑… 아, 내 프랑수아… 사랑스러운 프랑수아야!"

사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 한쪽은 덜 wild하고 덜 충동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었다. 그는 죽이려기보다는 다치게 하려는 듯했고, 자신의 공격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다. 베로니크는 이를 걱정하며, 그가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중얼거렸다.

"그를 아끼지 마세요, 내 사랑! 그 역시 괴물이야… 아, 신이시여, 당신이 자비로우시다면 당신은 망하게 될 거예요. 프랑수아, 조심하세요!"

그녀가 아들이라 부르는 남자의 머리를 향해 칼날이 번뜩였다. 입이 막힌 채였지만, 그녀는 그에게 경고를 외쳤다.

프랑수아는 그 칼질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명이 그에게 닿았다고 확신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조언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쉬어라… 숨을 고르라… 특히 그를 눈에서 떼지 마라… 그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곧 덤빌 것이다! 덤볐다! 아, 내 사랑, 조금만 더 늦

었으면 목을 베였을 거야. 조심해, 내 사랑하는 사람, 그는 배신자야… 그에게는 어떤 술수도 다 통하니까."

불쌍한 어머니는 아직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부르던 아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증상은 그가 더 이상 예전만큼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반면 다른 아이는 오히려 열정과 힘을 더해 가고 있었다. 프랑수아는 물러나고 있었다. 그는 경기장의 한계선까지 밀려나고 있었다.

"이봐, 녀석, Vorski가 비웃었다. 도망치려는 건가? 정신 좀 차려라, 천만에! 기운을 내라… 우리가 정한 조건을 기억해라."

소년은 새로운 기세로 돌진했고, 이번에는 상대가 물러났다. Vorski가 박수를 치는 사이, 베로니크는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건지고 있는 거야. 그 괴물이 그에게 말했지. '네 어머니의 운명은 네 손에 달려 있어. 네가 이기면, 어머니는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맹세했어.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 존재를 간파하고 있어. 내 숨소리까지 듣고 있어.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축복받기를."

이제 겨우 마지막 단계였다. 베로니크는 떨리고 있었다. 감정에 지친 몸은 희망과 공포가 극으로 치닫는 격동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다시 한 번 아들이 밀리고 있었다. 다시 한 번 그는 앞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어진 필사의 몸싸움에서 그는 균형을 잃고, 팔이 몸 아래로 끼인 채 뒤로 넘어졌다.

적은 즉시 그를 덮쳤다.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한 팔을 들어 올렸다. 단도가 번뜩였다.

"도와줘! 도와줘!" 베로니크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 막힌 천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등 뒤의 벽에 몸을 부대끼며 버텼다. 손목과 발목을 묶은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마에는 철창의 모서리에 긁혀 피가 나고 있었다. 그녀는 곧 죽을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죽음을 맞을 것 같았다.

보르스키가 다가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스무 초가 지났다. 서른 초가 지났다.

프랑수아는 왼손을 뻗어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승리자의 팔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칼날이 내려오고 있었다. 칼끝은 목에서 단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보르스키는 몸을 숙였다. 이때 그는 레이놀드 뒤에 서 있었기에, 레이놀드나 프랑수아 둘 중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특정 순간에 개입할 생각인 양, 매우 집요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개입한다는 말인가? 그의 생각은 프랑수아를 구하려는 것이었을까?

베로니크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눈이 유난히 커진 채, 그녀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칼끝이 목덜미에 닿았다. 살을 살짝 찌르는 듯했지만, 프랑수아의 반발하는 힘 때문에 그다지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다.

보르스키는 몸을 더 깊게 숙였다. 그는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눈은 결코 살기를 띤 칼끝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머니칼을 꺼내 칼날을 펼치고 기다렸다. 몇 초가 더 흘렀다. 피스톤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보르스키는 주머니칼의 날로 레이놀드의 어깨를 거칠게 패버렸다.

아이가 비명 같은 고통의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그의 체조가 풀렸고, 동시에 해방된 프랑수아는 오른쪽 팔을 반쯤 들어 올리며 반격을 가했다. 그는 보르스키의 존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했다. 다만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고 공격자에 맞서려는 본능적인 충동이 온몸을 휘몰아쳤다. 그는 레이놀드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레이놀드는 다시 한번 덩어리처럼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은 십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의 급변은 너무도 예측 불가했고, 베로니크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착각한 것인지, 진짜 프랑수아가 보르스키에게 살해당해 죽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시간이 흘렀다. 조금씩, 베로니크의 감각이 돌아왔다. 그녀는 벽시계가 네 시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프랑수아는 이미 두 시간 전에 죽었어. 죽은 사람이 분명 그였으니까……"

그는 이 결투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의심치 않았다. 보르스키는 프랑수아를 이기고, 자신의 아들이 쓰러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간청한 괴물을 위해, 정작 불쌍한 자신의 아이를 위해 빌었던 것이었다.

"프랑수아가 죽었어요. 보르스키가 그를 죽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보르스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미안합니다, 친애하는 부인. 보르스키가 잠들었나 봅니다. 죄는 베로니크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의 지하실에는 사뮈르의 진귀한 와인이 숨겨져 있었는데, 콘라드와 오토가 그것을 발견해 제가 조금 취해 버렸거든요. 하지만 울지 마세요. 잃은 시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정이 되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그가 다가오더니 놀라 외쳤다.

"뭐라고? 그 더러운 Vorski가 당신을 묶어둔 채 떠났다고? Vorski라니, 정말 멍청한 놈이군! 얼마나 불편했겠어! 천만에,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봐라! 어이, 죽진 않았지? 우리를 장난감 삼지나 않았는지 봐라!"

그는 Véronique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빼냈다.

"좋아! 그 작은 Vorski를 미워하는 건 여전하군. 그럼 다 괜찮은 거야. 희망이 있어. 너는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거야, Véronique."

그는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야? 나를 부르는 건가? 너냐, Otto? 올라와라. 그리고, Otto, 뭐 새 소식이 있나? 나는 잤거든, 알지? 그 저주받은 Saumur 포도주 때문에…"

Otto, 두 공범 중 한 명이 뛰어들었다. 배가 유난히 불룩했던 그 남자였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그가 외쳤다.

"있네. 섬에서 누군가를 목격했어."

보르스키는 웃음을 터뜨렸다.

"otto, 술에 취했나 보군. 그 Saumur의 작은 와인이 문제야."

"술에 취한 게 아냐. 내가 본 거야. 콘라드도 봤지."

"오, 오!" 보르스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콘라드가 너와 함께 있었다니. 대체 뭐가 보였다고?"

"우리가 다가오자 숨어버린 하얀 실루엣 하나."

"어디서였지?"

"마을과 황야 사이, 작은 밤나무 숲에서."

"그럼 섬 반대편이군?"

"맞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어떻게? 그들이 여럿일 수도 있어."

"열 명이라도 상관없어. 콘라드는 어디에?"

"우리가 태운 다리가 놓인, 불타버린 다리 자리 근처야. 거기서 감시하고 있어."

"콘라드는 영리한 놈이야. 교량이 불타서 우리는 강 반대편에 발이 묶였고, 보도교가 타면 같은 장애물이 생길 거야. 베로니크, 네 구원자가 오고 있는 게 분명해. 기다리던 기적, 바랐던 개입이랄까. 하지만 너무 늦었어, 아름다운 내 사랑."

그는 발코니에 묶여 있던 끈을 풀고 그녀를 소파로 옮겼다. 그리고 입마개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자, 잘 자. 최대한 휴식을 취해라. 네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길은 아직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어. 마지막 오르막은 꽤 고역이 될 테니까."

그는 농담조로 말을 걸며 자리를 떴다. 베로니크는 두 남자가 주고받는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오또와 콘라드는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대체 그 불쌍한 여자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오또가 물었다.

"네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콘라드와 저는 조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왜요, 세상에?"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요."

"콘라드, 너, 둘 다 바보들이다." 보르스키가 쏘아붙였다. "내가 너희를 내 부하로 뽑아, 나랑 같이 탈출시켜 준 김에 할 수 있는 한은 다 알려줬잖아. 너희는 내 조건을 받아들인 거야. 그럼 됐지. 이제부터는 끝까지 따라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겁쟁이를 싫어하니까."

시간이 더 흘렀다. 베로니크는 이제 아무것도 자신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오토가 말한 개입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런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녀는 최대한 빨리 그와 합류하고 싶었다. 그것이 가장 끔찍한 고문이라도 상관없었다. 고문 따위야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고문당하는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그녀는 이미 그 한계에 매우 가까웠다. 그녀의 죽음은 길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기도를 시작했다. 다시 한 번,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녀가 저지른 죄가 그녀에게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처럼 보였다.

기도를 하며,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모든 것에 무감각한 상태였다. 결국 그녀는 잠들고 말았다.

보르스키가 돌아와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흔들어야 했다.

"시간이 가까워졌어, 내 사랑. 기도해." 그는 동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옛날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지막이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쳤다.

"아직 해가 너무 밝아. 오토, 식료품 찬장을 뒤져봐. 배고파."

그들은 식탁에 앉았지만, 보르스키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보지 마, 아이야. 네 눈이 나를 당황하게 하거든. 혼자 있을 땐 양심도 그리 까다롭지 않은 법이지만, 네처럼 예쁜 눈빛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면 양심이 발버둥 치기 마련이야. 속눈썹을 내리세요, 아가씨."

그는 베로니크의 눈 위에 손수건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머리 뒤에서 매듭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에서 튤 소재 커튼을 떼어내어 그녀의 머리를 싼 뒤, 목에 동여맸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마시고 먹었다.

세 사람은 거의 말없이 지냈다. 섬에서의 모험이나 오후의 결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사실 그런 일들은 베로니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설령 그녀가 그 일에 귀를 기울였다 해도, 감동을 받을 리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말소리는 귀에 들어왔지만, 정확한 의미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죽음만을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보르스키가 출발 신호를 보냈다.

"그래도 여전히 결심이 서 있는 겁니까?" 오토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어느덧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왜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일은 우리 둘 다 반은 싫어하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이제야 깨달았군, 내 친구. 장난삼아 아르시냐트 자매를 매달아 놓은 뒤에."

"그날 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저희에게 술을 따르셨죠."

"좋아, 마셔라, 노파리야. 여기 코냑 병이 있네. 물통을 채워라. 그리고 내게서 물러서라… 콘라드, 이불을 준비했나?"

그가 희생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가 좋아할 작은 선물 하나… 네 애비의 낡은 두 개다리 의자다. 끈으로 묶어 놓았지… 실용적이고 편안하군."

여덟 시 반쯤, 불길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르스키가 손에 등불을 들고 맨 앞에 섰다. 공범들이 들것을 메고 뒤를 따랐다.

오후 내내 위협적으로 드리웠던 구름들이 섬 위를 가득 채우고 무겁고 검은 덩어리로 굴러다녔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돌풍이 분성하게 불어 등불의 촛불을 춤추게 했다.

"으악, 추워." 보르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음산하군… 골고다의 밤 같아."

그가 몸을 피우며 옆으로 흘끗 보았다. 검은 덩어리 하나가 자신 옆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는 투덜거렸다.

"저게 뭐야? 좀 봐봐… 개처럼 보이는데…"

"아이의 개야." 오토가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 유명한 '잘돼라'라고? 이 녀석이 딱 이때 떨어졌네. 정말 잘되고 있어, 정말로! 기다려 봐, 더러운 것아."

그가 발로 차버렸다. '잘돼라'는 재빨리 피했고, 안전지대로 벗어나서는 다시 행렬을 따라가며 여러 차례 낮고 둔탁한 짖음을 울렸다.

등반은 쉽지 않았다. 어느 순간, 세 사람 중 한 명은 주면 앞의 잔디밭을 둘러싸고 돌며 돌멘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길을 벗어나, 가시덤불과 덩굴나무에 발이 걸려 허둥댈 수밖에 없었다.

"멈춰! 잠시 숨 좀 고르자, 친구들." 보르스키가 명령했다. "otto, 물통 좀 줘. 심장이 미치겠어."

그는 목을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너 차례야, 오토…… 뭐, 거절한다고? 무슨 일이야?"

"이 섬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우리를 찾고 있겠죠."

"그들이 계속 찾게 두면 되지!"

"만약 그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오늘 아침 그 여자와 아이가 도망치려다 우리가 발견한 절벽의 그 길을 따라 올라온다면요?"

"육지에서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바다로는 불가능하죠. 다리가 불타 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왕래할 길이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랑드노아르의 감옥 입구를 발견하고, 터널을 따라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 입구를 이미 발견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좋아요. 설령 그들이 입구를 찾아냈다고 치더라도, 얼마 전부터 우리는 그쪽 출구를 막아 버렸잖아요. 계부를 부수고 온통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그들이 그 길을 뚫고 나오려면 최소한 반나절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우리는 사렉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모든 일이 끝난다고요… 끝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손에 피가 더 묻는 셈이군요.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보물은요?"

"아, 보물. 드디어 그 큰 말을 꺼냈군. 보물이 네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틀림없지, 도적놈아? 자, 안심해라. 네 몫은 이미 네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셈이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물론이지! 내가 기꺼이 이런 더러운 일과 이 추위에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사십 분쯤 지나자 빗방울이 몇 개 떨어졌다. 천둥이 한 번 울렸다. 비바람은 아직 멀리 있는 듯했다.

가파르고 험한 오름길을 끝내 올라섰다. 보르스키는 동료들을 도와야 했다.

"드디어 도착했군." 그가 말했다. "오토, 물병 좀 건네라…… 고마워."

그들은 나무 아래에 희생자를 내려놓았다. 아래쪽 가지들은 이미 잘려나간 상태였다.

빛줄기가 비쳐서 글자가 드러났다. 'V. d'H.'

보르스키는 미리 가져온 밧줄을 주워 들고, 나무 줄기에 사다리를 기대세웠다.

"아르시냐트 자매 사건 때와 똑같이 진행합시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남겨둔 주가지에 밧줄을 감아 올릴 겁니다. 그게 도르레 역할을 하겠지요."

그는 말을 멈추고 옆으로 홱 뛰었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생긴 것이다. 그가 속삭였다.

"뭐야? 무슨 일이지? 그 삐이는 소리 들렸어?"

"네, 콘라드가 말했다. 내 귀를 스쳤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친놈."

"나도 들었어요." 오토가 말했다. "아무래도 나무에 맞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를?"

"참나무잖아! 천만에, 우리한테 총을 쏜 거나 다름없어."

"총소리는 없었어."

"그럼 돌이었지. 참나무에 맞은 돌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르스키가 말했다.

그는 손전등을 돌려 비추더니, 곧바로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봐! …문구 아래쪽을…"

그들이 고개를 기울여 봤다.

보르스키가 가리킨 곳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 깃털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화살!" 콘라드가 말했다. "말도 안 돼. 화살이라고?"

오또는 더듬거렸다.

"우린 끝장났어. 분명히 우리를 노린 거야."

"우리한테 화살을 쏜 사람은 가까이 있어." 보르스키가 말했다. "눈을 빛나게 하고… 찾아볼게."

그는 빛을 원형으로 퍼뜨리며 주변 어둠을 샅샅이 훑었다.

"멈춰!" 콘라드가 급히 말했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봐?"

"네… 알겠소."

그들로부터 사십 보쯤 떨어진 곳, 뇌우에 반으로 잘린 참나무 너머, 그리고 칼바리 플뢰리 쪽으로는 희미한 흰색 무언가가 보였다. 적어도 그렇게 믿을 만한, 관목 무리 뒤에 몸을 숨기려 애쓰는 실루엣이었다.

"말도 말고, 손도 대지 마시오." 보르스키가 명령했다. "우리를 발견했음을 눈치채게 할 행위는 일절 금물. 콘라드, 당신 따라오시오. 오토, 당신은 여기서 총을 쥐고 경계를 서시오. 만약 누군가가 다가와 그

부인을 구하려 든다면, 총을 두 발 쏘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에 올라타 급히 달려갈 테니."

"알겠습니다."

그는 베로니크에게 몸을 굽혔고, 베일을 조금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과 입은 여전히 밴드로 가려져 있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맥박은 약하고 느리게 뛰고 있었다.

"시간은 충분해. 하지만 계획대로 그녀가 죽게 하려면 서둘러야 해. 어쨌든 그녀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식도 완전히 잃은 상태야."

보르스키는 랜턴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동료를 따라 조용히, 그림자가 가장 짙은 곳을 골라 흰색 실루엣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곧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먼저, 움직이지 않아 보이던 그 실루엣이 자신과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또한, 그 흰색 실루엣 옆에는 작은 검은색 실루엣이 따라다니며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저 개자식 개가 틀림없어!" 보르스키가 투덜거렸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거리는 줄지 않았다.

그가 달렸다. 실루엣도 함께 달렸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신비로운 인물이 달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도, 발이 땅을 딛는 소리도 없었다.

"젠장! Vorski가 저주를 외쳤다. "우리 장난치는 거야? Conrad, 저 한테 총을 쏘는 게 어때?"

"너무 멀어. 총알이 닿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냥……"

이 낯선 인물은 섬의 끝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터널 입구까지 내려가, 수도원을 지나 서쪽 절벽을 따라 걸었다. 몇몇 판자가 아직 연기를 뿜고 있던 다리에 도착했다.

그는 다시 방향을 틀어, 집 반대편으로 건너가 잔디밭을 올라갔다.

가끔씩 개가 기쁜 듯 짖어댔다.

보르스키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치도 전진하지 못했다. 쫓는 지 이미 15분이 넘었다.

그는 결국 적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멈춰서라, 겁쟁이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왜? 그 여자를 구하려는 거야? 저 상태로는 그럴 가치가 없어. 아, 미친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라!"

그때 갑자기 콘라드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챘다.

"무슨 일이야, 콘라드?"

"보세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얀 실루엣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관목 사이로 그 인물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팔은 약간 벌린 채, 등은 굽었고 다리는 구부러져 땅에 걸쳐져 있었다. 마치 교차한 듯했다.

"떨어졌나 보다." 콘라드가 말했다.

보르스키가 한 걸음 다가섰다.

"쏘겠나, 이 개새끼? 총구 끝에서 너를 잡았어. 팔을 들어라. 안 그러면 쏜다."

움직임이 없었다.

"그럼 운이 없군. 반항하면 죽는다. 세數자 세고 쏜다."

그는 서른 걸음쯤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 팔을 뻗으며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준비됐나, 콘라드? 쏘자. 가자."

총알 두 발이 동시에 날아갔다.

먼 곳에서 절규 같은 비명이 터졌다.

그 형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두 남자가 앞으로 뛰쳐나갔다.

"아, 잡았네, 이 도둑놈! Vorski가 어떤 놈인지 보여 주마. 이 개자식, 내게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게 했어. 이제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그는 몇 걸음 더 나아가며 발걸음을 늦췄다. 갑작스러운 습격을 경계한 것이다. 그 낯선 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Vorski가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그는 죽은 자의 시체처럼 움직이지도, 변형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 위에 뛰어올라 그를 제압하는 것뿐이었다. Vorski는 농담조로 그렇게 했다.

"좋은 사냥이었군, Conrad. 사냥감을 줍자."

사냥감을 주워 들었을 때, 그는 매우 놀랐다. 손에 잡힌 것은 형체 없는 허상 같은 것이었고, 실체는 단순히 한 벌의 튜닉뿐이었다. 그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튜닉을 걸고 달아난 주인이, 제때에 덤불의 가시덤불에 옷을 걸어두고 사라진 것이다. 개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보르스키가 내뱉었다. "이 도둑놈, 우리를 속였군! 하지만, 대체 왜 그랬지?"

그는 특유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분노를 토해내며, 땅에 떨어진 천 조각을 발로 구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한 생각이 그를 강타했다.

"왜? 아, 세상에나, 내가 방금 말했잖아… 함정일세. 우리를 그 여자로부터 떼어놓는 동안, 그의 동무들이 오토를 습격하려는 수작이지. 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이냐!"

그는 다시 어둠 속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돌멘의 윤곽이 보이자마자 그는 소리쳤다.

"오토! 오토!"

"멈춰! 누가 있나?" 오토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울려왔다.

"나야… 크레디외, 쏘지 마!"

"누구인가? 당신인가?"

"그래, 나야, 바보야."

"그런데 총격 소리는?"

"별일 아니야… 실수였어… 나중에 설명해 주마."

그는 떡나무 근처에 다다랐다. 그리고 곧장 등불을 들어 그의 '희생자'에게 빛을 비췄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무 뿌리 옆에 누운 채, 얼굴은 베일로 완전히 감싸져 있었다.

"아, 숨을 돌렸군. 크레디외, 정말 무서웠어!"

"무엇이 무서웠다는 거야?"

"그 여자를 빼앗길까 봐! 참, 정말로!"

"그런데 저는 어땠어요?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너? 너는 남들만큼 용감하지 못해… 만약 네가 공격받았으면…"

"난 쏠 수밖에 없었어… 신호음을 들었을 테니까."

"정확히 알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나?"

"전혀 없었지."

"그 여자는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처음엔 그랬어. 후드 밑에서 신음하며 불평을 했거든. 내 인내심을 완전히 다 떨어뜨릴 지경이었지."

"그런데 그 뒤로는?"

"아, 그 뒤로는… 별일 없었어. 주먹 한 방으로 순식간에 기절시켰지."

"아, 야수 같은 놈!" 보르스키가 소리쳤다. "만약 네가 그 여자를 죽였다면, 넌 이미 죽은 몸이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불쌍한 여자의 가슴에 귀를 바짝 대었다.

"아직 심장은 뛰고 있어." 잠시 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자, 일하자, 동지들. 1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제14장

준비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보르스키 자신이 직접 분주히 움직였다.

그는 사다리를 나무 줄기에 기대어 세우고, 로프의 한쪽 끝을 피해자에게 감고 다른 쪽 끝은 윗가지에 동여맸다. 그리고 사다리 맨 위 칸에 올라선 그는 동조자들에게 명령했다.

"자,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당기기뿐이야. 먼저 피해자를 똑바로 세운 다음, 누가 한 명은 균형을 잡아줘."

그는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오토와 콘라드가 낮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르스키가 불평했다.

"제발 좀 서둘러 주게. 내가 너무도 좋은 표적이 되어 버렸잖아. 만약 누군가 총알이나 화살을 날린다면 말야. 됐나?"

두 동조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저건 좀 거지 같군. 또 뭐가 문제야? 오토… 콘라드…"

그는 땅으로 뛰어내려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너희 둘, 참으로 기가 막힌 놈들이군. 이대로라면 내일 아침이 돼서야 그곳에 도착할 거야. 그럼 모든 게 물거품이 되지. 하지만 얼른 대답해, 오토."

그가 횃불을 오토의 얼굴에 들이댔다.

"자, 뭐가 문제란 말인가? 네가 거절한다는 건가? 그렇다면 분명히 말해라. 그리고 콘라드는 어때? 너희 둘이 파업을 한다는 건가?"

오토가 고개를 저었다.

"파업이라니…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군. 하지만 콘라드와 나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

"설명이란 말인가? 대체 무슨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멍청아? 우리가 처형하려는 여자에 대한 건가? 아니면 두 아이 중 한 명에 대한 건가? 더 이상 묻지 말게. 동지들아, 내가 이 일을 제안할 때 이미 말했지. '눈을 감고 따라올 수 있겠는가?'라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피가 흐를 거야. 하지만 결국엔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오토가 말했다.

"명확히 해라, 멍청한 놈아."

"명확히 하는 건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 간에 맺은 약속의 조건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 기억은 정확해. 보물은 내 것이고, 보물 중 이백만 프랑을 떼어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먼저 그 유명한 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몇 주 동안이나 우리는 피와 악몽 같은 다양한 범죄 속에서 신음해 왔는데, 정작 보물은커녕 그림자 하나 보이지도 않는다!"

보르스키는 어깨를 으쓱였다.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가는군, 불쌍한 오토. 내가 먼저 해내야 할 일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지? 다 끝났어. 단 한 가지만 남았을 뿐이야. 몇 분 후면 그 마지막도 마무리되고, 보물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그걸 어떻게 알죠?"

"내가 왜 그토록 많은 일을 했는지 궁금하냐면,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이지. 내가 살아 있다는 걸 확신하듯, 결과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사건은 미리 정해진 엄격한 순서대로 진행되었어. 마지막

사건도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고,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문이 열릴 거야."

"지옥의 문이죠." 오토가 비웃었다. "마귀노크가 그렇게 부르던 문이요."

"어떤 이름을 부르든 중요하지 않아. 그 문 너머에는 내가 쟁취할 보물이 있으니까."

"좋소." 오토가 말했다. 보르스키의 확신이 나를 움직인 거지. 네 말이 맞다고 믿겠어. 하지만 우리 몫이 정말 보장되리란 건 누가 장담하느냐?

"당신 몫은 확실합니다. 보물을 손에 넣으면 내가 얻게 될 부는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당신들과 두만 프랑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죠."

"그럼, 당신의 맹세가 있군요?"

"물론이지."

"우리가 맺은 계약의 모든 조항이 지켜질 것이라는 당신의 맹세요?"

"당연하지.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이 말이지요. 당신은 이미 이 계약의 한 조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

"당신에게요, 보르스키."

보르스키는 동료를 붙잡았다.

"뭐라는 거야!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나를, 나라고!"

"왜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속인 걸 생각하면 말이야."

보르스키는 화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 잘 생각해서 해라, 친구. 네가 건 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말해."

"이렇소." 오토가 선언했다. "보물 말고, 이십만 프랑 말고도.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약속했어. 네가 맹세하듯 손을 들었던 그 약속이지. 사건 중 한 사람이 현금으로 찾아낸 돈은 모두 반반으로 나누자는 거였지. 맞나?"

"맞소."

"그럼 줘." 오토가 손을 내밀었다.

"뭐라고? 내가 뭘 주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르기냐트 자매를 보내는 동안, 넌 그들 중 한 명, 가슴 안쪽에 숨겨둔 돈뭉치를 찾아냈지. 그 돈은 그들의 집에서 찾을 수 없었던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르스키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순수한 진실이야."

"그걸 증명해 봐."

"자, 셔츠 안쪽, 핀으로 고정해 둔 그 작은 뭉치를 꺼내 봐."

오토는 보르스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덧붙였다.

"그 작은 뭉치를 꺼내. 그리고 천 프랑짜리 지폐 오십 장을 일렬로 늘어놓게."

보르스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해 허둥대며, 상대가 어떻게 자신에 대항할 무기를 손에 넣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처럼 경악한 상태였다.

"시인하겠어?" 오토가 물었다.

"왜 안 되겠어요?" 그가 되받았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지금 당장 하세요. 그게 더 낫죠."

"내가 거절하면 어떡해?"

"거절하지 않을 거야."

"왜요? 거절한다고요!"

"그럼 너에게 불운이 닥칠 거야."

"무슨 소리를 하세요? 당신들 둘밖에 없잖아요."

"우린 적어도 셋이야."

"셋째는 누구죠?"

"셋째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콘라드가 방금 알려준 바로 그분이죠. 아까 당신을 속인 사람, 화살 문양과 흰 투니카를 입은 그 남자가 바로 셋째예요."

"그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물론이죠!"

보르스키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느꼈다. 두 동료가 그를 양쪽에서 꽉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잡아라, 도둑놈! 잡아라, 강도야!" 그가 외치며 작은 소포를 꺼내 지폐를 펼쳤다.

"세어 볼 필요도 없군." 오토가 갑자기 그 뭉치를 빼앗으며 말했다.

"이래야지. 절반은 콘라드에게, 절반은 내 몫."

"아! 야만인! 도둑을 도둑질하다니! 네가 갚아야 해. 돈 따위야 상관없어. 하지만 마치 숲속을 약탈하듯 나를 털다니! 오, 네 피부가 되고 싶지 않군, 친구."

그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가, 갑자기 악의적이고 억지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음, 잘했어, 오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지? 나중에 꼭 들려주게. 지금 당장은 더 이상 잃을 시간이 없어. 모든 점에 동의했지, 그렇지? 그럼 출발할까?"

"당신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시니, 마다할 이유가 없지." 오토가 말했다.

동조자가 겸손한 어조로 덧붙였다.

"보르스키, 너도 제법 위엄이 있군. 대귀족 같아."

"나야말로, 돈 받고 일하는 하인이야. 돈 받았으니 서둘러. 일이 급해."

끔찍한 남자가 말한 그 일은 순식간에 처리되었다. 사다리를 다시 올라간 보르스키는 명령을 되풀이했고, 콘라트와 오토는 순종적으로 그 지시에 따랐다.

그들은 희생자를 일어서게 한 뒤, 균형을 잡은 채 밧줄을 당겼다. 보르스키는 불쌍한 여자를 받아 안았고, 무릎이 구부러지자 강제로 누웠다.

그녀는 나무 기둥에 딱 붙은 채, 치마가 다리를 감싸고 팔은 몸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은 채 옆으로 늘어졌다. 허리 아래쪽과 겨드랑이 부분이 단단히 묶였다.

그녀는 어지러움에서 깨어난 기색이 없었다. 불평 한마디도 없었다.

보르스키는 그녀에게 몇 마디 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듬거릴 뿐이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리를 일으켜 주려 했으나, 곧 포기했다. 죽어가는 이의 머리를 만질 용기가 더 이상 없었다. 머리는 다시 가슴 아래로 툭 떨어졌다.

그는 즉시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화분술이 있어… 오토, 물주머니 있나? 어휴, 참으로 불쌍한 일이야."

"아직 시간이 있어요," 콘라드가 말했다.

보르스키는 몇 모금 마시고 외쳤다.

"아직 시간이 있어. 뭘 할 시간이야? 그녀를 구출할? 내 말 들어, 콘라드. 그녀를 구하기보다는…… 응,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낫겠

어. 내 계획을 포기할까? 아, 넌 내 계획이 뭔지, 내 목표가 뭔지 모르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술을 들이켰다.

"술이 괜찮긴 한데,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럼주가 더 낫겠어. 콘라드, 럼주 없나?"

"작은 병에 남은 것 정도 있긴 한데……"

"줘."

그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등불을 가렸고, 나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 부은 술이 뇌를 자극했다. Vorski는 매우 흥분한 나머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기 죽어가는 여자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네 번째 여성 중 한 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운명이 그녀를 특별히 지목했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보르스키의 승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순간, 딱 한 가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은 저의 의지대로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은 가장 강력한 의지, 보르스키를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의지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며 몇 번이나 되뇌었다. 마치 그 이름이 입술을 즐겁게 하는 듯했다.

"보르스키를 위해! …보르스키를 위해!"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넘치는 생각에 참지 못해 그는 방안을 거닐며 손을 휘저었다.

"보르스키, 왕의 아들이여, 운명이 선택한 자여, 준비하라. 바로 네 시가 왔다. 네가 만약 다른 이들의 피에 더럽혀진 모든 거대한 범죄자 중 마지막이자 가장 죄악스러운 모험가라면 몰라도, 신들의 영광으로 관을 씌운 진정한 예언자라면 말이다. 초인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운명의 심판이 내려졌다. 신들에게 바쳐지는 희생자의 심장 뛰는 소리가 마지막 초를 알린다. 여기 있는 너희 두 사람, 그 소리를 들어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그는, 지친 심장의 그 가엾은 뛰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인 자세가 귀를 가슴에 밀착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는 손조차 대지 못했다. 불규칙하고 거친 숨소리만이 침묵을 깨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속삭였다.

"베로니크, 내 말 들어? 베로니크…… 베로니크……"

잠시 망설이던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에게 말해야 해…… 나 자신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서워. 하지만 이건 운명이라니…… 그 예언 기억나? '네 아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하지만 네 이름 자체가 그걸 떠올리게 하지 않니? 베로니크."

그는 말을 이었다.

"성 베로니크가 천으로 예수의 얼굴을 닦았고, 그 천에 구주의 거룩한 형상이 남았다는 거 알지? 베로니크, 내 말 들어, 베로니크?"

그는 재촉하는 듯 내려가 콘라드의 손에서 럼주 병을 빼앗아 단숨에 비웠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그는 동조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신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저주와 신성모독을 퍼부으며 적을 도발한 것이다.

"보르스키가 가장 강하다. 보르스키는 운명을 지배한다. 자연의 요소들과 신비한 세력들이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모든 일은 그가 결정한 대로 흘러갈 것이며, 그에게 큰 비밀이 신비로운 형식과 카발라의 교리에 따라 알려질 것이다. 보르스키는 예언자로서 기다려진다. 그는 기쁨과 황홀감의 함성과 함께 환영받을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만 바라보는 누군가가 종려가지와 축복을 들고 그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다. 그 자는 준비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지옥에서 올라오라! 여기 보르스키가 있다! 종소리와 할렐루야의 노래에 맞춰 하늘 앞

에서 운명적인 신호가 울려 퍼지고, 땅은 갈라지며 불꽃의 소용돌이를 뿜어내리라."

그는 침묵을 지켰다. 마치 공중에서 자신이 예언한 징조들을 엿듣기라도 하듯.

위에서 죽어가는 여자의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떨어졌다.

먼 곳에서 천둥이 울렸고, 검은 구름들이 번개에 찢겨 나갔다. 마치 자연 전체가 그 강도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듯했다.

그의 장엄한 연설과 과장된 몸짓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오토가 속삭였다.

"무서워요."

"럼주 탓이지." 콘라드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끔찍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군."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들이 있소. Vorski의 귀는 가장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의 일부이며, 수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진 것들이요. 마치 기적 같은 출산과도 같은 일이죠. 내가 두 사람에게 말하건대, 너희는 당혹스러운 증인이 될 거야. Otto와 Conrad, 너도 준비해라. 땅이 진동할 거다. Vorski가 '신석'을 정복해야 할 그 장소에서,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이 나타날 테니까."

"저 자, 제 말인지 모르게 되셨구려." Conrad가 중얼거렸다.

"다시 사다리를 오르고 있군." Otto가 한숨을 쉬었다. "화살을 맞더라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Vorski의 열정은 더 이상 한계를 알지 못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통에 지친 희생체는 죽어가고 있었다.

보르스키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녀만 들리게 하더니 점점 더 큰 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베로니크… 베로니크… 너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어… 너는 오르막길 끝에 다다랐어… 영광이 너에게 있기를! 내 승리의 일부도 너에게 돌아갈 거야… 영광이 너에게 있기를! 들어? 이미 들리지 않니? 천둥의 포성이 다가오고 있어. 나의 적들은 패배했고, 너는 더 이상 구원을 바랄 수 없어! 이제 너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다… 너의 마지막 신음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가장 신나는 모험을 대할 때처럼 웃었다. 그러자 고요함이 찾아왔다.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이다. 보르스키는 몸을 굽혔다가, 갑자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선 채로 고함을 질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신들이 그녀를 버렸도다. 죽음이 그 일을 마쳤다. 네 여자 중 마지막이 죽었다. 베로니크가 죽었다!"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두 번이나 비명처럼 외쳤다.

"베로니크가 죽었다! 베로니크가 죽었다!"

다시 한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천둥의 진동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심한 경련처럼 느껴졌다. 그 충격은 여러 차례 되풀이되며, 숲과 언덕을 지나 퍼져 나가는 메아리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들 바로 옆, 참나무 반원형의 반대편 끝에서 불꽃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붉고, 노랗고, 보라색 불꽃이 연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보르스키는 입을 열지 않았다. 동료들은 경악한 채 꼼짝도 못했다.

마침내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것은 썩어빠진 오래된 참나무입니다. 이미 번개에 타버린 그 나무요."

사실 불은 거의 즉시 꺼졌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광경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불타오르며 투명하게 빛나고, 다채로운 불꽃과 연기를 토해내던 그 오래된 참나무의 모습이었다.

"여기가 '바위 신'으로 이어지는 입구입니다." 보르스키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운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저, 곧 그의 종이자 이제 그의 주인의 손에 의해 움직인 것이죠."

그는 손에 등불을 들고 한발짝 다가섰다. 그들은 놀랐다. 나무에는 불에 탄 자취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몇 개의 아래쪽 가지가 벌어져 통처럼 만들어놓은 듯이 쌓인 마른 잎더미는 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또 한 번의 기적이다." 보르스키가 말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일 뿐이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콘라드가 물었다.

"우리가 찾던 출구로 들어가자. 사다리를 가져와, 콘라드. 그리고 손으로 이 잎더미를 뒤져봐. 나무 속이 비어 있어.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나무가 아무리 속이 비었다고 해도," 오토가 말했다. "뿌리는 있는 법이지. 뿌리 틈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다시 말하지만, 해보면 알 거야. 잎을 들어봐, 콘라드… 치워봐…"

"안 됩니다." 콘라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무슨 소리야? 왜 안 된다고?"

"마귀노크를 기억하느냐? 그는 신석에 손을 대려다 손이 잘려 나갔다고."

"하지만 여기는 신석이 아니야!" 보르스키가 비웃었다.

"어떻게 알았소? 마귀노크는 늘 지옥의 문이라고 말했소. 바로 그걸 가리킨 게 아닐까?"

보르스키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도 무서운 거야, 오토?"

오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르스키 역시 그 시험을 치르려 서두르지는 않았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급할 것 없소.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도끼로 나무를 베어 보면, 우리가 무슨 상대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합의했다. 하지만 신호는 그들 말고도 다른 이들에게 감지되었다. 뒤질세라 앞서 나가지 않도록, 그들은 나무 바로 앞, 거대한 돌멘 '요정의 탁자' 아래를 거처로 정했다.

"오토," 보르스키가 명했다. "수녀원에서 음료수를 가져와. 도끼와 밧줄, 필요한 건 다 챙겨 와."

비바람이 맹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장 돌멘 아래로 몸을 숨겼고,轮流로 경비를 섰다. 다른 이들은 잠들었다.

그 밤은 별일 없이 흘렀다. 폭풍은 여전히 거셌다. 파도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새벽이 밝자, 그들은 참나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밧줄에 매달린 나무는 금세 쓰러졌다.

그때 그들은 나무 안쪽, 썩은 부스러기들 사이에 어떤 통로가 파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통로는 뿌리 주변에 엉킨 모래와 돌 덩어리 한가운데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곡괭이로 땅을 파냈다. 곧 계단이 드러났다. 흙이 무너져 내리더니, 그들은 수직 벽면을 따라 내려가는 계단을 보았다. 계단은 어둠 속으로 깊게 들어갔다. 등불빛이 비춰지자, 그 아래로 동굴이 열려 있었다.

보르스키가 먼저 나섰다. 다른 이들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돌멩이로 받친 흙계단이었으나, 이내 바위를 파서 만든 계단으로 이어졌다. 그들이 나온 동굴은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오히려 진입로인 현관 같은 공간이었다.

동굴은 둥근 천장을 가진, 일종의 지하 묘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벽은 거친 석조 공법으로 쌓아 올렸다.

주변에는 형체 없는 석상처럼 열두 개의 작은 멘히르가 서 있었다. 각 멘히르 위에는 말머리 해골이 얹혀 있었다. 보르스키는 그중 한 해골을 건넜다.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이 지하 묘실에는 스무 세기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과거의 유적을 처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점점 더 격앙된 어조로 덧붙였다.

"그곳은 거대한 부족장의 관이 놓인 방이었어요. 그는 살아생전 아끼던 말들과 무기를 함께 묻혔죠. 여기 보십시오. 도끼와 부싯돌로 만든 칼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장례 의식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어요. 숯더미와 저기 쪽의 태운 뼈들이 그 증거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제가 이곳에 들어선 첫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던 세계가 제 발걸음에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콘라드가 그를 끊었다.

"다른 출구가 있어요. 또 다른 통로가 있고,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군요."

좁은 복도가 그들을 다른 방으로 이끌었고, 그곳을 지나 세 번째 방에 도착했다.

세 개의 묘실은 완전히 똑같았다. 쌓은 벽돌도, 세워 놓은 돌도, 말 뼈대도 모두 동일했다.

"세 명의 대장군 무덤입니다." 보르스키가 말했다. "이 무덤들은 왕의 무덤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왕의 수호자였죠. 살아 있을 때는 왕의 벗이기도 했고요. 아마 다음 묘실이 왕의 것일 겁니다."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였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데서 오는 묘한 쾌감을 음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알겠소. 보르스키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소.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의 고생과 싸움에 대한 보상으로 왕처럼 큰 대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신석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섬의 비밀을 깨뜨리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보르스키가 왔고, 이제 신석은 그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대를 보여주고, 저에게 약속한 힘을 주시오. 그대와 보르스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저의 의지뿐이죠. 그리고 저는 원합니다! 예언자가 어둠의 깊숙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약 이 죽은 자들의 왕국에 저를 신석으로 안내하고, 저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 줄 영혼이 있다면, 그대는 일어나시오. 여기 보르스키가 있소."

그가 들어섰다.

네 번째 방은 훨씬 더 넓었다. 천장은 약간 납작한 돔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돔 중앙의 오목한 부분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아주 가느다란 파이프가 지나갈 만한 크기의 작은 구멍이었다. 그곳으로 반쯤 가려진 빛기둥이 떨어졌고, 바닥에는 선명한 원형의 빛무늬가 만들어졌다.

그 빛무늬 한가운데에는 작은 받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러 돌 조각을 빽빽하게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받침대 위에는 마치 전시된 물건처럼 금속 막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머지 공간은 처음 본 방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돌기둥과 말머리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제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보르스키는 금속 막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금속은 빛나고 있었다. 먼지 하나 끼지 않은 것처럼 윤이 나고 있었다. 보르스키는 손을 뻗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콘라드가 급하게 말했다.

"왜요?"

"마귀노크가 그걸 만졌을 때, 손이 타들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미쳤나 봐요."

"그런데도…"

"하!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르스키는 그 물건을 손에 쥐며 선언했다.

그것은 납으로 만든 지팡이였다. 거칠게 다듬어졌지만, 어딘가 예술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손잡이에는 뱀이 감겨 있었다. 뱀의 몸은 납 속에 박히기도 하고, 돌출되기도 했다.

머리는 유난히 크고 비례가 맞지 않았다. 그 머리가 지팡이 끝의 손잡이가 되어 있었다. 은못과 에메랄드처럼 투명하고 작은 녹색 돌들이 뱀의 머리에 박혀 있었다.

"이게 신석(神石)인가요?"

보르스키가 속삭였다.

그는 그 물건을 손에 쥐고, 경외심 어린 두려움으로 사방을 살폈다. 곧 그는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손잡이를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뱀의 머리가 비틀려 벗겨진 것이다.

안쪽에는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 공간 안에는 돌멩이 하나, 아니 작은 돌이 놓여 있었다. 붉은빛이 도는 색감에 노란 줄무늬가 있었는데, 마치 금맥처럼 보였다.

"바로 이거야! 오, 바로 이거야!"

보르스키는 격분하며 외쳤다.

"만지지 마!"

콘라드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되받았다.

"마귀노크를 태운 것이 보르스키를 태우지는 않을 거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자존심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는 신비로운 돌을 꽉 쥐고 있는 자신의 주먹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

"불태워라,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살에 스며들게 하라, 나는 기뻐할 것이다."

콘라드가 손짓하며 손가락을 입에 대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무슨 소리 들렸어?"

"네."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나도 들렸다." 오토가 확신했다.

사실, 규칙적인 리듬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박자는 일정했지만 높낮이가 들쭉날쭉했고, 마치 불규칙한 음악 같았다.

"하지만, 바로 여기 근처잖아." 보르스키가 중얼거렸다. "심지어 방 안에서도 들리는 것 같아."

방 안이었다. 그들은 곧 그렇게 확신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코를 골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 가설을 내세운 콘라드가 먼저 웃었다. 하지만 보르스키가 말했다.

"내 생각엔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분명 코 고는 소리야. 그럼 여기 누군가 있다는 뜻이지?"

"저쪽에서 들리는 걸요." 오토가 말했다. "그 그림자 구석에서요."

빛은 메니스르 너머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 뒤로는 어두운 작은 예배당들이 줄지어 열려 있었다. Vorski는 랜턴 빛을 그중 하나에 비추었다. 그러자 그는 놀람에 찬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다.

"누군가 있어. 그래, 누군가 있어. 보세요."

두 공범자가 다가갔다. 벽 모퉁이에 쌓인 석조 조각 더미 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하얀 수염과 긴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었다. 얼굴과 손바닥의 피부는 천 개의 주름으로 가득 찼다. 감겨 있는 눈꺼풀 주변에는 푸르스름한 고리가 둘러져 있었다. 적어도 한 세기가 그에게서 흘러간 듯했다.

그는 기워지고 찢긴 린넨 튜닉을 입고 있었다. 튜닉은 발끝까지 내려와 있었다.

목에는 가슴 한가운데까지 길게 늘어뜨린 묵주가 있었다. 그 구슬들은 갈리아인들이 '뱀의 알'이라 부르던 것들이었다. 실제로는 성게였다.

손이 닿는 곳에는 아름다운 자데이트 도끼가 놓여 있었다. 도끼에는 해독할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부싯돌들이 일렬로 늘어져 있었다. 큰 평원 고리 두 개, 녹색 정석으로 만든 두 개의 장식품, 푸른빛이 도는 에나멜 목걸이 두 개가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보르스키는 속삭였다.

"기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 사람은 사제야. 바로 옛날, 드루이드 시대의 사제처럼."

"그럼 어때?" 오토가 물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지!"

콘라드는 거친 의견을 냈다.

"내가 제안해. 저 도끼로 그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야."

하지만 보르스키는 화를 내며 일침을 가했다.

"네가 그의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넌 죽은 거야."

"하지만…"

"하지만 뭐?"

"저 사람이 우리 적일지도 몰라요. 어제 밤 우리가 쫓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기억나세요? 흰색 투피스 입은 사람이요."

"미친 소리를 하지 마. 그 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게 만들 사람이 아니야."

그는 몸을 숙여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일어나요. 저예요."

대답은 없었다.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보르스키는 다시 재촉했다.

남자는 자갈밭 위에서 몸을 움직이며 몇 마디 중얼거렸고, 다시 잠들었다.

조금 성이 난 보르스키는 다시 한 번 시도했다. 이번에는 힘을 더 실어 목소리를 높였다.

"자, 봐요! 우리가 여기서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잖아요. 자, 일어나요!"

그는 노인을 향해 더 세차게 몸을 흔들었다.

노인은 짜증을 내며 귀찮은 사람을 밀어냈다. 잠시 동안 다시 잠에 빠지려 애썼지만, 결국 참다 못한 그는 몸을 돌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참을 수가 없군!"

제15장

세 공범자는 프랑스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슬랭 용어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뜻밖의 외침이 가진 진짜 뜻을 단 한 순간도 오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보르스키는 콘라드와 오토를 돌아보며 물었다.

"뭐라고? 뭐라고 했어?"

"네, 네. 잘 들으셨어요… 맞아요…" 오토가 답했다.

결국 보르스키는 다시 한번, 낯선 남자의 어깨를 건드려 보았다. 남자는 침상 위에서 몸을 뒤집더니, 몸을 쭉 펴고 하품을 하며 다시 잠들 듯했다. 그러다 이내 굴복한 듯, 반쯤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아, 도대체! 이 상자 안에서 마음 놓고 낮잠도 못 자는 건가?"

갑자기 빛줄기가 그를 향해 쬐이자, 그는 눈을 부비며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뭐야? 나한테 뭐가 필요해?"

보르스키는 벽면의 오목한 곳에 등불을 내려놓았다.

그리곤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다.

불일치한 불평을 계속 내뱉던 노인은 대화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점차 진정되었다.

심지어는 친근한, 거의 미소 띤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외쳤다.

"아, 그렇군! 넌 바로 보르스키로구나? 잘 지내냐, 늙은 친구?"

보르스키는 몸을 움찔했다. 노인이 자신을 알고, 심지어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은 그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예언자처럼 기다려지고 있다는, 일종의 신비로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언자라니. 영광에 싸인, 깨달은 사명의 전도사로서, 나이와 사제적 위엄으로 두 겹의 위엄을 두른 낯선 이 앞에 서 있는데, '오래된 가지'라는 호칭으로 맞이하다니. 이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그는 망설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누구를 마주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여기에 계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대방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자, 그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다.

"제발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고?" 노인은 쉰 목소리로 되받았다. "테우타테스, 갈리아의 신이여! 당신 같은 놈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 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건가? 자, 기억을 더듬어 봐. 세게낙스. 기억나지? 벨레다의 아버지. 레돈족 사이에서 존경받던 법관, 샤토브리앙의 『순교자들』 제1권에 나오는 그 세게낙스 말이야. 아, 이제 생각이 나는 모양이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르스키가 외쳤다.

"나는 노래하지 않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예전에 나를 이 곳으로 이끌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설명할 뿐이야. '바람피웠다'는 뜻으로 'faute'라고 표현했지. 스캔들투성이인 벨레다가 불길한 유토르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경멸을 느꼈거든.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트랩 수도원에 입문했다'고 할 수 있어. 즉, 드루이드학 학사 시험을 화려하게 합격한 거지."

"그 이후로 몇 가지 말썽이 있었어. 하지만 oh! 거의 아무것도 아니야. 마빌과 나중에 무랭루즈가 나를 끌어당겼던 수도향으로 향했던 삼사 번의 항해일 뿐이지. 그 이후로 나는 이 곳에서 맡은 작은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네가 보는 것처럼 아주 한가한 직책이지. '바위신의' 수호자라니, 뭐, 그냥 숨어 있는 자리랄까!"

보르스키는 매 마디마다 더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확인했다.

"그 녀석의 머리를 박살내야 해. 그게 내 생각이고, 나는 그 생각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어."

콘라드가 반복해서 말했다.

"너는 어때, 오토?"

"난 조심해야 한다고 봐."

"물론이지. 조심하는 게 맞지."

하지만 늙은 드루이드는 그 말을 들었다. 지팡이에 의지해 몸을 일으키며 그는 외쳤다.

"무슨 뜻이야? 나를 의심하다니! 이거 좀 심하지 않아? 나를 사기꾼이라니!

내 도끼를 못 봤어? 그리고 도끼 자루에 새겨진 팔괘 문양은? 팔괘, 태양의 카발라적 상징이잖아. 그리고 이건 뭐야? (그가 고슴도치 목걸이를 가리켰다) 이건 뭐지? 토끼 똥이라고? 너 정말 대범하네. 뱀알을 토끼 똥이라 부르다니. '그들이 서로 섞인 침과 거품으로 끝내 만들어 내고, 휘파람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뱉어내는 알'이라고.

플리니우스가 직접 한 말이라고! 플리니우스까지 사기꾼이라 부를 생각은 아니겠지? 정말 말도 안 돼.

나를 의심하다니? 나는 고대 드루이드의 모든 자격증, 면허증, 특허증, 플리니우스와 샤토브리앙이 서명한 증명서를 모두 갖고 있는데. 정말 대범해!

진짜로, 나 같은 정통 고대 드루이드를 또 찾아볼 수 있겠어? 시대도 맞고, 오래된 빛깔과 세월에 얼룩진 수염까지 갖춘.

나를 사기꾼이라니? 나는 모든 전통을 소유하고 있고, 옛날 풍습을 마구操縱하는 사람인데. 내가 고대 드루이드의 춤을 추어주지? 줄리어스 카이사르 앞에서 추었던 바로 그 춤을.

좋겠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노인은 지팡이를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기이한 발놀림과 난폭한 점프를 선보였다. 그 유연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다리를 사방으로 튕기며 도는 모습은 정말 웃겨 보였다. 튜닉 아래로 드러난 다리가 요동칠 때마다, 그의 수염도 몸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쉰 목소리는 차례차례 다른 선율을 알렸다.

"고대 드루이드의 발걸음, 혹은 쥘 카이사르의 쾌감. 오, 저기! 거룩한 산토林的의 춤, 흔히 성 비틀거림 춤이라 불리는 그 춤! 플리니우스의 음악이 곁들인 뱀 알의 왈츠… 오, 저기! 저기! 더 이상 우울증 따위

는 없다! 보르스카, 혹은 서른 개의 관의 탱고! 붉은 예언자의 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자에게 영광을!"

그는 잠시 더 미친 듯이 점프를 하더니, 갑자기 보르스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쯤에서 수다를 멈추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나는 너에게 '신석'을 건네는 임무를 맡았다. 이제 네가 확신했으니, 화물을 인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세 공범자는 완전히 당황해 했다. 보르스카는 할 말이 없었다. 이 저주받은 인물이 대체 누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야, 내게 얹지 마! 화가 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원해?"

"내 목적이라니?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나? '신석'을 네게 돌려주러 왔다고."

"그런데 무슨 권리로? 어떤 자격으로?"

늙은 드루이드이 고개를 저었다.

"응,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 네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지. 당연한 일이야, 그렇지?

네가 여기로 날아들었잖아. 신이 나서, 해낸 일이 자랑스럽고. 그걸 생각해 봐. 관 서십 개 분량, 십자가에 못 박힌 네 명의 여자, 난파, 피로 얼룩진 손, 주머니 가득한 범죄.

이런 건 사소한 일이 아니야. 넌 거창한 환영을 기대했을 거야. 공식적인 의식과 장엄한 행렬, 고대의 합창단과 예언자들, 바드들의 행진, 성배와 인간 제사, 그러니까 아주 격식 있는 갈리아식 대접을.

그런데 대신 여기 있는 건, 구석에서 졸고 있는 불쌍한 드루이드 하나뿐이야. 그리고 그 녀석은 거침없이 물건을 건네줄 뿐이지.

참으로 처절한 추락이군,各位!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야, 보르스키. 각자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지. 나한테 돈이 많지 않아. 흰 저고리 몇 벌을 세탁해 주는 것 말고, 이미 벼랑불과 화염 분출, 야간 지진 효과에 쓰일 돈으로 일삼십 프랑 사십 센트를 이미 선불로 줬잖아.”

보르스키는 격분하여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당연히 나잖아. 대체 누가 더 있겠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도?”

보르스키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제 밤 자신이 쫓아냈던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바로 이 사기꾼 그 자신이었다.

"아!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네놈을 속이려고?" 노인이 외쳤다. "넌 참으로 재주가 많구나, 내 친구. 대체 누가 나를 맹수처럼 쫓아다녔길래, 나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단 말인가? 누가 내 첫 번째 군복에 총알 두 발을 박아 넣었단 말인가? 정말 골치 아픈 상대였군. 다음부터는 장난을 치지 말아야지."

"够了, 够了!" 보르스키는 격분하여 중얼거렸다. "더 이상은 안 돼! 마지막으로 묻겠다.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나는 '신의 돌'을 너에게 건네라는 임무를 맡았지."

"누구로부터?"

"아, 내가 어떻게 알겠나! 솔직히 말해서, 난 항상 이 생각이 머리 속에 박혀 있었어. 어느 날 사렉에 '보르스키'라는 게르만 공작이 나타나서 자신의 서른 번째 희생자를 죽일 거라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정해진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난 지시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작은 배낭을 챙겼지. 브레스트의 철물점에서 벵갈 불꽃 두 개를 샀어. 하나에 3프랑 75센트. 그리고 골라 놓은 폭죽 몇 개도 함께. 정해진 시간이 되자, 난 내 관측소라고 부르는 곳으로 올라갔어. 손에는 쥐 한 마리를 들고 말이지.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어.

그런데 너는 나무 꼭대기에서 '죽었어! 죽었어!'라고 비명을 지르잖아. 그 순간이 바로 제때라고 생각했지. 나는 벵갈 불꽃에 불을 붙이고, 폭죽을 터뜨려 땅속을 진동시켰어.

이제 다 알았지?"

보르스키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발짝 다가섰다.

그토록 쏟아져 나오는 말들, 변함없는 차가운 태도, 끝없는 수다, 그리고 경멸 섞이면서도 평온한 목소리. 그것들이 모두 그를 격분시켰다.

"한 마디만 더 하면, 너를 때려눕힐 거야!" 그가 외쳤다. "이제 정말 지쳤어!"

"너 이름이 보르스키냐?"

"그래, 그리고?"

"게르만 공작이냐?"

"그래, 그래, 그리고?"

"너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죽였느냐?"

"그래! 그래! 그래!"

"좋아. 그럼 넌 내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야. 내가 너에게 '기적의 돌'을 건네야 해. 어떻게든 건네야 해. 그게 내 스타일이니까. 너는 그 기적의 돌을 먹어야 해."

"기적의 돌 따위, 나는 관심 없어!" 보르스키는 발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너 따위도 관심 없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기적의 돌? 내가 가지고 있어. 내 거야. 내가 소유하고 있지."

"보여 줘."

"이건 뭐지?" 보르스키는 지팡이 손잡이에서 꺼낸 작은 구슬을 내보이며 물었다.

"이게 뭐라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서 주워 온 거야?"

"이 지팡이 손잡이 안에 있었어. 나 돌리면서 뜯어냈거든."

"그럼 이건 대체 뭐란 말이야?"

"'신의 돌'의 조각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럼 너 생각엔 이게 뭐야?"

"이건 바지 단추야."

"뭐?"

"바지 단추."

"증거라도 있어?"

"손잡이가 부러진 바지 단추지. 사하라의 흑인들이 쓰는那种 단추야. 나한테 그런 단추로 만든 장신구가 다 있어."

"증거라고, 천벌 받을 놈!"

"내가 직접 넣은 거야."

"왜 넣었지?"

"마귀노크가 훔쳐간 보석을 대신 넣으려 그랬지. 그 보석이 그를 태우고, 결국 그의 손을 잘라내게 만든 그 보석을."

보르스키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혼란에 빠졌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이 특이한 상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노령의 드루이드가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고 자상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보라, 내 아들아. 너는 나 없이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 자물쇠의 열쇠와 금고의 비밀번호는 오직 내게만 있다. 왜 망설이는 거냐?"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아이구, 그거야! 네가 내 제안을 불쾌하게 여긴다면, 네가 내게 건넨 게 예의에 어긋나고 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내가 제안하는 건, 가장 까다로운 양심조차 상하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맞아? 아니? 아직 안 됐어? 테우타테스 신이시여,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거야, 의심 많은 보르스키? 기적이라도 바라는 건가? 주님, 왜 일찍 말하지 않으셨소? 하지만 기적? 내가 만드는 기적은 한두 개가 아니야. 매일 아침 우유 커피를 마시면서 작은 기적을 하나씩 만들어내. 생각해보라, 드루이드란 말이지! 기적이야? 내 가게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 어디에 앉을지 모르겠어. 뭘 더 좋아하냐? 부활의 빛?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 드러난 미래? 네가 고를 게 너무 많아. 자, 네 서른 번째 희생자는 몇 시에 마지막 숨을 거뒀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열한 시 오십이 분. 너무 놀라셔서 시계가 멈췄죠.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감정의 충격이 시계에 영향을 미칠 리 없었다. 그럼에도 Vorski는 어쩔 수 없이 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정확히 열한 시 오십이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시계줄을 돌렸지만, 시계는 이미 고장 난 상태였다.

구 Druid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계속했다.

"놀랐죠?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조금은 실력 있는 Druid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Druid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Vorski,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죠? Vorski라는 이름 말고, 진짜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요?"

"이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보르스키가 명령했다. "이건 내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이다."

"그럼 왜 글로 적어두는 거야?"

"난 그걸 쓴 적이 없어."

"보르스키, 네 아버지의 이름이 네 품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노트의 열네 페이지에 빨간 연필로 적혀 있어. 확인해 봐."

보르스키는 무의식적으로, 남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인형처럼 가슴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흰 종이들이 꿰매어 붙어 있는 노트가 들어 있었다. 그는 열네 페이지까지をめくり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누가 이걸 썼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당신도 알고 있다니…"

"내가 증명해 줄까?"

"다시 한번 침묵이야! 내가 금지했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친구. 내가 이걸 하는 건 네게 교훈을 주려는 거야. 내게는 별것도 아닌 일이지. 한번 기적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하나 더 해볼까, 웃음거리로."

"네 목에는 은사슬 끝에 메달리온을 달고 있지 않아? 셔츠 안쪽, 목에 걸고 있는."

"네." 보르스키는 열정에 눈이 빛나며 대답했다.

"그 메달리온은 예전에 사진을 담고 있던 빈 틀이야?"

"네, 네…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죠."

"어머니 초상화, 잃어버린 그 사진 말이지."

"작년 잃어버린 사진입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메달리온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믿는 거지. 비어 있지 않아. 봐."

보르스키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셔츠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목걸이 고리를 당겼다.

메달리온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빛 테두리 안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다… 바로 그녀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틀림없어?"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가짜가 아니야. 허세도 아니지. 구드루이드라는 자는 만만치 않은 놈이야. 너는 그자를 따라가는 게 좋겠지?"

"네."

보르스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 남자는 그를 압도했다.

그의 미신적인 본능, 신비로운 힘에 대한 선조적 믿음, 불안하고 불안정한 성향—all이 그를 절대적인 복종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그것이 그를 따르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다.

그가 물었다.

"얼마나 멀어?"

"바로 옆이야. 큰 거실에."

오토와 콘라드는 그 대화를 듣고 말 그대로 경악했다. 콘라드가 항변하려 했지만, 보스키가 그의 입을 막았다.

"두렵거든 가라. 그건 그렇고."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늘어놓으며 덧붙였다. "우리는 총을 손에 쥔 채로만 움직일 거야. 조금이라도 위험이 보이면 사격해."

"나를 향해 쏜다고?" 노 드루이드이 비웃었다.

"누구에게나. 적이 보이면."

"좋아. 그럼 네가 먼저 가봐, 총잡이 보스키."

상대방이 반발하자,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총잡이 보스키라… 그 말이 재미없어 보이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재미라도 봐야지. 어째, 가지 않겠어?"

그는 두 사람을 동굴 끝까지 데려갔다. 등불빛이 비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벽 바닥에 파인 틈새를 보았다. 그 틈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어졌다.

잠시 망설이던 보르스키는 결국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였다. 그는 무릎과 손을 짚고 기어 다녀야 했다.

그가 드디어 큰 방 입구에 도착한 것은, 일 분 뒤였다.

다른 이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노인의 드루이드가 장엄한 어조로 선언했다.

"바위 신의 방."

그곳은 깊고 장엄했다. 아래에 펼쳐진 광장과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광장에 서 있던 돌기둥들, 마치 거대한 신전의 기둥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같은 곳에, 같은 줄을 이루며 섰다. 광장의 돌들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바닥은 거대하고 불규칙한 돌판으로 되어 있었다. 그 위를 작은 물길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온 빛이 돌판 위에 반짝이는 원형으로 퍼져 있었다. 빛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마귀노크 정원 아래에는 석조 가설물이 서 있었다. 높이가 사오 미터쯤 되었을 것이다.

그 위에 두 다리가 튼튼한 돌멘이 있었다. 그 위에는 길쭉한 타원형의 화강암 상판이 놓여 있었다.

"저게 맞습니까?" 보르스키는 목이 메어 물었다.

노인 드루이드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어때? 우리 조상들이 건축할 때 정말 천재였지? 상상력을 발휘해 어떻게든 남의 시선을 피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조사도 막아냈어.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우리는 섬 속 깊은 곳에 있는데, 외부로 향한 창문 하나 없어. 빛은 위쪽의 멘히르들에서 들어와. 저 돌들은 위아래로 통로가 뚫려 있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풍부한 빛을 쏟아내. 정오에 해가 뜨면 그 빛이 마법처럼 번져. 예술가인 넌 감탄에 찬 비명을 지를 정도야."

"그렇다면, 바로 그 섬이 맞습니까?" 보르스키가 되물었다.

"어쨌든 그건 신성한 돌입니다." 고대 드루이드 신을 믿는 노인이 차갑게 단언했다. 그가 지배하던 그 장소는 지하 제단이었으며, 모든 제단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돌이 하나 있었다. 돌멘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으며, 지금 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돌 위에서 그들은 최고의 희생물을 바쳤다. 피는 제단에서 흘러내렸고, 모든 물길로 퍼져 나갔다. 절벽을 따라,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보르스키는 점점 더 초조해지며 물었다.

"그게 그 돌이군요? 앞으로 갑시다."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은 짜증 날 정도로 평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그 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돌을 보려면, 당신은 머리를 조금만 들어올리면 됩니다."

"어디에요? 정말 확실합니까?"

"봐라, 분명히! 상단 탁자 위를 보라. 천장을 이루는 아치형 구조물, 마치 큰 판석들이 모자이크처럼 박힌 곳 말이야. 거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판석이 하나 있잖아? 아래 탁자와 길이가 같고, 모양도 비슷하게 다듬어져 있어. 마치 자매처럼 생겼지.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중 하나뿐이야. 제조사 표식이 새겨진 판석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르스키는 실망했다. 그는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숨겨진 공간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게 바로 '신의 돌'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특별해 보이는 건 전혀 없는데요."

"먼데서 보면 그렇지 않아. 가까이서 보면 알 거야. 색이 흐르는 맥이 있고, 빛나는 광맥이 있으며, 특별한 결이 있어. 뭐, 요컨대 '신의 돌'이잖아. 게다가 그 가치는 재료 자체보다 기적 같은 성질에서 오는 거라고."

"어떤 기적이라는 건가?" 보르스키가 물었다.

"그녀는 죽음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해. 알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많이 주지."

"무엇들이지?"

"젠장! 너 너무 많이 묻는군. 나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모른다고요……"

노령의 드루이드가 몸을 굽혔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들으라, 보르스키. 나는 조금 과장한 감이 있어. 내 역할은 지극히 중요해. '석판의 수호자'라는 자리, 최전방의 요직이니까. 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높은 권능에 의해 내 역할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어떤 권능이죠?"

"벨레다의 권능이지."

보르스키는 다시 그를 주시하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벨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렇게 부르는 이, 마지막 드루이드 여사제야. 그녀의 진명은 나도 모르지."

"그녀는 어디에 있나?"

"네, 제단 돌 위에요. 그녀가 잠들어 있습니다."

"뭐? 잠들어?"

"수백 년째, 영원부터요. 저는 그녀가 항상 그런 순결하고 평온한 잠결로만 알았어요. 숲속의 잠자는 미녀처럼, 베를레다도 신들이 깨우라고 지명한 이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바로 당신이에요, 보르스키."

보르스키는 눈썹을 찌푸렸다. 도대체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결국 무엇을 말하려던 것인가?

늙은 드루이드가 말을 이었다.

"기분이 상했나 보군? 자,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등 뒤에 관이 서른 개나 얹혔다고 해서 '착한 왕자'가 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너는 너무 겸손한 걸세, 내 친구. 어쨌든, 내가 한 가지 말해 줄까? 벨레다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초자연적이야. 아, 내 친구, 네가 눈이 빛나고 있군? 아냐? 아직 안 되나?"

보르스키는 망설였다. 그는 정말로 위험이 자신 주변을 감싸고, 일렁이던 파도가 점점 커져 마침내 부서지듯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노인은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소, 보르스키. 동료가 듣지 않도록 낮게 말하는 거니 귀 기울여라. 네가 어머니를 관에 모실 때, 어머니의 강한 뜻에 따라 손가락 마디에 끼워둔 반지가 있었지. 그 반지는 어머니가 평생 떼지 않던 마법의 반감이었어. 큼직한 터키석이 중심에 있고, 그 둘레로 작은 터키석들이 금띠에 박혀 있었소. 내가 맞는가?"

"아니요." 보르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을 뿐, 그 누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르스키, 만약 그 반지가 벨레다의 손가락에 있다면, 너는 믿겠는가? 그리고 어머니가 무덤 속에서 벨레다를 보내 너를 맞이하고, 직접 그 기적의 돌을 건네주었다고 생각하겠는가?"

보르스키는 이미 돌무더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첫 번째 계단을 올랐다. 머리가 플랫폼 높이까지 올라왔다.

"아!"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반지…… 반지가 손가락에 끼어 있군."

돌멘 기둥 두 개 사이, 제물의 상 위에 누워 있는 드루이드 여사제는 발끝까지 흰 옷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몸통과 얼굴은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고, 이마에 걸쳐진 베일이 머리카락을 가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팔이 거의 드러난 채 상 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검지에는 터키석 반지가 끼어 있었다.

"정말 어머님의 반지 맞나?" 늙은 드루이드가 물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보르스키는 재빨리 돌멘과 자신을 가로막던 거리를 건너, 몸을 굽혀 거의 무릎을 꿇은 채 터키석들을 살피고 있었다.

"숫자도 맞지 않아. 하나는 갈라졌고, 다른 하나는 접어 올린 금박 잎 아래로 절반이나 사라졌어."

"그렇게 조심할 필요 없어." 노인이 말했다. "그녀는 듣지 못해. 네 목소리로 깨울 수도 없지. 오히려 일어나서 이마에 손가락을 가볍게 대보게. 마법적인 애정이 그녀를 깊은 잠에서 깨울 거야."

보르스키는 일어섰다. 하지만 그 여자를 만지는 것을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앞질러 넘을 수 없는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너희 둘은 가까이하지 마라." 늙은 드루이드가 오토와 콘라드에게 말했다. "벨레다의 눈이 뜨일 때, 그 시선은 오직 보르스키에게만 머물러야 해. 다른 어떤 모습에도 놀라서는 안 되지."

"자, 보르스키. 무서워?"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하지만 네 컨디션이 안 좋군. 살인하는 게 부활시키는 것보다 훨씬 쉬워, 그렇지? 자, 팔 좀 써 봐. 베일을 걷어내고 이마를 만져 봐. '신석'이 네 손에 들어온 거야. 행동해. 그러면 네가 이 세계의 주인이 돼."

보르스키는 행동에 나섰다. 희생 제단 옆에 서서 그는 드루이드 여사제를 압도하는 자세였다. 그는 고동치는 듯 움직이지 않는 시신 위로 몸을 숙였다. 흰 튜닉이 규칙적인 호흡에 따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는 손으로 베일을 걷어냈고, 이어 다른 손이 드러난 이마를 스칠 수 있도록 몸을 더 낮췄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동작은 공중에 멈춰 섰다. 그는 꼼짝도 못한 채 서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 어리둥절해 하며 도무지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 대체 뭐야, 친구?" 드루이드가 외쳤다. "너 얼굴이 말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은데. 또 무슨 소동이라도?"

"잘못된 게 있는 건가? 내가 도와줘야 하나?"

보르스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그러나 경악과 공포가 점차 미친 듯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멍하니, 가장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사람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은 폭소를 터뜨렸다.

"세상아, 너 정말 추잡하구나! 마지막 드루이드 여제가 눈을 뜨고 네 그 끔찍한 얼굴을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자, 잘 자라, 벨레다야. 꿈 없는 순수한 잠에 빠지렴."

보르스키는 완성되지 않은 말들을 씹어 삼키며, 점점 커지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번개처럼 스치는 순간, 진리의 일부분이 그를 비췄다.

한 단어가 입술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발음하기를 거부했다. 마치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 즉 죽은 여자, 아니 분명히 죽은 여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까 봐 두려운 듯했다.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죽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죽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입을 열었다. 각 음절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랐다.

"베로니크…… 베로니크……"

"그녀가 그와 비슷해 보이니?" 늙은 드루이드가 비웃었다.

"글쎄, 아마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가족 같은 기색이랄까."

"그래! 네가 직접 저 여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또 그 여자의 마지막 숨결을 직접 들었더라면, 넌 두 여자가 실은 한 사람이며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이 살아있고, 심지어 상처도 입지 않았다고, 흉터 하나 없으며, 손목에 밧줄 자국조차 남지 않았다고 맹세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봐라, 보르스키. 얼마나 평온한 얼굴인가! 얼마나 안도되는 고요함이 느껴지는가!"

"내 말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군.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여자가 다른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곰곰이 생각해 봐."

"아, 또 시작이군! 자꾸 내 탓을 하네. 도와주시오, 테우타테스 신이여! 예언자가 나를 망쳐놓으려 하네."

보르스키가 몸을 일으켰다. 이제 그는 늙은 드루이드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분노로 빚어진 듯했다. 결코 이보다 더한 증오와 분노를 드러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늙은 드루이드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한 시간 동안 보르스키를 아이 장난감처럼 놀려먹은 장본인이었다. 동시에 그는 가장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인물이었다.

그 순간 보르스키에게 드루이드은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적으로 비쳤다.

이런 남자는 반드시 처리해야 했다.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난 죽었다. 노인이 말했다. '어떤 소스로 나를 먹을 셈이지? 천하의 괴물이라니! 도와줘! 살인자다! 아, 나를 질식시킬 그 철손가락들을! 아니면 칼일까? 아니면 로프일까? 아니, 총이군. 오히려 그쪽이 낫다. 더 깔끔하니까. 가라, 알렉시스. 일곱 발 중 이미 두 발이 내 첫 번째 저고리를 뚫었어. 다섯 발이 남았지. 가라, 알렉시스.'

각자의 말이 보르스키의 분노를 한층 더 부채질했다. 그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명령했다.

'오토… 콘라드… 준비됐나?'

그가 팔을 뻗었다. 두 동조자들도 동시에 무기를 겨눴다. 사 보 앞, 노인은 웃으며 사정을 구걸하고 있었다.

"제발, 좋은 분들이여. 불쌍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전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을 테니까요. 좋은 분들이여…"

보르스키가 폭발하듯 외쳤다.

"오토… 콘라드… 주의해! … 셈할게요. 하나… 둘… 셋! 사격!"

세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드루이드는 빙글 돌아서 다시 제자리를 잡더니, 적들을 향해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맞았군! 뚫렸어! 앞뒤로 관통했지! 말 다한 죽음이야! … 끝났어, 늙은 드루이드! … 비극적인 결말! 아, 수다를 떨기를 좋아하던 그 불쌍한 늙은 드루이드가!"

"사격!" 보르스키가 고함쳤다. "미친놈들아, 쏴! 사격!"

"사격! 사격!" 드루이드가 되뇌었다. "팡! 팡! 팡! 팡! 심장을 꿰뚫어라! … 더블 스코어! … 트라이플 스코어! 오토에게, 팡! 팡! … 오토에게."

방대한 홀 안으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공범들은 표적 앞에 벌벌 떨며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노인을 쏘아보았다.

그런데 그 노인은 불패의 존재처럼 춤을 추듯 몸을 움직였다. 거의 쪼그려 앉았다가가 하면, 놀라운 민첩함으로 날아오르기를 반복했다.

"크레블뤼, 동굴 밑바닥에서 이렇게 신나게 놀 줄이야! 그리고 넌 정말 바보야, 보르스키! 천하의 예언자라니, 참으로 한심하군! 대체 어떻게 저걸 다 삼켰어? 벵갈 불꽃도, 폭죽도, 그리고 바지 단추도! 그리고 노모의 반지도! 야, 이 멍청이! 정말 재주 많구나!"

보르스키가 발걸음을 멈췄다. 세 권총이 이미 총알을 다 써버렸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일일까? 이 기묘한 사건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에게 맞서는 그 악마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쓸모가 된 총을 내려다보고는 던져버렸다. 노인을 향해 달려가 팔로 조여 죽이려 할 것인가? 그는 여성 쪽도 주시하며 그녀에게 덤빌 준비를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이 두 기이한 존재와 더 이상 맞서 싸울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때, 보르스키는 재빨리 몸을 돌리며 동료를 불렀다.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다. 뒤에서는 늙은 드루이드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됐어! 저 녀석이 달아나 버렸네. 그런데 그 '신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대체 저렇게 왜 도망가는 거지? 엉덩이에 불이 붙었나? 야! 야! 가라, 예언자여!"

제16장

보르스키는 결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마도 도망친 것도 진정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에 빠진 그는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생각들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거기에는 회복 불가능한 패배에 대한 직관이 지배하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운명적 인물인 보르스키가 자신의 사명을 잃고, 새로운 운명의 선택자로 교체된 것 같았다. 그는 마법과 기적을 믿는 사람이었다.

두 가지 초자연적인 힘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하나는 보르스키에게서, 다른 하나는 늙은 드루이드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첫 번째 힘을 삼켜 버렸다.

베로니크의 부활, 늙은 드루이드의 존재감, 그의 연설과 농담, 요술 같은 동작과 행동, 그리고 그 인물의 불가사의한 무적함까지. 모든 것이 마법 같고 전설처럼 느껴졌다.

야만적인 시대의 동굴 같은 이 공간은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공기는 그를 어지럽게 하고, 숨 막히게 했다.

그는 땅 위로 다시 올라가고 싶었다. 숨을 쉬고, 세상을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보고 싶었던 것은 가지를 모두 베어낸 나무였다. 그 나무에 베로니크를 묶어두었고, 베로니크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말 죽었지. 틀림없어."

그는 좁고 어두운 통로 바닥을 기어 옮기며 이를 갈았다. 이 통로는 세 번째이자 가장 큰 크립트와 이어져 있었다.

"정말 죽었어… 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 죽음을 여러 번 손에 쥐어봤지. 속을 수 없어. 그럼 그 악마는 어떻게 그녀를 다시 살렸단 말인가?"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막 주워 든 지팡이가 놓인 나무 받침대 옆이었다.

"아니면…."

그가 중얼거렸다.

뒤따라오던 콘라드가 외쳤다.

"수다 떨지 말고 서둘러요."

보르스키는 끌려가듯 따라나섰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콘라드, 내 생각이 뭔지 들어볼래? 우리가 보고 자고 있는 그 여자는 바로 그녀가 아니었어. 정말로 살아있던 여자였을까? 그 늙은 마법사는 뭐든 할 수 있어. 어쩌면 왁스 인형을 만들어 그녀의 얼굴을 닮게 했을지도 몰라."

"당신 미쳤어요. 어서 가요!"

"미친 게 아니야. 그 여자는 살아있지 않았어. 나무 위에서 죽은 여자는 정말로 죽었어. 그리고 그 여자를 꼭대기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게 맡겨.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적은 아니야."

랜턴을 잃은 세 공범자는 벽과 좁은 돌에 부딪히며 길을 잃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천장마다 울려 퍼졌다. 콘라드는 끊임없이 투덜거렸다.

"내가 말했잖아… 머리를 부수는 게 좋았어." 오토는 숨을 헐떡이며 말없이 따라갔다.

이들은 더듬더듬 발걸음을 옮겨, 묘실 입구로 이어지는 현관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이 어둠에 잠겨 있다는 사실에 모두 당황했다.

죽은 참나무 뿌리 아래에 뚫어놓은 통로에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야 했는데도 말이다.

"이상하군요." 콘라드가 말했다.

"뭐, 괜찮아. 벽에 붙은 계단을 찾으면 돼. 어, 찾았네. 여기 한 계단 있고, 다음 계단도…"

otto가 그 계단을 올라갔지만, 거의 즉시 발걸음을 멈췄다.

"앞으로 더 갈 수가 없군. 무너진 것 같아."

"말도 안 돼." 보르스키가 반박했다. "잠깐만, 내가 라이터를 가져왔지."

그가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세 사람 모두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계단 위쪽 전체와 방의 절반이 돌과 모래 더미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에는 죽은 참나무가 미끄러져 들어와 있었다. 도망칠 길은 완전히 막혔다.

보르스키는 잠시 정신을 잃고 계단 위에 쓰러졌다.

"우린 끝장 났어… 이 저주받은 노인이 이 모든 것을 꾸몄군. 그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는 힘없이 신음하며 이성적인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불리한 싸움이라 더 이상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하지만 콘라드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보르스키. 네가 이렇게 변질되다니."

"이 노인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내가 스무 번이나 말했잖아. 목을 조르는 거야. 아,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너희 총알이 그에게 닿았나?"

"총알이라니…… 총알이라니." 콘라드가 중얼거렸다. "전체 상황이 너무 수상해. 라이터 좀 빌려줘. prieur에서 가져온 다른 권총이 있어. 어제 아침 내가 직접 장전했던 거야. 직접 확인해 볼게."

그는 무기를 살펴보다 곧真相을 깨달았다. 회전통에 들어 있던 일곱 발의 총알은 모두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로 교체되어 있었다. 당연히 총구는 소리만 내고 총알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다야. 설명은 간단해. 너희의 늙은 드루이드 마법사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야. 만약 진짜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다면, 그는 개처럼 쓰러졌을 거야."

하지만 그 해명은 보르스키의 경악을 오히려 더 깊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총을 빼앗았단 말인가? 언제 우리 주머니에서 총을 꺼냈고, 무해하게 만든 뒤 다시 넣었단 말인가? 나는 단 한 순간도 내 권총을 놓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집니다." 콘라드가 시인했다.

"누가 내 총에 손을 대도 내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다면, 이 악마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는 비밀을 품고 있는 남자다. 그리고 특단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수단으로든."

콘라드는 어깨를 으쓱였다.

"보르스키 씨, 이 사건이 당신을 망쳐놓았군요. 당신은 이미 승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에 부딪히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형체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패배라고요? 왜요? 만약 그가 우리를 쫓아온다면, 우리는 세 명이나 됩니다."

"그는 오지 않을 거야. 우리在这儿를 내버려두고, 구멍 뚫린 굴속처럼 빠져나갈 곳 없는 곳에 가둘 거야."

"그럼, 그가 오지 않을 때 내가 다시 저기로 돌아가겠어. 칼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콘라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야? 난 그 노파보다 낫지. 게다가 그를 도와줄 건 잠든 여자 하나뿐이니까."

"콘라드, 그건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여자도 여자가 아니지. 조심해."

"난 조심하고 있어. 하지만 전진할 거야."

"전진한다니… 전진한다고? 대체 네 계획이 뭐야?"

"나는 계획이 없어. 아니, 하나 있을 뿐이지. 그 녀석을 제거하는 것."

"그래도 조심해… 정면으로 덤비지 말고, 기습을 노려."

"물론이지." 콘라드가 떠나가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서, 자기가 나서서 그의 칼을 맞을 리가 없지. 안심해라. 내가 그 녀석을 잡았어!"

콘라드의 그 대담한 태도가 보르스키를 안심시켜 주었다.

공범자가 떠난 뒤, 보르스키가 중얼거렸다.

"어쨌든, 저 녀석이 말이 맞군. 만약 그 늙은 드루이드가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셈이야. 분명히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테고, 콘라드가 기습을 걸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오토, 너 생각은 어때?"

오토도 같은 생각이었다.

"기다릴 수밖에 없지."

15분이 흘렀다. 보르스키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 갔다. 그는 지나치게 큰 희망과 그 뒤따른 깊은 실망 때문에 잠시 위축됐던 것이다. 알

코올의 영향으로 피로와 무기력함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금 싸움에 대한 열정이 그를 흥분시켰고, 그는 적과 결판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마 콘라드가 이미 상대를 무력화시켰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는 지나친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는 그의 정신이 이미 균형을 잃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는 곧장 다시 움직이려 했다.

"자, 오토. 이제 여행은 끝이야. 그냥 늙은이 한 명 처리하면 끝이지. 너 칼 가지고 있지? 아무래도 필요 없을 것 같군. 내 두 손만 있으면 충분해."

"그 드루이드가 친구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봐야 알지."

그는 다시 묘실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묘실과 묘실을 잇는 통로 입구를 살폈다. 주변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오직 세 번째 묘실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만이 그들을 안내할 뿐이었다.

"콘라드는 분명 성공했을 거야." 보르스키가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싸움을 걸지 않고 우리 쪽으로 후퇴했을 테니까."

오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시했다.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신호야. 늙은 드루이드는 아마 한바탕 심부름을 했겠지. 콘라드는 당당한 녀석이니까."

그들은 세 번째 지하 묘실로 들어섰다. 사물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지팡이는 받침대 위에, 보르스키가 풀었던 손잡이는 조금 떨어진 바닥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늙은 드루이드가 잠들어 있던 그 어둠의 구멍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 노인이 다시 보였기 때문이다.

정확히 같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어둠의 구멍과 복도 출구 사이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 저게 뭐야?" 그는 이미 익숙지 않은 그 존재에 의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다. "아니, 자고 있는 것 같아!"

늙은 드루이드는 정말로 잠든 듯 보였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런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대고 팔을 십자 모양으로 쭉 뻗은 채 코를 땅에 대고 누워 있었던 걸까?

자신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가 적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보르스키의 시선은 뒤쪽 크립트의 어스름한 어둠을 뚫고 들어갔다. 흰 가운에는 붉어 보이는 얼룩이 박혀 있었다. 붉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왜일까?

otto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자세다."

보르스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그래, 시체 같은 자세야."

"시체 같은 자세라니, 그 말이 딱 맞네." 오토가 동의했다.

잠시 후, 보르스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세상에, 믿을 수 없군."

"뭐야?" 다른 쪽이 물었다.

"어깨 두 개 사이를 봐. 저기."

"그래서?"

"칼이 있어."

"어떤 칼?"

"콘라드의 칼이야." 보르스키가 단호하게 말했다. "콘라드의 단도야. 내가 알아봐. 어깨 사이에 똑바로 꽂혀 있잖아."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빨간 얼룩들, 다 피야. 이 상처에서 흐르는 피라고."

"그렇다면," 오토가 지적했다. "죽은 거야?"

"죽었어. 그래, 늙은 드루이드는 죽었어. 콘라드가 그를 습격해서 죽인 거지. 늙은 드루이드가 죽었다!"

보르스키는 꽤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는 죽은 시체 위로 뛰어올라, 그제야 자신의 칼로 응징하려 했다. 하지만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감행할 수 있던 유일한 행동은, 재빨리 달려가서 상처에서 무기를 뽑아내는 것이었다.

"아, 저 도적아!" 그가 외쳤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었군. 콘라도 만만찮은 녀석이군. 콘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라."

"콘도 대체 어디에 있을까?"

"피에르디에우 방에 있겠지. 오또, 내가 그 늙은 드루이드가 저기에다 숨겨둔 여인을 다시 만나서, 그녀에게도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서 죽겠군!"

"당신은 그게 살아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또가 비웃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지! 마치 그 늙은 드루이드처럼 말이야. 그 마법사는 그저 속임수를 부리는 사기꾼일 뿐이었어. 자신만의 묘수를 가졌을 뿐이지, 실제 힘을 지니진 않았지.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야!"

"미치광이겠지. 하지만 그 신호로 동굴 위치를 알려줬잖아. 대체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뭘 하고 있었지? 정말로 '신석'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손에 넣는 방법과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

"맞는 말이야. 의문투성이지." 보르스키가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디테일을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을 꺼렸지만, 이런 의문들은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그 짜증 나는 인물이 내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좁은 연락 통로를 건넜다.

보르스키는 승자의 모습으로 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를 들고,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은 없었다. 적도 없었다.

천장 판석 사이로 매달려 보이는 것이 '신석'이든, 아니면 신석이 다른 곳에 있든, 그는 반드시 그 돌을 찾아낼 것이었다. 남은 과제는 한 사람뿐이었다. 베로니크처럼 보이지만, 결코 베로니크일 수 없는 그 여자를. 그는 곧 그녀의 정체를 벗겨낼 것이다.

"아직 그곳에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가 이미 떠났다고 의심해. 그녀는 구 드루이드의 음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그리고 그 구 드루이드는 내가 제거된 줄 알았으니까."

그가 한 걸음 더 내디뎌 계단을 올랐다.

그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돌멘의 아래쪽 돌 위에 누워, 예전처럼 베일로 둘러싸인 채였다. 팔은 더 이상 땅을 향해 늘어져 있지 않았다. 베일 사이로 드러난 것은 손뿐이었다. 그 손가락에는 터키석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오토가 말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보르스키가 말했다. "내가 직접 관찰해 보자. 내게 맡겨."

그가 다가갔다. 그는 콘라드의 칼을 아직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그 사실이 살인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이 칼을 내려다보았고, 비로소 자신이 칼을 쥐고 있으며,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그가 그 여성에게 단 세 걸음만 더 다가섰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드러난 한쪽 손목이 온통 멍들고, 마치 검은 얼룩무늬처럼 점점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이다. 그 얼룩은 분명히 로프가 손목을 조여 매었던 자국이었다.

하지만 한 시간 전, 늙은 드루이드는 그에게 손목에는 멍 자국이 하나도 없다고 일러준 바 있었다.

이 사소한 단서는 그를 다시 한 번 뒤흔들었다.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여성이 풀려나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단서는 그를 순식간에 기적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베로니크의 팔이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의 시야에 번갈아 나타났다. 하나는 생생하고 온전한 여성의 팔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게 짓눌린 희생자의 팔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단도를 꽉 쥐었다. 구원 그 자체인 무기라도 잡은 듯, 그는 그 칼에 매달렸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번 더 '치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을 테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때리고자 했다. 자신을 끝없이 쫓아오는 그 적을,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단번에 막아내고자 했다.

그가 팔을 들어 올렸다. 타격할 곳을 정했다.

얼굴이 가장 야만적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범죄의 기쁨에 눈이 빛났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덤벼들었다. 미친 듯이, 무작위로, 열 번, 스무 번. 모든 본능이 폭발하듯 격렬하게 내리쳤다.

"죽어라, 죽어라." 그는 더듬거렸다. "다시 죽어라. 그리고 모든 게 끝이 나게 해다오. 넌 나를 방해하는 악귀야. 내가 너를 소멸시키겠어. 그러니 내가 자유로워지도록 죽어라! 내가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려면 죽어야 해!"

그는 숨을 돌리기 위해 말을 멈췄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멍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척하며, 찢겨 나간 시체의 끔찍한 광경을 응시하고 있는 사이, 그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해가 위쪽 구멍으로 내려오는 빛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자신과 빛 사이에 끼어든 것 같았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떠올리게 하는지 알아?" 누군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경악했다. 그 목소는 오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죽은 여자의 시체에 꽂힌 채 어리석게도 들고 있던 단도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목소는 계속되었다.

"보르스키, 네가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게 있단다. 내 고향의 황소들 말이야. 내가 스페인 사람이고 토우레아(투우)를 무척 좋아한다는 걸 알아두게.

그래, 저 황소들은 한 번 쓰러진 가엾은 늙은 사내를 뿔로 꿰찔러 죽이면, 가끔 그 시체 곁으로 다시 돌아와. 시체를 뒤집어엎고, 또다시 뿔로 꿰차고, 죽이고 또 죽이는 거야.

너도 저 황소와 똑같아, 보르스키. 붉은 안경이 낀 거지. 살아 있는 적을 막으려다, 이미 죽은 적에게만 집착하잖아. 결국 네가 죽이려 애쓰는 건 죽음 그 자체야. 정말 멍청한 놈이군."

보르스키가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그 앞에 서 있었다. 돌멘 기둥 중 하나에 기대어 선 그는 키가 평균적이었고, 체격은 마른 편이었으나 균형 잡힌 몸매였다. 사원 주변으로 흰머리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젊어 보였다. 그는 금단추가 달린 남색 작업복을 입고, 검은 챙이 달린 선원 모자를 쓰고 있었다.

"찾아볼 필요 없소. 당신도 나를 모르겠지. 돈 루이스 페레나, 스페인 대공이자 수많은 영지의 영주, 사렉 공작이오. 네, 놀라지 마시오. 사렉 공작이라는 칭호는 내가 방금 스스로에게 사온 것이오. 하지만 그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지."

보르스키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스페인 귀족에 대해선 그리 익숙해 보이지 않는군.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헤르몽가와 사레크 주민들을 구하러 올 예정이었던 남자다. 네 아들 프랑수아가 그토록 순진한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사람. 어때? 기억나느냐? 아, 네 동행자, 충실한 오토는 기억하는 것 같군. 하지만 내 다른 이름이 기억나면 더 좋겠다. 그 이름은 꽤 유명하니까…… 뤼팽? 아르센 뤼팽?"

보르스키는 새로운 적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두려움이 커지고 의심이 구체화되는 것을 느끼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 남자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위력을 경험한 어떤 의지의 지배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끝없는 냉소적인 조롱이 그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당신이 상상하는 일조차도요." 도니 루이스 페레나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당신은 정말 멍청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거대한 악당이자 대담한 모험가인 체하고 있군요. 그런데도 자신의 범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다니!"

"당신이 그저 운에 맡겨 무작정 죽이기만 할 때는, 당신은 확고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걸림돌만 나타나면 당신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보르스키가 죽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누구를 죽였는지,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베로니크 다르제몽은 죽었을까, 살아 있을까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참나무에 묶여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희생용 테이블 위에 누워 있을까요?"

"당신이 그녀를 위에서 죽였을까, 아니면 이 방에서 죽였을까요? 신비일 뿐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치기 전에, 누구를 치는지 확인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팔을 휘두르며 무작정 때리는 것, 피를 보는 것과 냄새 맡으며 취하는 것, 그리고 살아 있는 살점을 끔찍하게 으깨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여, 한번 보세요. 사람을 죽일 때는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그가 직접 시신 위로 몸을 숙였다. 머리를 감싸고 있던 베일을 걷어내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다.

보르스키는 눈을 감고 있었다.

무릎을 꿇은 채, 시신의 다리 쪽으로 몸을 웅크린 채였다. 상체가 처져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눈꺼풀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됐지, 하하!" 돈 루이스가 비웃었다. "보기 싫으면 보지 않는 거야. 이미 짐작했거나, 이제 막 짐작한 거겠지? 불쌍한 놈아. 아니, 너의 멍청한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겠지?

사레크 섬에는 여자가 두 명 있었어. 베로니크하고 다른 여자, 딱 두 명뿐이었지. 그 다른 여자가 엘프라이드라고 불렸지? 내가 틀리지 않았지? 엘프라이드와 베로니크. 너의 두 아내 말이야. 한 명은 레이놀드의 어머니, 다른 한 명은 프랑수아의 어머니.

그런데 만약 네가 십자가에 묶고 방금 때린 여자가 프랑수아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것은 레이놀드의 어머니야. 만약 저기 있고 손목이 고통으로 멍든 여자가 베로니크가 아니라면, 그것은 엘프라이드야. 오해의 여지는 없어. 엘프라이드, 너의 아내이자 공범. 엘프라이드, 너의 영혼을 팔아먹은 자.

너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내 말만 믿으려 하지. 그 죽은 여자의 창백한 얼굴, 너의 명령에 복종하다 고문당한 공범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말이야. 게으른 놈!"

보르스키는 접은 팔 위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보르스키는 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자세에서 가장 절박한 절망의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이런 상태가 꽤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자 어깨의 떨림이 멈췄다. 그러나 보르스키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은, 당신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오, 가엾은 노인이여." 돈 루이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엘프리데를 그렇게까지 원했단 말인가? 습관 같은 거였나? 아니면 우상 같은 것이었나?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알고,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잖아. 천만다행으로 말이오."

"반면 당신은 범죄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신생아와 같소. 물속에 뛰어드는 아이처럼 말이오. 당신처럼 가라앉고 침몰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지."

"그렇다면, 그 노 드루이드는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콘라드가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악마 같은 인물의 역할을 맡았는가? 간단히 말해, 노 드루이드와 스페인 대공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두 인물이 실은 한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마치 먹물 병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일 뿐이오. 하지만 분명히 설명해야 해. 내가 도와줄까?"

보르스키가 무모하게 행동했다면, 고개를 든 순간 그의 표정만 봐도 이번에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상황은 그를 절박한 결단으로 내몰고 있었다.

물론 그는 돈 루이스의 권유에 따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확고했다. 그는 눈빛을 잃지 않은 채 돈 루이스를 똑바로 응시했다. 의도를 숨기지 않은 채 칼을 빼들고 몸을 일으켰다.

"조심하게. 네 칼은 네 권총처럼 속임수야. 은박지로 만든 가짜지."

돈 루이스의 농담은 헛수고였다. 보르스키는 계산된 의지로 최후의 싸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성스러운 테이블 둘레를 한 바퀴 돌더니, 돈 루이스 앞에 서서 마주 섰다.

"네가 며칠째 내 모든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스물네 시간 전부터다. 그전까진 사렉에 도착하지도 못했다."

"그럼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멀리."

"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취미로 하는 거야. 그리고 넌 나를 역겹게 만들었어."

"그럼 타협은 불가능한 건가?"

"네가 내 수락에 들어오지 않겠다면?"

"말도 안 돼."

"네가 절반을 가져가도 되는데."

"전부 내 거야."

다른 말은 모두 무의미했다. 이런 실력의 상대는 없애야 한다. 안 그러면 상대가 나를 없앨 테니까. 두 가지 결말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었다. 세 번째 길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 루이스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다.

보르스키는 머리 위로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동시에 보르스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힘도, 근육질도, 체중도, 모든 면에서 자신이 도 루이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어찌 망설일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도 루이스가 칼이 내려앉기 전에 방어하거나 피할 리가 없었다. 만약 그가 그 순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의 방어 태세는 이미 늦은 후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보르스키는 확신에 차 공격했다. 이미 죽음이 정해진 먹이를 때리듯.

하지만 그 일은 너무도 급박하고 불가해하게 일어났다. 도대체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져 그가 항복하게 되었는지, 그는 단서 하나도 붙잡지 못했다.

그런데 불과 삼사 초 뒤였다. 그는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무기도 빼앗기고, 완전히 패배한 상태였다.

두 다리는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이 찢어질 듯 아팠다. 오른쪽 팔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무겁고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게 만들 정도였다.

돈 루이는 그를 묶을 힘조차 아끼지 않았다.

힘없이 누운 그의 큰 몸에 발을 올려놓은 채, 그는 몸을 약간 굽혀 말했다.

"일단 말은 하지 말자. 내가 준비한 연설이 하나 있다.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A부터 Z까지 다 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지. 그러니까 너보다 훨씬 잘 안다는 뜻이야. 단 한 군데만 모호한 곳이 있어. 너도 바로 그 부분을 밝힐 거야. 프랑수아 드 에르제몽은 어디 있니?"

대답이 없자 그는 다시 물었다.

"프랑수아 드 에르제몽은 어디 있니?"

보르스키는 운명이 뜻밖의 카드를 손에 쥐여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승산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래서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꾸도 하지 않겠소?" 도 루이가 물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을 거부하는구려. 잘했소!"

그가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네 명의 남자가 방 구석에서 나타났다. 얼굴은 까맣고, 모로코 아랍인 특유의 인상이 역력했다. 도니 루이스처럼 그들은 선원용 저고리와 광택 있는 챙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다섯 번째 인물이 나타났다. 오른쪽 다리가 목발로 끝난 프랑스군 부상 장교였다.

"아, 파트리스네?" 도니 루이스가 말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소개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파트리스 벨발 대위. 그리고 보츠키 씨, 독일인이지."

그리고 다시 물었다.

"별일 없소, 대위? 프랑수아는 찾지 못했나?"

"한 시간 안으로 찾아내겠소.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겠소. 우리 병사들은 모두 배에 탔나?"

"그쪽은 괜찮은가?"

"아주 잘 되고 있소."

그는 네 명의 모로코인들에게 명령했다.

"보슈를 포장해서 위쪽 돌멘으로 가져가. 묶을 필요 없어. 그는 움직일 수도 없어. 아, 잠깐만."

그가 보츠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떠나기 전에 천장 판석 사이의 '신석'을 잘 봐라. 고대 드루이드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수세기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기적의 돌이거든. 내가 멀리서, 편지 한 통으로 알아낸 거야. 작별 인사를 하라, 보츠키! 이 세상에서 다시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가 손짓을 했다.

즉시 모로인 네 명이 보츠키를 붙잡아 통로와 반대쪽 방 구석으로 끌고 갔다.

돈 루이스는 온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오토를 돌아보았다.

"보네, 오토는 이성적인 소년이구려. 상황도 잘 이해하는 것 같군.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안심하고 우리 뒤를 따라오게."

그는 선장의 팔을 끼고는 두 사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나갔다.

그들은 '신석의 방'을 나와 세 개의 다른 납골동굴을 지나고 있었다. 각 동굴은 앞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마지막 동굴은 다시 현관으로 이어졌다.

현관 끝자락에는 사다리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벽면에는 최근 약한 모래와 회반죽을 부수어 새로 구멍을 낸 자국이 보였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밖으로 나섰다. 가파른 오솔길이었다. 계단처럼 깎인 바위길을 따라 오르자, 날카롭게 굽이치는 절벽 위였다. 바로 어제 아침 프랑수아와 베로니크를 이곳으로 데려왔던 곳이었다.

여기가 바로 '포타른' 언덕이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팔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배가 매달려 있었다. 베로니크와 아들이 탈출했을 때 탔던 그 배였다.

그 근처 작은 만에는, 가느다란 실루엣의 잠수함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바다를 등진 채 도 루이스와 파트리스 벨발은 참나무 원형 무대로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는 요정들의 돌무덤 곁에서 발을 멈췄다.

마라코인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Vorski는 바로 마지막 희생자가 죽었던 나무 아래에 앉혀져 있었다. 그 나무에는 끔찍한 형벌의 흔적이라곤 'V. d'H.'라는 글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피곤하진 않아요, Vorski? 다리는 좀 나아졌나요?" 도 루이스가 물었다.

Vorski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였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돈 루이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마지막 카드를 믿고 있군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나 역시 몇 장의王牌을 쥐고 있고, 그걸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 뒤에 있는 나무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습니까.

또 다른 예시를 드릴까요? 당신은 살인 행각에 정신이 팔려, 자신이 몇 명을 죽였는지 기억도 못 하죠. 하지만 저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priory에서 온 그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도 저처럼 금단추가 달린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해자 중 한 명이죠? 당신이 고문실 구석에 가두어 바다에 던지려 했던 사람. 레이놀드의 그 천사 같은 아들이 베로니크 눈앞에서 그 사람을 밀어 넣었죠. 기억나시죠? 스테파누 마루요?

죽은 사람이죠? 아닙니다. 전혀요. 마법 지팡이 한 번 휘두르듯, 그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사실 그는 새로 온 사람 쪽으로 다가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보셨죠, 스테파뉴. 정각 정오가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미리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돌멘에서 다시 만나자고도 했죠. 지금 바로 정각 정오입니다."

스테파뉴는 건강해 보였다. 상처 자국 하나 없었다. 보르스키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교수님… 스테파뉴 마루…

"그 사람입니다." 돈 루이스가 말했다. "뭐라고? 또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했군. 사랑스러운 레이놀드와 너는 그 남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굽혀보는 생각조차 못 했어. 나는 그 남자를 구했지. 그리고 놀라지 마라, 친구.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주머니에는 아직 몇 가지 묘수가 남아 있어. 생각해보라, 나

는 옛 드루이드의 제자 아닌가! 자, 스테파니,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왔지? 너희의 수사는?"

"헛수고였습니다."

"프랑수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심'은 정한 대로 주인의 뒤를 쫓게 했습니까?"

"네, 하지만 그는 제게 포르트느 문으로 데려다 줄 뿐이었습니다. 프랑수아의 보트 근처까지요."

"저쪽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돈 루이스는 입을 다물고 돌멘 앞을 서성였다. 마지막 순간, 그가 결심한 일련의 행동을 시작하기 직전, 망설이는 듯한 태도였다.

마침내 그는 보르스키에게 말을 건넸다.

"시간이 없다. 이틀 안에 나는 이 섬을 떠나야 한다. 프랑수아의 즉각적인 석방을 얼마에 사느냐?"

보르스키가 대답했다.

"프랑수아는 레이놀드와 결투를 벌였고, 그는 패배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긴 건 프랑수아다."

"어떻게 아시오?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셨나요?"

"아니오. 만약 보았다면 개입했을 테니까. 하지만 누가 이겼는지 나는 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프랑수아가 죽었다면, 당신은 끝장이다."

보르스키는 생각에 잠겼다.

논거는 단호했다. 도 루이스가 다시 물었다.

"요약하면, 네가 내게 바라는 건 뭔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네, 바로 '돌의 여신'입니다."

"절대로 안 돼!"

도 루이스의 외성은 격렬했다. 그는 잘라 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절대로요. 자유라면, 최악의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수단이 없으니, 다른 곳에서 처형당하러 갈 테니까요. 하지만 '돌의 여신'이라면 그것은 구원이자 부, 권력, 그리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돌을 고집하는 겁니다." 보르스키가 말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니, 프랑수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프랑수아는 찾아내겠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문제일 뿐입니다. 필요하면, 저는 이틀이나 사흘 더 머물 수도 있습니다."

"찾아내도 소용없어. 찾아냈자 이미 늦었지."

"왜?"

"프랑수아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

말투는 차갑고도 사나웠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돈 루이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말해라. 아이가 죽게 하고 싶지 않다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소? 내 임무를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소.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전부야. 그 길에 발목을 잡는 자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네 아이를 죽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다른 아이는 죽게 내버려뒀소."

파트리스와 스테파노가 경악한 듯 몸을 움츠렸다. 반면 돈 루이스는 큰 소리로 활짝 웃었다.

"좋아! 너만큼은 가식 따위 없다.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라니. 천하의 재주꾼이여! 독일인이 자기 영혼을 까놓다니,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자만심과 잔혹함, 냉소주의와 신비주의가 뒤섞인 경이로운 조합이다. 독일인은 무언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 설령 강도나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너는 독일인보다도 더하다. 너는 초월적 독일인이야!"

그는 여전히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너를 초월적 독일인처럼 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마. 프랑수아를 어디에 숨겼느냐?"

"좋아요."

그는 매우 평정된 얼굴로 네 명의 모로코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가라, 아이들아."

순간이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동작으로, 마치 군대 훈련처럼 미리 익혀두고 반복해 둔 동작들을 연달아 수행하듯 그들은 Vorski를 들어 올렸다. 나무에서 늘어뜨린 밧줄에 그를 묶고, 그의 비

명과 협박, 아우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올려 단단히 매달아 놓았다. 그는 바로 자신이 희생자에게 했던 그대로의 방법을 사용했다.

"입 다물어, 친구." Don Luis는 평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원하는 만큼 소리쳐도 좋아. 너의 비명으로는 Archignat 자매와 서른 개의 관이 있는 섬 사람들만 깨울 수 있을 뿐이야. 소리 지르는 게 취향이라면 지르든가. 하지만 하느님, 정말 추잡하군. 무슨 표정이야!"

그는 풍경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몇 발짝 뒤로 물러섰다.

"훌륭하군. 넌 아주 잘 어울려. 모든 게 완벽해졌어… 'V. d'H: 호엔촐레른의 보르스키'라는 글귀까지 완벽하지. 네가 왕자의 아들이니, 그 명문 가문과 혈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이제 보르스키, 넌 귀 기울여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약속한 짧은 연설을 들려주마."

보르스키는 나무에 매달린 채 몸부림쳤다. 결속된 줄을 끊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통만 더 커질 뿐이었다. 그는 결국 움직임을 멈추고, 분노를 토해내기 위해 저주와 모독을 퍼부었다. 동시에 돈 루이스를 향해서도 소리쳤다.

"도둑이야! 살인자! 네가 살인자야! 네가 프랑수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야! 프랑수아는 형에게 다친 거야. 상처가 깊어서 악화될 수도 있어…"

스텝파느와 파트리스는 돈 루이스에게 간청했다. 스텝파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괴물 앞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병에 걸렸다면요……"

"헛소리다. 협박일 뿐이야! 아이는 건강해." 돈 루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확실합니까?"

"어쨌든 한 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 한 시간 뒤면 슈퍼보슈가 입을 열 거야.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교수형은 혀를 풀게 만드는 법이니까."

"만약 아예 버티지 못한다면요?"

"무슨 뜻이야?"

"그가 또다시 힘을 쏟아 부어, 동맥류가 터지거나 혈전이 생기는 바람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때?"

"그럼 우리는 프랑수아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유일한 희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돈 루이스는 단호했다.

"그는 죽지 않을 거야! Vorski 같은 인간은 뇌일혈로 죽지 않아! 아니, 아니, 그는 반드시 말할 거야. 한 시간 안으로 말이야. 내 연설을 할 시간이 딱 충분해!"

파트리스 벨발은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연설을 할 생각인가요?"

"물론이지! 무슨 연설이냐면, '석조(石祖)의 모험' 전체를 다루는 거야! 선사 시대부터 '슈퍼보슈의 30가지 범죄'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단서와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주는 거지. 오호, 이런 강연 기회를 매일 매일 얻는 건 아니니까, 제국 하나를 줘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강단에 서서, 돈 루이스, 너의 좋은 이야기를 펼쳐라!"

그는 Vorski 앞에 섰다.

"운이 좋네! 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야. 어때, 어둠 속에 비친 이 빛이 기쁘지 않아?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 이제는 확실한 지시가 필요해. 나 같은 경우는 이미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생각해 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수수께끼를, 넌 그저 더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도둑놈! 강도야!" 보르스키가 이를 갈며 말했다.

"모욕이야? 왜 그래? 불편하면 프랑수아에 대해 말해 봐."

"절대 안 돼. 그는 죽을 거야."

"아니, 네가 말할 거야. 내가 네게 말하마. 중간에 끊어도 괜찮아. 내가 멈추게 하려면 그냥 휘파람만 불면 돼. '좋은 담배가 있네'라든가 '엄마, 작은 배들이 물 위를 가네' 같은 곡조로. 내가 그 신호를 받으면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너를 놓아줄 거야. 오토가 너의 묶음을 풀어주고, 프랑수아를 배를 타고 도망갈 수 있게 해줄 테지. 동의하는 거야?"

그는 스테파노 마루와 파트리스 벨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앉으세요, 친구들이여. 이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테지만,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청중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청중은 곧 심판관이 되겠지요."

"우리는 둘뿐입니다." 파트리스가 말했다.

"세 명입니다."

"누구와?"

"세 번째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퉁바뱅'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평소처럼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다. 스테파노를 반갑게 맞이한 그는 돈 루이스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너는 알고 있잖아, 우리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로 자리 잡았다. 남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듯, 그는 엉덩이로 바닥에 앉았다.

"완벽해, 퉁바뱅." 돈 루이스가 외쳤다. "너도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게 있군. 그런 호기심은 너를 빛나게 해.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돈 루이스는 매우 만족해 보였다. 그는 청중을 얻었고, 재판관도 얻은 셈이었다. 보르스키는 나무 위에서 몸을 비틀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 시간은 정말로 달콤했다.

그는 Vorski에게 옛 드루이드의 피루엣을 떠올리게 할 만한, 미미한 엔트샤를 시늉해 보였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연자가 물 한 잔을 입가에 대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어 손으로 가상의 책상을 짚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기원전 칠백 삼십이 년 칠월 스물다섯 날……"

제17장

돈 루이스는 문장 시작 부분만 말하고는 멈췄다. 그가 남긴 여운을 한참이나 음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친구를 잘 알고 있던 벨발 대위는 크게 웃었다.

스파니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 '무사안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돈 루이스 페레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날짜를 이렇게 꼼꼼하게 적은 데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해보려는 심정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사실, 수백 년의 오차는 있더라도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의 정확한 연대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오늘날 '보헤미아'라 불리는 유럽의 땅에서, 그리고 지금 작은 산업 도시 요하임스탈이 서 있는 바

로 그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 그 부족 중 하나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테 강 연과 엘베 강 상류, 그리고 헤르시니아 숲 사이에 한두 세기째 자리 잡고 있던 이 켈트족 부족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의 도움을 받은 전사들은 천막을 걷고, 신성한 도끼와 활시위, 화살을 수습하며, 도기와 청동·동제 기구들을 주워 모아 말과 소에 실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꼼꼼히 챙겼다. 질서 정연했고, 소란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다.

저녁 무렵, 엘베강의 지류인 에게르강 쪽으로 일찍 출발했다. 우리는 해가 저물 무렵 그 강가에 도착했다.

강가에는 백여 명의 정예 병사들이 호위하는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척은 덩치와 화려한 장식으로 유독 시선을 끌었다.

오크레빛 긴 천이 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팽팽하게 쳐져 있었다. 배의 뒷좌석에 '지도자의 지도자', 즉 왕이 올랐다. 그는 연설을 시작했고, 나는 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려 그의 말은 생략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 요지는 이랬다.

"우리는 이웃 부족들의 탐욕을 피하기 위해 이주한다. 살아온 곳을 떠나는 일은 언제나 슬프다. 하지만 부족의 남자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을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신성한 유산이었다. 부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대한 전사로 만들어 주던 신, 한마디로 말해 왕의 무덤을 덮고 있던 그 돌."

"최고의 지도자가 엄숙한 제스처로 오크색 베일을 걷어냈다. 드러난 것은 화강암으로 만든 큰 돌덩어리였다. 길이 약 두 미터, 너비 한 미터쯤 되는 판석 모양이었다. 거친 결을 가진 어두운 색 돌덩이 안에는 반짝이는 작은 광채가 몇 군데 박혀 있었다.

군중에서 한 번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모두 팔을 뻗은 채,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코끝까지 먼지에 파묻혔다.

그때 최고 지도자가 화강암 돌덩이 위에 놓인 금속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손잡이는 보석으로 장식된 그 지팡이를 높이 휘들며 외쳤다."

"기적의 돌이 안전하게 보호될 때까지, 이 위대한 지팡이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지팡이는 기적의 돌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의 불꽃을 담고 있어, 생명도 죽음도 주는 힘이 있다. 기적의 돌이 내 조상들의 무덤을 닫아두었다면, 위대한 지팡이는 그들 손에서 결코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불행한 날이든 승리의 날이든. 하늘의 불꽃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태양의 신이 우리를 비추게 하라!"

그가 말을 마치자, 부족 전체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돈 루이스는 잠시 멈추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부족 전체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파트리스 벨발은 큰 재미를 느꼈고, 스테파노도 그의 웃음에 이끌려 점차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 루이스가 그들을 향해 말을 걸었다.

"웃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마술이나 속임수에나 속아넘어갈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며, 그 모든 디테일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처럼 정확하고 자연스럽고, 어쩌면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일입니다… 네, 과학적입니다.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인들, 선생님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과학의 영역이며, 보르스키 자신도 그의 경박함과 회의주의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의 물을 마신 돈 루이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부족은 몇 주, 몇 달 동안 엘베 강을 따라 내려갔다.

어느 날 밤, 아홉 시 반쯤 되어서야 그들은 바다 곁에 도착했다. 그곳은 훗날 프리지아인들이 살게 될 땅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몇 주, 몇 달 동안 머물렀다. 필요한 안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다시 이주를 결심했다.

이번에는 바다로 떠나는 '마지막 탈출'이었다. 서른 척의 작은 배들이 바다로 나갔다. 서른이라는 숫자를 유념하라. 그 숫자는 부족을 이루던 가족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해안가를 떠돌았다. 스칸디나비아에 정착했다가 색슨족 땅으로 이동했고, 쫓겨나면 또다시 배를 타고 떠났다.

진실로 말하지만, 이 떠돌이 부족의 모습은 기이하고 감동적이며 장엄했다. 그들은 왕들의 무덤 돌을 끌고 다니며, 적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확실하고 불가침인 피난처를 찾아 헤맸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을 숨기고, 적들의 간섭에서 보호하며, 그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굳건히 했다.

마지막 여정은 아일랜드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어떤 날, 반세기, 어쩌면 한 세기 동안 푸른 에린을 누린 뒤, 그들의 풍습이 덜 야만적인 이웃 주민들과의 접촉으로 조금은 다듬어졌을 때, 위대한 부족장의 손자, 혹은 증손자가, 혹은 그 본인이 직접, 이웃 나라에 파견한 사신 중 한 명을 맞이했다. 그 사신은 대륙에서 왔다. 그는 놀라운 피난처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곳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섬이었다. 서른 개의 암석이 그것을 지켰고, 서른 개의 화강암 기념비가 그 곳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른! 운명적인 숫자다! 여기서 신비한 신들의 부름과 명령을 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서른 척의 배가 다시 물에 띄워졌고, 원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성공했다. 섬은 무력으로 함락되었고, 원주민들은 잔혹하게 학살되었다. 그 부족이 정착하면서 보헤미아의 왕 비석도 세워졌다.

바로 지금 그 비석이 서 있는 자리, 내가 보르스키 동무에게 보여준 그 곳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고찰을 몇 가지 덧붙이자. 길게 하진 않겠다.

돈 루이스는 교수의 어조로 설명했다.

사레크 섬은 물론, 프랑스 전체와 유럽 서부 지역도 수천 년 전부터 리구리아인들이 살았다. 그들은 동굴 사람들이 후손으로, 그들의 풍습과 습관을 부분적으로 이어받았다.

그런데 이 리구리아인들은 뛰어난 건축가였다. 돌을 다듬던 시절, 아마도 동방의 큰 문명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세우고 거대한 매장실을 지었다.

그곳은 우리 부족이 찾아내어 아주 잘 적응한 곳이었다. 자연 그대로의 동굴과 굴들이 있었고, 그곳은 인간의 인내심 어린 손길로 다듬어져 있었다. 또한 거대한 기념물들이 모여 있어, 켈트족의 신비롭고 미신적인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즉 유목 생활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석신(石神)'에게는 쉴 새와 숭배의 시기가 찾아왔다. 우리는 이를 '드루이드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천 년에서 천오백 년 동안 이어졌다. 부족은 주변 부족들과 융합되었고, 아마도 어떤 브르타뉴 국왕의 보호 아래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은 지도자들에서 사제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 사제들, 즉 드루이드들은 점점 더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들 권위의 근원은 기적의 돌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그들은 모든 이가 인정하는 종교의 사제들이었고, 갈리아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라드누아르의 세포들은 수도원이었거나, 오히려 드루이드교의某种 대학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시의 관습을 따랐고, 인간 제사를 주관했으며, 산초리, 발레리안, 그리고 모든 마법의 식물들을 채집하는 일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렉섬에서 그들은 생과 사를 주는 돌의 수호자이자 주인이었습니다. 지하 제사실에 위치해 있던 이 돌은 당시 야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요정의 돌멘'이 '칼바르플뢰리'라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신성한 돌'을 덮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환자들과 장애인, 그리고 약한 아이들은 누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그 신성한 판석 위에서 불임의 여성들은 임신을 했고, 바로 그 신성한 판석 위에서 노인들은 힘을 되찾았습니다."

"저에게 브르타뉴의 전설적이고 신비로운 과거는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미신과 믿음, 불안과 희망이 뻗어 나가는 중심지죠.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던 최고 사제의 의지에 따라 살을 태우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했던 그 지팡이의 힘으로, 혹은 그 지팡이를 통해 라운드의 기사들 이야기나 마법사 머린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전설들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그녀는 모든 안개 속에 숨어 있

고, 모든 상징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녀는 신비이자 명료함, 거대한 수수께끼이자 거대한 해답입니다."

도 루이스는 이 마지막 말들을 어느 정도 고조된 어조로 내뱉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다.

"조심해, 보스키. 우리 열정은 네가 저지른 범죄들을 설명할 때나 남겨두자. 현재 우리는 드루이드 시대의 정점에 도달한 셈이야. 이 시대는 드루이드들이 사라진 뒤에도 수백 년 동안 이어졌지. 그 긴 세월 동안 기적의 돌은 마법사들과 예언자들에게 이용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서히 세 번째 시기, 즉 종교 시대로 접어들게 돼. 아마도 사렉의 부를 이루던 모든 것들, 즉 순례와 기념 축제 같은 것들이 점차 쇠퇴해가던 시기겠지."

사실, 교회는 그런 거친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 없었다. 교회가 힘을 얻자마자, 수많은 신도를 끌어들이고 끔찍한 종교를 이어오던 그 화강암 덩어리를 막아 서야 했다.

힘의 균형은 명확했다. 과거는 무너졌다. 돌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졌고, 보헤미아 왕들의 석판은 흙더미 아래 묻혔다. 그리고 성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위를 덮은 것은, 거대한 망각이었다.

"잘 들어봅시다. 관행은 잊혔습니다. 의식과 사라진 종교의 역사를 구성하던 모든 것들이 잊혔죠. 하지만 '석신(석두)'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석신'이라 부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신비롭고 끔찍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현실에서 점점 더 동떨어졌고, 점점 더 흐릿하고 끔찍한 전설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석신'에 대한 기억과, 무엇보다 그 이름을 간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고, 한 나라의 연대에 사실이 살아남는다면, 때때로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놀라운 진실을 재구성하려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호기심 많은 이들 중 두 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5세기 중반 베네딕트회 소속 토마스 형제와, 오늘날의 마귀노크 씨가 바로 그들이다.

토마스 형제는 시인이자 채색화 화가였다.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의 시를 보면 시로는 매우 못났지만, 채색화 화가로서는 순진하면서도 재능이 있었다. 그는 사렉 수도원에서의 체류를 노래하고 섬의 서른 개 돌멘을 그린 미셀을 남겼다. 여기에는 노스트라다무스식 예언과 종교적 인용구, 문서들이 곁들여져 있었다.

바로 이 미셀이 마귀노크 씨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곳에는 십자가를 형상화한 여인들과 사렉에 관한 예언이 담긴 유명한 페이지가 들어 있었다. 바로 이 미셀을, 나 역시 마귀노크의 방에서 찾아今夜 밤에 참고했다.

마그넌noc은 참으로 기이한 인물이다. 옛 마법사들의 더딘 후손이라니. 나는 그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귀신 분장을 했다고 의심한다.

달의 여섯째 날, 호밀 이삭을 베는 하얀 망토를 입은 드루이드를 보았다고 주장하던 자는 바로 마그넌noc이었다.

그 역시 훌륭한 비결을 알고 있었다. 약초의 효능도 알았고, 거대한 꽃을 피우기 위한 토양 관리법도 익혀두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묘실과 희생실까지 탐험했다는 점이다. 지팡이 손잡이에 숨겨진 마석을 훔친 것도 그였다. 그는 우리가 방금 통과한 길목의 통로를 이용해 묘실에 드나들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벽돌과 자갈로 된 가림막을 다시 설치해야 했다.

또한 미셀의 한 페이지를 드헤르몽 씨에게 건넨 것도 그였다.

이제 그가 드헤르몽 씨에게 최근 탐험 결과를 공유했는지, 정확히 무엇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을 대변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었다. 수세기 된 수수께끼를 풀고, 신비한 권력의 명령을 집행하며, '신의 돌'을 손에 넣으러 운명이 보낸 사제다.

바로 보르스키다.

돈 루이스는 세 번째 잔의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동조자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오토, 목이 마르다면 마시게 해라. 보스키, 목이 마르지 않나?"

나무 위에 매달린 보스키는 이미 지쳐 보였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다한 듯했다. 스테파누와 파트리스가 다시금 개입했다. 일이 너무 빨리 끝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니, 아니야. 걱정 마라." 돈 루이스가 소리쳤다. "그는 버틸 수 있어. 내가 설교를 끝낼 때까지는. 설령 호기심에서라 한들 말이지. 보스키, 흥미진진하지 않나?"

"도둑! 살인자!" 비참한 남자가 헛소리를 내뱉었다.

"좋다. 그럼 프랑수아의 은신처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지?"

"살인자… 강도…"

"그냥 있어라, 친구. 네 마음대로 해. 조금의 고통이야, 건강에 더없이 좋은 거야. 게다가 넌 이미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했잖아, 늙은 도둑놈!"

돈 루이스는 이 말을 차갑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분노의 어조로 내뱉었다. 이미 수많은 악행을 목격하고 수많은 범죄자들과 싸워온 그에게서 이런 감정이 나올 리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녀석은 도대체 얼마나 다른 존재란 말인가?

돈 루이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대략 삼십오 년 전, 보헤미아에서 건너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헝가리 혈통이었지만, 바바리아 호수 주변에 널린 온천 도시들에서 순식간에 명성을 떨쳤다. 점쟁이, 타로 카드 읽는 이, 손금 보는 사람, 예언자, 그리고 영매사로서였다.

그녀는 바그너의 친구이자, 바이로이트를 세운 왕, 루이 2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사치스러운 환상과 기이한 행실로 유명한, 일종의 '관모된 광인'이었다.

이 광인과 왕실의 인연은 몇 해 동안 이어졌다. 왕의 기분에 따라 끊어지기도 하고 격렬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루이 2세가 스타른베르크 호수에서 자신의 보트에서 뛰어내린, 신비로운 그 밤에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

공식 기록대로 정신 착란이나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주장한 살인이었을까? 왜 자살이었는가? 왜 살인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보헤미아 여인이 호수 산책 중 루이 2세의 동행자였다는 점이다. 이튿날 그녀는 추방당했고, 보석과 금전을 모두 빼앗긴 채 국경으로 쫓겨났다.

그녀는 이 사건에서 네 살 먹은 '어린 괴물' 하나를 데려왔다. 이름은 알렉시스 보르스키. 그는 보헤미아 요아힘스타할 마을 근처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는 그에게 깨어 있는 상태의 암시, 초월적 명석함, 그리고 사기 수법 등 모든 기법을 가르쳤다.

그는 성격이 극도로 폭력적이었지만 정신은 매우 약했다. 환각과 악몽에 시달렸고, 주술과 예언, 꿈, 초자연적 힘들을 믿었다. 그는 전설을 역사로, 거짓말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산맥에 전해지는 수많은 전설 중 하나가 그에게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원시시대부터 나쁜 영혼들이 훔쳐간 한 돌의 전설적인 힘을 다루고 있었다. 그 돌은 언젠가 왕의 아들에 의해 되돌려져야 한다. 농민들은 아직도 언덕 벼랑에 그 돌이 빠져나간 자국을 보여준다.

"너는 왕의 아들이란다." 어머니가 그렇게 일렀다. "만약 훔쳐간 돌을 찾아낸다면, 너를 노리는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지."

"그 기묘한 예언과 또 다른 한 가지, 즉 유목민 여성이 Vorski의 아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본인은 친구의 손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사건은, 운명의 시계가 찰나에 이르렀을 때 Vorski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어제 밤과 오늘 밤 세 사람이 나눈 대

화에서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재구성해 낸 내용들을 길게 늘어놓지 않겠다. 나는 곧바로 그 운명의 순간으로 넘어가려 한다.

과연 왜 그토록 상세히 되짚어야 할까? 감옥에서 네가 Véronique d'ergemont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시 꺼내 들 필요가 있겠는가? Patrice, 너 Vorski, 그리고 Tout-Va-Bien,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일들을 내가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Vorski, 너의 결혼 이야기, 아니 두 번의 결혼 이야기—먼저 Elfride와, 그다음에 Véronique d'Hergemont과의—를 말하고 있다. François가 할아버지에게 납치당한 일, Véronique가 사라진 일, 그녀를 찾기 위해 네가 벌인 수색들, 전쟁 당시의 네 태도,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삶까지.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비하면 사소한 잡일에 불과하다. 우리는 '돌-신(Pierre-Dieu)'의 역사를 이미 규명했다.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것은, Vorski, 네가 '돌-신'을 중심으로 엮어낸 이 현대적인 모험담이다."

처음에 상황은 이렇게 전개된다.

보르스키는 브르타뉴 한복판, 폰티비 근처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보르스키가 아니었다. 라우터바흐가 된 것이다.

십오 개월 전, 그는 첫 번째 탈출을 감행했다. 전쟁 법정이 그를 간첩죄로 사형에 처하려던 찰나였다. 그는 도망쳐 폰테인블로 숲에서 숨어 지냈고, 옛 하인 한 명을 찾아냈다. 그 하인은 그와 마찬가지로 독일인이었고, 같은 신분의 피신자였다. 이름도 라우터바흐였다.

보르스키는 그를 죽이고 옷을 벗겨 입혔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닮게 화장을 했다. 속은 군법 회의는 거짓 보르스키의 시신을 폰테인블로에 묻었다.

진짜 보르스키는 불운하게도 새로운 이름 라우터바흐로 다시 체포되어 폰티비 수용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이제 Vorski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다. 한편 Elfride, Vorski의 첫 번째 아내이자 모든 범죄의 무서운 공범자, 역시 독일인이다(나에게는 그녀와 그들의 공통된 과거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낀다). Elfride, 즉 공범자는 Sarek의 감옥에 숨어 있으며, 그들의 아들 Raynold와 함께 있다. Vorski는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M. d'Hergemont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Véronique d'Hergemont에게 다가가라고 지시했다. 이 비열한 여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맹목적인 충성심, Vorski에 대한 두려움, 악의 본능, 그녀를 대신한 경쟁자에 대한 증오, 어쨌든 그녀는 가장 끔찍한 처벌을 받았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말하면 된다. 어떻게 그녀가 지하에서 3년을 살아남았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말자. 밤에만 나와서 자신의 음식과 아들의 음식을 훔치며, 자신의 주군을 위해 봉사하고 구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그가 어떻게 행동에 들어섰는지, Vorski와 Elfride가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 Vorski의

탈출은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오랫동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세부 사항이 계획되었고, 모든 예방 조치가 취해졌다.

작년 9월 14일, Vorski는 감옥 생활 중结识한 두 명의 동료를 데리고 탈출했다. 그는 그들을 거의 입대시켰다고 할 수 있는 Otto 씨와 Conrad 씨였다.

"쉬운 여행이었다. 매번 갈림길마다 화살표가 있었고, 그 위에는 순서 번호와 'V. d'H.'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이 이니셜은 분명 보르스키가 정한 것이었다.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표시였다.

가끔씩 버려진 오두막이나 돌 틈, 건초더미 속에는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게메네, 르 포에, 로스포르덴을 거쳐 베그메일 해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엘프리드와 레이놀드가 밤을 타서 호노린의 모터보트를 타고 와 세 피난자를 태웠다. 그리고 그들은 라드누아르의 드루이드 동굴 아래까지 데려다주었다. 우리는 그 동굴로 올라갔다. 숙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보셨다시피 충분히 편안했다.

겨울이 지나갔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보르스키의 아주 모호했던 계획이 점점 더 선명한 윤곽을 드러냈다."

이상한 일이었다. 전쟁 전 Vorski가 Sarek에 처음 머무를 때, 그는 섬의 비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은 Elfride였다. 그녀는 Pontivy에서 보낸 편지에서 '돌신(Pierre-Dieu)'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런 사실이 Vorski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지는 쉽게 짐작할 만하다.

돌신이라. 바로 자기 나라 땅에서 훔쳐낸 기적의 돌이 아니던가. 그 돌은 국왕의 아들에 의해 발견되어야 했고, 그 순간 그는 권력과 왕좌를 얻게 될 것이었다. 나중에 그가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은 이런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 주었다.

하지만 Vorski의 숨어 지내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지난 한 달 동안 '토마스 형제의 예언'을 발견한 것이었다. 예언의斷片들은 이미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Vorski는 밤마다 초가집 창가 아래나 창고 지붕에 숨어 농부들의 수다를 엿듣는 동안 그것들을 모아낼 수 있었다.

Sarek에서는 예로부터 돌신이 발견되고 사라지는 것과 맞물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해 왔다. 또한 배가 침몰하거나 여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도 항상 거론되었다. 게다가 Vorski는 '요정의 돌멘'에 새겨진 글귀를 알지 못하는가. '서른 개의 관에 바칠 서른 명의 희생자', '네 여자의 처형', 그리고 생과 죽음을 주는 '돌신'.

이토록 놀라운 일치가 그의 약한 정신을 얼마나 흔들었을까!

하지만 모든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예언 자체였다. 마귀노크가 채색 미사경본에서 찾아낸 그 예언 말이다.

마귀노크가 그 유명한 페이지를 뜯어냈고, 그림을 잘 그리던 에르종몽 백작이 이를 여러 번 베껴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백작은 무의

식적으로 예언 속 주요 인물의 얼굴에 딸 베로니크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보르스키는 어느 날 밤, 마귀노크가 램프 불빛 아래에서 이 원본과 베껴 쓴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어둠 속에서 연필을 움직여, 이 귀중한 문서의 15행 시를 자신의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눈부신 빛이 그를 비췄다.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가 하나로 뭉쳐, 단단하고 확실한 진리를 형성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예언은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예언을 실현할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였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Vorski의 앞길에는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리아네의 실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 예언은 그에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텍스트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판석과도 같았고,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구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헤아릴 수 없이 멍청한가요? 단지 운을 맞추기 위해 무작위로 늘어놓은 글귀들일 뿐이었습니다. 영감의 흔적은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불꽃 하나, 성스러운 광기에 휩싸인 델포이의 신탁자나 예레미야, 에제키엘의 환각을 불러일으켰던 그 열정은 단 한 자국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음절과 운율,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것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부드럽고 순진한 Vorski를 밝히고, 초보자의 열정으로 그를 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텝파니, 파트리스, 프라토마스의 예언을 들어라! 그 '슈페르보슈'는 자신의 수첩에서 열 페이지나 떨어진 곳에 이 예언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 번이나 가슴에 지고 다니며 자신의 영혼 깊숙이 새겨 넣으려 했다. 여기 그 중 한 장의 종이 조각이 있다. 스텝파니, 파트리스, 잘 들어라. 충실한 오토여, 너도 들어라. 그리고 오르스키여, 이번이 마지막이니 프라토마스의 운명적인 시를 들어라. 내가 읽어주마.

'사르크 섬에서, 십사년 삼월에 침몰과 애도, 범죄가 있을 것이니 화살과 독, 신음과 공포가 찾아오고 죽음의 방, 십자가에 매달린 네 여인 서른 개의 관을 위해 서른 명의 희생자가 필요하리라.'"

"어머니 앞에서는 아벨이 가인을 죽이리라. 그때 아버지, 알라마니스의 후예, 운명의 명령에 복종하는 잔인한 왕자가, 천 번의 죽음과 천 천한 고통 끝에, 여름날 밤 아내를 죽이고 나면, 보물 창고가 숨겨진 그 신비한 곳에서는 땅속에서 불꽃과 굉음이 치솟으리라. 그리고 그 남자는 드디어 돌을 되찾으리라. 북방 야만인들로부터 훔쳐갔던 그 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주기도 하는 '신의 돌'을."

돈 루이스 페레나는 역설적인 어조로 이 시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단어의 어리석음과 리듬의 진부함을 강조하며 낭독했다. 그러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울림 없는 목소리로 낭독을 마쳤다. 그 목소리는 불안한 침묵 속으로 길게 이어졌다. 전체적인 사건이 그 끔찍한 모습 그대로 드러났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시죠, 스테파뉴 씨? 당신도 피해자 중 한 명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파트리스 씨도요?

다섯 번째 세기, 즉 15세기에 한 가난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비뚤어진 그 수도사는 지옥 같은 환상에 시달리며 뇌를 썩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악몽을 예언으로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미친 소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떤 심각한 근거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각 세부 사항은 운율이나 시의 절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끌려온 것에 불과하죠. 시인의 의도나 현실적 관점에서 보나, 그 가치는 시인이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단어를 꺼내 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석신(석조 신상)'의 이야기, 그리고 관련 전통과 전설도 그에게 예측의 단서를 조금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언은 오직 그 자신에게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착한 그 사나이는 나쁜 뜻은 전혀 없이, 그저 자신이 정성껏 채색한 악마적인 그림 여백에 아무 텍스트나 채우고 싶었을 뿐이죠.

그는 그 결과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구를 뾰족하게 만들어, 요정의 돌멘 중 한 블록에 몇 구의 시조를 새기는 수고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백 년이 흐른 뒤, 그 예언의 페이지는 범죄 광이자 오만하고 미친 '슈퍼보슈'의 손에 들어간다.

슈퍼보슈는 그 페이지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재미있고 유치한 장난감인가? 하찮은 농담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동포들이 연구할 만한, 최고로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다. 다만 이 문서만이 특별한 점은, 그 기원이 경이롭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곧 성서다. 이 성서가 사렉의 법을 설명하고 주석한다. 바로 '돌-신'의 복음서인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그에게, Vorski에게, 그 슈퍼보슈에게, 신의 뜻을 성취할 메시아로 지목한다.

보르스키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그는 재산과 권력을 빼앗는 일에 열광한다.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운명적으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는, 그리고 항상 사명을 따라야 한다고 자부하는 민족의 신비로운 충동에 복종할 뿐이다. 그 사명은 약탈하고, 불태우고, 살해하는 것만큼이나 재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르스키는 그 사명을 토마스 형제의 예언에서 가장 명확하게 읽는다. 토마스 형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르스키가 바로 그 운명의 사나이임을 가장 분명하게 지목한다. 그는 왕의 아들이 아니던가? 즉 '알라만의 공'이 말이다. 그 돌이 '북방의 야만인'들에게서 훔쳐진 나라에서 온 사람도 아니던가? 또한 예언자들이 점친 대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약혼녀를 둔 사람도 아니던가?

게다가 그는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 아들은 아벨처럼 온순하고 우아하고, 다른 아들은 카인처럼 강퍅하고 사악하며 야성적이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그는 지휘부의 동원 명령과 행군 계획을 주머니에 쏙 넣었다. 신들은 그가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일러 주었다. 그는 그 방향으로 걸어나갔다.

길 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히려 다행이다. 그들도 프로그램의 일부니까.

이제부터는 형제 토마스가 지시한 방식으로,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 일이 끝나야만 '신석'이 해방되고, 운명의 도구인 보르스키가 왕으로 즉위할 것이다.

그러니 소매를 걷어붙이자. 좋은 도살용 칼을 들고, 일에 착수하자. 보르스키는 형제 토마스의 악몽을 현실로 옮겨 올 것이다.

제18장

돈 루이스가 다시 보르스키에게 말했다.

"우리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지, 동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그렇지?"

보르스키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마의 혈관이 터지도록 부풀어 올랐다.

스테파뉴가 입을 열기 전에, 돈 루이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말할 거야, 친구. 어때, 고통이 점점 깊어지는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게 느껴지지? 기억해 봐. 휘슬 소리 하나. '엄마, 작은 배들이 요'라는 노래 한 소절.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끊었지. 안 하겠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 알겠어. 스테파누, 걱정하지 마라. 프랑수아는 내가 책임지마. 하지만 이 괴물에게는 자비를 부리지 말아라, 제발. 아니, 절대 안 돼! 그가 차가운 이성과 자유로운 의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연결해 뒀다는 걸 잊지 말자. 잊지 마라… 하지만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별 소용없는 소리였지."

돈 루이스는 보르스키가 예언을 적어 둔 노트 페이지를 펼치며, 그 페이지를 눈앞에 들고 계속 말했다.

이제 남은 말은 중요하지 않다. 이미 큰 그림은 그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디테일로 들어가야 한다. 보르스키가 꾸민 사건의 메커니즘을 풀어내고, 결국 우리 친절한 노 드루이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6월로 돌아간다. 바로 서른 명의 희생자를 처형하기로 정해진 시기다.

물론 이 시기는 프라르 토마스가 정했다. 6월은 카인과 운명, 그리고 공포와 십자가와 운명적으로 연결되니까. 또한 14년 3월이라는 연도도 마찬가지다. 프라르 토스가 서른 명의 희생자라는 숫자를 고른 이유는, 사렉 섬에 서른 개의 암초와 돌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르스키에게는 엄격한 지시가 있다. 17년 6월, 서른 명의 희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사렉 섬의 스물아홉 주민이 섬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희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보르스키는 오노린과 마귀노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오노린은 제때 돌아오겠지만, 마귀노크는 어떨까?

보르스키는 망설이지 않는다. 엘프리드와 콘라드를 쫓아보내 마귀노크를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들었던 말들로 미루어 보아, 마귀노크가 그 마법 같은 보석, 즉 손대면 안 되지만 납 상자에 넣어야 하는 보석을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귀노크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

에프리트와 콘라드는 떠났다. 어느 날 아침, 여관에서 에프리트는 마귀노크가 마시는 커피 잔에 독을 타 넣었다. 예언에 독살이 언급되지 않았던가?

마귀노크는 다시 길을 떠났지만, 몇 시간 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거의 즉사했다. 언덕 가장자리에서 말이다.

에프리트와 콘라드가 달려와 시신을 뒤졌다. 주머니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보석도, 보석 알갱이도 없었다. 보르스키의 기대는 빗나갔다.

그렇지만 시신은 분명히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시신을 임시로 반쯤 허물어진 오두막에 던져 넣었다. 그곳에는 몇 달 전 보르스키와 동조자들이 이미 들른 적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이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한 시간 뒤, 시신은 사라져 있었다. 주변을 감시하던 에프리트와 콘라드가 시신을 없애고, 또다시 임시로 버려진 작은 성의 지하에 숨겨버린 것이다.

"하나, 끝."

참고로 말하자면, 마귀노크가 예언한 '서른 명 희생자의 처형 순서'는 근거가 없다. 그 예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볼스키는 운에 맡겨 행동할 뿐이다.

사렉에서 그는 프랑수와와 스테파네 마루를 납치한다. 그리고는 주의를 끌지 않고 섬을 가로질러, 더 쉽게 수녀원에 침입하기 위해 조심성에서인지 스테파네의 옷을 입는다. 레이놀드는 프랑슈와 옷을 바꿔 입는다.

물론 옷을 바꾸는 일은 쉽다. 저택에는 노인 드에르몽 씨와 마리 르 고프라는 여자 둘만 있을 뿐이니까. 두 사람이 치워지면 방을 수색할 것이다. 특히 마귀노크의 방을 말이다.

도대체 마귀노크가 엘프리트 원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아직 모르는 볼스키는 생각했다.

'마귀노크가 기적의 보석을 수녀원에 남겨두지 않았을까?'

첫 번째 희생자는 주방 여종 마리 르 고프였다. 보르스키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칼로 한 방패를 가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피가 범람해 범인의 얼굴을 뒤덮은 것이다.

겁에 질린 보르스키는 평소처럼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레이놀드를 불러일으켜 드 에르제몽 씨를 공격하게 한 뒤, 도망쳤다.

아이와 노인의 싸움은 길게 이어졌다. 집 안을 누비며 이어지다, 비극적인 우연히 드 에르제몽의 딸 베로니크의 눈앞에서 막을 내렸다. 드 에르제몽 씨는 숨을 거두었다.

그때 호노린이 도착했다. 그녀는 쓰러졌다. 네 번째 희생자였다.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황이 시작된다.

사렉의 주민들은 정신이 나간 듯했다. 마귀노크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오랫동안 섬을 위협해 온 재앙의 종소리가 드디어 울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떠났다.

바로 그걸 기다리던 게 보르스키와 그의 아들이다.

그들이 훔쳐 온 모터보트에 올라타자마자,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끔찍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토마스 형제가 예고했던 그 대역사가 바로 이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노린은 이미 흔들리던 정신이 완전히 터져 버렸다. 그녀는 절벽 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 후 며칠간은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다.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레크 섬의 수도원을 둘러볼 수 있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성공적인 사냥을 마친 뒤 오토만 남겨둔 채 배를 타고 떠났다. 오토는 감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만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엘프리트와 콘라드를 찾기 위해, 그리고 마귀노크의 시체를 찾아 사레크 앞바다에 던지기 위해 나간 것이었다. 마귀노크는 서른 개의 관 중 의무적으로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즉 사렉으로 돌아왔을 때, 보르스키는 이미 스물네 명을 처리한 상태였다. 스테파니와 프랑수아는 오토의 감시 아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처형될 네 명의 여성만 남았다. 그중 세 명은 아르기냑 자매였다. 세 자매는 모두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돌아온 것이다.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이 구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보르스키 일당에게 발각되었고, 활쏘기에 능한 레이놀드의 표적이 되었다. 예언의 지시에 따라 화살이 날아들었고, 아르기냑 자매는 화살을 맞고 쓰러져 적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날 밤, 보르스키는 자매들이 숨겨 둔 백 프랑 지폐 오백 장을 모두 빼앗은 뒤, 세 자매를 참나무 세 그루에 매달아 놓았다. 이로써 희생자는 스물아홉 명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서른 번째 희생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성은 과연 누구인가?

도 루이스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질문과 관련해 예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두 곳에서요."

"그리고 몇 구절 뒤에도 나옵니다."

보르스키는 그 문서를 입수하는 즉시, 두 구절을 자기식대로 해석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전역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베로니크를 손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운명의 명령을 빗겨나갔다.

네 번째로 고문당할 여인은 분명 아내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아내는 에를프리다.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에를프리였다.

이것이 예언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여인이 카인의 어머니일 수도, 아벨의 어머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거에 그 자신에게 내려진 또 다른 예언도 어떤 여인이 죽을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르스키의 여인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리라."

어떤 여자? 에를프리였다.

"그러니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공범자는 죽음을 맞게 되는구나. 보르스키에게야 큰 시름이겠지만, 어찌 모록 신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르스키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아들 레이놀드를 희생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내 엘프리데까지 희생하지 않았을 때 더 용서할 수 없지.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는 거야.

"하지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다. 아르슈니자트 자매를 쫓고 있던 그가 베로니크 다르제몽을 보고, 그녀를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보르스키 같은 남자가 또 한 번 초월적 힘의 은총을 입지 않았겠는가? 그는 잊지 못했던 여인을, 그 여자가 대장정에 나서야 할 순간에 맞게 보내졌다. 그 여자는 그가 제물로 바치거나, 혹은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사냥감으로 주어졌다. 어떤 전망인가! 하늘은 뜻밖의 빛으로 환해졌다. 보르스키는 정신이 나갔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요, 천거된 자요, 사명감 있는 자요, 운명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신석의 수호자인 대제사장 가문에 속했다. 그는 드루이드요, 최고 드루이드요. 그래서 베로니크 드 에르몽이 다리를 불태운 밤, 즉 보름달 이후 여섯째 되는 밤, 그는 금 낫으로 신성한 유리를 베었다.

그리고 수녀원 공방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베로니크 드 에르몽이 스테파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우리는 그녀의 고통을 안다. '모두 잘되라'는 달콤한 남자의 역할, 지하도와 감옥의 발견, 프랑수아를 둘러싼 투쟁, 그리고 스테파니를 둘러싼 투쟁을 안다. 보르스키는 예언에서 '죽음의 방'이라 부르는 고문 감옥 중 하나에 스테파니를 가두었다. 스테파니는 에르몽 부인과 함께 그곳에서 발각되었다. 젊은 괴물 레이놀드가 그들을 바다에 던졌다. 프랑수아와 그의 어머니는 탈출했다. 불행히도 보르스키와 그 무리가 수녀원까지 도달했다. 프랑수아가 붙잡혔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들이 이어졌다. 보르스키와 베로니크 드 에르몽의 회견, 두 형제, 아벨과 카인의 결투가 베로니크 드 에르몽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예언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어머니 앞에서는 아벨이 가인을 죽인다."

예언은 또한 그녀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보스키는 악의 정수라야 한다.

'잔인한 공자'라 불리는 그는 두 싸움꾼에게 가면을 씌운다. 아벨이 곧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본인이 직접 가인을 다치게 하여 가인이 죽도록 만든다.

"그 괴물은 미쳤다. 미쳤고, 취해 있다. 결말이 다가온다. 그는 마시며, 마신다. 같은 밤이 곧 에르제몽의 베로니크의 처형이기 때문이다.

"천 번의 죽음과 더디게 찾아오는 최후, '아내를 죽인 자여…'

"천 번의 죽음, 베로니크가 이미 겪었다. 그리고 최후는 길 것이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저녁 식사, 행렬, 준비물, 사다리 세우기, 밧줄 설치, 그리고 드디어… 그 노대드루이드가!"

두 마디를 끝내자마자 도 루이스는 터져 나오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제야 재미있군. 이제부터는 비극이 희극과 맞닿고, 우스꽝스러움이 공포와 섞이는구나. 아, 그 늙은 드루이드야. 정말 쟤는 총알도 잘 맞추는구만."

그는 계속했다.

"스테파니와 파트리스, 두 분은 이 사건의 뒷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니 더 이상 흥미로운 건 없겠지. 하지만 보르스키에게는 사뭇 다르군. 정말 흥미진진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그는OTTO에게 말을 돌렸다.

“오또, 사다리를 나무 기둥에다 대주게. 내 상사가 윗단계에 발을 올릴 수 있게 말이야. 좋아.”

그리고 보르스키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에이, 편해졌지, 보르스키? 내 배려가 불필요한 동정심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게. 네가 기절할까 봐 조금 걱정됐거든. 더구나 늙은 드루이드의 고백을 듣기에는 네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니까.”

또 한바탕 웃음바다였다. 확실히 그 ‘노인 드루이드’는 돈 루이스를 아주 재밌게 놀아주고 있었다.

“노인 드루이드가 등장했으니, 이 사건에 질서와 이성이 생겼습니다. 엉망이었던 실마리가 단단히 매듭지어지는군요. 범죄의 무질서함이 처벌의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토마스 형제의 시시껄렁한 암호 따위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성과 철저한 방법을 따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의 방법 말입니다. 정말로 노인 드루이드는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노인 드루이드, 우리가 뭐라 불러도 상관없지. 너도 짐작하겠지? 돈 루이스 페르냐든, 아르센 뤼팽이든. 그는 어제 정오쯤, ‘크리스탈 마개’라는 그의 잠수함의 투시경을 내밀고 사렉 해안선을 바라봤을 때, 아직 그 역사에 대해 별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다지 큰 건 아니라는 거요?" 스테파| 마루가 억지로라도 외쳤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돈 루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Vorski의 과거에 대한 그 모든 디테일들, Sarek에서 그가 한 일들, 그의 계획들, Elfride의 역할, 그리고 Maguennoc의 독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까지?"

"그 모든 건 어제부터 이 곳에서 알게 된 거요." 돈 루이스가 말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요?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제 사렉 해안에 도착했을 때, 늙은 드루이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해 줘. 하지만 늙은 드루이드는 너, 보르스키야, 신들의 총애를 적어도 너만큼이나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도, 그는 곧장 외딴 작은 해변에서 스테파누스 친구를 발견할 수 있었어. 스테파누스는 운이 좋게도 꽤 깊은 물웅덩이에 빠져서, 너와 네 아들이 그에게 준비해 둔 운명을 피할 수 있었지. 구조와 대화. 반 시간도 안 되어 늙은 드루이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지. 그는 결국 감방에 다다랐고, 너의 감방에서 네가 일하는 데 필요한 흰색 튜닉을 찾았어. 그리고는 너의 손으로 쓴 예언의 사본이 적힌 종이 조각도 발견했지. 훌륭하군. 늙은 드루이드는 적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어."

그는 먼저 프랑수와와 그의 어머니가 도망쳤던 터널을 따라가지만, 붕괴된 돌무더기로 인해 통과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라

드노아르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섬을 샅샅이 뒤졌다. 오토와 콘라드를 만나고, 적들은 다리를 불태웠다.

오후 여섯 시였다. 어떻게 구교에 도착할 수 있을까?

"포타른 언덕을 타고 올라가세요." 스테파인이 말했다.

구 드루이드는 다시 '크리스탈 마개'로 돌아갔다. 스테파인의 지휘 아래 섬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모든 통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리스탈 마개', 내 친애하는 보르스키 씨, 그건 아주 순종적인 잠수정이었습니다. 구 드루이드가 자신의 설계도에 따라 직접 만든 그 잠수정은 어디든 자유롭게 숨어들 수 있었죠. 드디어 우리는 프랑슈의 보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토와반'을 만났다. 그는 보트 아래에서 자고 있었다. 구 드루이드를 소개하자마자 서로 호감을 느꼈다. 곧장 길을 떠났다.

하지만 언덕 중턱에서 토와반이 길을 비켜섰다. 절벽 벽면이 그 부분에서 균열난 돌들로 기워진 듯했다. 그 돌들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마귀노크가 뚫어둔 구멍이었다. 구 드루이드가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 구멍은 지하 제단실과 무덤으로 들어가는 통로였다.

이처럼 구 드루이드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그의 손아귀였다. 다만, 문제는 오후 여덟 시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프랑수아는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예언에는 '아벨이 카인을 죽인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6월의 어느 밤'에 죽어야 할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은 이미 끔찍한 고문을 당했을까? 그녀를 구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걸까?

돈 루이스는 스테파노를 돌아보며 물었다.

"스파랑, 기억나지? 늙은 드루이드와 네가 겪었던 그 공포를. 그리고 'V. d'H.'라는 글자가 적힌 나무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을."

"그 나무 위에는 아직 희생자가 없어. 베로니크는 구원받을 거야."

"정말, 지금부터 소리가 들려. 수녀원 쪽에서."

"저 저주받은 행렬이로군."

"두꺼워지는 어둠 속을, 천천히 잔디밭을 따라 올라오고 있어."

"등불이 흔들리고 있어. 잠시 멈췄군. 보르스키가 웅변을 이어가고 있어."

"결말이 다가오고 있어. 곧 공격이 시작되고, 베로니크가 구원받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네. Vorski, 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어할 거야. 나와 내 친구들이 기이한 발견을 했거든. 돌멘 주변을 배회하던 한 여성이 있었고, 우리를 만나자마자 숨어버렸지.

우리는 그녀를 붙잡았어. 전등 불빛 아래서 스테파니가 그녀를 알아봤어.

누구였는지 알겠니, Vorski? 백 번을 줘도 맞히지 못할 거야. 엘프리드였어. 바로 너의 공범, 처음엔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여자 말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니?

그녀는 매우 흥분한 나머지 반쯤 미친 상태였어. 두 아이의 결투에 동의한 건, 자신의 아들이 이겨 베로니크의 아들을 죽이리라는 약속 때문이었다고 했지. 하지만 너는 아침부터 그녀를 감금했고, 저녁이 돼서야 간신히 탈출한 그녀는 자신의 아들 레놀드의 시체를 발견했어.

이제 그녀는 미워하는 경쟁자의 처형을 목격하려 왔고, 너를 죽여 복수하려던 참이었지. 불쌍한 친구여.

"완벽해! 노령의 드루이드가 승인하죠. 그리고 당신이 돌멘에 다가가는 사이, 스테파니가 당신을 엿보고 있을 때, 그는 엘프리드를 계속 심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Vorski, 그 나쁜 여자가 반기를 들지 뭐예요. 뜻밖의 반전! 주인의 목소리가 그녀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일깨웠죠. 그녀는 당신을 보고, 위험을 알리고, 당신을 구하려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칼을 든 채 노령의 드루이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노령의 드루이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반쯤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이 죽어가는 여자를 보고 그는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파악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못된 여자는 묶였습니다. Vorski, 당신이 그녀를 처벌할 것이고, 그녀는 당신이 미리 준비해 둔 운명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후 노

령의 드루이드는 자신의 튜닉을 스테파니에게 건네고 지시를 내렸으며, 당신이 도착하자마자 화살을 당신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흰 튜닉을 뒤쫓는 동안, 그는 속임수를 써서 엘프리드를 베로니크로 바꿔치기했죠. 첫 번째 아내를 두 번째 아내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술수는 성공했고, 그것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돈 루이스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말투가 친근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해서, 듣는 이는 그가 보르스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보르스키가 가장 먼저 웃어야 할 궂은 장난을 들려주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게 다 아니야."

그가 계속했다.

"파트리스 벨발과 내 모로코인 몇 명이 지하 방에서 일을 했어. 참고로 말하면, 배에는 총 열여덟 명이 타고 있어."

"예언이 분명하지 않더냐?"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불과 굉음이 땅에서 솟구치리 그곳, 바로 큰 보물이 묻힌 자리.'

'그제야 남자는 돌을 되찾으리 북방 야만들에게서 훔쳐간 생과 사를 좌우하는 신의 돌을.'"

"구 드루이드는 그저 명령만 받들면 돼. 천국의 열쇠를 네게 건네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전에, 당연한 말이지만, 잠시 동안의 간격을 두자. 몇 가지 묘기를 부리고, 마법 같은 연주를 들려주며 웃음이라도 한 바퀴 돌리자고. 그리고 나서 '신석'으로 가자. 잠자는 미녀가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돈 루이스는 자신이 유난히 선호하는 듯한 그 묘기들을 재빠르게 몇 가지 수행했다. 그러고는 보르스키에게 말했다.

"내 친구, 넌 내 말에 지쳤을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어. 더 이상 듣기보다 프랑수아의 은신처를 바로 알려주길 원할 테니까. 미안하지만, '잠자는 미녀'와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의 기묘한 등장 배경에 대해선 네가 정확히 알아야 해. 두 분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양해해 줘."

돈 루이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그는 옛 드루이드 이야기를 접어두고,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말하기 시작했다.

"왜 내가 베로니크 드 에르제몽을 네 발톱에서 구해 낸 뒤, 그곳으로 옮겼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내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겠는가? 잠수함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제안이야. 그날 밤 바다는 흉흉했고, 베로니크는 쉴 곳이 필요했지. 수도원으로? 절대 그렇지. 그곳은 작전 현장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으니까.

사실, 폭풍을 피하고 네 손아귀에서도 안전한 곳은 희생실 하나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진정제의 영향으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 네가 그녀를 봤을 때 말이야.

솔직히 말해, 네게 이런 작은 희극을 선사할 기회를 잡았다는 기쁨도 내 결정에 한몫했어.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네 얼굴을 기억해 봐! 그 끔찍한 표정! 부활한 베로니크! 살아 있는 죽은 자! 그 광경은 너무도 섬뜩해서 네가 말도 없이 도망쳤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다. 출구를 막힌 것을 보고는, 너는 다시 마음을 바꾸었어. 콘라드가 역습을 걸어온 거야. 내가 베로니크를 잠수함으로 옮기는 틈을 타서 사기치듯 나를 공격했지. 하지만 내 모로코인 한 명이 콘라드에게 치명상을 입혔어. 두 번째 코믹한 간극이지.

콘라드는 옛 드루이드의 가운을 입은 채 한 구석의 지하 묘지에 누워 있었고, 당연히 네 첫 번째 행동은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난도질하는 거였지. 그리고 베로니크의 자리에 희생대의 상을 차지한 엘프리트의 시체를 발견하자, 너는 또다시 달려들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녀를 죽여 버렸지.

역시나 큰 실수였어. 그리고 결말 역시 유머러스한 톤으로 이어졌지. 네가 고문 기둥에 매달린 채, 내가 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 그 연설의 요지는 이렇다. 네가 서른 가지 죄악의 힘으로 '돌의 신'을 손에 넣었더라도, 나는 나의 힘으로 그 신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지.

이것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야, 보스키 군. 부수적인 몇 가지 사건들, 혹은 네가 알 필요가 없는 더 중요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너는 나만큼이나 이 일을 잘 알고 있어.

편하게 앉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겠지. 그래서 나는 프랑수아에 대한 네 답을 기다리고 있어. 안심해도 돼. 자, 이제 시작해 봐. '엄마, 물 위를 가는 작은 배들, 다리가 있을까요?' 그런 노래처럼 말이지. 준비됐나? 수다 떨고 있나?"

도 루이스는 몇 단계 올라섰다. 스테파누와 파트리스가 다가와 초조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보르스키가 입을 열 것이라는 건 자명했다.

그는 눈을 뜨고 도 루이스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 놀라운 남자는 그에게, 싸우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것 역시 헛된 일인 존재로 비쳤을 것이다. 도 루이스는 승자였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양보하거나 굴복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는 이미 저항의 한계에 다다랐다. 고문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몇 마디 중얼거렸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라, 도 루이스가 말했다. 들리지 않네. 프랑수아 다르제몽은 어디 있나?"

르스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보르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약속하지. 우리 모두 여기서 떠난다. 오토만 빼고. 오토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

"그럼…"

"그럼?"

"이거요. 프랑수아는 살아있어요."

"미친놈, 난 의심 안 해. 근데 그는 어디에 있어?"

"배에 묶여 있어요…"

"절벽 발치에 매달린 그 배?"

"네."

도 루이스가 이마를 치며 탄식했다.

"삼중 바보야!… 내 말은 나에 대한 거야. 어이쿠, 내가 그걸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모두 잘돼'가 그 배 아래에서, 자기 주인 곁에서 편안하게 자는 좋은 개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지 않았나? '모두 잘돼'가 프랑수아의 뒤를 쫓아 나서 스테파느를 그 배로 이끌지 않았나? 그래, 때때로 가장 영리한 자들도 나귀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곤 하지! 하지만 너, 보르스키, 너는 그 아래에 계단과 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어제부터요.

"그리고 너, 똑똑한 놈,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갈 작정이었나?

"그래, 보르스키, 너와 오토가 그 계단을 내려가. 배는 네게 주마. 스테파느!"

하지만 스테파느 마루는 이미 '모두 잘돼'의 호위를 받으며 절벽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프랑수아를 구해라, 스테파느, 돈 루이스가 외쳤다.

그는 모로코인들을 향해 덧붙여 말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주시오. 그리고 잠수함을 가동하시오. 10분 뒤면 출발합니다."

그가 몸을 돌려 보르스키 쪽을 바라보았다.

"안녕, 친애하는 친구여. 아, 한 마디만 더 하마. 잘 짜인 모험담이라면 으레 사랑 이야기가 따르기 마련이지. 우리 이야기에는 그런 게 빠져 있는 듯해. 네가 네 이름과 같은 성스러운 그 여인을 향해 품었던 감정을 언급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주 순수하고 고귀한 사랑 하나만은 일러두어야겠어. 스테파니가 프랑수아를 구하러 얼마나 재빨리 달려갔는지 너도 봤지. 분명 그는 제자를 아끼지만, 그 어머니를 더 아끼고 있어. 그리고 베로니크 드헤르몽이 기뻐하는 일은 너도 기뻐할 테니, 솔직히 고백하마. 그 아

름다운 사랑이 그녀의 여성스러운 마음을 움직인 모양이야. 그녀가 오늘 아침 스테파니를 만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겠지. 결국 이 모든 것은 결혼으로 이어질 거야. 물론 그녀가 과부가 된 뒤겠지만.

이해가 가는군, 그렇지? 둘의 행복을 가로막는 단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너야. 그러니 완벽한 신사인 너라면…… 하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어. 네가 예의를 지키며 가능한 한 빨리 숨을 거둘 것을 믿는다. 안녕, 오래된 친구여. 악수는 하지 않겠네.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리라. 오토, 10분 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네 상사를 풀어주게. 배는 절벽 아래에 있을 거다. 행운을 빈다, 친구들이여."

그렇게 끝이 났다. 돈 루이스와 보르스키 사이의 전투는, 결과가 의심될 여지가 조금도 없이 종결되었다. 첫 순간부터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그 상대는 비록 범인 특유의 용기와 훈련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절단된 인형처럼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계획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해 목적지에 도달했고, 그 이상을 넘어서 승리를 거두었다. 사건의 주재자로서 그는 갑자기 교수대의 나무에 걸린 채, 코르크 마개에 핀 벌레처럼 헐떡이며 포로로 남았다.

루이스는 시체 따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파트리스 벨발을 데리고 떠났다. 벨발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저런 추잡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편한 일만 시켜주는 격이군요."

"하하, 걱정 마라. 저놈들은 곧 다른 곳에서 잡힐 거다." 루이스가 비웃듯 말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우선은 '신의 돌'을 가져가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걸 옮기려면 스무 명은 돼야 하고, 비계와 장비도 필요하죠. 나조차도 지금은 포기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루이스. 그 기적의 돌이 대체 뭐라는 겁니까?"

"호기심 많은 놈이로군." 루이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떠났다. 루이스는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잘 돌렸다. 우리가 사렉에 도착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는 이천 사백 년이나 이어져 왔으니, 세기당 한 시간씩 풀었던 셈이다. 잘했다, 뤼팽."

"감사합니다, 도니 루이스." 파트리스 벨발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칭찬은 전문가인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만 못합니다."

그들이 작은 해변의 모래사장에 다다랐을 때, 프랑수아의 보트는 이미 내려져 있었고 빈 상태였다. 더 멀리, 오른쪽으로는 '크리스탈 코르크'호가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었다.

프랑수아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다 도니 루이스 몇 걸음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니 루이스를 바라보았다.

"그래,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인가? … 내가 기다리던 당신인가?"

"음, 웃으며 말하건대, 루이스 경." 돈 루이스가 웃으며 말했다.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지만… 확실히 나 맞다."

"당신… 당신… 돈 루이스 페레나… 아니, 그러니까…"

"잠, 다른 이름은 쓰지 마라. 페레나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래 주겠지? 나는 단지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일 뿐이야.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떨어지는 존재라고."

"그런데 너는… 대견하다, 내 친구. 정말 잘 빠져나왔군! …그래, 그 배에서 밤을 보냈다는 말이야?"

"네, 덮개를 씌운 배 안에 숨어 있었죠. 바닥에 묶여 있고, 입도 단단히 막혀 있었어요."

"두려웠니?"

"전혀요. 거기 있던 지 십 분도 안 돼 토와뱅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남자… 그 악당… 너를 뭐로 협박했단 말인가?"

"별 것 아닙니다. 결투가 끝난 뒤, 다른 사람들이 상대를 처리하는 사이 그 남자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죠. 원래는 어머니께 모셔다 드리고, 우리 둘이 함께 배를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다다르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낚아챘습니다."

"그 남자, 너도 알고 있어? 이름이라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요. 다만 어머니와 제가 그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만은 압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주마, 프랑수아 군. 어쨌든 이제 그에게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은 없어."

"오,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죠?"

"아니, 하지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게 만들었지.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주마.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너의 어머니께로 돌아가는 거야."

"스테파느가 말했죠. 어머니가 잠수함 안에서 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도 구해 주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맞죠?"

"네, 오늘 밤에 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지. 그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하지만 스테파l, 너부터 먼저 가서 그녀를 준비시켜 두는 게 좋겠어."

… 오른쪽 끝, 방파제처럼 늘어선 바위 끝자락에 '크리스탈 부채'호가 잔잔한 물결 위에 떠 있었다. 마로코인 열여덟 명이 사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두 사람이 도랑을 고정해 놓았고, 도니 루이와 프랑수아는 잠시 후 그 위를 지나갔다.

한쪽 구석의 객실, 소파로 꾸며진 곳에는 베로니크가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약해 보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음에도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프랑수아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을 바라보던 '모두 잘돼'는 뒷다리에 앉은 채 발을 부비적이며,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돈 루이스가 여기 있어요."

프랑수아가 말했다.

돈 루이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길게 입을 맞추었다. 그사이 프랑수아는 속삭였다.

"엄마를 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구해 주셨어요."

돈 루이스가 그를 막았다.

"조금만 해줄 수 있겠니, 프랑수아? 고마워하지는 마라. 만약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한다면, 이 친구 '모두 잘돼'에게 감사해라."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었다.

"그는 이 비극에서 별다른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너희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과는 달리, 그는 조용하고, 지능적이며, 겸손하고, 침묵하는 선한 영혼이었다."

"당신도 마찬가집니다."

"아, 나는 겸손하거나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될 거야'를 존경하는 거죠. 자, '잘될 거야', 나를 따라와라. 멋부리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 밤새도록 있을 수도 있어.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울며 애도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제19장

크리스탈 코르크호가 수면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도 루이스는 스테파누, 파트리스, 투바비앙 주위에 둘러싸인 채 수군거렸다.

"저 Vorski라는 녀석은 정말 개쌍놈이군! 나는 이런 괴물들을 많이 봐 왔지만, 저렇게나 큰 놈은 처음이야."

"그렇다면, 그런 경우라면……" 파트리스 벨발이 반문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라면?" 도 루이스가 되물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당신은 손에 괴물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녀석을 풀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행동이에요. 그 녀석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지, 그리고 반드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저지를 범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테파누, 너도 같은 생각이야?" 도 루이스가 물었다.

"저도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프랑수아를 구하기 위해선 어떤 양보도 마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다른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살아 있고 자유로운 한, 드헤르몽 부인과 그녀의 아들은 그에게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해결책이 좋았다는 겁니까? 프랑수아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저는 그에게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숨만 보장해주고, 그를 법정에 넘겨야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벨발 대위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법정이 수사를 진행해 결국 그 인물의 진정한 신원을 밝혀냈을 때, 베로니크 드헤르몽의 남편이자 프랑수아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결과입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스테파니가 급하게 외쳤다.

"아니요, 사실 그렇습니다." 파트리스 벨발이 당황한 기색으로 시인했다. "그 해결책이 더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의아한 점은, 루이스 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돈 루이스 페레나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하나뿐이죠."

"어떤 답이죠?"

"사형입니다."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돈 루이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모은 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닙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재판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보르스키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보십니까?"

"네." 파트리스가 단언했다.

스텝발도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친애하는 여러분," 도 루이스가 계속 말했다. "여러분의 답변은 너무 가볍습니다. 범인 앞에 선 듯, 엄숙한 형식과 양심에 따라 표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보르스키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손을 들었다. 한 명씩 차례로 외쳤다.

"사형입니다."

도 루이스가 휘파람을 불었다. 모로코인 한 명이 달려왔다.

"쌍안경 두 개, 하지."

쌍안경이 가져오자, 도 루이스는 스테파느와 파트리스에게 건넸다.

"우리는 사렉에서 단 한 마일 거리입니다. 곶 쪽을 보세요. 보트가 떠났을 겁니다."

"네," 파트리스가 잠시 후 대답했다.

"보입니까, 스테파느?"

"네, 그런데……"

"그런데……"

"승객이 한 명뿐입니다."

"맞습니다. 승객이 한 명뿐이군요," 파트리스가 선언했다.

그들은 쌍안경을 내려놓았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도망간 건 한 명뿐이야. 분명 보르스키겠지. 동료 오토를 죽였을 거야."

돈 루이스가 비웃듯 웃었다.

"혹은 동료 오토가 보르스키를 죽였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글쎄, 기억나지? 보르스키가 어렸을 때 했던 예언 말이야. '네 부인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너는 친구에게 죽는다'고."

"예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증거도 있어."

"무슨 증거요?"

"친애하는 친구들, 이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 중 하나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엘프리트 보르스키를 드헤르제몽 부인 대신 세웠는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텝발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살롱에서 모르는 사람이 손재주나 심령술을 부리면, 당신은 당연히 '무언가 속임수가 있겠지, 동조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뭐? 동조자가 있었다니?"

"당연하죠."

"누구죠?"

"오토예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잖아요."

"그의 동조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이 사건에서 저는 두 명의 동료를 얻었습니다. 엘프리트와 오토였죠. 둘 다 Vorski를 배신했는데, 원한 때문이거나 두려움, 아니면 탐욕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Vorski를 돌언덕에서 멀리 끌어냈을 때, 스테파니와 저는 오토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금방 합의를 봤습니다. 몇 장의 지폐를 건네는 대신, 그가 무사히 이 일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Vorski가 Archignat 자매의 5만 프랑을 훔쳤다는 사실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나요?" 스테파니가 물었다.

"제 일번 동지, 즉 엘프리트에게서 들었습니다. Vorski가 다가오는 것을 엿보고 계실 동안, 저는 낮게 목소리를 줄이고 계속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말로 Vorski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죠."

"결국, 당신은 Otto를 단 한 번만 본 셈이군요."

두 시간 후, 엘프리트가 죽고 켄트나무 속의 불꽃놀이도 끝난 뒤, 다시 한 번 만났다. 페리 돌멘 아래에서였다.

보르스키는 술에 절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토가 경비를 서고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오토가 두 해 동안 그림자 속에서 모은 정보로 보르스키에 대한 내 지

식을 보충했다. 오토는 자신이 증오하는 상사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모아 온 것이다.

그는 보르스키와 콘라드의 권총에서 총알만 빼냈다. 총알만. 총알껍데기는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는 보르스키의 시계와 노트를 내게 건넸다. 빈 메달리온과 보르스키 어머니의 사진도 함께였다. 이 사진은 몇 달 전 오토가 훔쳐 온 것이었다.

다음 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마법사처럼 만들어 주었다. 보르스키가 나를 찾아온 동굴에서 나는 그를 속일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오토와 내가 함께한 일이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Vorski를 죽이라고 명한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증명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보르스키가 이 협력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그의 패배를 초래한 명백한 원인 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또 씨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확신합니다.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보르스키는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가해자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복수도 하고 싶었을 테고, 아르시냐트 자매의 오만 프랑을 되찾고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또가 먼저 행동했습니다. 보르스키는 그 자리에서

무력하고 꼼짝 못 해, 쉽게 잡힐 수 있는 먹잇감일 뿐이었죠. 오또가 그를 때렸을 겁니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오또는 비겁한 자라 때리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보르스키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처벌은 완벽해집니다.

자, 친구들이여, 이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의감은 충족되었습니까?"

파트리스와 스테파느는 입을 다물었다. 돈 루이스가 그려낸 끔찍한 광경에 두 사람 모두 압도당한 탓이었다.

"자, 웃으며 말하지만."

돈 루이스가 말했다.

"그때 참나무 아래에서, 살아 있는 사람 앞에서도 너희에게 판결문을 낭송하게 하지 않은 게 정답이었어. 지금 보니, 내 두 판사라고 할 만한 너희는 그 순간만 되면 금방 무너질 뻔했으니까."

"내 세 번째 심판관도 바로 너야, 토티바뱅. 너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 많은 사람이잖아. 나도 너희와 마찬가지야, 친구들. 우리는 남을 단죄하고 때리는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어쨌든, 보르스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저지른 서른 가지 범죄와 잔혹함의 정점을 생각해 봐. 그리고 마지막 심판관으로 눈먼 운명을, 책임 있는 처형자로 저주받을 오토를 선택한 나를 칭찬해 줘. 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렉의 해안선은 저멀리 얇아졌다. 바다와 하늘이 안개 속에 녹아드는 가운데, 해안선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세 사람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세 사람 모두 죽은 섬, 한 남자의 광기에 의해 황폐해진 그 섬을 생각했다. 곧 누군가 그 섬을 찾아와 이 비극의 불가해한 흔적들을 발견할 것이다. 지하 통로의 출구, '죽음의 방'이 있는 감방들, 돌신자 방, 무덤 동굴, 콘라드의 시체, 엘프리드의 시체, 아르시냐 자매들의 해골,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페르 돌멘 근처에 서 있는 보르스키의 거대한 시체. 그 곳에는 서른 개의 관과 네 개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새겨져 있었다.

아르카숑 근처, 무레로 마을의 작은 빌라. 소나무들이 만조 시의 해안선까지 내려와 있었다.

베로니크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이틀간의 휴식과 기쁨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생기를 되찾아 주었고, 나쁜 기억들은 잠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금 더 멀리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도니루이스 페레나에게 경청하며 질문하고 있었다. 또한 스테파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은 부드럽게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는 아이를 향한 서로의 애정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 이 유대는 서로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모호한 감정 때문에 더욱 단단해진다.

스테파노는 한 번도 검은 땅의 감옥에서 한 자백을 꺼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베로니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아들을 키워준 그 남자

에 대한 깊은 감사함은, 그녀가 스스로도 모른 채로 매혹되는 특별한 감동과 어지러움과 섞여 있다.

그날 오후, 뤼팽이 그들을 모두 무르소 빌라로 데려왔던 바로 그날 밤,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탔던 도 루이스가 점심시간에 갑자기 나타났다. 파트리스 벨발과 함께였다.

그들은 정원에 앉아 로킹체어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는 얼굴이 신난 빛으로 붉게 물들며 구원자를 향해 끝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 대체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어요? … 그러려면 어떤 단서를 찾았어요?"

"조심해요, 우리 아이." 베로니크가 말했다. "도 루이스를 귀찮게 하지는 않나요?"

"아니요, 마담." 도 루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베로니크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귀에 들리지 않게 낮게 말했다. "프랑수아는 저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질문에 답하고 싶을 정도죠. 다만 제가 실수할까 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그 사건에 대해 그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저도 아는 범위 안에서요. 물론 보르스키의 이름은 빼고 말입니다."

"보르스키의 역할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생략해서요. 보르스키는 탈옥한 죄수입니다. 그는 사렉의 전설을 모아, 신석을 손에 넣기 위해 그와 관련된 예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 예언 중 몇 구절을 프랑수아에게 숨겼죠."

"엘프리트의 역할은요? 당신에 대한 증오와 위협까지?"

"미친 소리입니다. 나조차 프랑수아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돈 루이스가 미소 지었다.

"설명이라곤 좀 소략하죠. 하지만 프랑수아는 이 드라마의 일부가 자신에게 영원히 어둠 속에 남아 있을 것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Vorski가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요."

"그는 모르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제가 말하려던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무슨 뜻이십니까?"

"그래, 누구를 아버지로 여길까? 당신도 알다시피, 법적으로 현실은 이렇다. 프랑수아 보르스키는 열다섯 년 전 해난 사고로 죽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보르스키는 일 년 전 동

료에게 살해당했다. 법적으로 그들은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베로니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요? 저는 알 수 없군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잘 될 거예요."

"왜요?"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 역시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행동이나 취한 조치의 효과조차 누리지 못했네. 모든 것이 미리 다 해결되어 버렸어. 무슨 수고를 하겠나!"

"제가 틀린 말인가요?"

"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고통을 많이 겪은 당신에게 더 이상 작은 불편함도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어떤 해악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당신은 과거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촌은 아들을 남기고 죽었죠. 그 아들의 이름은 프랑수아였습니다."

"프랑수아를 데려간 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렉으로 데려갔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에르몽가 문은 단절되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떠올리게 할 어떤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남습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등기상에도 저는 베로니크 드 에르몽가입니다."

"당신의 처녀 시절 이름은 기혼자 이름 아래로 사라집니다."

"그럼 제 이름인 보르스키 아래로요?"

"아닙니다. 당신은 보르스키 씨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촌의 이름은……"

"이름이 뭐였죠?"

"장 마루였습니다. 여기는 장 마루와 당신 사이의 합법적인 혼인 증명서 사본입니다. 이 혼인 사실은 당신의戶籍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다른 서류가 그 증거입니다."

베로니크는 루이스 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놀람이 얼굴을 뒤덮었다.

"하지만 어째서요? … 왜 그 이름이죠?"

"왜냐고요? 아들의 이름이 더 이상 '에르제몽'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또 '보르

스키'가 되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배신자의 이름을 연상시켰으니까요. 여기 아들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프랑수아 마루."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한 어조로 되물었다.

"하지만 어째서 하필 그 이름을 고르셨나요?"

"프랑수아에게는 편한 일일 거예요. 스테파노의 본명으로, 프랑수아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이어받아 살게 될 테니까요. 스테파노가 당신의 남편과 친척 사이였다고 하면, 당신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죠. 제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안심하세요,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처럼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특별한 수단을 쓰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방법은 법적으로 그리 좋지는 않죠. 저는 주저 없이 그 방법을 썼습니다.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진 행운을 가졌으니까요. 제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베로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그녀가 말했다.

그는 반쯤 몸을 일으켰다.

"게다가," 그가 덧붙였다. "어떤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미래가 분명히 그걸 해결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요, Stephane이 François의 어

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을 살짝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물론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이어 말했다. "어느 날, 이유든 감사 때문이든, François의 어머니가 그 감정을 받아들일 마음을 먹게 된다면요. 그러면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François가 이미 Maroux라는 성을 쓰고 있다는 점이요."

"과거는 완전히 지워질 겁니다. 세상이나 François나요. 더 이상 사라진 사건의 비밀을 파고들 수 없고, 그 일을 떠올리게 할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이유들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신 걸 보니 기쁩니다."

Don Luis는 Véronique에게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끈질기게 묻지도, 그녀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채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는 François에게로 돌아서며 외쳤다.

"이제 내 차례야, 친구. 너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모두 밝히려는 모양이군. 그럼 다시 '신석'과 그 돌을 노리던 도둑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래, 그 도둑 말이다. 도르 루이는 Vorski를 숨김없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렇게 반복했다. 내가 만난 도둑 중 가장 무서운 자였지.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믿었으니까. 결국 그는 병자였고, 정신이 나간 자였어."

"음, 먼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프랑수아가 지적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요정의 돌' 아래 잠들었을 때, 왜 너는 밤새도록 기다렸냐는 거야."

"정말 좋군, 친구." 돈 루이스가 웃으며 외쳤다. "너는 아주 아픈 곳을 찔렀어.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 비극은 열두 시간, 많게는 열다섯 시간 일찍 끝났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네가 구출되었을까? 그 강도가 말을 꺼내 네 은신처를 털어놓았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

그의 혀를 풀려면 '가열차게' 물어봐야 했지. 그를 정신을 잃게 하고, 불안과 공포로 미치게 만들어야 했어. 그리고 수많은 증거를 통해 그에게 '자신의 패배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입을 다물었을 테고, 그러면 아마도 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게다가 그때 내 계획은 명확하지 않았어.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막막했지. 훨씬 나중에서야 나는 그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일을 할 성품이 못 되니까. 대신 그가 네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그를 묶어두자는 생각을 했지.

결국 나는 당황하고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해 부끄럽지만, 아이같은 충동에 끌린 거야. 예언을 끝까지 관철해보고, 고대 드루이드의 제단 앞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싶었던 거지. 결국은 재미를 본 거야.

어쨌든 그 사건이 너무도 어둡고 무거웠기에, 나는 약간의 유머가 필요하다고 느꼈지. 그리고 나는 정말 크게 웃었어. 이것이 나의 잘못이야. 나는 이를 인정하고, 사죄하네."

아이도 함께 웃었다. 두 다리를 벌리고 앉은 루이스는 아이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다시 물었다.

"용서해 주겠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에 하나 더 답해 주세요. 아직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말해 봐."

"반지 이야기입니다. 그 반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처음엔 어머니의 손가락에 끼우셨다가, 다음엔 엘프리트의 손가락에 끼우셨잖아요."

"그날 밤, 오래된 반지와 보석 몇 개를 가지고 몇 분 만에 직접 만들었어."

"그런데 강도가 그 반지를 어머니의 것이라고 알아보았不是吗?"

"그가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그저 비슷해 보여서 그렇게 믿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 이야기까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자신에게서 들었지."

"그럴 리가요?"

"주님, 맞아요! 돌멘-오-페에서 잠들었을 때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이었죠. 술에 취해 꾸던 악몽이었어요.elfride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각조각 엮어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가요? 운이 얼마나 따랐는지요!"

"하지만 피에르-디에의 수수께끼는 간단하지 않아요!" 프랑수아가 외쳤다. "당신은 그것을 해독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당신은 몇 시간 만에!"

"아니요, 몇 분이에요, 프랑수아. 할아버지가 벨발 대위에게 쓴 편지만 읽으면 됐죠. 우편으로 할아버지께 피에르-디에의 위치와 놀라운 성질에 대해 모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도 루이스님!" 아이가 외쳤다. "바로 그 설명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약속할게요. '바위 신'의 힘이 믿어지게 된 건 왜일까요? 그리고 그 소위 힘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스파랑과 파트리스가 의자를 서로 가까이 붙였다. 베로니크도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모두 알았다. 도 루이스가 이들을 모두 모은 뒤,야말로 이 신비의 베일을 벗겨놓으려 기다렸다는 것을.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흥미진진한 건 기대하지 마라," 그가 말했다. "신비는 어둠 속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어둠을 걷어냈으니, 이제 남은 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뿐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사실은 기이하다. 그리고 그 현실에는 어느 정도 위엄이 서려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파트리스 벨발이 말했다. "이 현실이 사레크 섬, 더 나아가 브르타뉴 전체에 기적 같은 전설을 남겼으니까요."

"맞아요." 돈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설은 너무도 끈질겨서, 오늘인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기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선장이 반박했다. "저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저도요."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믿고 있어요. 기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진실을 파악했을 겁니다."

"어떻게요?"

돈 루이스는 자신 쪽으로 가지런히 기울어진 관목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하나 꺾어 들었다. 그리고 프랑수아에게 물었다.

"이 장미는 이미 드물게 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비율을 지니고 있는데, 이걸 두 배나 큰 꽃으로, 이 장미나무를 두 배나 큰 관목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프랑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마그노크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그는 섬의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흙을 채집하는 것만으로 그 일을 해냈다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저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였죠."

스텝발이 반박했다.

"우리는 직접 목격한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그노크가 특별한, 아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으킨 현상이라고요. 반면 저는 드헤르몽의 편지에서 그 대목을 읽자마자, 뭐라고 할까…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곧장 그 기괴한 꽃들과 '꽃이 핀 칼바리'라는 이름 사이를 연결했죠. 제 확신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마그노크는 마법사가 아니야. 그는 단순히 칼바리 주변을 정리했을 뿐이지. 거기에 비옥한 흙을 조금 보태기만 해도 이상한 꽃들이 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의 돌'이 그 아래에 있는 거야. 중세 시대에도 같은 이상한 꽃들을 피워냈던, 드루이드 시대에는 병자를 낫게 하고 아이들을 튼튼하게 해 주던, 바로 그 '신의 돌'이.'"

"그럼 결국,"파트리스가 지적했다. "기적이 있는 셈이죠."

"초자연적인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기적이겠지요. 하지만 물리적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이 겉보기에 기적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것은 자연 현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물리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합니다. 당신이 괴상한 크기의 꽃들을 봤잖아요."

"그렇다면,"파트리스는 비꼬는 투로 물었다. "자연적으로 병을 고치고 체력을 키워주는 돌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 돌이 바로 '신(神)의 돌'이라는 거죠?"

특별하고 유일한 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돌덩이, 암석, 언덕, 그리고 산맥처럼, 다양한 금속과 산화우라늄, 은, 납, 구리, 니켈, 코발트 등으로 이루어진 광맥을 품고 있는 곳도 있다.

이들 금속 중에는 특별한 성질을 지닌 독특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들이 있다. 이를 우리는 '방사성'이라고 부른다.

이 광맥은 피치블렌드 광상이다. 유럽에서는 보헤미아 북부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요아힘스탈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채굴된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이 방사성 물질들은 무엇일까? 우라늄, 토륨, 헬륨,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듐입니다." 프랑수아가 끊어 말했다.

"맞아요, 우리 친구. 라듐에 대해 말입니다."

"방사능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되죠. 온천의 효험처럼 자연 전반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듐처럼 뚜렷한 방사능을 지닌 물질은 더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듐의 방사선과 기체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를 때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두 경우 모두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이 자극을 받아, 식물이 필요한 성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의 성장도 촉진되지요."

"마찬가지로, 라듐의 방사선이 살아 있는 조직에 작용해 세포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듐은 특정 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 다른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며, 심지어 세포의 진화까지 조절하기도 합니다.

라듐 요법은 관절염, 신경 장애, 궤양, 습진, 종양, 유착된 흉터 등 다양한 질환에서 완치나 호전을 가져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라듐은 확실한 효과를 지닌 치료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스테파니가 말하길, 당신께서는 '신석'을……"

"저는 이 '신석'을 요힘스탈 광산에서 나오는 피치블렌드 원석 덩어리로 봅니다. 예전에 보헤미안족 사이에서 돌출산에서 떼어낸 기적의 돌에 관한 전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한 번 여행 중에 그 돌이 떼여 나간 자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곳의 빈 공간 크기가 이 '신석'의 크기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느가 반박했다. '라듐은 암석 속에 극미량의 입자 형태로만 들어 있습니다. 1,400톤의 암석을 채굴하고, 세척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도 결국 라듐은 단 1그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고작 2톤에 불과한 이 신석에 기적적인 힘을 부여하다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상당량의 라듐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은 라듐을 아끼거나 희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연의 뜻이었으니, '신석' 안에 충분히 많은 라듐을 축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겉보기에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죠. 게다가 대중의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파앙은 점점 더 설득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석 말고, 마귀노크가 납 지팡이에서 찾아낸 작은 파편이 있습니다. 그 파편이 손에 오래 닿아 화상을 입게 했죠. 그건 라듐 한 알일까요?"

분명히 그렇지. 어쩌면 이 사건 전체에서 라듐의 존재와 힘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일지도 모른다.

위대한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이 조끼 주머니에 라듐 염을 담은 튜브를 넣고 다니던 어느 날, 며칠 뒤 피부에 고름이 낀 궤양이 생겼다. 퀴리 부인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고, 결과는 동일했다.

마그네크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했다. 라듐 알갱이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그의 손에는 암처럼 보이는 상처가 생겼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스스로 말한 기적의 돌에 대한 이야기들—지옥의 불처럼 타오르고 생명도 죽음도 주는 그 돌—에 경악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손을 베어냈다.

"좋소." 스테파느가 말했다. "하지만 순수한 라듐 입자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신의 돌'의 파편일 리가 없어. 아무리 풍부한 광석이라도 라듐은 고립된 입자 상태로 들어 있지 않거든. 용액 상태로 존재하다 여러 공정을 거쳐 농축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화할 수 있을 만큼의 순도로 만들어내야 해. 이런 작업에는 막대한 설비와 공장, 연구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필요해.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문명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조상인 켈트족이 살던 야만 시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할 거야."

돈 루이스는 미소 지으며 젊은이의 어깨를 툭 쳤다.

"좋아, 스테파l. 프랑수아의 스승이자 친구가 이렇게 명석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니, 기쁘군. 네가 제기한 의문은 완벽하게 정확해. 나도 그 순간 바로 그 점을 깨달았지."

"나는 아주 합당한 가설을 하나 들어 설명할 수도 있어. 라듐을 분리해 낼 자연적인 수단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보자. 화강암의 균열 깊숙이, 라듐 광석이 가득 찬 거대한 공간이 있다고 치자. 그 안에서 균열이 생겨 강물이 천천히 스며들고, 미세한 라듐 입자들을 실어 나른다.

그렇게 오염된 물이 좁은 통로를 길게 흐르며 합쳐지고 농축된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 작은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여과되고, 결국 출구 지점에 라듐이 매우 풍부한 작은 종유석이 형성된다. 그리고 어느 날, 켈트족 전사가 그 끝부분을 부수어 버린 거지."

"하지만 그렇게 먼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가설에 의존해야 할까? 자연의 재능과 무한한 자원만 믿으면 되지 않겠나? 자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순수한 라듐 알갱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체리를 익히거나 장미를 피우거나, 혹은 사랑스러운 '토바비앙'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일까? 어때, 작은 프랑수아? 우리 의견이 일치하는군?"

"저는 항상 동의합니다." 아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돌신자의 기적을 너무 아쉽지 않게 여기는 거야?"

"하지만 기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맞아, 프랑수아. 기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백 배 더 아름답고 찬란해. 과학은 기적을 죽이지 않아. 기적을 정화하고 격상시키지. 저 작은 권력은 무엇이었나? 교묘하고, 변덕스럽고, 악의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그 권력은 마법의 지팡이 끝에 달라붙어, 야만족의 우두머리나 드루이드의 무지한 취향에 따라 제멋대로 움직였잖아. 그것이 오늘날 라듐의 먼지 너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하고, 명확하고, 정직하며, 여전히 기적적인 그 힘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도 루이스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과학 찬가를 부르고 있었네요. 실례했습니다, 마담."

그는 일어나 베로니크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제 설명 때문에 지루하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정말 지루하지 않았죠? 아무튼, 이야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명확히 하고,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는 그녀 옆에 자리에 앉았다.

"자, 이제 우리가 '신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보물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베로니크는 온몸으로 반발했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렉에서 나온 것은 원치 않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것도요. 우리는 일해서 벌겠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은 당신의 소유인데……"

"아니요, 베로니크 데르제몽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은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두 경매에 부치세요. 저는 저주받은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예전처럼 제 일로 살아가죠. 그리고 프랑수아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사랑?"

그녀는 본능적으로 스테파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마치 그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당신도 저를 지지해 주시겠죠, 친구?"

"물론이죠." 그가 말했다.

그녀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다만, 아버지의 애정이 의심스럽지는 않지만, 저에 대한 그의 진정한 의도를 증명할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 증거가 제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 루이가 말했다.

"어떻게요?"

파트리스와 나는 사레크로 다시 돌아갔다. 마귀노크의 방에 있던 서랍장 깊숙한 곳, 숨겨진 서랍에서 봉인이 된 봉투 하나를 건졌다.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십 프랑짜리 연금 증서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 적힌 글은 이랬다.

"내가 죽은 뒤, 마귀노크는 이 증서를 스테파노 마루에게 건네라. 나는 내 손자 프랑수아를 그에게 맡긴다. 프랑수아가 열여덟 살이 되면

이 증서는 그의 것이 된다. 나는 그가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갈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어머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 믿는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축복한다."

"여기가 바로 증서입니다, 도니 루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편지입니다. 날짜는 올해 사월입니다."

베로니크는 깜짝 놀랐다. 돈 루이스를 바라보며, 이 기묘한 남자가 자신과 아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순간적인 착각이었다.

결국 드헤르몽 부인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사후에 닥칠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손자를 챙긴 것뿐이었다.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거절할 권리는 없어요…

"그건 더욱 더 그러할 수 없습니다!" 돈 루이가 소리쳤다. "이 일은 당신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프랑수와와 스테파느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 이 점에서는 우리가 의견이 일치합니다."

"남은 것은 피에르디외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그 돌을 어떻게 할까요? 그 돌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베로니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것?"

"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돌을 발견했고, 당신만이 그 돌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했으니까요."

돈 루이가 말했다.

"이 돌덩이는 아마도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자연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렇게 귀중한 물질을 이토록 작은 공간에 압축해 넣은 것은 기적적인 사정들이 어우러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물이, 보물이 숨어 있는 셈이죠."

"좋아요. 베로니크."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 보물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돈 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웃으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이런 결말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첫째, '신석'에 대한 제 권리가 확실한 소유권 증명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돌덩이가 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헤미아 왕들의 묘비석은 마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마력이 작용할 부족들이 많죠. 우리 선조인 갈리아족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지금 거대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몇 년 뒤, 제 작업이 완성되면 '신석'을 프랑스에 가져와 제가 설립할 국가 연구소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학이 '신석'이 저지른 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렉의 불운도 보상받을 수 있죠.

여보게요, 당신도 동의하시겠지요?"

그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진심으로요."

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돈 루이스 페레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맞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도 무서운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으로 인해 깊은 불안감만 남겼죠. 하지만 이번 일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건 논리도 없었습니다. 미친놈의 짓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미치고 어둠에 휩싸인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도 한몫했죠. 바로 전쟁이 그 기회를 놓쳐주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괴물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범죄가 가능해졌으니까요."

"평화로운 시절에는 괴물들이 자신의 어리석은 꿈을 끝까지 실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립된 섬에서는 그에게 특별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조건이 주어졌죠."

"그건 이제 그만합시다." 베로니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루이스는 젊은 여자의 손을 입맞춤했다. 그러곤 퉁퉁이를 끌어안아 품에 안았다.

"당신이 옳아요. 그건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안 그러면 눈물부터 터져 나올 테고, '모두 잘되'는 녀석은 우울해지겠지요. '모두 잘되', 그 달콤한 '모두 잘되', 끔찍한 사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재미있고 입체적인 에피소드는 떠올려 볼 만하죠. 마그네크의 거대한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을, 기억나나요? '바위신'의 전설도 그렇고요. 왕들의 묘비를 등에 업고 떠돌던 켈트 부족들의 서사시, 라듐으로 인해 전율하던 묘비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생기를 불어넣는 기적 같은 원자들의 폭격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모두 잘되', 그건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보세요, '모두 잘되'여, 만약 제가 소설가였다면 이 섬의 끔찍한 진실을 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겼을 테죠. 지루하고 말장난 좋아하는 도 루이스의 개입은 과감히 삭제하고, 당신을 담담하고 용감한 구원자로 세우겠어요.

당신이 그 끔찍한 괴물과 맞서고, 그 음모를 무력화하며, 끝내 놀라운 직관의 힘으로 악을 벌이고 선을 승리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모두 잘되',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사실을, 하나보다 하나 더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니까요.